



대구대학교 70년사

1956-2026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대구대학교 70년사

1956-2026

‘사랑·빛·자유’의
큰 뜻 품은 70년 대구대학교









대학 상징

건학정신

사랑·빛·자유

‘사랑·빛·자유’는 기독교적 인류애를 바탕으로 진리 추구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대구대학교의 건학정신이다. 인류 복지와 개인 행복의 조화로운 실현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어둠을 밝히는 빛,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해 오늘도 대구대학교는 힘찬 응지와 따뜻한 지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개교 70주년 기념 엠블럼

대구대학교 개교 70주년
함께한 70년 더 큰 미래로 100년



대구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대학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젊고 밝은 학교 이미지를 형상화한 엠블럼을 제작하였다. 숫자 70에서 7의 가로기둥은 학생, 가로기둥을 지탱하는 세로기둥은 교직원들을 상징하였다. 또한 대구대학교 브랜드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엄지를 든 마스코트 두두(DODU)를 숫자 0에 배치하였으며, 숫자 70과 영문은 대학의 시그니처 컬러인 DU Green으로 통일하여 단순화하였다. 또한, 엠블럼과 함께 대학의 미래 비전을 담아낸 개교 7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함께한 70년 더 큰 미래로 100년’을 선포하였다.

교훈



큰 뜻을 품어라

‘큰 뜻을 품어라’라는 교훈은 ‘사랑·빛·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애의 정신적 바탕 위에 만인의 복지와 개인의 행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높은 이상과 실천의 힘을 가진 역군이 되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자는 뜻이다.

심벌마크



UI

심벌마크는 꿈과 이상을 담아 펼쳐이는 깃발의 형상을 모티브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대구대학교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린캠퍼스, 희망’의 Green Color를 적용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인간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점점 짙어지는 3단계 Color를 사용하여 미래로 점차 나아가는 확산의 느낌을 주고 있다.

교화



백일홍

꽃 중 가장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뽐내는 백일홍처럼 대학에서 배운 가르침을 오랫동안 잊지 말고 온 세상을 위해 실천하라는 의미이다.

교목



소나무

소나무는 거친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능률함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큰 뜻을 품고 ‘사랑·빛·자유’를 실천하는 불굴의 의지를 상징한다.

상징동물



비호

비호(飛虎)는 ‘포효하며 질주하는 호랑이’처럼 불굴의 기백과 용맹으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과감히 맞서라는 뜻을 담고 있다.

목차

제1편
사랑이 움트다

016	발간사	대구대학교 총장 박순진
018	축사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 김동건
020	인사말	대구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장 양진오
025	제1장	위대한 배움의 시작
025	제1절	이상과 현실의 간극 메운 선각자의 발자취
030	제2절	‘큰 뜻을 품어라’ 시대의 어둠 밝히는 위대한 부름
033	제2장	대명동에서 발아한 건학의 시대
033	제1절	유량하는 교실, 꺼지지 않는 교육의 불씨
038	제2절	대명동의 기적, 대구대학교 초창기 터전의 형성
046	제3절	대학이라는 서막을 열기까지 부단한 헌신과 단계적 성장
048	제4절	좌절을 딛고 제도의 기반 위에 선 한국사회사업대학
053	제5절	시대의 굴곡 넘어 다시 70년 미래를 향해
057	제3장	100년 교육의 초석 놓은 경산 캠퍼스
057	제1절	더 커진 미래 수용할 경산 캠퍼스 시대 활짝
062	제2절	종합대학을 향한 첫 발걸음, 대구대학교로의 교명 변경
064	제3절	이태영 초대 총장의 회고: 혼돈의 시대 헤쳐나간 개척자의 길
072	제4절	특수교육부터 재활과학까지, 시대를 선도할 학문의 정립
075	제5절	포용의 미래 앞당기는 체계적인 만민복지의 실천
081	제4장	사랑의 가치 증명한 70년 발자취
081	제1절	위기를 기회로, 응전과 승리로 빛나는 여정
084	제2절	지역과 세계로 확장해 나간 70년 사랑의 외연

제2편
빛이 퍼지다

093	제1장	시대를 선도한 교육혁신의 발걸음
093	제1절	대학의 성장을 이끌어온 전공교육의 변천
122	제2절	학부 교육의 질적 패러다임 선도한 교양교육 혁신
130	제3절	깊이 있는 교육과 전문인재 양성의 전당, 대학원의 진화
140	제4절	지역과의 따뜻한 동행 속에서 자라는 교육혁신
142	제2장	학생활동: 자치와 대학문화, 그리고 열정의 연대기
142	제1절	학내 민주화의 중추, 학생자치의 형성과 정착
148	제2절	또 하나의 대학문화 역사, 동아리
156	제3절	자치와 성장의 배움이 살아 숨 쉬는 비호생활관
158	제4절	진실을 기록하고, 시대와 소통한 대학 언론
159	제5절	비호의 이름 새긴 역동적인 대학의 얼굴, 체육부
162	제3장	함께 살아가는 배움의 현장, 봉사활동
162	제1절	연대와 실천으로 시대와 함께한 농촌 봉사활동
164	제2절	제도화와 교육기부로 뿌리 내린 봉사시스템 정착
168	제3절	타슈켄트에서 비엔티안까지 해외 봉사활동으로의 확장
174	제4장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장한 글로벌 교류
174	제1절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세계를 향한 손길
176	제2절	35개국 619개 네트워크로 성장한 글로벌 대구대학교
178	제3절	글로벌 허브 넘어 상호 성장의 플랫폼으로 도약
179	제4절	국제화의 질적 신뢰도 상승과 포용적 기회 제공
182	제5장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70년 동행
182	제1절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역과 호흡하는 평생교육의 터전
186	제2절	지역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동력, 산학협력
189	제3절	지역과 함께 문화를 빛어내는 중앙박물관
194	제6장	지역에서 세계로 뻗어나간 70년의 발자취

제3편 자유가 춤추다

199	제1장 대학자치의 닛 올린 대학 민주화와 학생 운동
199	제1절 구성원이 주인 되는 총장 직선제 도입과 학내 민주화
212	제2절 민주주의 향한 청년의 외침, 학생 운동과 사회 참여
236	제2장 대립과 갈등 극복한 영광학원 정상화의 기록
236	제1절 파란만장 했던 법인 분류와 정상화 과정
242	제2절 대학 민주화의 대장정을 함께한 구성원들의 노력
246	제3장 대구대학교의 이름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들
246	제1절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를 쓰고 있는 동문들의 활약
250	제2절 군사·문화예술·AI 혁신 분야 대학의 위상 드높인 동문들
254	제3절 역경 딛고 사회복지의 새로운 역사를 쓴 동문들

제4편 큰 뜻으로 나아가다

261	제1장 위기를 넘어 혁신의 시대로
261	제1절 팬데믹 극복 위한 대구대학교의 치열한 노력
270	제2절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구조조정
280	제3절 명암 엇갈린 글로벌대학30 사업과 RISE 사업
285	제4절 학생이 중심이 되는 대구대학교의 교육혁신
290	제5절 대구대학교 캐릭터 '두두'가 그리는 대학 브랜드의 내일
295	제2장 미래를 견인하는 대구대학교의 도전
295	제1절 언어와 시간의 장벽 허문 AI 교육 혁명
296	제2절 대학의 체질을 개선한 LINC와 ACE 사업
297	제3절 SW산업 인재 양성의 거점,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
301	제4절 AI·SW 융합 교육의 심장 깨운 SW중심대학 사업
304	제5절 현장 중심 반도체 분야 인재의 산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306	제3장 학생의 꿈을 응원하는 대구대학교의 약속
306	제1절 학생 주거 안정 완성한 행복기숙사 라이트하우스
308	제2절 캠퍼스 낭만과 학생 복지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정비
314	제3절 대구대학교의 지하철 유치를 위한 노력과 유산
317	제4절 학생 취·창업 지원을 위한 탁월한 역량

부록

322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대구대학교의 오늘
324	설립자 연보
326	초대 총장 연보
328	역대 총장
330	법인 연혁 및 현재 임직원, 산하 학교 현황
332	학교법인 영광학원 역대 이사 및 감사
338	역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
340	하늘에서 본 대구대학교 캠퍼스의 변화
350	대학 연혁
358	편찬 후기



발간사



사람을 향한 70년의 역사

자랑스러운 대구대학교의 7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지난 70년 대구대학교의 시간은 짧지 않은 역사입니다. 한 세대가 태어나 성장하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대구대학교는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대구대학교 70년사』는 대학의 지난 발자취를 정리하고 기록한 소중한 역사서이자,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뜻깊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대학은 성산 이영식 목사님의 숭고한 건학 정신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의 혼란과 전쟁의 아픈 상처가 채 가시지 않았던 시절, 목사님께서서는 교육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밝히려는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과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신념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사랑·빛·자유’의 건학이념은 그런 삶과 철학에서 비롯된 가치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고등교육 현장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일을 감당하며 새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특수교육과 사회복지, 재활 분야를 선도하며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냈으며, 배움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대구대학교가 걸어온 길은 한 대학이 성장해 온 역사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교육의 역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니다. 우리 대학을 둘러싼 수많은 위기와 환경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늘 당당히 도전하며 성취를 거듭해 왔습니다. 여러 위기 앞에서 구성원

모두가 대학을 지키고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며 길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의 헌신, 학생들의 열정과 동문의 애교심, 그리고 모두의 자긍심이 쌓여 오늘날 이렇게 큰 대구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70년사는 우리 대학이 성취해 온 역사를 회고하면서, 지난 70년을 함께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대를 함께 견뎌낸 땀과 열정, 학생들을 향한 교육자의 헌신과 진심, 그리고 교정 곳곳에 새겨진 대학을 사랑해 온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반추하고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록물을 넘어, 대구대학교 공동체 모두의 삶과 추억이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지나온 시간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떤 가치 위에서 출발했는지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학 개교 70주년을 맞아 발간하는 『대구대학교 70년사』는 우리 모두 함께 한 지난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더 큰 미래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날의 빛나는 전통 위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인 특수교육·사회복지·재활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는 동시에 미래 사회를 앞서 준비하는 교육혁신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비롯하여 산학협력과 지역혁신, 글로벌 교육혁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혁신에도 사람을 중심에 두는 우리 대학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구대학교 70년사』 발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양진오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위원, 실무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 덕분에 대구대학교의 소중한 역사와 정신이 더 큰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이 우리 대학의 역사와 정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 6월
대구대학교 총장 박 순 진

축사

위대한 70년 역사 넘어
미래 이끌 창 의와 혁신으로

대구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그간의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집대성하고 미래의 도약을 도모하는 70년사가 발간된 것을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0년 동안 대구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을 바쳐 오신 설립자님과 역대 이사장님, 총장님, 그리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학을 일구어내신 교직원과 학생, 동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방대한 역사적 기록을 고증하고 정리하며 이번 70년사 편찬을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개교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행사·출판위원회 출판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70년사는 단순히 지나온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대학이 지켜온 고유한 가치와 정신을 재확인하며 앞으로 나아갈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축적된 기록 하나하나에는 시대의 격변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대학의 도약을 이뤄내고자 했던 구성원들의 고귀한 헌신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70년 역사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늘 함께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실천해 온 과정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토대에는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설립자이신 이영식 목사님의 숭고한 교육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평생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시다 옥고를 치르신 독립운동가로서 시대의 정의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광복 이후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대구맹아학원을 설

립하여, 배움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이들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실현한 이 역사적 출발은 오늘날 영광학원과 대구대학교를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립자의 정신은 '사랑·빛·자유'라는 건학이념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태영 초대 총장님을 비롯한 역대 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해 대학의 모든 교육과 운영의 기준으로 일관되게 계승되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대구대학교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사회적 환경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대학은 건학이념을 중심에 두고 지혜롭게 극복해 왔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복지·문화 영역에서 유기적인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해온 점은 대구대학교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성과입니다.

이번 70년사 편찬은 과거를 기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난 성과와 시행착오를 함께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등교육 환경은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의 심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확산 등 급격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구대학교는 앞으로도 창의·융합 교육과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에 기여하고, 연구와 산학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과 국가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법인 영광학원 또한 대구대학교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중장기 발전을 이루고 공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70년의 역사는 위대한 성과이자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이어져 온 전통과 정신을 바탕으로, 대구대학교가 앞으로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6월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 김 동 건

인사말

‘사랑·빛·자유’의 정신 품은
자랑스러운 70년 기적의 역사

『대구대학교 70년사』의 발간은 그동안 우리 대학이 걸어온 격동과 도약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세상에 내놓게 된 것으로서 무척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70년사는 지난 50년사와 60년사가 이룩한 성과를 고스란히 계승하면서도,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이전과는 다른 방향에서 우리 대학의 발자취를 서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편찬 작업에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나 편년체 중심의 기록을 넘어, 대학의 주인공인 모든 구성원이 실제로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살아 숨 쉬는 읽히는 대학사’를 지향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행정 연혁이나 제도 중심의 기록에만 머무르지 않고, 뜨거웠던 교육 현장의 숨결과 구성원들의 삶의 궤적,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내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서술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대학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구대학교가 그저 흔한 대학 가운데 하나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남들처럼 완비된 캠퍼스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다. 시작은 초라하고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외형이 아닌 위대한 ‘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건학정신인 ‘사랑·빛·자유’의 정신입니다. 이 고귀한 정신적 자산을 바탕으로 출발한 대구대학교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던 이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배움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 확산하며, 가슴에 큰 뜻을 품은 인재들을 길러 왔습니다. 외형적 성과나 거대한 규모만으로는 대구대학교가 지닌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배움의 본질과 인간 존중의 의미를 끊임없이 묻고

성찰해 온 우리 대학만의 고유한 시간은, 대한민국 고등교육 역사상 다른 어떤 대학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독보적이고 소중한 자산이라 자부합니다.

그렇기에 대구대학교의 역사가 우리나라 대학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을 가르치는 수많은 교육기관 중 하나가 아니라 대학이 과연 어떤 정신과 사명감 위에서 존재해야 하는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역사입니다. 우리 대학은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위기와 도전 앞에 주저앉기보다,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때로는 모진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돌아가기도 했지만, ‘사랑·빛·자유’의 정신을 단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비로소 오늘의 대구대학교가 당당히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지나왔는가 아니라,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련의 시간을 견뎌냈으며, 어떤 가치를 품고 내일을 준비하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편찬된 『대구대학교 70년사』는 단순히 흘러간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 만든 책이 아닙니다. 우리 대학이 어떤 정신으로 출발했는지, 그리고 거친 풍랑 속에서도 무엇을 끝까지 지키며 성장해 왔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이 책의 장마다에는 수많은 이름과 장면, 그리고 구성원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알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대구대학교를 기억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이자 원동력으로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귀중한 역사서의 편찬을 위해 소중한 사료와 귀한 기억들을 기꺼이 나누어 주신 대학의 모든 구성원과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긴 시간 동안 방대한 자료를 고증하고 원고 집필과 정리에 헌신해 주신 연구위원, 실무위원 여러분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 6월

대구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장 양진오

제1편

사랑이 움트다

1

- 제1장 위대한 배움의 시작
- 제2장 대명동에서 발아한 건학의 시대
- 제3장 100년 교육의 초석 놓은 경산 캠퍼스
- 제4장 사랑의 가치 증명한 70년 발자취

초기 설립기와 경산 캠퍼스 시대 개막

해방의 혼란 속에서 피어난 이영식 목사의 신앙적 결단은 단 한 사람도 배움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본주의의 실현이었으며, 오늘날 '사랑·빛·자유'의 거대한 숲을 이룬 대구대학교의 시작이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황무지 위에서 피어난 그의 소명은 대구대학교 70년 성장의 역사 속에서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고,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교육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지를 증명하는 '사랑의 대서사시'였다.

서언(序言)

세상이 외면한 눈물을 닦아
시대의 등불이 된 대구대학교 70년 사랑

1945년 8월 15일, 칠혹 같던 식민의 밤이 물러가고 해방의 아침이 밝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곧 이념의 갈등과 빈곤의 늪에 빠져들었다. 정치는 민생을 돌볼 여력이 없었고, 교육은 오직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출세의 도구로 전락해 가던 시절이었다.

그 어두운 거리에서 이영식 목사는 고뇌에 잠겼다. “누가 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볼 것인가?” 기도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그의 시선은 가장 낮은 곳,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외면당한 장애인과 소외계층으로 향하였다. 거룩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대구 시내의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사랑의 불씨는 마침내 경산의 너른 벌판에 커다란 배움의 터전으로 거듭나게 된다. 척박한 땅을 일궈 건물을 세우고, 길을 내며, 학생들의 꿈을 묵묵히 키워낸 과정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학생들과 스승들의 땀방울로 얼룩진 대장정의 기록은 이영식 목사의 숭고한 선택과 희생으로 피워낸 사랑의 꽃이다. 그 꽃은 배움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교육으로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라는 씨앗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한 사람의 신념과 사랑은 어떻게 한 대학의 역사가 되었나.

그 질문의 답을 따라가는 과정이 바로 대구대학교 70년 역사의 시작이다.

제1장

위대한 배움의 시작

제1절

이상과 현실의 간극 메운 선각자의 발자취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향한 숭고한 사랑의 역사

만민은 평등하다는 명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인류의 이상으로 군림해 왔다. 그러나 역사는 고결한 이상보다는 비참한 현실을 더 집요하게 기록해 왔다.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차별 없는 교육은 한 나라의 자유와 평등의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였으나 현실은 늘 그 기대를 저버렸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메워나가는 이들을 우리는 ‘선각자’라 부른다. 선각자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길을 걷지 않는다. 시대가 던진 질문을 온몸으로 꺼안고, 스스로를 던져 새로운 길을 내는 존재이다. 대구대학교의 초석을 놓은 이영식 목사는 바로 그 시대의 선각자였다. 그는 사회적 외면 속에 매몰되지 않고, 사랑이라는 비전으로 역사의 진보를 이끌어냈다.

사회가 성숙해졌다는 오늘날에도 장애인이 겪는 불편과 소외는 여전하다. 하물며 70여 년



| 서성로 중앙교회에서 대구맹아학교 창립(1946.4.9.)

전, 이영식 목사가 건학의 꿈을 키우던 시대에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들은 국가의 통계에도, 정책의 우선순위에도, 공적 언어의 영역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장애로 인한 불행은 오직 개인의 몫이었으며, 숙명처럼 감내해야 할 고통으로 치부되었다.

그들에게 학교는 마음으로조차 품을 수 없는 먼 세계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영식 목사는 그 외면당한 존재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무한한 존엄성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대구대학교가 세상의 성공을 쫓는 교육이 아닌, 소외된 존재를 품는 거룩한 소명에서 출발하게 된 배경이다.

이영식 목사가 시대의 선각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그의 삶의 궤적에서 비롯된다. 그는 자유를 억압하던 식민지 현실을 결코 방관하지 않았다. 1919년 대구 3·8만세 운동의 주역으로 참여했던 그는 투옥과 고문의 과정에서 청각을 잃는 시련을 겪었다. 그의 삶은 이론이나 담론이 아닌, 차가운 감옥과 육체적 고통이라는 처절한 현실 위에서 다져졌다.

이후 목회자의 길을 택한 그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인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



| 계성학교 서남지방 학우회에서 이영식 목사(맨 앞줄 오른쪽에서 2번째, 1916) |

는 사랑을 온몸으로 배우고 증명하였다. 메시아인 예수가 신과 인간을 잇는 다리가 되었듯, 이영식 목사 또한 스스로 다리가 되어 소외된 이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하였다.

잊힌 이들의 이름을 불러내는 복원(復元)의 사명 실천

이영식 목사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사랑’이다. 그에게 사랑은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기독교적 사랑에 기반한 그의 헌신은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한센병 목회, 특수교육 학교 설립,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이라는 열매로 맺어졌다. 대구대학교의 70년 역사는 바로 이 숭고한 사랑의 흔적 위에 세워졌다.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외면했던 이들에게



| 대구 애락원 초창기 전경



사이판의 전몰무명 한국인 묘비 제막식에서 이영식 목사 |

건넌 그 뜨거운 손길로부터 대구대학교의 역사는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영식 목사의 사명은 교정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태평양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간 해외 무명 전몰자들의 유해를 찾아 나서는 길을 택하였다. 1977년, 서태평양 티니안(Tinian)섬에 그가 세운 위령탑은 나라 없는 설움 속에 잊혔던 동포들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의 짓밟힌 존엄을 회복하려는 실천적 의지였다.

설립자가 주도하고 대구대학교가 오늘날까지 계승해온 이 추념 사업은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유산이다.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자로 취급받던 장애 아동을 배움의 장으로 불러냈듯, 이영식 목사는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 있던 희생자들을 다시 '존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복원의 사명은 대구대학교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는 공동체임을 증명하고 있다.

'사랑·빛·자유', 70년 동안 흔들림 없는 굳건한 뿌리

대구대학교의 70년 역사에는 설립자의 거룩한 실천으로부터 시작된 '사랑·빛·자유'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 사랑은 배제된 만민을 교육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실천적 각성이다.
- 빛은 차별과 편견의 어둠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밝혀내려는 생명의 에너지다.
- 자유는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 만민을 자기 삶의 주체로 세우려는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이 세 가지 가치는 대구대학교가 마주했던 숭한 위기마다 바로 서게 한 나침반이었다. 역사의 굽이에서 때로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기도 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침체와 위기에 직면하

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이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구대학교는 길을 잃지 않았다.

현재 대구대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와 생존을 향한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다. 대학의 규모와 순위, 경쟁력을 강조하는 외부의 요구가 거세고, 미래 비전을 둘러싼 목소리들이 안팎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토록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곳은 외부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뿌리인 건학 정신이다.

사랑은 지금 이 사회가 가장 갈구하는 가치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방향이다. 대구대학교의 지난 70년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의 가치를 선택했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제 70년을 넘어 100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대구대학교의 가능성은 다시 한번 ‘사랑의 선택’ 위에서만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큰 뜻을 품어라’, 시대의 어둠 밝히는 위대한 부름

‘큰 뜻’이라는 가치의 재해석과 ‘품어라’의 미학

대구대학교의 교훈 ‘큰 뜻을 품어라’는 학생들에게 높은 목표와 성취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수식어는 단지 외형적인 규모나 세속적인 성공의 크기를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의 출세보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갈 시대적 책임과 가치를 품으라는 고귀한 요청이다.

우리는 각자도생이라고 일컫는 시대를 살고 있다.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오직 우승열패(優勝劣敗)의 성과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학교는 자칫 스펙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하기 쉽다. 그러나 대구대학교는 묻는다. “서로의 삶을 외면하도록 훈련받는 사회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대구대학교의 교훈은 자기 자신만을 향한 욕망을 넘어 타인의 삶까지 껴안아야 함을 가르친다. ‘큰 뜻’은 경쟁의 수단이나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 크고 넓은 정신으로 연결하는 인생의 지침이다. 따라서 이 지침과 함께 하는 삶은 인고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품어라’에는 서두르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오래 지니라는 기다림의 미학이 담겨 있다. ‘뜻’은 순간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지속되는 지향이다. 무엇인가를 품는다는 행위는 곧 그 대상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설립자 이영식 목사가 대구맹아학교를 세울 때, 거대한 성공을 예감하고 일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했을 뿐이며, 교육에서 소외된 이들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삶으로 품어내었다. 대구대학교 학생들에게 ‘큰 뜻’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입학의 순간 품었던 소망이 때로는 불안 속에 희미해질지라도, 그 뜻을 끝까지 품어내는 과정을 통해 인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모든 학문으로 번져가는 ‘사랑·빛·자유’의 정신

대구대학교의 특수교육은 단순히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로만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대학이 감당해야 할 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정립한 역사였으며, 교육의 목적을 다시 묻는 근본적인 성찰이었다. 당시 특수교육은 국가적 우선순위도, 사회적 합의도 없는 척박한 영역이었다.

그럼에도 대구대학교가 가장 가르치기 어렵고 성과가 더딘 특수교육을 학교의 중심에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효율이나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교육이 인간을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를 묻는 큰 뜻의 선택이었다. 이미 준비된 이들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된 이들을 배움의 공동체로 초대하는 실천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구대학교가 지향해온 본질적인 ‘큰 뜻’의 모습이다.

대구대학교의 ‘큰 뜻’은 특수교육과 사회복지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공공인재대학, 글로벌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보건바이오대학, IT·공과대학, 디자인예술대학, 사범대학, 재활과학대학, 체육레저학부, 문화콘텐츠학부, 자유전공학부, 글로벌라이프대학, 국제대학 등 모든 학문 단위로 퍼져나간 이 정신은 ‘이 학문이 왜 필요한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는 가치가 되었다. 영역의 확장은 방법일 뿐, 본질은 대학이 키워내는 인재상에 있다.

대구대학교가 지향하는 인재는 경쟁의 승자가 아니다. 전문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 능력을 누구를 위해 써야 하는가’를 먼저 고민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재능을 나눌 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타인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사람, 곧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결국 ‘큰 뜻을 품어라’는 건학 정신인 ‘사랑·빛·자유’와 분리될 수 없다. 사랑이 인간을 향한 책임의 출발이라면 빛은 그 책임을 분별하는 지성의 태도이며, 자유는 그 실천이 지향하는 궁극의 상태이다. 대구대학교의 70년은 이 세 가지 가치를 교육의 현장에서 구현하려 했던 담대한 마음, 즉 ‘큰 뜻’의 역사이다.



제2장

대명동에서 발아한 건학의 시대

제1절

유랑하는 교실, 꺼지지 않는 교육의 불씨

장애인 교육 공론화 이끌어내 ‘대구맹아학원’ 개교

영광학원 80년, 대구대학교 70년의 역사는 번듯한 교지나 건물이 마련된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지만, 교육의 끈만은 놓지 않겠다는 절박한 소명만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46년 4월 19일, 경상북도 도청에서는 한국 특수교육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다. 바로 이영식 목사의 제안으로 성사된 ‘대구맹아학원 설립 기성회’ 창립총회였다. 김의균 지사를 비롯한 지역의 정치·종교·교육계 인사 58명이 모인 이 자리는, 사회적 시야 밖에 놓여 있던 장애인 교육을 공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비록 재정과 교육 공간 마련은 요원했지만, 장애인 교육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임을 선언함으로써 대구대학교 설립의 실질적 태동기를 맞게 되었다.

총회에서는 학원의 운영 원칙을 담은 ‘대구맹아학원 규칙’이 제정되었고, 명예 원장에 김의균 지사, 이사장 겸 원장에 이영식 목사가 각각 선출되었다. 조직 또한 ‘대구맹아학원 후원회’로 정비되며 장기적 지원을 모색하였다. 이후 1년 동안 지역 인사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차입



| 방송국 앞 원사에서 시상하는 이영식 목사(1947)



| 아담스 선교사 사택(맹아동 수업장소, 1947.10.1)

금, 그리고 임시로 빌린 교사에 의존하며 개교 준비를 이어갔다.

1947년 4월 9일, 대구맹아학원은 대구시 태평로 3가 150번에 소재한 대구 중앙교회를 빌려 개교식을 치르면서 문을 열었다. 시각장애 학생 2명과 청각장애 학생 10명, 총 12명의 학생으로 그 첫걸음을 뒀으나 정착의 길은 험난하였다. 이후 학원은 중앙교회에서 제일교회로, 다시



대구맹아학교 교사 신축 기념(1955.4.9) |

이영식 목사의 사택과 대신동 아담스 목사의 사택, 대구시 소유 건물로 끊임없이 자리를 옮겼다.

도심 이곳저곳을 유랑하는 교실은 늘 불안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핍은 역설적으로 대구맹아학원의 존재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하였다. 빈듯한 건물은 없었으나,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가르치겠다는 열의가 학원을 지탱하는 강력하고 유일한 기둥이었다. 터를 확보하고 교육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터를 찾아 나섰던 이 유랑의 시기는 훗날 대구대학교가 가질 인고와 개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국회에서 열린 발표회와 공적 승인, 시혜에서 권리로

재정 문제와 교육 인가 문제는 학원의 상시적인 과제였다. 시립 학교로의 전환이나 후생 단



| 맹·농아 학생 수업장면(1947)

체 등록을 시도했지만 제도적 장벽이 높았다. 학원은 대구시와 문교부의 제한적인 운영비 지원에 의지해 가까스로 버텼다.

이처럼 매 순간이 힘겨웠던 도전 속에서 이영식 원장은 학원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맹농아 작품전과 학예 발표회를 열어 교육의 결실을 세상에 증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1949년 국회에서 열린 원생들의 학예 발표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 행사는 장애인 교육이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자선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교육권의 영역임을 입법 기관에 각인시켰다. 이를 계기로 국고 지원의 길이 열리면서 대구맹아 학원은 비로소 공적 교육 체계 안에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교육의 의지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은 어렵게 쌓아 올린 교육의 기반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건물이 군에 징발되고 이영식 원장이 체포 위기에 처하는 등 학교의 존립 자체가 흔들렸다. 그러나 전



| 6·25 전쟁 시기 천막수업(1950)

쟁의 참화 속에서도 교육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 고아와 피란민 중 시각 장애아와 청각 장애아가 급증하는 비극적 현실을 마주하며, 학원은 남은 공간을 쪼개어 수업을 재개하였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중등과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교육의 질적 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설립자의 단호한 의지였다. 이러한 와중에 국내외 구호·원조 단체와 교계의 지속적인 지원은 암흑기를 버티게 해준 소중한 버팀목이 되었다. 전쟁조차 멈출 수 없었던 이 시기 배움에 대한 열망은 대구대학교 70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인간 존엄의 증거'로 기록되고 있다.

제2절

대명동의 기적, 대구대학교 초창기 터전의 형성

‘학교’ 개칭 이후 공동묘지 터에 사랑의 성전 건립

1951년 여름, 대구맹아학원은 전쟁이라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7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영식 원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은 학원 교육을 공적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된다. 이 자리에서 학원은 ‘학교’라는 명칭을 선택하며 조직과 규범을 정비하였다. 이는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제도적 운영 체계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운영 체계 역시 부원장과 원감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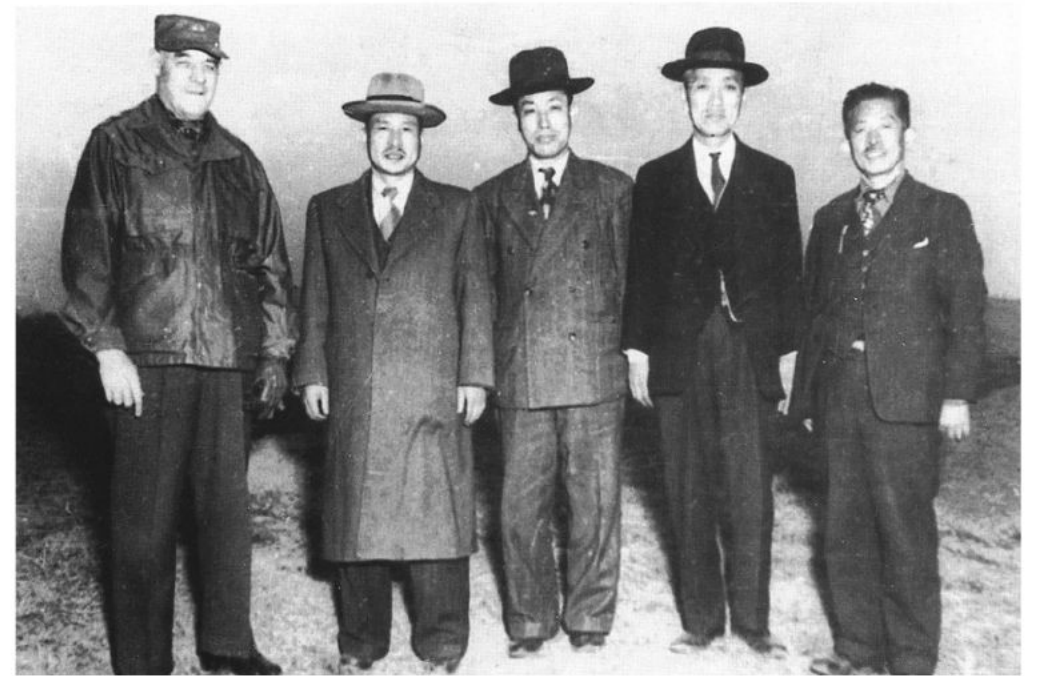
그러나 제도만으로 학교가 완성될 수는 없었다. 당시 대구는 피란민과 장애 아동이 급증하여 임시 교사로는 교육을 지속하기 어려웠기에 안정적인 터전이 절실했다. 이영식 원장은 미군과 해외 선교 네트워크 등 국제적 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이때 대구시가 제시한 터가 바로 대명동 공동묘지 구릉지였다. 이 곳은 일제강점기부터 조성된 매장지이자 한센인들이 모여 살던 도시의 최변방이어서 학교를 세우기에 결코 수월한 터가 아니었다.

1953년 4월 13일, 대구시의회는 대명동 소재 공동묘지 터 1만 평을 영광학원에 증여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는 장애인 교육을 공적으로 인정한 상징적 조치였다. 당시 김종환 대구시장은 부지 증여와 건축 허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곳에는 이미 음성 한센인 환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이영식 원장은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오랜 대화와 설득을 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애락원 목회 시절 교회 장로로 시무했던 천막촌 대표와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영식 원장의 진심 어린 협조 요청에 대표는 “이곳에서 시민들의 기피 속에 구걸 생활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칠곡군 신동재 인근에 새로운 정착촌을 마련해준다면 철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학교 이전은 강제 이전 보다 사랑과 공감으로 일구어낸 평화로운 합의로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 헬렌 소장의 내방, 이영식 목사와 함께(1953.8.27.)



| 대구 대명동 교지 정리작업을 시찰하는 김종환 대구시장, 김정오 시의회 의장, 미군 맥코이 사령관과 이영식 목사(1953.3.19.)



| 기숙사 낙성식에 테이프를 끊는 맥코이 소장과 축하객들(1953.10.9.)

공감과 연대, 학생들의 헌신으로 일군 기숙사·본관 준공

특히, 대명동 캠퍼스 건립 과정에서 미군 사령부 에스터스(E. Estes) 대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 열악한 현실을 확인한 그는 이영식 목사의 교육관과 학교 건축 계획에 깊이 공감하며 자재와 재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의 도움은 전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교육과 복지의 방향에 대한 국제적 연대의 결과였다.

1953년 거행된 기공식은 그간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였다. 이날 대구시와 미군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울려 퍼진 시각·청각 장애 학생들의 합창은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다. 장애 학생들 스스로가 무대의 중심에 서서 오늘의 이 공간이 새로운 삶과 배움의 터전이 될 것임을 알리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립 공사는 역경의 연속이었다. 공동묘지를 정비할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으나 학교는 재정적 여유가 없었다. 이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시각·청각 장애 학생들이 원대동 임시 교사에서 대명동까지 걸어와 삼과 호미를 들고 작업에 참여한 것이다. 이



| 완공된 대구맹아학교 기숙사 앞에서 전 원생이 함께



| 대구맹아학교 신축 교사 전경(1955)

러한 헌신적인 모습은 주변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곳을 지나던 군 장교의 도움으로 중장비가 투입되면서 정비 작업은 조금씩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수고 끝에 1953년 12월 기숙사가, 1954년 12월에는 본관이 각각 준공되었다. 비로소 학교다운 면모를 갖춘 대명동에서 교실과 식당, 생활공간이 어우러진 진정한 교육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경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대명동은 대구대학교 역사의 근간이자 수많은 동문들이 성장한 교육의 요람이 되었다.

오늘날 대명동 캠퍼스에는 여러 특수학교와 법인, 간호대학이 남아 건학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대구대학교의 기반은 고난 속에서도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숭고한 뜻과 사랑의 정신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황무지에서 힘겹게 시작한 대명동 캠퍼스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계승하고, 미래를 향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해답을 던지고 있다.



| 현재의 대명동 캠퍼스 전경

제3절

대학이라는 서막을 열기까지 부단한 헌신과 단계적 성장

제도의 틀 속에 설계한 고등교육의 꿈, '한국이공학원' 출범

대명동에 교사와 기숙사가 들어서며 물리적 환경은 갖추어졌으나, 이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였다. 설립자 이영식 목사와 이사회는 개인의 헌신만으로는 교육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직시하였다. 그것은 '터전이 확보되었다면 이제 그 위에 어떤 제도를 세울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이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설립자의 눈물 어린 헌신과 신앙적 소명이라는 개인의 동력으로 유지되어 왔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세대를 거쳐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 위에서 작동해야 하였다.

제도화의 첫 실천으로 1956년 '한국이공학원'이 문을 열었다. 설립 인가 과정에서 잠시 '사설 학술 강습회 대구공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승인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곧 원래의 명칭을 되찾았다. 한국이공학원은 유기공업화학과, 무기공업화학과, 가정과학과를 설치하고 총 300명의 정원을 1년 한시로 인가받았다.

한국이공학원의 출범은 특수교육의 성과를 고등교육으로 넓히려는 첫 시도였다. 초창기 특수교육의 성과를 대학 교육으로 확장하고, 전쟁 직후 조국이 필요로 했던 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 재건에 이바지하겠다는 애국적 포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사설 학술강습소라는 법적 지위로는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많았다. 특히 재학생들의 졸업 후 학력 인정과 전문직 진출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미비하다는 점이 큰 과제였다. 이에 이사회는 학원을 '한국이공과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시 국가의 엄격한 인가 기준과 재정적 요건은 거대한 벽이었다.

건학 정신 구현할 정규 대학 설립으로의 당찬 도전

대학 설립이라는 염원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확정된 시기는 1957년 2월 1일 열린 제19회 이사회였다. 이사진은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목표는 고수하되 그에 이르는 방식을 과감히 수정하였다. 특히 한국특수교육재단 설립이 법적 문제로 지연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



| 한국이공학원 교사

색해야 하였다. 이에 기술 중심의 한국이공학원을 '한국사회사업학교'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전쟁 이후 장애인, 전쟁고아, 빈곤층을 포괄하는 소외된 이들을 보듬을 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소명이자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역사적 선택이었다.

이와 함께 향후 설립할 정규 대학의 성격도 재설정하였다. 기존에 검토되던 '한국이공과대학'이라는 명칭은 접고, '한국사회사업대학'이라는 이름을 확정하였다. 대명동에서 시작한 건학 정신을 제도의 틀로 구현하는 취지가 담긴 명칭 변경이다.

이사회는 이러한 방향 전환에 따라 전담 기구인 '한국사회사업대학 설립 기성회'를 출범시켰다. 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된 기성회는 자산 관리부터 예산 심의, 인사권까지 갖추고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강력한 실행 조직으로, 대학 설립 과정에서 요구되는 책임성과 공공성을 내포하였다. 특히 출연된 모든 재산은 오직 학교에 귀속되도록 규정하여 교육의 목적의 전용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과감하고 투명한 운영 덕분에 대구대학교는 초창기부터 사학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갖춘 모범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다.

대구대학교의 역사는 학원에서 학교로, 다시 정규 대학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온 지혜로운 개혁의 과정이었다. 사설 학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사업대학 설립을 준비한 이영식 목사의 믿음이 이러한 과정을 주도하였다. 대구맹아학원 시절부터 '먼저 교육을 실천하여 가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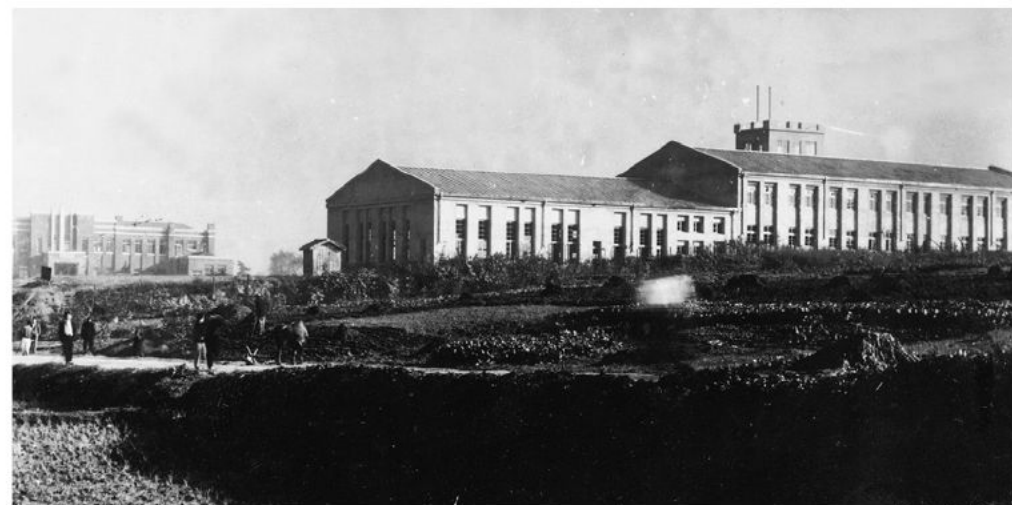
증명하고, 이후에 사회적 공감과 제도적 인정을 확보'하는 대학의 실천 모델이 되었다. 캠퍼스를 대명동으로 옮긴 이후 법적 기틀을 마련하던 이영식 목사와 이사회의 고뇌가 빚어낸 결실에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교육'이라는 대구대학교의 교육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제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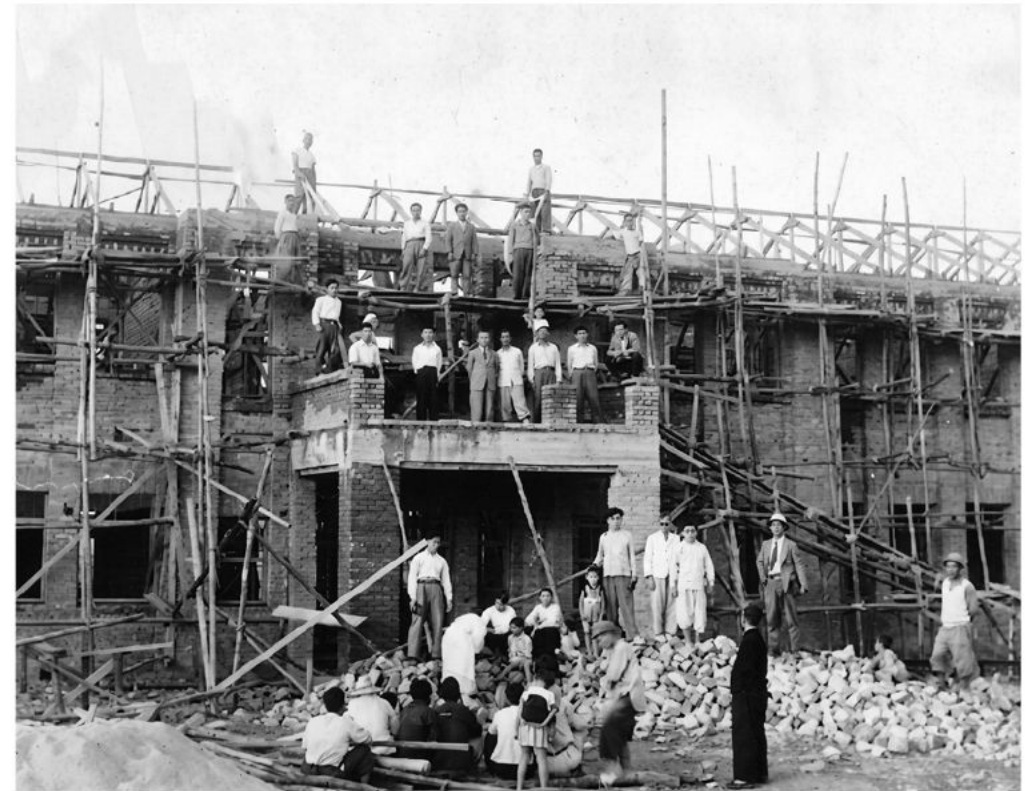
좌절을 딛고 제도의 기반 위에 선 한국사회사업대학

‘한국사회사업학교’ 인가로 정규 대학 설립 교두보 마련

1956년 한국이공학원이 문을 열었을 때, 대구맹아학원 이사진은 기쁨과 동시에 또 다른 과제를 맞았다. 한국이공학원은 사설 기관으로서 교육 기간도 1년에 제한되어 한시적 교육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영식 목사와 이사진의 목표는 한국이공학원이 임시 학술 강습소 수준에 머물며 시혜적인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공인하고 학



| 한국사회사업대학 본관과 멀리 보이는 대구맹아학교 전경



| 대구맹아학원 신축공사(1958)

위를 수여하는 정규 대학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한국이공학원이 정규 대학으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교육을 향한 의지는 시대를 앞서갔으나, 당시 국가의 교육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였다. 이에 이사회는 당장의 승격보다 제도적 요건을 완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 하에 치밀하게 전략을 수정해 나갔다. 그 결과, 1957년 한국이공학원을 한국사회사업학교로 개편했고 대학 설립을 위한 전담 기구인 기성회를 조직하였다.

1957년 3월, 문교부로부터 비로소 한국사회사업학교 인가(문교 제716호)를 받아낸 학원은 정규 대학이라는 높은 봉우리를 향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가 과정에서 주요 학과는 인정되었지만, 한국사회사업학교의 본질과도 같았던 특수교육과와 사회사업학과는 장애인 교육과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몰이해로 인가되지 않았다.

재단 설립 이후 제도의 벽에 가로막힌 대학 설립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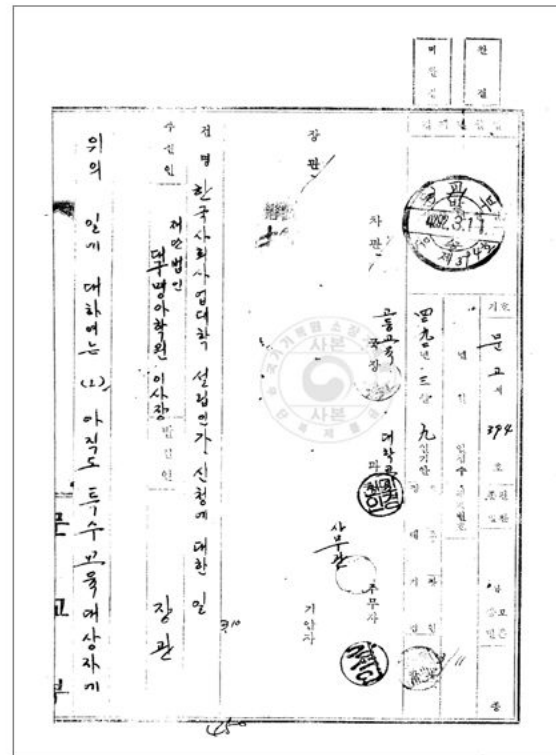
우선, 정규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운영의 법적 주체이자 대학 설립의 필수 요건인 재단법인 설립이 시급해졌다. 기성회 이사회는 1957년 10월 25일, '재단법인 대구맹아학원' 설립 허가를 신속히 신청했고, 1958년 2월 4일 문교부의 인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곧바로 '한국사회사업 이공과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대학 설립 인가 신청에 나섰다. 이는 한국이공학원의 교육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사회사업과 기술 교육을 함께 포괄하려는 야심찬 구상이었다.

그러나 정규 대학으로 가는 길에서 마주한 벽은 예상보다 높았다. 1958년 1월 문교부는 수입 재산 부족과 시설의 구획이 정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가를 불허하였다. 무엇보다 '교육법상 장애인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시행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한계로 인한 불허 결정은 학원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좌절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장애인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제도의 벽에 가로막혔던 대구맹아학원의 도전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인가 불허 이후 이사회는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공과대학 구상을 과감히 내려놓는 대신, 학원의 정체성인 사회사업 및 특수교육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1960년 7월 25일, 이사회는 철저한 준비 후 전후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지 공백과 특수교육의 절박함을 담은 대학 설립 인가 신청서를 문교부에 다시 제출하였다.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이미



| 한국사회사업대학 설립 인가 신청서



대학 부속 특수교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이영식 목사와 단체사진(1960.4.6.) |

사회사업 관련 학과가 존재했으나 그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한국사회사업대학은 사회복지 증진에 공헌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다수의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설립되는 대학임을 분명히 하였다.

국내 최초 특수교육학과 품은 '한국사회사업대학' 출범

마침내 1961년 2월 4일, 문교부는 특수교육학과 80명 정원의 한국사회사업대학 설립을 인가하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특수교육학과'를 둔 정규 4년제 대학 탄생이라는 이정표가 세워진 순간이었다. 인가 조건으로는 기존의 한국사회사업학교는 재학생 졸업 동시에 폐지, 1961년 대학 개교, 학장과 교원의 채용 사항 보고, 시설의 지속적 확충 등을 내걸었다.

초대 학장으로 취임한 이영식 목사는 운영자이자 설립자에서 대학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그



| 한국사회사업대학 본관

역할을 확장하였다. 그의 아들 이태영 박사 또한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대학 운영과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데 헌신하였다. 학칙에 명문화된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특수교육과 사회복지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한다’는 설립목적은 대구맹아학교와 한국이공학원을 거쳐 계승된 교육철학으로서 이제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얻었다. 비록 시설은 여전히 열악하고 재정난은 계속되었으나 법과 규정, 학사 운영이라는 견고한 교육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진입하게 되었다.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교육, 사회적 약자를 중심에 두는 학문, 그리고 제도의 벽에 맞선 끈질긴 도전으로 발현된 한국사회사업대학의 설립은 훗날 대구대학교로 이어지는 거대한 서막이었다. 폐허 위에서 터전을 닦고 끝내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속에 선 긴 여정은 기독교정신의 핵심 가치인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다.

제5절 시대의 굴곡 넘어 다시 70년 미래를 향해

대학의 정체성 확립한 특수교육에 대한 열망 실현

1961년 2월 4일, 문교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한국사회사업대학의 탄생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이는 당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특수교육과 사회사업을 학문의 중심이자 대학의 정체성으로 세운 최초의 시도였기 때문이다.

초대 학장으로 취임한 설립자 이영식 목사는 건학 정신인 ‘사랑·빛·자유’를 고등교육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즉각적인 학생 모집에 나섰다. 비록 특수교육학과라는 단일 학과에 정원 80명의 소규모였지만, 당시 <대구매일신문>에 실린 모집 광고는 대학의 교육 방향과 비전을 당당히 드러내었다. 이는 장애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 교육 인력을 제도권 안에서 양성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대학은 단일 학과가 가질 수 있는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학문적 확장을 모색하였다. 특수교육학과 내에 사생교과(경제학전공)와 과학교과(화학전공)를 설치하여 기초 학문의 폭을 넓혔는데, 이는 훗날 일반사회교육과와 화학교육과로 발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되었다. 사회복지 관련 강좌와 교직 과정도 함께 운영하며 졸업생들이 교육과 복지, 행정과 실천 현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당시 청년들에게 제시한 입학 조건은 파격 그 자체였다. 연간 학비(8만 9,000원) 분납제(2회) 시행은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저조했던 시대상을 반영해 여학생에게 학비의 절반만 받는 장학 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졸업 후 미국과 일본으로의 유학 지도, 우수 학생은 부속학교 강사 채용 약속, 그리고 문교부 장관 명의의 고교 2급 정교사 자격증 부여 등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고뇌하던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특히 4년제 대학 개교는 곧 기존 체제의 종료를 의미했지만, 학생들 대부분은 학교에 남아 있기를 원하였다. 학교는 이들의 열망에 부응해 병역을 미룰 수 있는 조치로 화답하였다.

1961년 8월 열린 제28회 이사회에서 이태영이 제2대 학장으로 선임되었고, 이기수가 부학장을 맡았다. 교무와 학생 행정을 책임질 보직자와 교수진도 차례로 공식 임명되었다. 교육 과

정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국어와 영어 등 교양 과목을 바탕으로 점자교육, 직업지도, 특수학급 경영론, 맹심리, 농심리 등 현장 중심의 전공 과목이 배치되었다. 정신박약아 교육론, 지체부자유아 교육론, 구화교육법과 같은 선택 과목은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심화시켜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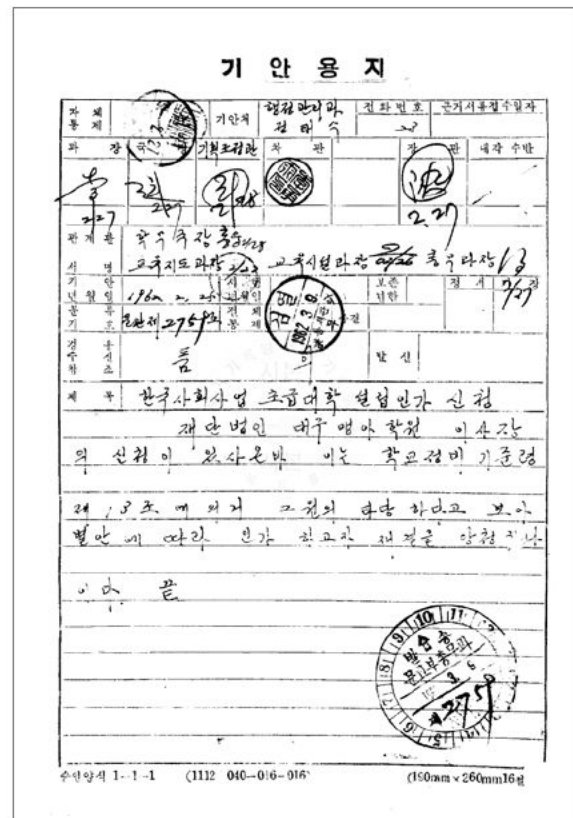
군사정부의 강등 조치 후 운영의 내실 다져 재승격 달성

그러나 개교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라는 거대한 풍파가 대학을 덮쳤다. 군사정부는 소규모 대학을 정리 대상으로 삼는 '대학 정비 시책'을 강행했고, 정원 700명 미만의 신설 지방 대학이었던 한국사회사업대학은 정비 명단의 우선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불과 몇 달 전 힘겹게 열었던 4년제 대학의 문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로 닫혔고 '초급대학'으로의 강등이라는 뼈아픈 시련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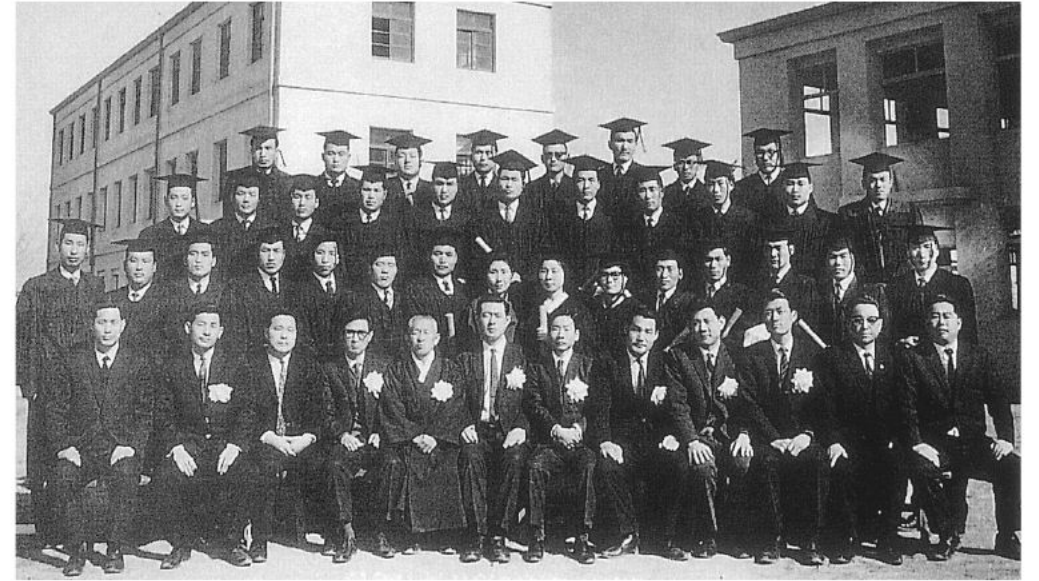
엄혹한 시대의 파고 속에서 위기를 맞은 대학은 다시 일어서야만 하였다. 1961년 11월 20

일, 이사회는 제도적 강등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으로의 복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명칭은 초급대학이었으나 교육과정만큼은 4년제 수준의 전문성을 고수하며 특수교육과 사회복지의 핵심 커리큘럼을 유지하였다. 1962년 2월 28일 결국 '한국사회사업초급대학'으로 재인가를 받았고, 4월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놀라운 점은 이 시기에 오히려 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했다는 사실이다. 1962년부터 1964년까지 본관과 강당, 전국 맹농아기술교육센터 등 총 538평 규모의 교사를 완공하며 교육의 내실을 다졌다. 교수진도 보



| 한국사회사업초급대학 설립 인가 신청서



| 한국사회사업학교 정규 제1회 졸업 단체사진(1965.2.12)

강하고 행정 조직도 정비해 대학 운영의 내실을 더욱 기하였다. 대학의 위상은 격하됐지만, 교육의 미래는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은 1964년 1월 21일, 마침내 4년제 대학 재승격을 일궈내는 자양분이 되었다.

제2대 이태영 학장의 5대 비전과 더 큰 미래를 향한 꿈

재승격 이후 2년이 지난 1966년, 한국사회사업대학 10년을 맞아 이태영 학장은 다음과 같은 '5대 비전'을 천명해 대학의 건학 정신을 교육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

1. 특수교육과 사회복지학의 이론 개발과 정립한다.
2. 본 대학이 중심이 되어 국제적 협력을 얻어 국가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준다.
3. 선진국의 이론과 실재를 교류를 통해 배우고 후진 개발국에 인력을 파송한다.
본 대학은 이를 위해 인적 자원 양성에 주력한다.
4. 재학생의 현장 연구를 적극 지원하여 복지이론과 현장 연구를 병행토록 한다.
5. 재학 중에도 실제 업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 실무에 임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창파 이태영 박사의 생애와 개척자 정신』중에서



| 대학공개강좌(정신박약아의 심리학적연구) 수료기념으로 강사 고베대학 다카하시 마사미 교수와 함께(1967.4.)

이후 대학은 특수교육과, 사회복지학과, 산업복지학과를 주축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1967년 입학 정원이 2배로 증원되고, 1971년에는 특수교육과 야간 과정까지 신설하며 교육의 기회를 넓혀나갔다.

대구대학교의 지난 70년은 여러 차례의 위기와 제도적 강등 속에서도 처음의 뜻을 굽히지 않은 설립자의 개인적 소명이 대학의 공적 사명으로 자리 잡았기에 가능하였다. 그 과정을 버티게 한 힘은 대학의 역사 속에 이어져 온 사랑의 가치였다. 그러나 대학이 성장한 만큼 더 이상 안주할 수 없었다. 이제 대명동이라는 협소한 공간을 벗어나 대학의 원대한 목표를 이룰 더 넓은 터전과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3장

100년 교육의 초석 놓은 경산 캠퍼스

제1절

더 커진 미래 수용할 경산 캠퍼스 시대 활짝

교육 수요의 급증과 성장의 임계점, 대명동에서 경산으로

1970년대에 접어들며 한국사회사업대학은 4년제 정규 대학으로서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1967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이 두 배로 증원된 데 이어, 1971학년도에는 야간 과정까지 신설되며 대학은 유례없는 팽창기를 맞이하였다.

교육 수요의 급증은 대명동 캠퍼스라는 기존의 공간적 한계를 암시하였다. 좁은 교사와 시설로는 급증하는 학생들과 고도화되는 학문 영역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이었으며, 새로운 교육 공간이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대학은 눈길을 돌려 새로운 부지를 물색했고, 1971년 경산 지역의 부지 매입을 결정하였다. 종합대학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자 숙명적 선택이었다. 이곳은 당시만 해도 도심 외곽의 거친 황무지에 가까웠지만, 약 230만㎡(70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는 장차 구축할 종합대학 체제의 기반이자 학문의 다변화와 교육 환경의 현대화를 동시에 실현할 유일한 토대였다.

1979년 3월 1일, 마침내 대학 위치 변경 인가가 이루어졌다. 경산 캠퍼스의 드넓은 공간은 강의동과 실험실, 학생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대학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보편적 종합대학 향한 염원 담은 ‘한사대학’의 탄생

한편, 경산 이전이 본격화되던 때는 1972년 유신체제 선포부터 1979년 10·26 사태와 12·12 군사반란, 그리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격변과 혼돈의 시기였다. 한국 사회사업대학 역시 외부의 거센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는 입시 제도와 졸업 정원제 도입을 강제하며 대학 운영 전반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대학은 이러한 외적 충격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급격한 정원 증대와 전일제 수업 운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을 전면 개편했고, 이를 통해 종합대학으로서의 골격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격동의 시기였던 1979년 12월, 대학은 원래의 교명을 줄여 ‘한사(韓社)대학’으로 변경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는 한국사회사업대학이라는 이름이 지닌 특수 분야 중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종합대학으로 비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듬해인 1980년 2월 졸업식(제17회)은 한사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거행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1980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이 대폭 늘어나고 다수의 학과가 신설되며 학부 체제가 개편되었다. 이는 경산이라는 공간적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구조적 전환이었다. 새로운 터전은 대학이 감당해야 할 더 큰 규모와 더 넓은 학문의 지형을 수용하는 기반이 되었고, 이후 종합대학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탄탄한 발판이 되었다.

장애 학생의 학습권 배려한 설계와 친환경 그린 캠퍼스

오늘날 경산 캠퍼스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단일 캠퍼스를 자랑하고 있다. 광활한 교지 인근의 문천지(文川池)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캠퍼스의 상징이 되었고, 그 풍경 속에서 학생들은 저마다의 시간을 쌓아왔다.

경산 캠퍼스의 자량은 규모에 있지 않다. 캠퍼스 곳곳에는 차별 없는 교육이라는 대학의 교육이념을 반영해 장애 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을 세심하게 배려한 설계가 녹아있다. 또한 자연



한사대학 전경(1980.2) |

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 캠퍼스’의 지향점 또한 교육과 삶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대학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인프라와 다양한 학문적 성과,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는 이곳 경산이라는 터전 위에서 꽃을 활짝 피웠으며, 대학의 가치를 증명하고 건학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토대가 되고 있다.



| 현재의 경산 캠퍼스 전경

제2절

종합대학을 향한 첫 발걸음, 대구대학교로의 교명 변경

‘한사(韓社)’에서 ‘대구(大邱)’로, 이름에 담긴 시대적 소명

1981년 7월 31일, 한사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한사대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종합대학이라는 위상으로 인해 학문의 영역이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등으로 확대되면서 단과대학 체계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한정된 명칭인 ‘한사’라는 이름은 종합대학이라는 지향점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였다. 그 간극을 메우고 더 넓은 세상을 품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교명 변경은 필연적이었다.

종합대학 승격 후 3개월 남짓한 시점인 10월 20일, 마침내 한사라는 교명에서 ‘대구대학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교명 변경은 대학의 나아갈 좌표와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계기였다. 1982년 이태영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향후 대구대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졌다.



| 대구대학교로의 교명 변경(1981.10.20.)

(전략) 6개의 단과대학으로 출범하는 본 대학, 대구대학교는 신년도엔 경상대학, 법정대학, 사회과학대학, 이공대학의 4개 대학이 경산 캠퍼스로 옮겨가게 되었으며, 인문대학과 사범대학과 신설되는 사회개발대학원 등은 대명동 캠퍼스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항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대구대 사람은 한배를 탄 것입니다. 우리를 굳게 결속하는 튼튼한 밧줄은 <건학 이념>인 것입니다. 높은 인간애의 정신적 기반 위에서 진리와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 인류 공동의 꿈과 만인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이론과 실재를 교수 연구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을 소유한 지성인,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심대한 정신으로서의 결속은 중단 없는 항해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창파 이태영 박사의 생애와 개혁자 정신』 중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사학으로서의 위상 선포

‘대구’라는 이름은 명확하고도 강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대학이 자리 잡은 지역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 사학으로 우뚝 서겠다는 강력한 포부의 발현이었다. 일반 학과가 대폭 증설되고 한사실업전문대학을 통합하며 체제를 정비하던 시기, 지역사회에 친숙하면서도 보편적인 명칭은 대학의 위상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대구와 경북이라는 지역이 지닌 교육의 전통, 민주화의 경험, 공동체의 삶을 함께 품어나간다는 약속이기도 하였다.

1981년 8월 신청한 교명 변경이 승인되어 1982년 3월 1일, 대구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새 학기를 맞이하였다. 새로운 교명에는 지역성과 역사성, 그리고 사학의 자율성과 책임이 동시에 새겨져 있으며, 동문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을 잇는 공동체 구성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 지역명을 대학의 이름으로 차용한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역 사회는 대학을 통해 미래의 주역을 길러내고 대학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상생해 나간다는 의미가 더해졌다. 오늘날 산학 협력과 평생 교육, 지역 봉사의 현장에서 불리는 대구대학교라는 이름은 대학과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단단한 다리가 되고 있다.

제3절

이태영 초대 총장의 회고: 혼돈의 시대 헤쳐나간 개척자의 길

격동의 시대, 대구대학교라는 항해의 시작

1980년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요동치던 시기였다. 국가의 교육 정책은 하루가 다르게 변했고, 사회적 요구는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이러한 혼돈의 중심에서 대구대학교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종합대학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아갔다.

이 항해의 키를 잡았던 초대 총장 이태영(1929~1995) 박사는 대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창학의 뜻을 현대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무거운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다. 『대구대학교 60년사』에 기록된 그의 고뇌와 결단을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을 가상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 이태영 총장(1984)

창파 이태영 총장에게 듣는 대학 건설 스토리

1982년 대구대학교라는 종합대학 출범 당시,
안팎으로 마주했던 가장 큰 벽은 무엇이었는지요.



희망만큼이나 그림자도 짙었던 시기였습니다. 1980년 신군부 정권이 도입한 '졸업정원제'와 '대학 본고사 폐지'는 대학의 자율성과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정원의 130%를 뽑아놓고 학사 경고제 강화 등을 통해 졸업 때 강제로 탈락시켜야 했던 비인도적인 제도는 대학을 거대한 입시 전쟁터이자 감옥으로 만들었지요. 우리 대학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할 강의실은 턱없이 부족했고,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 속에서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자유는 위축되었습니다.

실제로 1981학년도 1학기 227명, 1982학년도 1학기 233명의 학생들이 학업 성적 미달로 학사경고를 받았습니다. 학사 관리가 강화된 1984년 이후에는 그 대상자가 1986학년도 1학기 596명, 2학기는 724명까지 늘어나 중도 탈락 학생 문제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학생 활동을 제한하려는 군사 정권의 의도가 강하게 깔린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총장님께서 대구대학교를 눈부시게 키워내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위기는 곧 호기(好機)라는 믿음이 있었고 대학의 내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학과 신설과 정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1982년 6개 단과대학, 38개 학과, 11개 전공에 모집 정원 3,549명이었던 규모가 1989년에는 11개 단과대학, 62개 학과, 3개 전공, 입학 정원 3,49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988학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재활과학 분야 학과 및 단과대학 설치를 단행해 특수교육, 사회복지, 재활과학 분야를 특성화한 대학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또, 산업기술연구소, 평화통일연구소를 신설하고 기존 연구소들을 전면 재편하여 연구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경산 캠퍼스에 중앙도서관, 노천강당 신축 등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장학제도와 학생 복지 시설도 개선해 나갔습니다.

노인복지대학을 모태로 한 평생교육에도 힘을 기울여 교도소, 광산지역, 여성교육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사회교육에 기여했으며, 해외의 기관들과도 학술 교류를 추진해 대학의 세계화에도 앞장섰습니다. 학원

창립 40주년, 개교 30주년을 맞은 1986년에는 복지와 선교, 교육 부문의 유공자에게 ‘애·광·자유상’ 시상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대학의 역사와 비전을 홍보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격동 속에서 아쉽게도 총장님은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총장님이 대구대학교에 남기신 발자취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불어 닥친 민주화의 열풍은 대학가에 학원 민주화라는 거센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거센 학내 소요로 과로와 병환이 겹쳐 1989년 10월 요양차 잠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요. 당시에는 그렇게 긴 이별이 될 줄은 저 역시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 임기 중에는 학사 경고제로 인한 제적 학생들이 1987년 ‘학생 정원령’에 의해 재입학의 길을 열었습니다. 1993년에야 졸업정원제가 폐지됐지만, 그로 인한 교육의 질적 하락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재임했던 격동의 시기에 대구대학교가 지방의 작은 사설 학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한 ‘비상의 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졸업정원제라는 질곡을 견디며 종합대학에 걸맞은 의식과 제도를 확립하고 양적 성장을 일구어 냈습니다. 또한 우리만의 특성화 전략으로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기능을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닦은 이 토대 위에서 후배들이 인류 사회에 더 큰 사랑을 전파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태영 총장의 재임 기간은 대구대학교 역사에서 ‘거대한 전환의 시대’로 기록된다. 그는 초급대학 강등이라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경산의 대지 위에 종합대학이라는 웅대한 성을 쌓아 올리는 데 힘을 쏟았다. 그의 회고 속에는 단지 대학의 규모를 키웠다는 자부심보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 겪었던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과 건학 정신을 지키기 위한 치절한 사명감이 배어 있다. 이태영 총장이 불꽃같은 열정으로 일군 이 텃밭은 오늘날 대구대학교가 7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다.

종합대학 승격 후 단과대학별 입간판 설치(1982.2.19.)



| 인문대학



| 법정대학



| 경상대학



| 사회과학대학



| 이공대학



| 사범대학



| 중앙도서관(1984)



| 노천강당(1997)



| 대구대학교부설 칠곡여성대학 개강식(1986.9.9)



| 제1차 국제학술대회(1984)



| 학원창립 40주년·대학개교 30주년 기념식(1986)



| 제4차 국제학술대회 '21세기를 대처한 한반도'(1986)



| 학원창립 40주년·대학개교 30주년 기념 평생교육학예회(1986)

제4절

특수교육부터 재활과학까지, 시대를 선도할 학문의 정립

시련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간 특수교육연구의 시작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단행된 대학 정비 시책으로 대구대학교는 2년제 초급대학 강등이라는 뼈아픈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대학의 심장인 특수교육만큼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구대학교는 1962년 2월 28일에는 대학 부설 '전국 장애자기술훈육센터'를 설치했고, 이듬해인 3월 1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교육연구소'를 설립해 특수교육 분야에 있어 선구적 노력의 결실을 이어나갔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고등교육 수요의 급증으로 특수교육과에 야간 과정이 신설되고 매년 정원 확대를 통해 교육기회의 문을 넓혔다. 특히 1977학년도에는 특수교육과가 국어, 영어, 수

학, 사회, 과학과 함께 사범대학 내 6개 전공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시기였다. 특히 1988학년도에 재활과학 분야 학과와 단과대학이 신설되면서 특수교육과 사회복지 분야가 융합한 '재활과학(Rehabilitation Science)'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였다.

특수교육·사회복지 분야를 통합한 국내 최초 '재활과학대학(원)' 출범

대구대학교는 같은 해에 이를 전담할 '재활과학대학'을 국내 최초로 출범시키고 학문적 확장과 특수교육 역량을 한 차원 강화시키는 획기적인 기회를 마련하였다. 재활과학대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장애인 개개인이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의 당당



청각장애학생 발성지도(1954)



전국장애인 기술교육센터 현장실습 모습(1985)



| 제15회 전국 특수교육 담당교사 연수회(1984)

한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학제적 융합 모델'을 제시하였다. 대구대학교의 이러한 시도는 재활과학 분야를 독보적인 리더로 자리매김 시키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재활 현장을 이끄는 수많은 전문가를 배출하는 요람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에는 '재활과학대학원'을 설치해 현장 전문가들을 위한 학문적 깊이를 더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학원에는 특수교육과(50명), 초등특수교육과(40명), 치료특수교육과(30명)로 세분화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대구대학교의 재활과학 분야는 특수교육과 사회복지라는 건학정신을 담아낸 융합학문의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며 시대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70년 전, 척박한 땅에 심었던 특수교육의 씨앗이 오늘날에는 첨단 기술과 결합해 미래형 융합학문으로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재활 연구부터 심리·사회적 통합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에 이르기까지, 대구대학교는 '사랑·빛·자유'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앞장서며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전경 |

제5절 포용의 미래 앞당기는 체계적인 만인복지의 실천

입학부터 취업까지 촘촘한 지원체계 갖춘 '장애학생지원센터'

대구대학교가 지향하는 '만인복지(萬人福祉)'의 정신은 세대를 관통하며 이어져 왔다. 이는 단순히 시혜의 차원이 아닌, 장애가 학업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교육의 표준과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모든 학생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자는 고귀한 철학이 담겨져 있다. 그 최전선에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와 'K-PACE센터'는 이러한 노력이 일궈낸 구체적인 결실이다.



| 국내 최초 보이스북 개발 설명회(2001)

2000년 9월, 전국 대학 최초로 설립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입학부터 졸업, 취업에 이르기까지 장애 학생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교수·학습 지원은 물론, 장애인 전용 기숙사 운영과 장학금 지급을 통해 물리적·경제적 제약을 허물었다. 또한 청각·지체·시각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 지원은 장애 학생이 학문적 도전과 사회 참여에 소외되지 않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관련 정책이나 진로 상담까지 영역을 넓혀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전자도서 음성지원 시스템 '보이스북(Voice Book)'은 센터가 이뤄낸 혁신 성과 중 하나다. 방대한 학습 자료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보이스북은 제약 없이 지식의 보고를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발달장애인 고등교육의 혁신 모델, 'K-PACE센터'

미국의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모델'을 참고해 2011년 2월 문을 연 K-PACE센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다. 당시에는 센터를 설립하



| K-PACE센터 미국 지식나눔 문화탐방단 발대식(2015.9.14.)



| K-PACE 개교 및 입학식(2011.3.15.)

려면 많은 재정과 인력, 제도적 준비가 요구되어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대구대학교는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다.

K-PACE센터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발달장애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부터 사회성 향상, 독립생활 능력 배양까지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사무직과 서비스직 실무 훈련은 물론,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정서 지원과 심리 상담도 입체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장애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업무기술을 익혀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K-PACE센터는 설립 10여 년 만에 2022년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 국내 발달장애인 고등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국내 시각장애인 교육의 요람으로 우뚝 선 '점자도서관'

대구대학교가 장애인 교육의 산실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점자도서관'이다.

그 뿌리는 1958년 대구맹아학교의 '점자도서 출판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1964년



| 점자도서관 개관(1981)



점자도서관 전경(2026) |

초등학교용 점자 교과서를 개발·보급하며 점자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1960년대 초에는 형편이 어려운 전국의 맹학교 학생들에게 점자 교과서를 무료로 보급하기도 하였다. 1974년에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가 문교부의 의뢰로 주요 교과목의 점자 교과서를 제작·공급해 장애 학생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후 미국인 빌 브라우너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도움으로 점자인쇄 제판기를 도입하며 인쇄 환경을 혁신하였다.

1979년에 이르러 점자도서관 건립위원회가 조직되고, 1980년 국비와 지방비 지원이 확정되면서 전국 최초의 점자도서관 건립이 가시화되었다. 1981년 6월 1일 문을 연 점자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점자인쇄실과 열람실, 녹음도서 제작실을 갖췄으며, 10만 권이 넘는 점자 및 녹음도서를 소장하고 전국의 시각장애인과 일반인들에게까지 개방하고 있다. 이후 점자도서관은 1984년 점역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전국 맹인 기관에 기증했고, 시각장애의 장벽을 딛고 미 백악관 차관보까지 지낸 강영우(1944~2012) 박사의 자서전 『빛은 내 가슴에』를 점자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대학 외적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점자도서관의 개관과 이러한 교육 지원활동은 1980년대 '세계 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참여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점자도서관은 1989년부터 학내 부속기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애인 지원과 교육 연구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 연구·지원시설 확충과 매년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이 외에도 대구대학교는 2006년 12월 설립한 '경북유비쿼터스신기술센터'와 2009년 12월 국내 대학 최초로 개소한 '장애인운전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유비쿼터스신기술센터는 ICT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연구하며, 장애인운전재활센터는 보호와 재활, 운전 교육을 지원해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선사하고 있다. 이처럼 배려의 가치와 첨단 기술을 연결해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을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대구대학교는 2017년부터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펼치고 있다. 제40회를 맞은 2020년에는 '우리 함께 손잡Go'라는 주제로 다양한 캠페인과 공모전을 진행해 약 150명이 참여하였고, 2021년 행사에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무려 2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배리어프리 함께하는 움직임'을 주제로 장애 벽 허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공연과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또 2024년에는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주제로 총장과 함께하는 축하 파티로 진행됐고, 2025년에는 '다름을 넘어, 모DU 함께하는 길'을 주제로 장애체험, 연주단 초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포용의 가치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제4장

사랑의 가치 증명한 70년 발자취

제1절

위기를 기회로, 응전과 승리로 빛나는 여정

법인 정상화의 긴 터널 벗어나 정이사 체제 출범

역사는 평탄한 길 위에서만 쓰이지 않는다. 때로는 거센 풍랑과 벼랑 끝에 서는 수난을 겪으며 조직의 진정한 역량이 드러나기도 한다. 대구대학교의 70년 역사 또한 안온한 안주의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닥쳐온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주체적인 힘으로 이를 극복하며 더 큰 비전을 창조해 온 응전과 승리의 기록이다.

이태영 초대 총장의 건강 악화와 장기 미국 체류는 대학 운영에 예상치 못한 공백을 가져왔다. 이는 법인 정상화를 둘러싼 학내외 갈등으로 번졌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이나 지속된 '제1기 임시이사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기나긴 암울한 터널 속에서도 대구대학교 구성원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기는 대학의 민주성을 회복하고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일궈낸 역설적인 도약기였다.

2011년에 접어들며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끝내 파행되었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진 '제2기 임시이사 체제' 역시 총장 인준 지연과 시설 노후화 문제, 정책적 불확실성이

이어졌다. 2019년 4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마침내 전문가 중심의 정이사 체제가 출범하며 법적·행정적 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 대구대학교는 그간의 오랜 부침을 뒤로 하고 설립자 정신을 계승하는 이근용 이사를 포함한 이사회가 대학의 미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임용은 대구대’, 내홍 속에서 꽃피운 소중한 결실들

그럼에도 대구대학교의 교육 열기는 식지 않았다. 법인이 흔들릴 때에도 구성원들은 강의실과 연구실을 지키며 미래를 설계하였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임용은 대구대’라는 독보적인 평가였다. 국·공립 교원임용시험에서 매년 전국 최상위권의 합격자를 사범대학이 배출하며 대학의 위상을 드높인 것이다.

사범대학뿐만 아니었다. 대학의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LINC 사업을 비롯한 굵직한 정책 사업들을 수주하며 재정 기반을 다변화하고 운영의 자립성을 높여나갔다. 이는 부족한 법인의 전입금에 의존하지 않고, 교수진의 탁월한 역량과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기획력이 맞물려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었다. 교수와 교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학의 운영방식도 재정립하게 되었다. 대학 차원에서 성과 관리 체계가 정비되었으며 재정과 학사 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전 지구적 재난이었던 코로나19는 대구대학교의 또 다른 시험대였다. 대학은 신속하게 비대면 강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및 행정과 상담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편하였다. 위기는 곧 교육 방식의 확장으로 이어졌고, 장학과 생활 지원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며 단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되지 않도록 보살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개편과 총장 직선제 유지

최근 들어 가장 냉혹한 도전은 학령인구 감소였다. 2021년 신입생 충원율이 80.8%로 하락하자, 대학은 생존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편에 착수하였다. 사회학과, 법학부, 산림자원학과 등 일부 학과는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런데도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는 각각 웹툰영상애니메이션학부, 게임학과를 신설해 시대가 요구하는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 2025학년도에는 자유전공



| 학령인구 감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원 내 등록률 100%를 일군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2025.3.9. 삼성라이온즈파크)

학부 선발 인원을 262명으로 대폭 확대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뼈를 깎는 혁신과 교육체계 개선은 2025학년도 정원 내 기준 등록률 100% 달성이라는 쾌거로 이어졌다.

대구대학교는 임시이사 체제의 반복,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서로 다른 유형의 위기 속에서도 내부 역량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특히 사립대에서는 보기 드물게 ‘민주성’을 지켜낸 것은 또 다른 자부심이다. 바로 구성원들이 스스로 대학의 비전을 결정하는 민주적 토양인 ‘총장 직선제’가 그것이다. 총장 직선제는 대구대학교 70년 역사의 소명과 진정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대구대학교는 2026년을 기점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의 AI 역량을 모든 전공의 기본 소양으로 삼는 디지털 혁신이 대학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2절

지역과 세계로 확장해 나간 70년 사랑의 외연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의 벽을 쌓아올린 대구대학교 70년

대구대학교의 70년은 지역사회가 보내준 신뢰와 후원의 역사이기도 하다. 전쟁과 가난의 질곡 속에서 기틀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학교를 지켜내고자 했던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 덕분이었다. 경산으로의 캠퍼스 이전과 종합대학으로의 비상은 이러한 지역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대학은 지역의 인재를 길러 다시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배움의 터전이며, 지역은 그 성장을 묵묵히 지탱하는 기반이다. 대구대학교의 역사는 지역과 더불어 호흡하며 성장해 온 공동체적 성취의 결실이었다.

오늘날에는 경산과 대구를 상생의 구조 속에서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교육과 연구, 봉사의 모든 역량을 지역 문제 해결에 쏟고 있다. 과거의 대학이 지역의 도움으로 일어섰다면, 오늘날의 대구대학교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협력 모델로서 기능해 나가고 있다.

지역과 국경을 넘나드는 뜨거운 사랑의 에너지

지역사회와의 동행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복지시설 방문, 주거 환경 개선, 김장 나눔 등 전통적인 봉사와 함께 대학의 전공 역량을 살린 특성화된 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수교육과 재활과학 분야의 학생들은 지역 장애 아동들의 학습 지원과 재활 보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예술·체육 분야 학생들은 마을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단과 밀알복지재단 대구경북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공공·민관 협력 사업, 취약계층 지원, 지역 기반 자원봉사의 전문화가 공동 추진되고 있다. 봉사는 이제 지역 청년들이 정주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 과정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대구대학교의 이웃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생명나눔'이다. 대한적십



헌혈의 집 대구대센터 |

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협력하여 운영 중인 '헌혈의 집 대구대센터'는 전국 대학 내 센터 중 헌혈 인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무려 1만 176명이 참여하였다. 대구대학교는 헌혈 센터를 무상 임대하고 헌혈 봉사 교과목을 개설하여 이를 장려하고 있으며, 적십자 전문가 초청특강과 교육을 통해 인도주의적 가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독창적인 사회공헌 모델로 정착시켰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펼친 사랑의 실천도 눈에 띈다. APEC 정상회의 등 지역의 굵직한 국제 행사마다 일본, 몽골 출신 유학생들 중 성적 우수자를 자원봉사자로 선발해 다국어 안내와 통



| 김장 봉사(2012)

역 지원을 펼쳐 세계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기여하였다.

방학 기간에는 해외봉사단을 꾸려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안티케와 일로일로 등지에서 전공을 결합한 교육봉사, 문화교류 등의 활동을 진행해 지역과 세계를 잇는 사랑의 플랫폼으로 정착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필리핀 안티케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매년 교육봉사와 현장실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다시 건학의 초심으로, 만인복지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

한편, 대구대학교는 건학정신과 실천적 사랑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인류 복지에 기여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2010년부터 '사랑·빛·자유상'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상은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와 특수교육,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수여되는 대구



| 대구대학교와 해외교육실습 등 교류 협력을 펼치고 있는 필리핀 안티케대학교의 총장단 방문(2022.11.16.)

대학교 최고의 포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현재 8회까지 시상을 진행한 사랑·빛·자유상은 대구대학교의 존재가 사랑의 가치를 세상으로 전파하는 데 있음을 재확인하는 장이 되고 있다.

70년 전 소외된 이들에게 내밀었던 작은 손길이 오늘날 2만 명의 지성이 호흡하는 거대한 교육 공동체를 일구어내었다. 사람을 길러 학교를 키우고, 그 학교가 다시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뻗어 나갔다. 그러므로 '사랑'은 대구대학교 운영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이다. 이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만인복지'의 교육 구조를 완성하는 실천적 과업이다.

대학은 효율과 성과를 위해 전진해야 하지만, 그 방향이 과연 옳은지를 묻기 위해서는 늘 건학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70주년을 맞이한 대구대학교는 오늘도 그 출발의 자리에서 질문한다. "왜 대학을 세웠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흔들리지 않을 때, 대구대학교의 다음 100년은 지역과 세계를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될 것이다.

사랑·빛·자유상 역대 수상자

회차(연도)	수상자	소속	기타
제1회 (2010년)	쇼오지 사브로	시이노미학원 이사장	- 일본 최초의 특수학교 설립 - 본교 겸임교수 및 대학원장 역임
제2회 (2011년)	강성숙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 충주성심농아학교 설립 - 사회복지법인 명휘원 명혜학교 교장 역임
제3회 (2012년)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 장애우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선도 사업 - '장애우' 명칭 공용화
제4회 (2013년)	권정순	행복한 집 요양보호사	- 밀알학교 개교
제5회 (2015년)	정지훈	하상복지회 여주 라파엘의 집 (시설장)	- 1급 시각장애인 - 장애인복지 전문경영자 - 장애인을 위한 사회활동가 - 장애인 교육전문가 등
제6회 (2016년)	사회복지법인 운주사	사회복지법인 운주사	- 일본 전역에 10개소의 장애복지기관 운영 - 아동가정지원센터 사업 운영
제7회 (2017년)	강영신	아시아복지재단 대표이사	- 장애인 재활사업 헌신 - 장애인을 위한 교육 선도
제8회 (2020년)	서중호	아진산업(주)	-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역임 - 봉사활동 및 지속적 기부활동 -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구대표선수단장 역임



| 제1회 사랑·빛·자유상 시상(좌측부터 쇼오지 박사·홍덕률 총장, 2010.5.4.)



| 제8회 사랑·빛·자유상 시상(좌측 3번째 서중호 이사, 2020.4.29.)

제2편

빛이 퍼지다

2

- 제1장 시대를 선도한 교육혁신의 발걸음
- 제2장 학생활동: 자치와 대학문화, 그리고 열정의 연대기
- 제3장 함께 살아가는 배움의 현장, 봉사활동
- 제4장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장한 글로벌 교류
- 제5장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70년 동행
- 제6장 지역에서 세계로 뻗어나간 70년의 발자취

대구대학교 70년 교육혁신과 대외협력의 궤적

누구나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만민교육의 위대한 교육 철학은 대구대학교 70년을 지탱해온 뿌리 깊은 근간이다. 대구대학교에서 싹틔운 교육의 씨앗은 이웃의 아픔을 보듬어내고 지역사회와 함께 내일을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훌쩍 자라났다. 교육과 협력을 통해 벽을 허물어 길을 내고, 사람이 다시 길이 되는 장구한 70년의 시간 속에서 대구대학교는 세상 구석구석까지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되고 있다.

서언(序言)

누구나 평등한 교육 실천으로
세상을 밝히는 대구대학교의 '사랑의 빛'

빛은 결코 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대구맹아학원의 작은 교실에서 발하기 시작한 배움의 빛은 '교육은 특정한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숭고한 믿음을 타고 세상 속으로 번져갔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를 고민하며 출발한 대구대학교는 지역과 세계를 비추는 거대한 빛줄기가 되었다.

빛은 먼저 학생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다. 민주적 기틀 속에서 다져나간 학생자치의 역사부터, 교육환경의 내실을 기하며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성숙한 학생문화에 이르기까지 대구대학교의 교육은 강의실 안의 지식을 넘어 '사람'을 길러내는 혁신의 과정이었다.

다시, 그 빛은 경계를 허물고 세상 밖으로 뻗어 나갔다. 점자도서관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변되는 장애인 지원 체계는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었고, 산학협력과 평생교육, 중앙박물관의 풍부한 인프라는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거듭났다.

대구대학교는 더 이상 지식만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다. 대학은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와 연대하는 열린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대학의 위상을 세우고 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대학에서 지역사회로, 지역에서 세계로 퍼져나간 빛은 대구대학교 70년 역사를 더욱 환하게 하는 교육실천의 기록이자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는 사랑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제1장

시대를 선도한 교육혁신의 발걸음

제1절 대학의 성장을 이끌어온 전공교육의 변천

[1957~1963] 단일 학과의 한계를 극복한 교육의 기틀

대구대학교의 본격적인 대학교육은 1961년 2월 4일, 한국사회사업대학으로의 승격과 초대 학장 이영식 목사의 취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가받은 학과는 정원 80명의 특수교육과 단 하나로, 산하에 사생교과(경제학)와 과학교과(화학) 전공을 두어 폭넓은 학문적 기초를 마련했으며, 이는 훗날 일반사회교육과와 화학교육과의 모태가 되었다.

비록 1962년 5.16군사정부의 대학정비 정책으로 인해 4년제에서 2년제인 한국사회사업초급대학(1962~1963)으로 격하되는 시련을 겪었으나, 이 시기에도 '특수교육'과 '사회복지'를 양대 전공으로 설정해 정체성을 고수하였다. 전공 교과목은 일반 교직과목(22학점), 특수교육 영역(36학점), 교과교육 영역(48학점), 과학교과 영역(46학점), 사회과 교과 영역(36학점)으로 구분되었는데 특수교육은 주로 농교육과 맹교육 영역 중심이었다. 특히 초급대학임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구조를 적용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1964~1981] 현장 중심 교육으로 복지국가 이룰 인재 양성

1964년 4년제 한국사회사업대학으로 재승격된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적 소외 문제에 주목하며 교육과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복지국가의 기초를 이룰 인재 양성을 위해 특수교육과, 사회복지학과, 산업복지학과 등 3개 학과 체제를 구축하고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활발한 현장실습과 연구를 통해 실천 중심의 사회사업 교육을 실현해 나갔다.

이 시기 한국사회사업대학의 교육 혁신은 △학과 증설과 정원 확대 통한 외형적 성장 추구 △실습 중심 현장교육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기여 △교수진 충원 통한 교육의 질 제고 △사회복지, 특수교육의 중심이라는 대학 정체성 확보 △국제적 협력과 정부 지원 활용한 교육 기반 강화 등의 다섯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982~1993] 종합대학 승격과 양적 팽창의 시대 교육체제 정비

1980년대 초반은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와 대학 자율화 흐름이 맞물린 격변기였다. 학문적 자유에 대한 갈망과 함께 국립 사범대 우선 임용제 폐지, 직선 총장제 도입 논의, 강의 평가제 도입 등 대학 운영과 교육 체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어졌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동 속에서 한사대학교(1981년 7월 인가)는 1981년 10월 20일, '대구대학교'로 교명을 변경 인가받으며 종합대학으로서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인가 당시 학제는 인문·법정·경상·사회과학·이공·사범대학 등 6개 단과대학, 38개 학과, 11개 전공 체제로 재편되었으며, 모집 정원은 3,549명(졸업 정원 2,730명)으로 조정되었다.

당시 정부가 시행한 졸업정원제는 모집 인원을 졸업 인원의 130%로 설정하여 대학 간, 학생



| 1982학년도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



1988학년도 입학식 |

간 경쟁을 심화시켰으나, 대구대학교는 오히려 학문적 외연 확장과 전문성 강화의 기회로 삼았다. 1982학년도에만 10개 학과와 4개 전공이 신설되었고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회과학대학, 이공대학, 사범대학의 6개 단과대학들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1983년부터 1985년 사이에는 가정대학, 미술대학, 농과대학 등 특성화된 단과대학들을 잇달아 신설하며, 종합대학의 위상에 걸맞은 다각적인 교육 진용을 완성하였고 1993년까지 편제와 정원 확대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는 훗날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으로 대표되는 대학교육 및 정원 자율화, 국제 경쟁력 강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단한 자산이 되었다.

[1994~2016] 학생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혁신과 사회적 책무 확대

직선 총장 시대의 개막과 함께 추진된 1994년부터 2016년까지는 과거의 양적 성장을 넘어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체질을 개선한 질적 혁신의 시기였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단과대학별 독립 운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전공과 기초교양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학부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부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폐지하는 등 시대적 트렌드에 맞춘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대학의 자구 노력과 입시 전략이 주효하며 신입생 정원이 대폭 증가해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편제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01학년도에는 일부 학과를 학부 혹은 학과군으로 묶거나, 학부 명칭을 재조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에 새로운 생존 전략을 요구하였다. 대구대학교는 실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내실화의 단계로 전환하기 위해 유

연도별 신입생 정원

연도별	신입생 정원(명)	연도별	신입생 정원(명)	연도별	신입생 정원(명)
1995	3,700	2000	4,630	2013	4,533
1996	3,720	2001	4,750	2014	4,533
1997	3,950	2002~2005	4,745	2015	4,351
1998	4,390	2006~2011	4,553	2016	4,149
1999	4,590	2012	4,543		

사·중복 전공을 과감히 통합하거나 일부 전공 명칭을 시대 흐름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대학정원 감축이라는 위기를 돌파하였다.

2014년에는 한국장학재단 주관 ‘지식나눔 우수대학’ 선정으로 교육의 사회적 공헌도를 인정받았으며, ‘일·학습 병행 듀얼 공동훈련센터’를 개소해 산업 현장과 교육의 거리를 좁혀나갔다. 2015년 이후에는 대학 구조개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식품안전(HACCP) 분야 교육, 환경전문 인력 양성, IPP 일·학습병행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실무 중심의 특성화 전략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교육과 사회적 가치 교육을 결합하였고, 대학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해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였다. 교양과 전공 교육 간 연계 기반을 강화한 인성교육과 국제교류도 확대해 교육의 질적 확장을 도모하였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K-MOOC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은 교육 대상을 성인 학습자와 지역사회로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대구대학교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포용적 교육 가치를 실현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공고히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2017~현재] 경계를 넘고 간극을 잇는 융복합 교육혁신 선도

최근 10년간 대구대학교는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공 교육의 전방위적 체질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전공 체계의 개편은 몇 가지의 특징을 띄고 있다. 첫째,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해 학생주도적 참여형 수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진로와 정체성 형성에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둘째, 독립된 분과학적 전공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융복합 전공 교과과정을 마련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통섭적 인재상을 확립하였다. 셋째,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는 창의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실 있는 전공체계와 실효성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위상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는 전공 교육은 △학생 주도형 교육 모델의 개발을 통한 기존 전공의 내실화 △포스트-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융복합 교육체계 구축 △학생주도 및 쌍방향 소통 교수법 혁신으로 인해 구현되었다. ‘2023년 전공교육과정 자체분석 진단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생 주도형 교육 모델 개발을 통한 기존 전공의 내실화

대구대학교 전공 교육은 학과를 혁신의 중심축으로 삼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쇄신을 거듭해 왔다. 교육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전공교육과정자체분석 진단평가’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전공 교육 사이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구대학교는 매년 학과, 단과대학, 대학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CQI(교육품질 관리) 환류 체계를 운영 중이다. 특히 2~3년 주기로 단과대학 단위의 심층 진단을 실시하여 전공 교육과정이 대학의 발전계획, 인재상 및 핵심역량과 높은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공공통프레임워크’를 주기적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전공교육 모니터링 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목 개선과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학과별 주요 특징과 강점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① 전공공통프레임워크 및 학업·진로 로드맵 기반 설계형 교육모델

대구대학교는 학생이 입학부터 졸업, 진로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설계형 교육 모델을 확립하였다. 이를 위해 각 학과는 전공공통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입체적인 학업·진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전공공통프레임워크는 2019년 교육과정 고도화 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본격 적용되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의 질 관리 요구 등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각 전공의 경쟁력을 명확히 증명할 구조화된 설명 체계를 갖추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전공공통프레임워크는 모든 전공이 갖추어야 할 기초·핵심·심화 교육의 최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학 교육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지표가 되었다.

전공공통프레임워크의 ‘학업로드맵’은 기초에서 심화, 응용, 실습과목으로 이어지는 전공 교과목의 단계적 이수 체계를 시각화해 학문적 성취가 단절 없이 누적되도록 돕는 지침서이다. 이와 궤를 같이하는 ‘진로로드맵’은 학업을 통해 쌓은 지식을 실제 직업 세계로 확장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제안한다. 전공별 특성을 반영한 진로 영역과 필수 역량을 명시함으로써 학생에게는 명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학과에는 고유의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목표		디지털미디어를 매개로 유통·향우되는 콘텐츠 창작능력을 가진 전문가 양성											
전공학점 이수		단일 및 심화전공		60학점 이상		복수전공		36학점 이상		부전공		21학점 이상	
관련 교양		지역문화의 이해, 문학과예술의사회사, 함께읽는동서양고전, 한자문화의이해											
구분	분야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학업 로드맵	디지털콘텐츠 창작	디지털콘텐츠제작입문	미디어영어의이해	스토리텔링기초	고전영자서미나 문예창작의이론과실제	신화와현대사 웹기반스토리창작기초	문예창작언어연습 시창작연습 웹기반스토리창작연습 픽션서사창작연습	문학답사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웹툰디자인 언어와시그리고창작력	문예를담는이해와표현 문예언어웹툰디자인(2)				
	디지털콘텐츠 콘텐츠분석	디지털콘텐츠제작입문	문화예술산업의이해	대중문화언어의이해	엔터테인먼트와IT	웹기반스토리창작기초	웹기반스토리창작연습 픽션서사창작연습	스토리텔링웹툰디자인	출판실습웹툰디자인				
	디지털콘텐츠 콘텐츠 기획	문학콘텐츠입문	문화예술산업의이해	문화예술마케팅	콘텐츠기획과예술경영			문학답사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웹툰디자인	출판실습웹툰디자인				
진로 로드맵	디지털콘텐츠창작 전문가	디지털콘텐츠제작입문	미디어영어의이해	스토리텔링기초	고전영자서미나 문예창작의이론과실제	신화와현대사 웹기반스토리창작기초	문예창작언어연습 시창작연습 웹기반스토리창작연습 픽션서사창작연습	문학답사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웹툰디자인 언어와시그리고창작력	문예를담는이해와표현 문예언어웹툰디자인(2)				
	웹기반콘텐츠 기획전문가	문학콘텐츠입문	문화예술산업의이해	문화예술마케팅	엔터테인먼트와IT 콘텐츠기획과예술경영	웹기반스토리창작기초	웹기반스토리창작연습	스토리텔링웹툰디자인	출판실습웹툰디자인				
	출판, 홍보, 언론 전문가		미디어영어의이해	대중문화언어의이해	콘텐츠기획과예술경영	광고영어분석 한국어문장의이해	문예언어와리듬 한국어다양성과표현	문학답사스토리텔링 미디어언어와출판 스토리텔링웹툰디자인	문예언어웹툰디자인(2) 출판실습웹툰디자인 한국사회와언어				
교수법 이수 체계	나눔과학신(사양)	■ 서비스러닝		사회언어학, 문학답사스토리텔링									
	지역사회맞춤(세)	■ 전공Field		문화예술마케팅, 콘텐츠기획과예술경영, 광고언어분석									
		■ 전공 Field+		엔터테인먼트와IT, 미디어언어와출판									
		■ 웹툰디자인		문예언어웹툰디자인(1), 스토리텔링웹툰디자인, 문예언어웹툰디자인(2), 출판실습웹툰디자인									
	자기주도(자유)	■ 디자인Thinking		웹기반스토리창작기초, 웹기반스토리창작연습									
		■ 창의설계		문화예술마케팅, 콘텐츠기획과예술경영									
(전공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문예창작관련 학회(그지네, 시소)					유천 취득 자격증		문예창작실기지도사, 문예교육지도사, 글쓰기지도사, 콘텐츠스토리텔링전문가				

| 미디어문예창작전공(현 문화콘텐츠학부)의 전공공통프레임워크

② 수행, 프로젝트, 캡스톤 중심 수행형·창작형 학습 모델

대구대학교의 전공 교육 현장은 시험 중심의 지식 평가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이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행 중심 학습 경험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강의실의 이론이 실제 산업 성과와 지역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문·사회, 예술·디자인, 공학 및 보건복지 등 전 계열에 걸쳐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문화콘텐츠학부는 필기시험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공연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과정을 학생이 주도하는 커리큘럼을 통해 실기 기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웹소설 분야는 실제 플랫폼 연재 및 베스트리그 진입 등 교육의 결과가 산업적 성과로 직결되는 수행형 교육모델의 전형을 보여준다.

공공안전학부와 경찰학부 등 법·행정 계열 역시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공직법무전공의 모의법정 활동과 캡스톤디자인을 통한 법례 해결 프로젝트, 행정학과의 캡스톤디자인과 서비스 러닝을 통한 지역행정 및 공공정책 문제 해결, 그리고 경찰학부 경찰행정학전공의 치안 정책 모델링과 예방 전략 설계 등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공성을 높이는 실무 중심 지도



| 2025~2026 국제 공동 캡스톤디자인 캠프

체계의 성과이다.

융합예술학부 및 디자인 계열 학과들은 실무 중심의 제작 프로젝트를 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영상애니메이션전공은 웹툰,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중심의 실무 교과와 전공 진로 캡스톤디자인을 운영하며, 시각디자인전공과 서비스마케팅디자인전공은 각각 실무교과 중심 교육과 프로젝트형 실무교육을 운영한다. 패션디자인학과는 기초 실기부터 졸업 작품 제작까지 이어지는 포트폴리오 중심 교육을 통해 준비된 창작자를 양성하고 있다.

전자전기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IT 계열 학부와 전공들은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직접 해결하는 산학 공동 프로젝트와 캡스톤디자인을 강화하고 있다. 재활공학과는 재활기기 및 보조공학 기기를 설계·제작하여 전시하는 활동을 통해 결과물 중심의 학습을 구현한다.

이러한 수행형 교육의 가치는 국제무대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주관한 ‘국제 공동 캡스톤디자인 캠프(Global CDP)’는 다국적·다학제적 융합의 정수를 보여준 사례이다. 태국 왕립라자망갈라공과대학(RMUTT)과 국내 7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이 캠프에서 대구대학교 학생들은 ‘Engineering for agriculture, healthcare and sustainability’를 주제로 글로벌 팀워크를 발휘하였다.

특히 이날 캠프에서 대구대학교 반도체전자공학전공 학생들은 태국 학생들과 팀을 이뤄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바이오 로보틱스’를 기획하였다. 이들은 생분해성 천연 라텍스 기반의 ‘액체 멀칭제(Liquid Mulching)’를 험한 농지에서도 효율적으로 도포할 수 있도록 무한궤도와 UV LED 경화 장치를 탑재한 자율주행 로봇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구대학교의 수행형 교육이 글로벌 현안에 응답하는 수준 높은 전문 역량으로 성장했음을 증명하였다.

③ 현장실습·서비스러닝·지역사회 및 산학협력 중심 현장형 교육모델

대구대학교의 전공 교육은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 공공기관으로 학습의 장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진로 역량을 강화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으로 자리 잡았다.

체육학과와 스포츠레저학과는 현장 체험 중심의 비교과 활동을 통해 실무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체육학과는 스포츠센터와 프로스포츠, 계절스포츠 현장 등에서 직무 관찰과 운동 지도 시연, 운영 분석을 포함한 심화 학습을 진행하며, 스포츠레저학과는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설계와 산업 기반 과제 수행을 통해 취업과 직결된 설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25년 스포츠헬스케어학과 신설로 이어지며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농·생명·에너지 계열은 지역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교육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스마트원예학과는 경산시청이 지원하는 '4-H 활동'을 운영하여 지역 농업·원예 현장 실천 학습을



| 2025년 생방향 현장체험 프로그램(경북디자인진흥원 체험 및 전문가 특강)

제공하고, 반려동물산업학과는 미용과 훈련 교과를 서비스러닝(Service Learning) 형태로 운영해 지역사회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품가공학과와 식품영양학과는 HACCP 교육원 프로그램과 장기 현장실습 등을 통해 기관 연계 실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소재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양수발전소 견학과 E-Study Trip 등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생생한 현장감을 체험한다.

복지 관련 학과는 지역사회 기반의 실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복지학과는 각 복지관 등 현장에서의 프로젝트 수행으로 실천 역량을 쌓으며, 아동가정복지학과는 보육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로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학과는 사회복지 현장실습과 'Field·Field+'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복지 현장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2025년 여름, 수성아트피아 유아 체험형 예술교육센터 '아테이너'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현장형 교육의 백미를 보여주었다. 아동복지학과 학생들이 아동미술 수업에서 기획한 콘텐츠이자 교내 캡스톤디자인 대상 수상작을 실제 현장 교육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지역 아동들에게 감정과 자아 탐구 중심의 미술 활동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서비스러닝 기반의 실천적 역량을 함양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

④ 자격·국가시험, 진로·취업지원 중심 경력설계형 모델

대구대학교의 전공 교육은 자격증 취득, 국가고시 합격, 공무원 및 전문직 진출 등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구조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지적학과는 공인중개사, 지적공무원, 감정평가사 등 목표별 특화반을 정례화하여 '전공·비교과·자격'이 하나로 이어지는 연계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다. 경영·회계·경제금융 전공군 역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고시 준비반을 운영하는 한편, CPA,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AFPK 등 금융 전문직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영학전공은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교과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재활 영역의 전공들은 국가시험 합격을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언어치료학과는 언어재활사 국시 대비 특강과 케이스 컨퍼런스(Case Conference)를 정례화했으며, 물리치료학과와 작업치료학과는 국시 중심의 필수 교과 개편을 지속하고 있다. 재활건강증진학

과는 보건교육사 국시 대비 집중 특강, 문헌정보학과는 사서 및 기록관리 전문가 진입을 위한 진로 특강을 각각 지원하고, 심리학과는 심리검사 전문가 자격 교육과 대학원 진학 지원을 병행해 전문직 진출과 학문적 심화가 동시에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사범대학은 교원임용시험 중심의 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구조화한 대표적 전공군이다. 특히 2025학년도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임용시험에서 총 261명(국·공립 223명, 사립 3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독보적인 경쟁력을 입증하였다. 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등 특수교육 관련 학과에서는 전국 각지의 수석과 차석 합격자가 쏟아져 나와 ‘대구대만의 체계적인 준비가 확실한 성과로 이어진다’는 신뢰를 학내외에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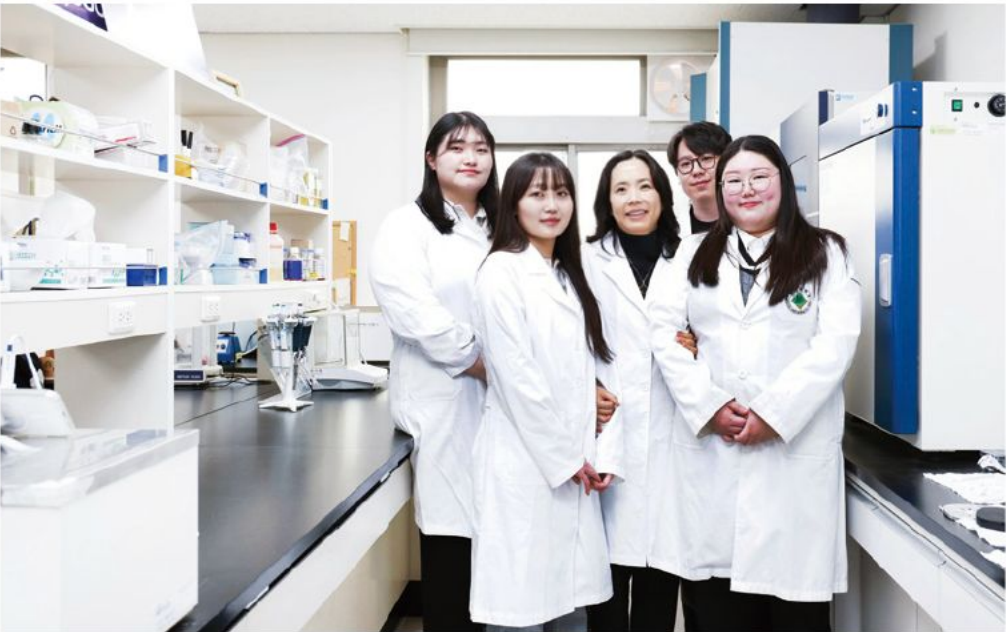
이 외에도 국어(18명), 역사(16명), 물리·지리·생물(각 12명) 등 전 학과에서 고른 합격생을 배출하며 사범대학 전반에 안착한 교육 체계의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전공수업과 모의수업, 현장실습, 그리고 임용 대비 특강과 스터디가 하나의 정교한 학습 경로로 운영된 결과, 사범대학은 최근 8년간(2018~2025) 국·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누적 합격자 1,964명이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⑤ 디지털·특화 인프라, 소통체계 기반 지원·관리 혁신모델

대구대학교의 전공 교육은 디지털 기반의 소통 혁신과 특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조경산림정원학과와 반려동물산업학과 등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익명 소통창구 등 SNS 기반의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해 교과 정보와 취업 소식을 투명하게 공유한다. 아동가정복지학과와 언어치료학과, 재활상담심리치료학과 역시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와 오픈채팅을 활용해 복잡한 자격 취득 안내와 실습 정보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저학년 및 복수전공 학생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포용적 교육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전기공학전공은 ‘졸업생 능력보증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격증, 어학, 프로그래밍, 실무기술 등 핵심 역량을 스스로 검증하고 갖추도록 독려하는 차별화된 운영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식품영양학과는 연구와 교육, 창업 인프라를 구조적으로 연계하여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하는 실천적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형 아이코어(I-Corps) 사업’ 선정은 이러한 혁신의 결정체이다. 2023년 비건 치즈 연구로 미국 실전 창업 교육을 수





| 2025년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에 참여한 식품영양학과 이미령 교수(가운데)와 연구팀 학생들

료하고 우수상을 거머쥔 ‘비전의 왕국’ 팀에 이어, 2025년에는 지역 특산물인 연근을 활용한 무카페인 프로바이오틱스 콤부차를 개발한 ‘연근의 축복’ 팀이 선정되어 시장의 큰 주목을 받으며 제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을 위한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가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대구대학교의 전공 체계는 전통적인 학문 편제의 한계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통합과 신설을 통해 역동적인 진화를 거듭해 왔다. 불확실한 미래를 선제적 대응의 기회로 전환해 온 대구대학교의 노력은 이제 디지털 인프라라는 날개를 달고 더욱 의미 있는 변화의 과정을 써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포스트-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융복합 교육 체계 구축

① 연계전공 및 융복합전공

대구대학교의 학문 융합은 2001년 ‘연계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의 도입과 함께 그 첫발을 내디뎠다.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문을 균형 있게 이수(연계전공)하거나, 본교에 없는 전공을 스스

로 설계해 복수전공으로 이수(학생설계전공)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대학 교육혁신의 선도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는 대학 교육혁신의 초기 모델로, 2010년 전후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초기 연계전공은 기존 학과 체계 내에서 교과과정을 공유하며 학문적 연속성과 다양성을 실험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2007년에는 협동조합전공을 비롯해 정보물류, 노인복지·상담, 의생명과학 등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7개 전공이 신설되며 교육의 외연을 넓혔다.

연계전공 연계학과(전공) 구성(2014)

전공명	연계전공	이수 학점
공동사회교육 연계전공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각 영역별 12학점 이상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공동과학교육 연계전공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지구과학 포함 각 영역별 9학점 이상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화학교육전공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협동조합 연계전공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각 영역별 12학점 이상
	경상대학 경제학과	
	경상대학 회계·세무학부 회계학전공	
정보물류 연계전공	경상대학 경제학과	각 영역별 12학점 이상
	정보통신대학 컴퓨터·IT공학부 정보공학전공	
	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공학부 임베디드시스템공학전공	
노인복지·상담 연계전공	인문대학 건강증진학과	각 영역별 12학점 이상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사회과학대학 가정복지학과	
평생교육 연계전공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각 영역별 12학점 이상
	사회과학대학 산업복지학과	
	사회과학대학 가정복지학과	
의과학 연계전공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각 영역별 9학점 이상
	자연과학대학 화학·응용화학과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자연과학대학 의생명과학과	

교육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은 2017년 ACE+ 사업(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선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융합교육클러스터센터를 중심으로 개방형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계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은 2017년부터 명칭을 ‘융복합전공’과 ‘자기설계전공’으로 변경하며 그 성격

을 대폭 확장하였다. 기존 연계전공이 학과 간 교과목 공유라는 물리적 결합에 그쳤다면, 새롭게 재편된 융복합전공은 전공 자체가 독립적으로 교과목을 개발하고 신산업 분야를 기민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이는 대학이 단일 학문 중심의 지식 전달자가 아닌, 다양한 지식이 교차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한 결과였다. 특히 독립된 전공명과 학위를 부여받은 융복합전공은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크게 넓혀 나갔다.

또한 학사 구조의 유연화는 학생 주도형 비교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전학기’와 지역연계형 지식나눔 프로그램, DU인성 캠프, 현장체험 봉사활동 등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일깨우며 큰 호응을 얻었다.

융복합 전공별 학위종류

전공명	학위 종류
정보물류	경제학사
노인복지·상담	문학사
통합사회교육(교직융복합전공)	문학사
통합과학교육(교직융복합전공)	이학사
평생교육	평생교육학사
의과학	이학사
클라시카자유학	고전교양학사
인문SW	소프트웨어융복합학사
아프리카도시개발	국제도시개발학사
유라시아지역학	문학사
비즈니스한국어통번역	통번역학사
글로벌프론티어	문학사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문화콘텐츠학사
오디세이미래인재	문학사
스토리텔링창작	스토리텔링학사
정치경제철학	문학사
비주얼아트매니지먼트	시각예술경영학사
헬스케어마케팅	헬스케어마케팅학사
창업학	창업학사

전공명	학위 종류
스포츠산업창업	창업학사
생태관광치유학	생태치유학사
반도체산업공학	반도체산업공학사
항노화생명공학	항노화생명공학사
실무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사
외식산업경영학	외식산업경영학사
통일복지학	통일복지학사

* 통합사회교육과 통합과학교육의 융복합전공 이수는 표시과목 관련 학과(전공) 이수자에 한함

② 학생설계전공

대구대학교의 ‘학생설계전공’은 학습자가 기존의 학과 중심 교육체계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학문적 관심과 사회적 요구, 개인의 진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 개설 교과목을 재구성하는 혁신적인 제도이다. 2025년 3월 1일 개정된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생들은 2개 이상의 학과(전공)에서 전공, 교양, 자유선택 과목 등 66학점 이내의 맞춤형 커리큘럼을 편성할 수 있다. 특히 전공명과 학위명 역시 해당 과정의 융합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학생이 직접 명명함으로써 전공의 고유성을 부여한다.

학생설계전공의 지향점은 개별 학습자의 고유한 특성과 창의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학제적 지식 통합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겸비한 융복합형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이 제도는 교육 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확대하고, 학생이 설계자와 실행자로 거듭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학생설계전공 이수 제도 프로세스





| 2023-1학기 학생설계전공 발표

이러한 체계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된 급격한 사회 전환과 산업 패러다임의 재편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학습자들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자신만의 전문성을 발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학과 간의 경계를 허물고 지식의 융합을 실천하는 학생설계전공은 고등교육 혁신의 중요한 모델로 평가된다.

2017~2025학년도 학생설계전공 선정 현황

전공명	참여 학생(학과)	지도교수	운영 학기
식품안전관리전공	김○○, 우○○, 김○○, 김○○ (식품공학과)	임무혁 (식품가공외식학과)	2018-1
노사관계전공	김○○ (산업복지학과)	김용원 (경제학과)	2018-1
웨딩서비스디자인전공	박○○ (패션디자인학과)	최영림 (패션디자인학과)	2018-1

전공명	참여 학생(학과)	지도교수	운영 학기
한일문화콘텐츠전공	사○○○○ (국제관계학과)	하영수 (국제관계학과)	2018-1
조직공학전공	박○○ (생명과학과)	구덕본 (생명공학과)	2018-2
데이터사이언스전공	김○○ (통계·빅데이터전공)	김종태 (수리빅데이터학부)	2019-1
노인건강관리전공	이○○ (식품영양학과)	김윤희 (식품영양학과)	2019-2
테크니컬아티스트전공	김○○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원희철 (컴퓨터정보공학부)	2021-1
스포츠빅데이터전공	심○○ (스포츠레저학과)	권옥동 (스포츠헬스케어학과)	2021-2
공연예술경영전공	이○○ (사회복지학과)	김연희 (사회복지학과)	2022-1
소매유통운동재활전공	이○○ (스포츠레저학과)	권옥동 (스포츠헬스케어학과)	2022-1
스페이스브랜딩전공	이○○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정석연 (실내건축디자인학과)	2022-2
스포츠행정전공	손○○ (스포츠레저학과)	권옥동 (스포츠헬스케어학과)	2023-1
의료관광서비스경영전공	박○○ (호텔관광경영학부)	이광우 (호텔관광경영학부)	2023-2
관광심리치유전공	문○○ (호텔관광경영학부)	이광우 (호텔관광경영학부)	2025-1

③ 계약학과 전공교육

대구대학교는 산업사회의 요구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0년대 초 정부의 산학협력 강화 정책에 발맞춰 ‘계약학과’ 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2년 첫 운영을 시작한 대구대학교의 계약학과는 취업과 연계된 고등교육의 실용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적 시도였다. 일반 학과와 달리 산업체와 대학이 사전에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이 모델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며 학습하고, 기업은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대학과 산업체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였다.

2015년에는 실무형 인재 수요 확대에 따라 2개의 계약학과를 추가 신설하며 외연을 넓혔고, 2019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스마트시스템공학과를 추가 신설하였다. 이는 지역 제조업의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 속에서 자동화·지능화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대구대학교는 기업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현장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지역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까지 이어져 2024년부터는 IT융합학과와 메카트로닉스공학과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의 핵심 역량을 전수하고 있다. 이처럼 계약학과 운영은 산업 현장의 살아있는 지식이 강의실에 흐르고 대학의 연구 역량이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져 대구대학교가 지향하는 실용 학문의 미래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계약학과 편성과 입학정원 및 학위명

대학	학과	입학구분	입학정원	교육유형	학위종별
-	스마트시스템공학과	신입학	20명	혼합형 (조기취업형)	공학사
정보통신대학	IT융합학과	편입학	20명	재교육형	공학사
공과대학	기계융복합공학과	편입학	25명	재교육형	공학사
정보통신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편입학	30명	재교육형	공학사

④ 사업단전공

대구대학교의 ‘사업단전공’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과정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단일 대학의 한계를 극복한 최첨단 교육 모델로 자리 잡았다.

‘친환경배터리전공(친환경배터리사업단)’은 대구·경북혁신공유대학(DGM) 구상을 바탕으로 배터리 소재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 산업계 참여형 교육과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가 결합된 융합적 교육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은 전공 간 장벽을 낮추고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특히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PBL(Project-Based Learning)과 캡스톤디자인, 산학 연계 연구는 지역 특화 산업과 맞물려 실질적인 전문성을 확보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반도체부트캠프센터의 2025 하반기 반도체 기업 탐방 |

‘반도체융합전공(반도체부트캠프사업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전문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되어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혁신적 교육과정이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등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이끄는 반도체 기술은 단일 학문을 초월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에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복잡한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인력을 배출하고자 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기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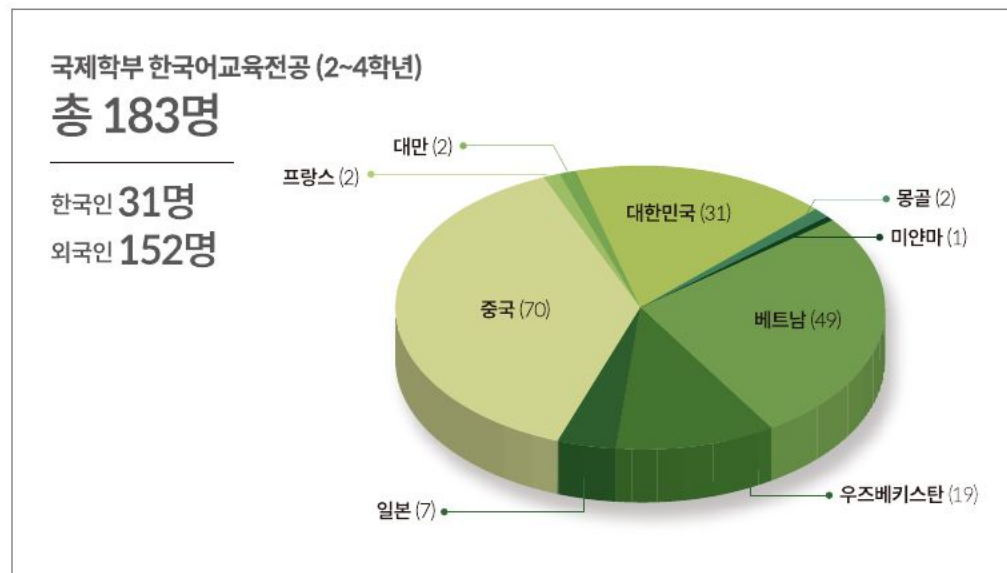
‘포용사회융합전공(HUSS 사업단)’은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설립한 컨소시엄 학부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대구대학교를 비롯해 인천대(주관), 서강대, 상지대, 국립부경대가 참여하는 이 모델은 전국 단위의 협력 체계를 구현한다. 각 대학의 지역적·학문적 강점을 결집하여 ‘포용 사회’라는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를 다각도에서 다룸으로써 단일 대학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공유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⑤ 국제대학

대구대학교의 국제화 역사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 외국어교육원과 대외협력팀의 통합을 기점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대학의 핵심 전략으로 정립하며 본격화되었다. 이후 국제처를 중심으로 유치와 입학, 체류 관리 및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한국어능력시험(TOPIK) 관련 업무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온 결과, 대구대학교를 찾는 세계 각국의 인재들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1,257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2025년에는 1,975명에 달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원 과정 유학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연구 기반의 국제 협력과 전문 인재 양성에 대한 수요가 학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현재 대구대학교의 유학생 구조는 중국(약 34~35%)과 베트남(약 26~27%)을 필두로 몽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아시아 신흥국은 물론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전역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2025학년도 기준 국제학부(한국어교육전공)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이 전체 183명 중 152명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며 캠퍼스 내 글로벌 다양성을 상징하는 전공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확대된 유학생 규모와 다양해진 학습 수요는 기존 학부 단위의 관리 체계를



| 국제학부 한국어교육전공 현황(글로벌경영대학, 국제학부 워크숍 자료, 2025.9.1.)



넘어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대구대학교는 2026년 ‘국제대학’을 전격 신설하였다. 국제대학은 기존 국제학부와 외국인 유학생 전공을 포괄하는 전문 조직으로서 다국적 합반과 외국인 전용반 운영을 병행하며 학생의 한국어 수준 및 학습 목적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의 중장기 발전과 국제화를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 학생주도 및 쌍방향 소통 혁신

① Teaching SIG+

수업의 질적 향상과 혁신적인 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은 교수들이 주도하는 학습 공동체인 'Teaching SIG+'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수들이 공동의 교육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팀을 구성하여, 실제 수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함께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교수법 연구 프로그램이다. Teaching SIG+는 전임교원 3~5명이 한 팀을 이루며 책임교수의 주도 아래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전개한다. 선정된 팀은 학기 중 최소 3회 이상의 회의를 거치며 교수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50쪽 이상의 심도 있는 연구보고서로 제출한다.

② 도전학기

'DU-도전학기'는 학습자가 교육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거듭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정수이다. 존 듀이의 경험주의 교육철학과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뿌리를 둔 이 제도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학기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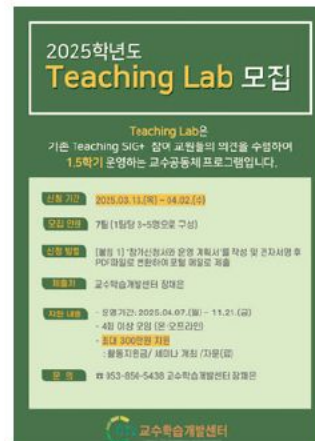
Teaching SIG+ 자료집



| 2024-1학기 자료집



| 2024-2학기 자료집



| 2025학년도 모집 안내

모델이다. 이는 자율학기제의 강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으로, 클러스터 중심의 융합교육 플랫폼을 통한 학제 간 통합 교육의 실현을 핵심가치로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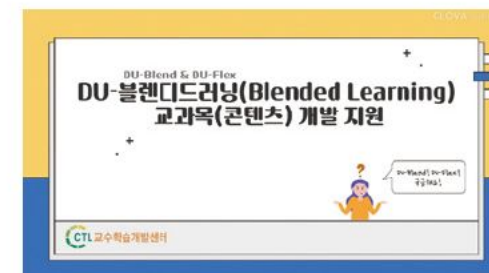
③ DU-MOOC, K-MOOC, DU-Blend, DU-Flex, Flipped Learning, Zoom, PBL

대구대학교는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e-Learning과 다양한 혁신 교수법을 전공 교육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대학의 자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DU-MOOC'와 국가적 개방형 교육 서비스인 'K-MOOC'를 통해 교양과 전공을 아우르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2024학년도에는 약 1만 5,000명의 학생이 온라인 강좌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5학년도에는 총 55개의 원격 강좌를 신규 개설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특히 대면 수업의 현장성과 온라인 학습의 효율성을 결합한 'DU-Blend'와 'DU-Flex' 등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은 학습 효과를 높이는 교수·학습 모형으로 안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수업 구조를 뒤집어 수업 전 온라인 학습 후 본 수업에서는 토론과 실습에 집중하는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그리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실제적인 문제 해결 과정으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PBL(Project-Based Learning)'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교수법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팀 단위의 탐구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냄으로써 실제적인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거둔 혁신 성과는 대외적인 공유와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1월 9일, 대구대학교는 건양대, 국립한국해양대, 제주대와 함께 '대학 연합 성과 포럼'을 개최하여 AI 기반

2024~2025학년도 블렌디드러닝 안내





| 2025학년도 대학 연합 성과 포럼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날 포럼은 교수지원 분야에서 AI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글쓰기 교육 혁신, 데이터 기반 교수지원, AI 플랫폼 등의 사례와 함께, 학습지원 분야에서 AI 활용 학습법 공모전, 학습역량진단 기반 지원, 실습 중심 AI 기초 교육 운영 사례가 소개돼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러한 교수법은 교육혁신원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안정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미래 교육 환경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려는 대구대학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창의 교수법 실행 현황

시기별	주요 내용
2013. 04.	‘창의설계 교수법 개선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 시작 - PBL 모듈 활용 수업 등 PBL 관련 주제로 한 워크숍 진행
2014. 07.	‘플립드러닝 교과목 운영 지원’ 프로그램 시작
2019. 06.	‘창의·문제 해결형(PBL) 교과목 개발 지원’ 프로그램 시작 - 학부 개설 예정인 기존 전공, 교양 교과목 중 PBL 수업방식 전환을 희망하는 교과목 대상으로 개발 지원
2019. 09.	‘DU-블렌디드러닝 교과목(콘텐츠) 개발 지원’ 프로그램 시작 - 15주 수업의 20~69% 범위 안에서 교수자가 온라인 수업을 선택하여 진행
2024. 09.	‘DU-블렌디드러닝 교과목(콘텐츠) 개발 지원’ 프로그램 세부화 - DU-Blend와 DU-Flex로 구분 · DU-Blend: 중간·기말고사 주간을 제외한 13주 수업에서 교수자가 30~69% 범위 안의 온라인 수업을 선택하여 진행 · DU-Flex: 중간·기말고사 주간을 제외한 13주 수업에서 매주 온라인 50% + 오프라인 50%로 진행

④ 교육혁신원

대구대학교 교육혁신원은 교수학습지원 제도의 질적 혁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동력이 되어왔다. 2017년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현재의 체제로 정착한 교육혁신원은 교육 환경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쇄신을 거듭해오면서 교수자 중심의 전달식 수업을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수업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 왔다. 현재 교육혁신팀, 교수학습개발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K-MOOC사업단), 전공역량진단센터의 4개 조직을 갖추고, 교육과정 개편부터 교수·학습법 고도화, 전공 역량 분석에 이르기까지 대학 교육의 수월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교육혁신원의 사업들은 매우 다양한 교수법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다음의 각 사업 및 지원 체계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상호 중첩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사업 간의 연계와 협력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먼저, ‘DU-학과역량강화사업’은 교육혁신원의 핵심사업으로, 단기적으로 맞춤형 학습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4학년도에만 63개 학과가 참여하여 428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

으며 이는 신입생의 적응 돕기와 중도탈락 방지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2025학년도에는 학과당 지원 규모를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하여 사업의 내실을 더하고 있다.

‘교수자 지원 프로그램’은 신입교수 정기 간담회를 비롯해 교수법 개선을 위한 DU-MOOC 플랫폼 기반 온라인 특강을 제공하고 플립드러닝, 블렌디드러닝, 생성형 AI 활용법까지 포함한 맞춤형 교수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자기수업개선 실행연구로 자신의 수업을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Teaching-Up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과 개선 방안에 대해 도움을 받도록 하였다.

‘학생 학습법 지원’은 ‘맞춤형’과 ‘참여형’에 방점을 두었다. 1:1 학습코칭과 HEART 역량 기반 학습 챌린지를 통해 개개인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전문적인 학습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 회복을 돕고 있다. 특히 ‘아하! 공부법’과 CTL 서포터즈, 사제 동행학습과 같은 프로그램은 교수와 학생, 선후배가 지식을 공유하는 역동적인 학습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대학 전체에 능동적인 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전공역량진단센터’는 전공 교육과정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각 학과의 교육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대학 운영의 중요한 과제인 학생 만족도 조사와 개선 요구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정보 전달의 불일치나 소통의 미흡함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대학교육의 질적 혁신과 학습자 중심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1학기, 교수법 지원 영역에서는 신입교수 대상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해결과 동료 교수진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였고, Teaching ON 비대면 특강을 운영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교수법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연구 동아리 활동, 행복멘토링 프로그램 등 교수 공동체 문화 조성과 교외 연수 기회도 지원하였다. 특히 교수학습개발센터는 PBL, 플립러닝, 블렌디드러닝 교과목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수업 모델을 적극 도입·운영하며, DU 학습법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검증된 학습 전략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혁신원의 체계 변화 및 주요 역할

연도별	주요 내용
2001	교수학습개발센터 설치로 교수자·학습자 동시 지원 체계 마련
2002	정보통신원으로 이관, 교육개발지원팀 신설로 멀티미디어 기반 교수·학습 지원 강화
2008	교육혁신평가원 산하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개편, 학습지원에서 교육 질 평가·개선 체제로 확장
2010	교무처 산하 교육개발센터로 재편, 교수법 특강·워크숍 제도화 및 교수 역량 개발 필수화
2013	성과보고서 발간 시작, 맞춤형 교수법 특강·워크숍 확대, 지원 활동의 체계적 기록·평가 정착
2014	플립드러닝, PBL, MOOC, K-MOOC 등 학습자 참여형 수업 지원 확대, 교수 중심 전달식에서 학습자 참여형 수업으로 전환
2017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교육혁신본부 산하로 편입, 대학 전체 교육혁신 전략과 연계된 핵심 기관으로 위상 강화
2018	교무처 소속 교육혁신원으로 재편, 행정과 교육 지원의 긴밀한 통합
2019	PBL 교과목 개발 지원 시작,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 강화 DU-블렌디드러닝 교과목 개발,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 확산
202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수업 급속 확산, ZOOM 연수 및 온라인 교수법 특강 운영으로 디지털 교육 혁신 본격화
2021	교육혁신원 산하 교수학습개발센터 직제 정비, 온라인 수업 경험 제도화·안정화
2023	PBL, 토의·토론 중심 온라인 특강 운영으로 학습자 능동적 참여 교수법 정착
2024	ChatGPT 등 생성형 AI 활용 특강 운영, DU-블렌디드러닝을 DU-Blend와 DU-Flex로 세분화하여 첨단 기술 기반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교육혁신원 조직 체계

조직	주요 역할
교육혁신팀	- 예산·행정 총괄, 교육혁신 과제 추진 - 학과 역량 강화·특성화 사업 운영 - 교육과정 개편·질 관리
교수학습개발센터	- 교수자·학습자 지원 - 교수법·학습법 특강·워크숍 기획·운영
원격교육지원센터·K-MOOC사업단	- 온라인 강좌·MOOC·OCW 콘텐츠 개발·운영 - 원격교육 확산
전공역량진단센터	- 전공교육과정 분석·진단 - 학부 교육성과 관리 - DU 전공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제2절

학부 교육의 질적 패러다임 선도한 교양교육 혁신

[1956~1993] 전인교육의 가치 담아낼 탄탄한 토대 구축

1956년 설립된 한국사회사업학교는 전후 복구와 사회 재건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실천적 사회사업 인력 양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교육의 초점은 전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지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데 집중되었다. 이 시기 교과 운영에서 '교양'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과목군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 1980년대 중앙도서관

1961년 대학 승격 이후, 고등교육 체제의 정비와 대학 기능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학과 확충과 더불어 교육과정 정비를 단행하였고, 교과 운영 역시 각 학과의 설립 목적과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양으로 분류된 과목들은 대체로 학문적 일반 소양을 기르는 보편 교육보다는 전공 이수를 위한 준비 단계인 '전공 기초' 성격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당시의 교육 패러다임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보여준다.

[1994~2016] 교양교육의 통합적 거버넌스 확립

체계화의 흐름 속에서 2007년 이후부터는 학과제 시행과 함께 교양교육과정 개편이 논의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시행된 교양교육 체제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양시수 필수이수는 23학점, 최대 상한은 44학점이었다. 선택교양은 21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었고, 공통교양은 취업과 외국어 각 2학점이 추가된 14학점이 되었다. 주목할 것은 기존 선택교양에 편성된 교과목들을 기본교양(9학점 신설)과 선택교양으로 나누어 교양교육의 전문성과 보편성 사이의 균형을 꾀했다는 사실이다.



| 2018-1학기 ACE Lounge 오픈식 및 ACE+ 사업성과 보고회 개최

2014년 교양교육의 전담 주체로 '기초교육원'이 신설되었고, 이는 2015년 '기초교육대학' 설립과 교양교육 전담 교원 임용으로 교양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기초교육대학은 대구대학교의 교양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갔다. 이를 통해 학술성 기반의 균형교양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천적 인성교육을 체계화하였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DU 지역사랑프로젝트'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명저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등 대규모 교과목 개편이 단행되었다. 또한 문화와 예술, 역사와 사회, 과학과 미래라는 영역과 관련한 기초교육대학 전담 교수를 확보해 운영하였다.

교수법의 혁신 또한 이 시기의 두드러진 성과이다. 기초학업 분야에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플립드러닝 수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교양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고, 2016년 기획해 2017년 시행한 DU비전설계 동기부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RC(Residential College)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ACE+ 사업 신규대학으로 대구대학교가 선정되면서 교양교육 개편, 창의융합전공 개발, 비교과교육과정 개선 등 교양과 학부 교육의 질적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2017~현재] 팬데믹 넘어 AI 시대 향한 공존과 성장

현재 대구대학교의 교양교육은 공통교양과 균형교양의 이원 체제를 골자로, 최소 30학점에 서 최대 5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는 유연하고도 견고한 설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2017년 전후로 4차 산업혁명 담론의 확산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던 시기에 고등교육 정책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며 정립되었다. 특히 정부의 '기초학문·교양교육 강화' 기조에 부응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교육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

공통교양 영역은 인성, 사고와 표현, SW·AI, 글로벌 의사소통이 포함된다. 인성 영역의

우리 대학 학우, 경주 APEC CSOM 회의에서 민간의 전관으로 활약

박승민 기자 | 승인 2025.11.17 18:13



◇ 통역·의전 경험으로 국제무대에서 역량 발휘

지난 10월 광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21개 회원 경제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인구 GDP 무역 규모에서 세계 약 60%를 차지한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대구대학교 학생의 활약상을 게재한 기사 (대구대신문 'DU두드림', 2025.11.17.)

교양교육과정 기본체계(2025)

영역	영역	편성교과목		이수학점
		교과목명	학점	
공통 교양	인성	나의대학생활과진로	1	- 9학점 이상, 3개 영역 이상 이수
		DU사랑빛자유프로젝트	2	
	사고와 표현	글쓰기기초	2	
		빅컨셉+	2	
	SW·AI	컴퓨팅사고와코딩	1	- 필수이수교과: 나의대학생활과진로, 글쓰기기초
		생활속인공지능	1	
	글로벌 의사소통	DU실용영어(1)	2	
		DU실용영어(2)	2	
DU실무영어, DU글로벌소통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2		
균형 교양	문학·예술	- 9학점 이상 - 3개 영역 이상 이수 - 교과목 학점: 2 또는 3학점		
	역사·철학			
	사회·문화			
	과학·기술			
	여가·체육			
최소 이수 학점		30		
최대 이수 학점		50		

'나의대학생활과진로'와 사고와 표현 영역의 '글쓰기기초'를 필수 이수 과정으로 두어 대학 생활의 기초를 다지고, SW·AI 영역의 '생활속인공지능'과 '컴퓨팅사고와코딩'을 통해 전교생의 디지털 문해력을 배양한다.

실용 및 실무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외국어 교양과정을 개설한 글로벌 의사소통 영역의 성과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국제무대 활약으로 증명되고 있다. 일례로, 2025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영어교육과 21학번 김민서 학생이 민간의전관(HELO)으로 참여해 통역과 의전 업무를 훌륭히 수행한 사례는 대구대학교 외국어 교육과 비교과 프로그램(영어 클리닉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실무적 교육성과를 잘 보여주었다.

균형교양 영역은 문학·예술, 역사·철학, 사회·문화, 과학·기술, 여가·체육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9학점 이상 이수하되 3개 이상 영역에서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각 교과목은 2~3

 마셀 루크의 감성과 치유: 글쓰기의 인간, 기계, 그리고 자유를 향한 정신을 수놓는 열망 “내 말을 오래보내면, 글쓰기가 제 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나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글쓰기는 삶입니다. 당신의 일상생활.” 대구대신문사 / 2018-06-06 20:10	정신을 위한 고전 카페 [5] 학생들이 영감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구대학교 교육방송국(DUBS)에서는 ‘정신을 위한 고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으로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의 김명진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 하였습니다. 여운주 / 2017-05-15 16:25
 프랜스 드발의 <인간의 유인원> ‘침팬지와 보노보의 행동을 통해 바라본 인간의 양면성’ 《내 안의 유인원》의 저자인 프랜스 드 발(Frans de Waal, 1948~)은 1967년 데르덴트 대학교의 《일하는 동물학》... 대구대신문사 / 2018-05-08 19:25	정신을 위한 고전 카페 [4] 학생들이 영감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구대학교 교육방송국(DUBS)에서는 ‘정신을 위한 고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송으로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의 김명진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 하였습니다. 여운주 / 2017-05-02 16:33
 마크 Twain의 ‘군주론’ - 위대한 정치철학을 개척하려는 천막 보고서 마크 Twain은 그의 풍자물에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미지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나는 ‘종교개혁의 대변자’이다... 대구대신문사 / 2018-04-11 23:10	정신을 위한 고전 카페 [3] 학생들이 영감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구대학교 교육방송국(DUBS)에서는 ‘정신을 위한 고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송으로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장조용철학부 소속의 손상훈 교수님을... 여운주 / 2017-04-21 18:34
 준 두희의 [민주주의와 교육] - 사회체제와 철학이론 그리고 교육실천의 상충관계 준 두희의 삶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교육’이다. 유이는 1959년 버몬트 주에 태어나서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의 고교 교사생활... 대구대신문사 / 2018-03-27 21:27	정신을 위한 고전 카페 [2] 학생들이 영감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방송국(DUBS)에서는 ‘정신을 위한 고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송으로 조재경 교수님을 모시고 포레스트와 ‘필라리아드 오디세이아’에 대해... 이예인 / 2018-12-29 00:35
 쉽게 듣고 읽는 명저이야기 평자는 이번 겨울에 스톡홀름의 지역의 역동성을 방문하여 ‘명저’ 시리즈 중 ‘쉽게 듣고 읽는 명저’를 찾아 왔다. ‘명저’ 시리즈는 그레이트브리튼... 대구대신문사 / 2018-05-07 20:40	정신을 위한 고전 카페 [1] 학생들이 영감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방송국(DUBS)에서는 ‘정신을 위한 고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으로 기초교육대학 장조용철학부 소속의 손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 하였습니다. 이예인 / 2018-12-19 22:30

| 쉽게 듣고 읽는 명저이야기(대구대신문) 및 청춘을 위한 고전 카페(DUBS)

학점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영역별 명저 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클라시카’ 등 고전 읽기 교과목은 인문학적 성찰의 뿌리가 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고전 교육이 대학 언론 및 방송과 연계되어 역동적인 교육 모델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대신문>은 담당 교수들이 직접 집필한 고전 연재 칼럼을 통해 고전의 현대적 해석을 공유하였고, 대구대학교 교육방송국(DUBS)은 교수와 학생이 함께 제작하는 오디오 프로그램 ‘청춘을 위한 고전 카페’를 방영하였다. 교수의 학문적 해석과 학생의 독창적인 질문이 교차하는 이 프로그램은 고전을 매개로 세대 간 대화와 사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등교육 혁신의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대구대학교의 교양교육은 인간적 가치와 고전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며 시대와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교육의 전형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1) 비전과 진로 설계, 지역에 기반한 인성교육

대구대학교의 교육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건학이념인 ‘사랑·빛·자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성교육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기존의 일방향적 강의 중심 수업을 탈피하고, 학생

참여와 현장 활동 중심의 ‘DU EYE(DU Early Year Experience)’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 및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인성교육은 크게 두 가지 핵심 트랙으로 운영된다. 첫째, 자아 탐색과 성장을 돕는 ‘비전·진로 설계’ 트랙이다. 신입생의 대학 적응과 자기 이해를 돕는 ‘DU비전설계’와 전공 이해 및 삶의 방향 설정을 지원하는 ‘DU진로설계’를 중심으로, 2020년에는 통합 모델인 ‘DU-HEART 세미나’로 고도화하였다. 이 과목은 교수와 학생, 동료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공동체 세미나로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2학점으로 개편된 이 교과목을 통해 학과에 적응하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이 모델은 현재 ‘나의대학생활과진로’로 개편되어 인성교육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공동체 가치를 실천하는 ‘지역 기반 활동’ 트랙이다. 대표 교과목인 ‘DU지역사랑 프로젝트’는 1학년 대상 1학점 교과목으로,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지역사회의 현안을 직접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참여형 수업이다. 학생들은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통해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적 문제를 탐구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배운다. 또한 봉사활동을 정규 교과화한 1학점 교과목 ‘DU나눔과 헌신’은 학생들이 지역 기관과 연계해 봉사를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장이다.



| 2021년 인성교양 교과 성과보고회

재능기부와 도시재생 참여 등 전공 지식을 나눔으로 환원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건학이념을 몸소 체험하며 실천적 지성인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두 교과목을 통합하여 'DU사랑·빛·자유 프로젝트'로 고도화하였다.

이처럼 학생 스스로 비전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의 인성교육은 대구대학교 교육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 지속적 쇄신 통한 글쓰기 교육으로 사고와 표현 역량 강화

대구대학교의 '사고와 표현' 교육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끊임없는 쇄신을 거듭해 왔다. 2015년 글쓰기 교육과정을 1학년 '글쓰기 기초'와 2학년 '영역별 명저와 창의적 글쓰기'로 단계화하였다. 2학년은 '인문학명저와 창의적 글쓰기', '사회과학명저와 창의적 글쓰기', '자연과학명저와 창의적 글쓰기' 중 한 과목을 필수 이수하여야 하였다. 이는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사유 체계를 읽고 해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제한된 시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플립드러닝은 무들(Moodle) 기반의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강의실을 결합한 'DUET 3.0'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차별 동영상과 포럼을 통해 예습하고 강의실에서 실습과 토론에 집중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글쓰기 기초는 성찰·비평·논증의 3단계 글쓰기 과정을 체계화하여 문제해결 및 모둠 기반 학습을 결합한 핵심 교과로 발전하였다. 글쓰기 기초는 공통교양에서 출발해 선택교양 시기를 거쳐 필수교양으로 안착하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혁신은 2020년 영역별 명저 읽기를 통합한 '빅컨셉+' 융합교과목 개편으로 이어졌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생성형 AI 시대에 발맞춰 또 한 번 진화하고 있다. AI를 비판적 학습 도구로 활용하되, 인간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중심에 두는 고등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교재와 플립드영상을 새롭게 제작하였다. 대구대학교의 글쓰기 교육은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본질적인 사유의 힘을 기르는 핵심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3) SW·AI 교육으로 AI 시대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21세기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SW와 AI는 전공을 불문하고 누구나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이

되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담론이 부상한 2010년대 후반부터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됨에 따라, 대구대학교는 이를 반영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디지털 교양교육 과정을 수립하였다.

'컴퓨팅사고와 코딩'은 프로그래밍 문법 습득은 물론 알고리즘적 사고와 문제 구조화 등 컴퓨팅사고 배양에 목적을 둔다. 이는 컴퓨터 과학의 원리를 일상적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사고 방식으로,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절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생활 속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한 교양 교과목이다. 2016년 인간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AI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개설돼 실생활 속 응용 사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첨단 기술을 실제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응용하는 통합적 안목을 기르게 된다.

대구대학교의 SW·AI 영역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핵심 교양으로 자리 잡았다.



| 컴퓨터정보공학부 학생 팀의 프로젝트 회의 모습

제3절

깊이 있는 교육과 전문인재 양성의 전당, 대학원의 진화

1947년 맹아학교 설립에서 시작해 1961년 한국사회사업대학으로 발전하며 학부 교육의 기틀을 다진 대구대학교는 1973년부터 본격적인 대학원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는 1966년 이태영 학장이 <사회사업대학보> 제14호에서 창학 10주년사를 통해 천명했던 '연구 기반을 갖춘 종합 고등교육기관'으로의 도약을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 사회개발대학원과 미국 포틀랜드대학교 사회사업대학과의 자매결연(1984.3.21.)

[1973~1981] 전문적인 특수교육의 효시로 첫발

한국사회사업대학원은 1973년 3월 1일, 국내 최초의 특수교육학과 석사과정을 개설하며 정원 20명으로 출범하였다. 시각·청각·정신지체·지체부자유 등 각 5명씩 세부 장애 영역별 전공을 모집하며 특수교육 전문 인력 양성의 선구적 역할을 맡았다. 초대 원장은 이태영 학장이 겸임하였으며 세계적 석학 쇼오지 사부로(昇地三郎, 1906~2013) 박사를 협동 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입학식은 3월 12일 개최하였다.

개원 초기부터 대학원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1973년 말에는 정원 20명의 사회사업학과가 신설되었고 특수교육학과도 10명이 증원되었다. 사회사업학과는 Case Work전공, 지역사회개발전공, 사회복지행정전공, 정신의학 및 정신위생전공을 개설하였다.

1975년 1월 21일, 특수교육학과에 정원 3명의 박사학위 과정과 6명의 석사학위 과정이 증원되었고 이듬해에는 박사과정 3명이 더 증원되었다. 또 1977년 1월 5일에는 사회사업학과에 정원 9명의 박사과정이 신설되는 등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갔다.

[1982~2016] 성장의 시대를 지나 내실 다진 도약기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대구대학교 대학원은 양적 확대와 학문 분야의 다변화를 동시에 달성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은 첫째, 일반대학원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로 학문 구조가 균형 있게 확장된 점이다. 둘째, 산업화에 발맞춰 실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연구 중심 대학원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사회개발·교육·산업정보·재활과학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을 잇달아 설립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완성하였다.

1991년부터 2016년까지는 대학원의 '확대 안정기'로, 질적 내실화를 추구한 시기였다. 일반대학원은 기초·응용학문과 첨단 전공을 아우르며 학문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집중하였다. 반면 특수대학원은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사회복지, 특수교육, 재활, 산업행정, 디자인 등 각 분야의 전문 교육 기관으로 위상을 굳혀나갔다.

(1) 일반대학원: 학문적 외연 확장과 연구 체계의 정립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은 198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수요와 학문적 다변화에 발맞춰 박사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1982년 특수교육학과, 사회사업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지역사회개발학과 등 5개 학과로 시작된 박사과정은 1985년 법학과와 생물학과, 1988년 화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가 추가되었다. 이후 꾸준히 학과가 증설되었고 1993년 생물공학과가 신설되면서 총 16개 학과, 140명 규모로 확대되었다.

1994년에는 24개 학과, 정원 324명 규모로 올라서며 인문·사회·공학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구성을 갖췄고 1996년에는 일부 학과의 명칭 변경 등 학문 체계 정비가 이루어졌다. 1997년까지 학과 수가 37개로 대폭 늘어났으나 계열별 입학정원제 도입으로 정원이 163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1999년까지 학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정원 173명 수준에서 안정적인 내실을 기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실용성과 전문성에 방점을 둔 학과 신설이 이어졌다. 기계공학, 식품영양, 패션디자인, 환경공학, 전자공학 등 산업 밀착형 학과들이 대거 확충되었고 2008년 보험금융학과 신설로 총 49개 학과 체제를 구축하였다. 173명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0년 이후에도 신문방송학과, 도시계획경영학과(계약학과), 경찰행정학과 신설 등 사회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며 학문적 위상을 높였다. 2014년 사회학과 폐지 이후 2016년까지 40명이 증원되어 총 50개 학과, 정원 218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일반대학원은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학문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질적 내실화와 전문 인력 양성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왔다.

(2) 특수대학원: 현장 밀착형 전문 인력 양성의 산실

특수대학원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사회복지, 교육, 특수교육, 산업·행정, 재활과학, 디자인 등 6개 체제로 전문화되었다.

먼저, 사회복지대학원은 1981년 사회개발대학원으로 출범해 2002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되었다. 초기 다학제 구조에서 사회복지 중심으로 학문 구조가 재편되었으며 1개 학과 3개 전공으로 운영되었다. 1990년대 후반 정원 282명에서 2026년에는 50명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한 조정으로 평가된다.

교육대학원은 1980년대 설립 초기 교사 재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나 1990년대 교과 중심 전공 확대와 2000년대 다문화·평생교육 영역 확장을 거쳤다. 이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사회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나갔다.

특수교육대학원은 1998년 통합교육 확대와 특수교육 전문 교원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설립되었다. 초기 1개 학과 7개 전공 체제에서 2016년 1개 학과 4개 전공으로 재편되었다. 특수교육대학원은 장애 유형별 전문 교원 양성 체제를 구축하여 2015년까지 1,219여 명이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초등·유아 특수교육 전공에서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산업·행정대학원은 1991년 산업정보대학원으로 시작해 2010년 통합 개편되었다. 행정, 경영, 지역개발 등 실무 중심의 전공 구조를 통해 산업 및 행정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문가들을 양성해 왔다. 전공 확대와 구조 조정을 거쳐 6개 학과 17개 전공, 정원은 35명으로 정비됐으며 1994년부터 2015년까지 428명의 학위 취득자를 배출하였다.

재활과학대학원은 1994년 설립 이후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을 중심으로 한 다학제적 재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초기 1개 학과 4개 전공에서 2017년 7개 학과 10개 전공(정원 120명)으로 성장했고 설립 이후 2015년까지 1,395명이 학위를 취득하는 등 국내 재활 전문 인력 양성의 독보적인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디자인대학원은 1990년대 말 설립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문화, 디자인,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발전하였다. 초기의 시각·산업·환경·패션디자인에서 IT 융합 영상 및 멀티미디어 디자인까지 외연을 넓히며 산업 현장의 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해 왔다.

대구대학교 특수대학원은 국가 정책 변화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과정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였다.

[2017~현재] 미래를 향한 지속 가능한 도약의 시작

2017년 이후 대구대학교 대학원은 학위 과정의 내실화와 구조적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이 시기의 일반대학원은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연구 중심 체제를 강화하는 반면, 특수대학원은 산업 현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실전 중심 교육을 실현하며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원이 전문성과 융합성을 동시에 갖춘 고등교육 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급변하는 미래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는 중장기 발전 전략의 토대가 되었다.

(1) 일반대학원: 융복합 교육과 지역 혁신 R&D의 허브

2017년 이후 일반대학원은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해 부동산·건설학과, 장애학과, IT 융합공학과, 미래인재학과 등 융복합 실용 학과를 신설하고 전통 학문을 재편하며 체질 개선을 단행하였다. 문화예술학, 한국어통번역, 신소재에너지공학, 언어·물리·작업치료, 뷰티스타일, 글로벌응용언어문화, 융합예술 등 전공 영역의 다변화는 학문 간 경계를 허무는 연구와 전문 직업교육의 강화로 이어졌으며 이는 대학원이 포괄하는 학습자 층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일반대학원 중장기 발전계획(2025~2030)'은 '21세기 새주역, 젊은 대학원·큰 대학원·열린 대학원'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젊은 대학원은 창조적 변화를 선도하고, 큰 대학원은 인문복지를 구현하며, 열린 대학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열린 대학원은 대학의 지적·인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환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저출생, 돌봄, 지역 산업구조 전환 등 대구·경북이 직면한 복합적 현안을 교육과 연구의 장으로 끌어들여 지역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계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인 '대구·경북 지역혁신 R&D 성과공유 및 확산지원사업(DG-RIX)'은 지역 연계 교육을 실질화한 모델이다. 2025년 12월 23일 개최된 '2025 대구·경북 지역혁신 연구성과



| 대구·경북 지역연구 혁신 위한 '2025 DG-RIX 포럼' 개최(2025.12.23.)

및 아이디어 공유 확산 포럼'에서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실천적 맥락에서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이는 교육과 연구, 정책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지향하며, 지역 대학원의 우수 인재들이 지역 내 연구기관 및 교수진과 직접 소통하고 연구의 사회적 확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대구대학교의 노력은 대학원 교육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실제 진로로 이어지는 '교육-연구-진로'의 선순환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특수대학원: 전문성과 현장성을 결합한 실천적 교육 모델

특수대학원은 고유의 전문 영역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다. 교원 양성, 사회복지 및 재활 전문가 배출, 산업·행정·디자인 분야의 융합 인재 육성 등 대구대학교의 건학 이념과 사회적 책무를 교육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학령인구 감소와 전문직 재교육의 중요성 확대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각 대학원은 전공 구조의 과감한 개편과 교육과정 정비, 정원 조정 등 운영의 내실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2017년 전후 각 대학원의 주요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은 2000년 사회개발대학원에서 사회복지개발대학원으로, 2001년 지금의 명칭으로 각각 변경하며 사회복지학과를 세부 전공 중심으로 재구성하며 교육 체계를 확립하였고 최고관리자과정을 평생교육원으로 이관하는 등 학위 과정 중심의 조직 정비를 단행하였다. 2013년에는 전공을 사회복지정책, 지역사회복지, 임상사회복지로 재편하여 현장 밀착형 전문 교육의 기틀을 완성하였다.

2016년 이후에는 현대적 교육 체계 구축과 질적 도약을 목표로 이준식, 이진숙, 김동윤, 이희영 원장이 대학원을 이끌었으며 2024년 3월부터는 김문근 원장이 그 맥을 잇고 있다. 이 시기 대학원은 교육과정 개편과 질 관리 체계 강화, 교육과 연구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전문 사회복지 인력 양성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학위 운영 측면에서도 내실 있는 성장을 거듭하였다. 2017년 41명, 2018년 26명, 2019년 32명의 석사학위자를 배출하였고, 2019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입학 정원을 50명에서 40명

으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0~40명 내외의 석사학위자를 꾸준히 배출하며 안정적인 석사 학위 수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②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은 대구대학교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삼아 왔다. 이를 위해 창의적 사고와 자기혁신 역량을 갖춘 교원, 교육현장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실천적 교사 교육을 지향하며 교원 양성교육의 선진화와 현직교원 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이론·실천 통합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2017년 이후 교육대학원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공 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을 단행하였다. 장의식(23대), 이해균(24대) 원장 시기를 거치며 평생교육전공 폐지 등 전공 체계를 재정비하여 19개 전공 체계를 확립하였다. 특히 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의 이원적 구조를 본격화하며 2025년 기준 입학정원 120명(양성 72명, 재교육 48명) 체계를 안정화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박남수(25대), 최성규(26대), 장희홍(27대) 원장을 거치며 유지·안정화 됐고, 백상수(28대) 원장에 이어 현재 차정호(29대) 원장이 그 맥을 잇고 있다.

1983년 설립 이래 교육대학원은 재학생 약 350명 규모의 건실한 운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2005년 교육부 평가에서 상위 10% 이내의 우수 대학원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 현재 3년(6학기)의 수업연한으로 계절제 수업과 현장학습 중심 교육, 사이버 강좌 등 유연한 학습 체계를 통해 현장 밀착형 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과정 개선을 비롯해 교직 공통과목과 전공별 심화 과정으로 이론과 실체가 균형을 이루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③ 특수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은 심층적인 이론과 실제 연구와 현장 실천력을 겸비한 특수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통합교육의 실현과 현장 적용 역량을 갖춘 유능한 특수교육 교사를 배출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지닌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교육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해균, 박남수, 최성규, 장희홍 원장이 차례로 재임하며 교육과정

의 구조 개편과 정원 운영 체계의 조정을 단행하였다. 이 시기 특수교육대학원은 양성 과정과 재교육 과정의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고 교육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공 운영 방식으로 재정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원 운영의 패러다임을 질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2023년 이후 백상수, 차정호 원장 재임 체제에서는 그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능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학사 운영의 내실화와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④ 재활과학대학원

재활과학대학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발전에 기여할 전문 재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92년 개원하였다. 현재 5학기 석사과정(입학정원 110명)으로 운영되며 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재활심리 등 7개 학과 10개 전공을 갖추어 재활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재활 이론 연구 등 학문적 전문성과 현장 실천의 실무 역량을 고루 갖춘 지도자급 재활 전문가 양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2017년 이후 대학원은 조직 운영의 안정화와 함께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근미(16대), 김화수(17대), 김희수(18대), 송병섭(19대) 원장으로 이어지는 리더십 아래 교육 내실화와 전공 확장이 병행되었다. 특히 2020년에는 입학 정원을 120명에서 110명으로 조정하여 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고 2022년에는 재활운동과학과를 신설하며 급변하는 보건·재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

학위 수여 실적 또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2017년 76명의 석사 배출을 시작으로 매년 안정적인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69명의 학위자를 배출하며 그 위상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재활과학대학원이 국내 재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재교육이라는 교육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중추 기관임을 증명하고 있다.

⑤ 디자인·산업행정대학원

디자인·산업행정대학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공공·민간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 1993학년도 재활과학대학원 입학식

설립된 전문 교육 기관이다. 2017년 창업학과, 2018년 평생교육학과 신설과 송건섭 원장 취임으로 실무 교육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2019년 기존 디자인대학원과 산업·행정대학원을 통합하여 디자인·산업행정대학원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융합형 특성화 전략을 본격화하였다.

이후 송복영, 김정렬 원장 체제에서 학사 운영의 내실을 다졌으며, 2021년에는 농촌융복합학과·전공을 신설하여 지역 기반 산업과 연계된 교육 영역을 확대하였다. 2022년 김시만 원장, 2023년 이해만 원장 시기를 거치며 졸업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2025년 김정환 원장 취임 이후 전기 6명, 후기 15명의 석사학위를 꾸준히 배출하며 교육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산업행정대학원이 디자인과 산업, 행정을 연계한 융합형 전문대학원으로서

실천적 교육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왔음을 보여준다.

대구대학교의 특수대학원은 고유의 차별성 속에서도 공통의 교육적 가치를 공유하며 성장해 왔다. 그 발전의 궤적을 4가지 핵심 특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정책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목적 지향적 체제’를 구축하였다. 사회복지대학원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한 사회문제 해결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교육·특수교육대학원은 교원 수급, 교육 민주화,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그리고 재활과학 및 산업·행정대학원은 장애인 복지정책과 산업 정보화 및 행정 효율화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둘째, 이론을 넘어선 ‘현장 중심의 실천 교육’ 철학을 공유한다. 각 특수대학원은 실제 문제 해결 능력과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교육의 방점을 두고 있다. 임상 중심의 복지 교육, 현장 밀착형 특수교원 양성, 다학제적 재활 실천, 산업·행정 실무 교육 등은 이론과 실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학습자 및 수요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전공 구조’를 개편해 왔다. 교육·재활·디자인대학원이 평생교육, 다문화, 융합, 다학제화 등을 통해 영역을 확장했다면, 사회복지 및 산업·행정대학원은 전공 통합을 통해 전문성을 심화하였다. 또한 각 특수대학원은 학령인구와 수요 변화에 따라 일부 전공을 축소·조정하였다.

넷째, 전문성과 융합성을 겸비한 ‘고등직업교육적 성격의 강화’이다. 재활과학과 디자인대학원의 치료, 상담, 예술, 기술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접근과 IT·미디어 기술과의 융합은 현대 사회의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전략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4절

지역과의 따뜻한 동행 속에서 자라는 교육혁신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은 보유한 인적·지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책임의 실현 과정이다. 대구대학교의 주요 공헌 영역은 평생교육과 공개강좌 등의 교육 서비스 제공, 산학협력과 창업지원 등의 경제적 기여, 문화시설 개방과 프로그램 기획 등의 문화·예술 활동, 의료와 상담 등의 사회 서비스 부분이다. 이를 위해 봉사·자율·창의·소통·협업의 HEART 역량을 바탕으로 제도적·교육적 개선을 이끄는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을 전개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 영역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 장애인 복지 및 사회통합: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실무 개입을 병행한다. 또 학습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통해 장애인을 능동적인 사회 참여 주체로 전환시키는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한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아동부터 노인까지 연령별 발달 과업에 맞춘 차별화된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저소득층 및 농어촌 아동 멘토링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한다.
- 다문화 정착 및 사회통합: 결혼이주여성 및 탈북민 지원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돕는다. 문화예술 지원과 정책 연구를 통해 상호문화주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킨다.
- 지역공동체 복원과 사회적 자본 형성: 농촌 지원 및 환경 개선 등 대학생 참여형 사업을 통해 도농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시민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한다.

대구대학교의 주요 사회공헌 활동

대상	활동 내용
장애인	-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사회 구축 위한 정책 연구 및 자문 - 장애인교육복지사업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 환경 개선 - 장애인 자립 및 취업지원 사업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 위한 취업 지원 - 장애인식 개선사업 불합리한 차별 철폐 및 부정적 사회 인식 개선 - 장애인 정주환경 개선사업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생활 위한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및 개선
아동 노인	- 저소득층·소외지역 아동 교육기부 사업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아동 대상 대학생 재능 기부 교육 봉사 - 노인 대상 평생교육사업 지속적인 배움과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한 평생교육 제공 - 아동·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자신의 진로 탐색 및 방향 설정 위한 상담과 교육 - 스포츠·문화교실 운영 아동 및 노인의 건강한 신체 활동과 심리적 안정 및 행복감 제고 위한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 다문화 정책 연구사업 다문화 사회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 및 자문 - 다문화 이해 문화예술사업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건설 위한 문화예술 지원 -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삶 지원 - 다문화자녀 교육 지원사업 청소년기 부적응 문제 해결과 심리적 안정 위한 교육 제공 - 탈북민 정착 지원사업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자녀 교육을 지원하며 남북주민화합 활동
지역 사회	- 낙후지역 환경개선사업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낙후 지역 생활환경 개선 - 농어촌 지원사업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의 농사일을 돕고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 - 지역민 스포츠·문화 지원사업 지역 문화 및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역민 건강심리 상담 지원사업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 위한 상담 및 캠페인 - 사회적 기업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제2장

학생활동: 자치와 대학문화,
그리고 열정의 연대기

제1절

학내 민주화의 중추, 학생자치의 형성과 정착

1985년 총학생회 첫 출범 이후 명맥 이어온 자치의 역사

대구대학의 학생자치는 1985년 제1대 총학생회 출범과 함께 학생 자율의 시대를 열었다. 당시 한국 사회의 거대한 민주화 흐름 속에서 탄생한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대학 운영의 주체로서 사회적 요구를 학내 의사결정에 연결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70년대 학도호국단 체제의 수동적 활동을 탈피한 학생들은 이제 총학생회를 통해 의견을 조직화하고 대학 당국과 대면하며 자치 역량을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직접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직선제 선거는 캠퍼스 내 민주주의를 실습하고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대구대학교만의 견고한 절차적 민주주의 문화로 깊이 뿌리 내렸다. 이후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는 학사, 복지, 문화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85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계승된 이러한 자치의 명맥은 학생 대표기구가 내부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대학 운영의 핵심적인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총학생회 출범식(2015) |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오며 학생자치는 학생들의 삶과 밀착된 현실적 의제로 그 영역을 확장하며 진화하였다. 이러한 자치의 힘은 대학이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까지 변화시켰다. 2017년 총학생회 주도로 경산 캠퍼스 내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인권과 역사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대학의 공공성을 확장한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또한 2019년 전·현직 총학생회가 한자리에 모여 후배들을 위해 기탁한 장학금은 학생자치가 졸업 후에도 끈끈하고 든든한 동문 네트워크이자 대학 발전의 저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처럼 대구대학교의 학생자치는 대학 내부의 운영 기구인 동시에 대학이 외부 사회와 소통하고 연대하는 대외협력의 탄탄한 기반이 되고 있다.

예비대학부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더 넓어진 연대와 협력

대구대학교의 학생자치는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예비대학’부터 시작된다. 1999년부터 경주 등지에서 단체 숙박형으로 진행되던 예비대학은 2014년 전국적인 안전사고 이슈와 변화하는 학생들의 개인적 성향을 반영해 대학본부와 학생자치기구의 ‘교내 밀착형’ 운영이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총학생회 주최 연도별 신입생 예비대학 장소 및 참가 인원

학년도	장소	기간	참가 인원(명)
1999	경주교육문화회관	02.22~02.26.	4,512
2000	부곡하와이	02.23~02.26.	4,700
2001	부곡하와이	02.24~02.27.	4,800
2002	경남부곡일성콘도(인문·사회·경상)	02.25~02.27.	1,500
	백암한화콘도	02.25~03.01.	3,500
2003	백암한화콘도	02.16~02.20.	4,000
2004	백암한화콘도	02.23~02.27.	3,400
	영천성덕수련원(사회)	02.23~02.27.	600
2005	부곡하와이	02.21~02.26.	4,000
2006	경주한화콘도	02.20~02.25.	3,400
	지리산일성콘도(공대·사범)		1,600
2007	경주한화리조트	02.20~02.25.	5,000
2008	경주한화리조트	02.20~02.25.	5,000
2009	구례송원리조트 (법행·사회·자연·정통·생환·재활·국제·야간)	02.25~02.27.	3,000
	양산에덴밸리(인문·경상·공과·조형·사범)	02.27~02.29.	3,000
2010	경주한화리조트	02.21~02.25.	6,000
2011	경주한화리조트	02.21~02.25.	6,000
2012	경주켄싱턴리조트	02.20~02.24.	5,000
2013	경주한화리조트	02.18~02.22.	5,000
2014	교내 및 경산실내체육관	02.24.	5,000
2015	교내 및 경산실내체육관	02.25~02.26.	5,000
2016	교내 및 경산실내체육관	02.22~02.24.	5,000
2017	경산실내체육관	02.21.	4,500
2018	교내 및 경산실내체육관	02.20~02.22.	4,820

학년도	장소	기간	참가 인원(명)
2019	교내 및 경산실내체육관	02.25.	4,500
2020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진행		
2021			
2022			
2023	교내 캠퍼스(신입생 환영주간)	03.02~03.08.	4,500
2024	교내 캠퍼스(신입생 환영주간)	03.04~03.08.	4,000
2025	교내 캠퍼스(신입생 환영주간)	03.04~03.06.	4,300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진 교내 예비대학은 기숙사 체험, 학과별 안내,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재학생과 신입생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장이 되었다. 특히 2018년 도입된 학과 단위 인성캠프는 대학이 제공해야 할 안내와 안전 체계를 내실화한 것이며 학생자치가 대학 운영의 실질적인 협력 주체로 거듭났음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생자치의 맥박은 멈추지 않았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비대면으로 전환된 예비대학에서 총학생회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외부로 확장하는 데 앞장



| 2020년 총학생회의 코로나19 성금 모금 및 물품 기부



| 2023년 제39대 총학생회가 주관한 벚꽃축제

섰다. 학생들은 성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의료기관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고
통을 분담하였다.

2023년 일상 회복과 함께 예비대학은 '신입생 환영주간'으로 새롭게 단장하였다. 총학생회
와 학생처가 머리를 맞대고 기획한 캠퍼스 투어와 다채로운 문화 행사는 학생들의 높은 호응
을 끌어내었다. 특히 같은 해 열린 벚꽃축제는 캠퍼스의 활력을 되찾고 대학 공동체의 연결을

복원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날 포토존과 공연, 플리마켓으로 채워진 캠퍼스는 지역민들에게
도 개방되어 대외적인 문화적 접점도 넓히는 공간이 되었다.

‘사랑·빛·자유’를 실천하는 견고한 자치기구의 힘

1985년부터 명맥을 이어온 대구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학의 민주적 토대를 지키는 동시에, 지
역사회를 향해 공공성을 발신하는 핵심적인 유산이다. 이처럼 학생자치는 ‘사랑·빛·자유’의 건
학이념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는 또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학생자치의 역량은 학내 곳곳의 전문 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화되어 왔다. ‘총대의원회’
는 학과(전공) 및 학년별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및 감사 기구로서 학생회칙
발의와 의결, 예결산 심의를 통해 학생 사회 내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
립해 왔다. 절차를 중시하는 이들의 운영 경험은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체득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총동아리연합회’는 문화예술·사회·스포츠레저·전시창작·종교·학술 등 6개 분과를 아우
르며 대학 문화의 외연을 넓히는 중심축이다. 자치의 원리에 기반한 연합회 운영은 동아리 활
동을 지역사회 행사나 공공 캠페인으로 연결하는 대외 접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2013년과
2023년의 출범식을 비교해 보면 격식보다는 자율성과 다채로움이 강조되는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 대구대학교 동아리 문화의 역동적인 성장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3,200여 명 사생의 권익 대변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비호생활관 자치회’는 기숙 공
동체의 자율적 운영을 책임지며 생활 밀착형 자치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이처럼 대구대학교의 학생자치 기구들은 구성원들이 공적 협의와 조정의 원리를 배우는 제
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여기서 축적된 자치의 경험은 대학이 지역사회 및 외부 기관과 협력
할 때 요구되는 거버넌스 문화의 든든한 기반이자 대외협력의 주요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2절 또 하나의 대학문화 역사, 동아리

시대와 함께 뜨겁게 호흡해온 동아리 활동

대구대학교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은 스스로 배우고 기획하며 성장해온 대학의 또 다른 교실이자 대학 전체를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 묶어준 열정의 기반이 되며 오늘날 대학이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 교류하는 중요한 문화적 신뢰의 토대가 되었다.

대구대학교 동아리는 시대와 함께 호흡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서클 활동이 승인제로 관리되던 1970년대 유신 체제 아래에서도 학생들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낡은 트럭을 타고 농촌 봉사를 떠났던 '농촌연구반'은 시대가 요구하는 공동체 가치를 실천한 상징이 되었다.

1980년대 동아리는 광우반, 산악반, 문학동인반, 사진연구반, 종교 동아리 등 학생들의 다양한 모임을 중심으로 민주화의 열망을 담아내는 토론과 단련의 장으로 변모했으며, 1990년대

에 이르러서는 등록 동아리 수가 크게 늘어나 문학, 예술, 학술, 봉사 등 전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캠퍼스를 동아리의 황금기로 몰들었다. 이 시기는 대학 문화가 지역 문화 기여로 확장될 수 있는 실행력을 축적한 과정이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취업 경쟁과 실용 중심 문화 속에서 동아리는 또 한 번의 전략적 진화를 선택하였다. 연구와 기획, 실험이 이루어지는 진로의 장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인 'THE+ 동아리' 프로그램은 인문계와 이공계 학생들의 융합 연구를 이끌어내었다. 특히 정보통신공학 분야 학생들이 개발한 점자 학습기,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 보행 보조 신발, 경증 장애 아동 학습 시스템 등은 대구대학교가 지향하는 '복지형 산학협력' 모델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총동아리연합회는 6개 분과의 다채로운 활동을 지원하며 거대한 문화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있다. 축제 무대를 기획하고 동아리 간의 연대를 다지는 이들의 행보는 대학 문화 속에서 협력과 책임을 배우며, 지역협력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인적·문화적 자산으로 빛나고 있다.



| THE+ 동아리 성과보고회 개최(2016.1.16.)



| 대구대학교 동아리 DU리브롤러의 지역사회 봉사활동(2022)



| 동아리 가두모집 현장(2024)

1974년부터 지역과 세상을 이어온 대학문화의 요람

2026년 현재, 대구대학교에는 57개의 동아리가 등록되어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설립된 배낭여행 동아리 'OUT'을 비롯해 밴드 동아리 'IUS BAND', 미디어 동아리 'ON-AIR', 응원단 '비호응원단' 등은 대학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며 빛을 발하고 있다.

대구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동아리는 1974년 설립된 봉사 동아리 '볼런티어'로, 반세기 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동아리다. 1976년 창립된 '가톨릭학생회'도 오랜 역

사를 지닌 모임이다. 초기 볼런티어의 활동은 농촌 일손 돕기와 지역 아동 학습 지원, 복지시설 방문 등으로 시작돼 '사랑·빛·자유'라는 건학이념을 추상적 구호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 놓았다. 최근에는 사회공헌센터가 운영하는 지역사랑봉사단 'DU리브볼런티어'로 확장되어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 사랑의 빵 나눔터 등과 협약을 맺고 빵 만들기, 김치 담그기, 반찬 지원, 농촌 봉사활동 등 지역 공동체의 온기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진화하였다.

문화예술 동아리들의 활약 또한 눈에 띈다. 대동제, 입학식, 졸업식, 각종 출범식 등 대학의 주요 행사에서 다양한 공연을 통해 대학문화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2023년 대동제 무대를 장식한 'CML', '오아시스', 'EDDY' 등 여러 동아리의 연합 공연은 동아리가 대학문화를 직접 생산하고 주도하는 주체임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변화하는 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동아리의 지형도 바꾸고 있다. 과거 산악부 중심의 전통적 활동에서 나아가 2023년 설립된 배구 동아리 '브레드'처럼 취향과 종목이 다양해진 스포츠 동아리들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구대학교 동아리 활동의 진정한 의미는 전공과 학년이 다른 학생들이 모여 협동과 책임, 창의성을 배우는 공동체의 힘에 있다. 강의실을 벗어나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문화를 일구고 사회적 책임을 체득하는 삶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공동체의 시간 속으로

2023년 재개된 예비대학은 '신입생 환영 주간'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동아리 문화가 화려하게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다. 3월 2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성산홀과 창파도서관, 비호생활관, 점자도서관 등 캠퍼스 곳곳을 누비는 시설 탐방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대학의 역사와 자긍심을 몸소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무엇보다 캠퍼스를 축제의 장으로 만든 것은 3월 3일과 6~7일에 진행된 '동아리 가두모집'의 부활이었다. 각 동아리는 개성 넘치는 부스와 공연, 체험 활동 등을 선보이며 신입생들을 맞이하였고 마지막 날 펼쳐진 문화 공연은 대학 생활의 설렘을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환영 주간에 참여한 신입생들은 진로·취업 프로그램과 국제 교류 안내, 상담 부스를 통한 제도적 정보를 얻는 동시에 동아리 활동으로 또래와 연결되었다. 2023년 열린 신입생 환영 주간은 대구대학교 동아리의 역할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대구대학교의 분야별 57개 동아리(2026년 4월 기준)

분과	동아리명	활동 내용
문화예술분과 (10개)	CML	밴드, 버스킹
	CSI	힙합, DJ
	EDDY	밴드, 버스킹
	IUS	밴드, 버스킹
	고정관념	댄스
	미리내	밴드, 버스킹
	비호응원단	응원
	여섯줄	통기타, 버스킹
	오아시스	밴드, 버스킹
	온에어	댄스, 보컬
	etc	여행
	RCY	봉사
사회분과 (12개)	WWW	다문화
	불런티어	지역봉사
	비호상록회	아동봉사
	손누리	수어
	영지회	여행
	푸른샘	시각장애
	한울회	청소년연맹
	CUBE	청년 기획
	OUT	배낭여행
	YEOBAEK	캠핑
	DUTC	테니스
	FLYING TIGERS	야구
스포츠레저분과 (20개)	T.B.T	볼링
	다섯손가락	농구
	두두	배구
	림인	3x3농구
	버드	배드민턴
	비호상무회	태권도
	수중탐험대	스킨스쿠버
	아약스	여성풋살

분과	동아리명	활동 내용
스포츠레저분과 (20개)	청호인	축구, 풋살
	클린시트	풋살
	푸른삶	축구, 풋살
	플라잉타이거즈	미식축구
	화랑검우회	검도
	PUMP	헬스
	SLOPE	스키
	다이노	클라이밍
	임팩트	탁구
	주먹밥	복싱
	맨도롱또뚝	가족, 세미나
	별사탕	별 관측
전시창작분과 (7개)	여유 한 스푼	취미, 예술
	카페캠퍼스	제작, 탐방
	포토아트	사진 전시
	호그와트	마술
	LEVEL 0	게임 제작
종교분과 (4개)	CCC	기독교
	IVF	기독교
	SFC	기독교
	가톨릭학생회	가톨릭
학술분과 (4개)	둥지	상담
	마인드 up	독서, 토론
	생각숲	인문학
	아소비	일본어 스터디



| 2026 신입생 환영주간

제3절

자치와 성장의 배움이 살아 숨 쉬는 비호생활관

대구대학교의 또 하나의 자치 공간인 비호생활관은 3,2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숨 쉬는 작은 사회이다. 1979년 남학생 기숙사인 입지관과 1980년 여학생 기숙사인 신애학사가 문을 연 이래,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는 '정주형 캠퍼스'의 축소판이자 핵심 거점으로 성장해 왔다.

비호생활관의 역사는 대구대학교의 교육 이념을 투영하고 있다. 종합대학교 승격과 경산 캠퍼스 이전에 따라 1980~1990년대 기숙사 시설이 대폭 확충되었다. 특히 1998년 개관한 청마관(현 신애2호관)은 설계 단계부터 장애 학생을 고려해 대학의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공간임을 드러내었다. 2004년 8호관 개관을 비롯해 지속적인 신축과 리모델링이 이루어졌고, 2021년 3월에는 약 600명을 수용하는 행복기숙사(라이트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이를 계기로 약 3,500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생활 공동체로 거듭난 비호생활관은, 이제 강의실 밖 비교과 교육 과정인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을 통해 기숙사가 또 다른 배움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숙사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은 자율적인 '학생자치회'에서 나온다. 자치회는 사생총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두고 운영·중앙·감사·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체계로 학생들이 공적 의사결정 원리를 체득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훈련장이 된다. 자치회는 매년 체육대회와 축제를 개최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캠퍼스가 멈췄던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생들은 힘든 생활을 유지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자치회는 함신익 지휘자가 이끄는 심포니송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트럭 콘서트'를 사랑광장에서 개최하는 등 비호생활관 학생들 간 문화적 유대를 놓지 않으며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분투해 왔다.

최근 비호생활관은 노후 시설 개선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대학 구성원 모두의 지혜로 풀어나가고 있다. 특히 교내 기독교신우회 소속 교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개한 환경 개선 모금 활동은 기숙사 문제가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학생자치회가 스스로 세워온 문화 위에 교수와 구성원들의 애정이 더해



| 비호생활관



| 비호생활관 학생들이 마련한 지역어르신 효도잔치(2016.5.18.)

지며 비호생활관은 이제 대구대학교의 성장을 증명하는 이정표이자 가장 든든한 생활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다.

제4절 진실을 기록하고, 시대와 소통한 대학 언론

학생자치가 권익을 향한 외침이었다면 대구대학교의 대학 언론은 진실을 향한 멈추지 않는 기록이었다. 1959년 1월 타블로이드 잡지 <사대여성>으로 첫 발을 댄 대학 언론은, 1964년 <사회사업대학교 복간호>가 정식 등록 창간호로 발행되면서 학생 언론의 체계를 갖추었다.

1970~80년대 군사정권의 감시 속에서도 학보는 격주 발행으로 더 빠르게 학내 소식을 전했고, 1977년에는 영자신문 <Love Light Freedom>과 교육방송국(K.B.C)이 차례로 문을 열면서 신문·영자신문·방송이라는 삼각 편대를 완성하였다. 이를 통해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되어 왔다. 한편, 1982년에는 종합대학 승격과 함께 학보가 <대구대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였다.



| 두드림 인터넷 홈페이지

1983년 대구대학교 언론사는 한국 대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국내 대학 최초로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점자판 신문을 창간한 것이다. 이는 '사랑·빛·자유'라는 건학정신을 언론의 영역에서 실천한 눈부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대구대신문>은 대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비

판적 질문을 던지며 학내 민주주의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자임해 왔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은 대학 언론에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각 대학 언론이 재정난과 무관심 속에서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대구대학교 언론 3사는 통합 웹 플랫폼 '두드림(DUDREAM)'을 개설하며 미디어 혁신을 주도하였다. 전통적인 교내 방송 중심이었던 교육방송국 역시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DUBS 뉴스를 비디오 형식으로 제작하며 본격적인 영상 뉴스 제작에 나섰다. 연출자·기자·리포터를 꿈꾸는 학생들이 실무 역량과 공적 발언의 책임을 동시에 배우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 현장감 넘치는 영상 뉴스와 문화 콘텐츠 제작하며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있다. 현재 대구대학교 교육방송국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캠퍼스 소식과 문화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며 변화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학 언론을 실험하고 있다.

제5절 비호의 이름 새긴 역동적인 대학의 얼굴, 체육부

대구대학교의 학생자치가 민주주의를, 동아리가 문화를, 언론이 진실을 향한 열정이었다면 체육부는 대학의 명예를 걸고 땀방울을 흘려온 또 다른 주역이다. 체육부는 가장 역동적인 방식의 대외협력(지역체육 네트워크, 국제 스포츠 교류, 동문 네트워크)을 통해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공동체의 자산이자 전 세계에 대구대학교를 알리는 강력한 기반이 되어왔다.

대구대학교 체육의 효시인 펜싱부(1976년 창단)는 학업과 훈련의 균형이라는 학생 선수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국내 최강 전력을 구축하였다. 1986년 아시안게임 2관왕 고낙춘 감독 등의 지도 아래 중별선수권(남자 플뢰레 4연패)과 대학연맹전(여자 플뢰레 6연패)을 휩쓴 펜싱부는 2024년 제25회 전국남녀학생펜싱선수권대회 여자 플뢰레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대구대학교

만의 장기적 육성 시스템이 빚어낸 대학 스포츠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검도부(1981년 창단)는 전국대회 우승은 물론 '대구대학교 총장기 전국고교 검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며 지역 체육 발전을 견인해 왔고, 씨름부(1984년 창단)는 전국씨름선수권대회 2년 연속 우승(2017~2018), 2024년 대통령기 단체전 우승, 2025년 전국장사씨름대회 단체·개인전 2관왕 달성 등 향토 체육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있다.

영남권 명문으로 손꼽히는 축구부(1987년 창단)는 박태하, 김상식, 박남열, 조종현, 이태홍 등 수많은 국가대표와 스타플레이어를 배출하며 대학 축구의 위상을 드높였다. 특히 축구부의 저력은 패배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대구대 정신' 즉, 투지와 근성에 있다. 이러한 지도자 육성 시스템은 현재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김상식 감독과 K리그 명문 포항 스틸러스의 박태하 감독 등 국내외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동문 지도자 네트워크로 확장되어 대학의 위상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고 있다.

인기 종목에 치중하기보다 펜싱, 검도, 씨름과 같이 인내와 집중을 요하는 종목을 꾸준히 육



| 1978년 펜싱부의 전국선수권대회 우승 시상 모습

성해온 배경에는 대구대학교만의 교육 철학이 담겨 있다. 소수 종목이라도 가능성을 발견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해온 대학 체육의 역사는 '사랑·빛·자유'라는 건학이념과 궤를 같이하는 아름답고 역동적인 유산이다.



| 제25회 전국남녀대학펜싱선수권대회 여자 플뢰레 단체전 우승(2024)



| 씨름부 창단 40주년 기념식(2024)

제3장

함께 살아가는 배움의 현장,
봉사활동

제1절

연대와 실천으로 시대와 함께한 농촌 봉사활동

대구대학교의 '사랑·빛·자유'라는 건학이념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난 봉사의 정신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타인의 삶을 배움으로 일으켜 세우려는 살아있는 교육이자 사회적 연대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 대구대학교의 70년 역사 속에는 타인의 삶을 배움으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열망이 있었고 봉사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1970년대 방학을 맞은 대구대학교 학생들의 손에는 전공 서적 대신 곡괭이가 들려 있었다. 산업화의 그늘에 가려진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돕기 위해 학생들은 거친 현장으로 '행군'을 떠났다. 학생들은 마을길을 정비하고 학교를 열어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유독 뜨거웠던 1972년 여름, 서울에서는 전국 대학생 봉사대 대표들이 모여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였고 대구 시내에는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야간학교 강사로 활동하며 갈 곳 없는 직업 청소년들을 위한 배움의 등불을 밝혔다. 또한, 경북 영양군 문암동과 의성군 판덕리의 피약별 아래서 도로를 닦고 우물을 보수하던 학생들은 해가 저물면 노래자랑과 영화 상

영으로 주민들을 위한 '위안의 밤'을 열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며 농촌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깊어졌다. 1981년 대구대학교로의 교명 변경과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학생들은 사회적 이슈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농촌의 빈곤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영덕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참여한 학생들은 당시 뜨거웠던 농산물 수입 개방과 쌀값 보장 문제에 대해 농민들과 열띤 토론을 밤새 이어나가며 시대의 과제를 고민하고 연대해야 할 주체로 함께하였다.



| 1977년 농촌 봉사활동 모습(합천군 가야면 이천리)



| 2017학년도 하계 대구대학교 농촌봉사활동 출범

이러한 연대의 정신은 1990년대 ‘우리 쌀 지키기’ 운동과 맞물리며 더욱 견고해졌다. 1994년 경북 고령군에서의 활동은 봉사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짚어지는 시민적 참여의 방식임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흙 묻은 손으로 농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장을 통해 사회를 배워온 시간은 대구대학교가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또 다른 교육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제2절

제도화와 교육기부로 뿌리 내린 봉사시스템 정착

교육과정에 편입된 제도화된 봉사체계

2000년대 들어서며 대구대학교의 봉사는 농촌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계와 체계적인 교육의 영역으로 진화하였다. 1997년 사회봉사단 설립부터 현재까지 진행해온 봉사활동은 대학의 공식적인 사회공헌 체계로 확립되었다.

사회봉사단은 1997년 5월 학생처 산하에 설치되었고 1999년 3월 인성교육원 사회봉사단



1997년 사회봉사단 발대식 |

으로 직제가 변경되면서 봉사활동을 인성교육과 연계된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나갔다. 2000년 9월 다시 학생처로, 2004년 3월 인성교육원 자원봉사센터로 명칭을 바꿨고 2007년 3월 다시 학생처로 직제가 개편되었으며 2008년 2월 학생지원팀에서 학생행복처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후 청년문화진흥원 DU행복봉사센터, DU문화원 문화진흥팀, DU문화원 자원봉사센터, 사회공헌실 사회공헌팀, 사회공헌센터 등으로 끊임없이 직제가 변경되었다. 이러한 명칭과 소속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단 하나의 본질은 봉사를 대학 교육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였다.



| 2025년 DU행복나눔봉사단 사랑의 김장 봉사

현재 대구대학교는 '사회봉사'와 '헌혈봉사'를 정식 교과목으로 운영하여 학점 이수와 사회 참여를 긴밀하게 연계하였다.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봉사를 체험하고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통해 그 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증받는다. 즉, 봉사가 '비교과'가 아닌 '교육 과정'의 일부로 완전히 뿌리내린 것이다.

활동영역 또한 비약적으로 넓어졌다. 아시아권 국가를 중심으로 파견되는 해외봉사단은 글로벌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있으며, 각 학과별 봉사단은 지역 복지관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 지원부터 노인 복지까지 전공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빛나는 교육기부의 현장

대구대학교의 봉사가 특별한 이유는 대학이 가진 최고의 강점인 특수교육과 사회복지 역량을 나눔의 현장에 그대로 녹여냈기 때문이다. 점자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목소리를 기부하는 학생들, 매주 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의 통증을 살피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 여학생들이 운영한 커피숍 수익금이 맹아들을 위한 특수 축구공으로 변하는 모습 등은 대구대학교에서 일상적인 장면이 되었다.



| 2025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한 늘품 동아리 조세욱 학생(우측)

이러한 모습은 대외적으로도 크게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교육부 주관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지속적인 인증을 받으며 2019년 전국 4년제 대학 최초로 '교육기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한편, 2021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2022년 교육기부 이수기관 인증을 이어갔다. 2025년 평가에서도 인증 갱신에 성공하며 2028년까지 교육기부 우수기관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특히 사범대학 교육봉사 동아리 '늘품'은 청소년 성장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지식나눔 사업에서도 우수대학으로 꾸준히 선정되었다. 타 대학보다 이른 시기인 2012년에 시작된 'DU 지식나눔 프로그램'은 교내 공모를 통해 교수, 학생, 직원이 한 팀이 되어 전공 지식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다. 휠체어 럭비팀을 위한 물리치료 봉사(물리치료학과), 장애인 자기결정력 증진 프로그램(특수교육과), 청소년 영상 제작 수업(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등은 대학의 학문적 자산이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얻는지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다문화·탈북 학생을 위한 1대1 멘토링,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농어촌 학생 대상 '주니어 사이언스 오픈랩 데이', 지역 초·중·고교생의 진로 교육을 돕는 '꿈드림 특강단' 등 대구대학교의 교육기부가 확산되고 있다.

DU 사회공헌센터의 대표적 교육기부 프로그램

연도별	프로그램명	연계 성격	주요 내용
2020	시니어·취약계층 대상 지식나눔 프로그램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회적 가치 실현	시니어 전자기기 사용 교육, 독거노인·아동 대상 교육·돌봄 활동, 노인 재활 프로그램 등 생활 밀착형 지식나눔
2022	DU사회공헌단 행복나눔 봉사단	봉사학기제 성격의 지역사회 연계 교육	제빵·김장·반찬 나눔 등 지역 수요 맞춤형 봉사활동 정기운영
	대학생·외국인과 함께하는 상호문화 적응 프로그램	평생교육·다문화 사회통합 연계 교육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다문화가정과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어·한국사회·문화 교육 프로그램
2023	상호문화 적응 프로그램 -지역문화탐방	상호문화 적응 프로그램 -지역문화탐방	대학생·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참여해 경주 지역 문화유적 답사 연계 운영
2024	DU Kids on Campus (연령 맞춤형 확대)	평생교육·기회균형 연계 교육	다문화 가정 학생을 포함한 지역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체험 교육(체육부 펜싱, 고무동력기 만들기 등)

제3절

타슈켄트에서 비엔티안까지 해외 봉사활동으로의 확장

2001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대구대학교의 해외봉사는 초기에는 중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지에서 매년 20~30명 규모가 파견돼 경험을 쌓았다. 이후 2009년 네팔과 우즈베키스탄에 45명의 대규모 봉사단을 파견하며 외연을 넓혔다. 현지에서 이루어진 한글·음악·미술 교육과 과학 실험, 태권도 및 사물놀이 공연은 문화적 교감으로 이어졌으며, 학교 책걸상 도색과 마을 우물 보수, 고려인 마을 회관 정비 등 생활 기반을 개선하는 헌신적인 노력 봉사는 현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희망을 선물하였다.

이후 2010년 캄보디아와 2012년 몽골 파견을 거치며 대구대학교의 해외봉사는 한층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다양한 봉사활동과 함께 도전문화탐방단, 지식나눔봉사단, 나눔봉사단 등이 동시에 출범하며 봉사의 유형은 다층적으로 확장되었고 매년 이어지는 발대식과



2017년 탄자니아 현지에서 대구대학교 해외봉사단 학생들이 교육봉사(영어수업)를 하고 있는 모습



2019년 DU글로벌 탐방봉사단 '위캔DU잇'

귀국 보고회는 해외봉사가 대학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일부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에도 베트남, 탄자니아, 미얀마 등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간 학생들은 강의실 안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성장을 경험하였다.

시련도 있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몰아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20여 년간 한번도 멈추지 않았던 봉사의 하늘길이 닫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눔을 향한 열정은 멈추지 않았고 학생들은 비대면 멘토링과 방역 봉사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마침내 2023년 12월 라오스 비엔티안을 시작으로 2024년과 2025년 몽골 울란바타르까지, 다시 열린 길 위에서 대구대학교는 중단 없는 사랑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 이와 동시에 추진된 학생문화교류단과 해외 문화탐방은 대학 국제화의 또 다른 자산이 되었다. 학생들은 대구대학교를 대표해 세계와 만나며 외국인 학생 유치와 해외 대학과의 교육 활성화에 앞장섰고 더 넓은 세계에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용기를 얻었다.

1970년대 농촌을 누비던 곡괭이가 2020년대의 지식 나눔과 IT 교육으로 그 모습은 바뀌었지만,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의 곁을 지키며 온기를 나누어 온 대구대학교 봉사정신의 본질만은 변하지 않았다.

대구대학교 해외봉사 활동 현황

연도별	파견국가	파견기간	파견인원(명)
2001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07.02~16.	44
2002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07.31~08.14.	20
2003	키르기즈스탄	07.31~08.14.	20
2004	우즈베키스탄	07.16~28.	23
2005	우즈베키스탄	07.08~20.	32
2006	우즈베키스탄	07.07~19.	21
2007	네팔	07.26~08.09.	18
2008	네팔	07.17~31.	19
2009	네팔	07.09~23.	23
	우즈베키스탄	07.14~28.	22
2010	캄보디아	07.01~13.	28
	캄보디아	12.27~2011.01.07.	28

연도별	파견국가	파견기간	파견인원(명)
2010	필리핀	12.27~2011.01.06.	28
	인도네시아	12.27~2011.01.07.	28
2011	캄보디아	07.04~16.	28
2012	몽골	07.01~11.	25
	캄보디아	01.07~18.	27
2013	러시아	07.01~14.	29
	라오스	12.31~2014.01.11.	26
2014	라오스	06.30~07.11.	24
2015	라오스	01.05~18.	26
	라오스	06.29~07.11.	25
2016	네팔	01.04~16.	29
	네팔(카투만두 밀알학교, 춘데비학교)	07.18~30.	24
2017	베트남(하노이 흥풍중학교)	01.01~14.	28
	탄자니아(아류샤 마사이스쿨)	06.29~07.20.	20
2018	라오스(빠까딩군 뽕방초등학교)	01.01~15.	24
	러시아(연해주 우수리스크 고려인 문화센터)	07.04~16.	27
	미얀마(미래학교)	12.26~2019.01.06.	26
2019	미얀마(양곤 동파운지 마을회관, 산빠야학교)	07.06~18.	24
	네팔(카트만두 갈리쉬 세컨더리스쿨)	12.20~2020.01.01.	20
	미얀마(양곤 동파운지 마을회관, 동파운지 초등학교, 파운지 협동대학)	12.27~2020.01.06.	24
2020	코로나19 미진행	-	-
2021	코로나19 미진행	-	-
2022	코로나19 미진행	-	-
2023	라오스 비엔티안주	12.11~21.	24
2024	몽골 울란바타르	07.01~09.	24
2025	몽골 울란바타르	07.01~09.	24

학생문화교류단 역대 활동 현황

기간	국가(장소)	파견인원(명)
2005.10.11.~15.	중국 길림대학	29
2006.04.11.~15.	중국 소주대학	35
2006.10.29.~11.03.	중국 산둥이공대학, 청도빈해대학	38
2007.05.09.~13.	중국 중미산동건문대학, 산동공상학원	41
2007.10.30.~11.03.	중국 강해전문대학, 양주대학	32
2008.05.06.~09.	몽골 울란바타르대학	28
2008.10.28.~30.	중국 북경 진황도 외국어대학	28
2009.05.12.~15.	중국 산동과기직업대학	29
2010.05.11.~14.	중국 중경시관리직업대학	28
2011.05.18.~22.	중국 남통대학교, 소주공업원구직업기술대학	34
2012.11.28.~12.01.	중국 길수대학 장가계학원	32
2013.11.25.~28.	중국 청도직업기술관리대학	51
2014.11.19.~24.	베트남 하노이 공과대학교, 앙코르대학교	20
2015.11.19.~23.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	28
2020.01.06.~10.	베트남 하노이 타이응우엔대학교	36

DU도전문화탐방 역대 활동 현황

기간	국가(장소)	파견인원(명)
2012.07.04.~11.	몽골 엘승타슬라헤	22
2013.01.03.~12.	네팔 안나푸르나	20
2013.07.03.~10.	몽골 엘승테슬라헤	20
2014.01.02.~11.	네팔 안나푸르나	22
2014.07.03.~10.	몽골 엘승테슬라헤	20
2015.01.03.~14.	네팔 안나푸르나	22
2015.06.29.~07.08.	중국, 백두산 일대	22
2016.01.05.~16.	네팔 안나푸르나	22
2016.06.30.~07.09.	몽골 고비사막	22
2017.01.08.~18.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나미비아	25
2017.06.29.~07.20.	아프리카 탄자니아	20
2017.12.27.~2018.1.22.	일본, 우즈베키스탄, 태국, 싱가포르, 미국, 캄보디아 등	28
2018.06.30.~07.22.	독일, 일본, 미국	17
2019.12.20.~01.01.	네팔 랑탕밸리	22



| 2020년 학생문화교류단 베트남 현지 공연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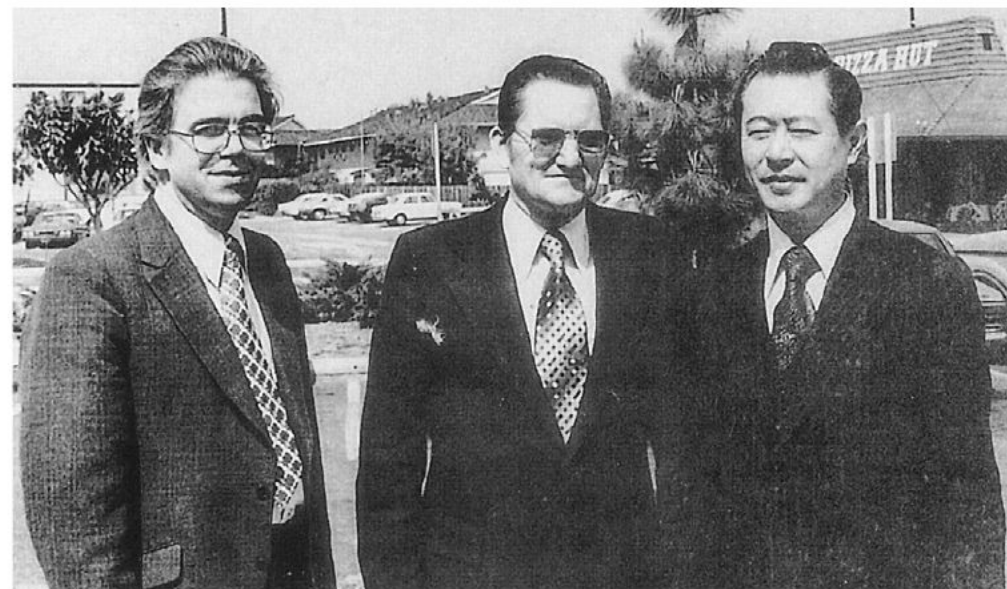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장한
글로벌 교류

제1절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세계를 향한 손길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학교의 존립 자체가 절박했던 대구대학교의 초창기에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기에는 벅찬 환경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척박한 뿌리 안에는 이미 세계와 연결된 운명적 비전이 숨 쉬고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해외 원조는 대학 건립의 기반이 되었고 대구대학교가 개척한 특수교육과 사회복지의 이론적 토대는 해외의 선진 모델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다져진 결실이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1960년대 한국사회복지대학 시절, 당시 이태영 학장은 '현장을 아는 외국 학자를 직접 초빙해 함께 공부하는 것'이 가장 빠른 혁신의 길이라 믿었다. 1967년 일본 고베대학교의 다카하시 교수, 동양영화여자대의 세키네 교수 초빙을 시작으로 후쿠오카 교육대학의 쇼오지 사부로 박사 등 일본 석학들이 줄지어 캠퍼스를 찾았다. 특히 일본 청심여자대학 에쿠사 박사는 대구남양학교 설립에 결정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복지 현장을 함께 일구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다. 이러한 지적 갈증은 이태영 학장의 『특수교육개론』(1963), 이영환 부학장의 『사회복지행정: 이론과 실제』(1963)와 같은 선구적 연구 성과로 이어지며 대학의 학문적



| 미국 퍼시픽크리스찬대학과 자매결연(1977)

역량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었다.

개별적 초청을 넘어선 체계적 교류는 1965년 일본 청각장애자 교육복지협의회와의 첫 자매결연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후 대학의 시선은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확장되었다. 1977년 퍼시픽크리스찬대학, 1979년 애쉬랜드대학과의 자매결연은 대구대학교 국제교류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특히 애쉬랜드대학과는 학위 연계와 학점 상호 인정이라는 한층 심화된 단계로 진입하였다. 이는 서로의 교육과정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가능한 결단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넓은 학문의 길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 시스템 자체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대만, 일본, 미국의 여러 대학과 잇달아 손을 잡으며 견고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대구대학교 국제교류의 진정한 가치는 새로운 학문과 제도를 한국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 외부의 선진 지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것으로 소화하려 했던 진정성에 있었다. 이에 당시 교류는 방문과 강연에 머물지 않고 공동 연구와 학위 연계, 교육과정 상호 인정 등으로 이어져 대학 국제화 정책의 단단한 기초가 되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처럼 세계를 향해 손을 내밀었던 대구대학교의 선택은 향후 대학 운영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나갔다.

제2절

35개국 647개 네트워크로 성장한 글로벌 대구대학교

TOPIK 시행·GKS 연수기관 선정돼 국제교육 중심으로 우뚝

대구대학교의 국제교류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토대 위에서 200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일구었다. 이제 대구대학교는 전 세계의 인재들이 꿈을 찾아 모여드는 글로벌 허브로 탈바꿈하였다.

1979년 미국 애쉬랜드 대학과의 자매결연으로 시작된 국제 파트너십은 2016년 32개국 231개 기관을 거쳐, 2025년 기준 35개국 647개 기관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 세계 대학들이 오랜 시간 땀과 노력으로 빚어낸 대구대학교의 교육 비전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국제처는 이러한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외 외국인 연수, 현지 학기제, 교환학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국경 없는 지식의 현장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세계가 대구대학교로 모여드는 힘 또한 강력해졌다. 그 중심에는 2002년 문을 연 '한국어교육센터'가 있다. 이는 2006년 대구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경북 지역 사립대 최초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공식 시행기관으로 지정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로써 대구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교육과 시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세계 각국의 인재 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에는 대구·경북 지역 사립대 중 유일하게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한국어 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구대학교의 국제화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2025년 기준 1,975명의 학부 유학생을 포함한 수많은 외국인 학생이 캠퍼스를 누비며 대구대학교는 하나의 작은 지구촌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1990년대부터 추진해온 교직원 글로벌 연수와 이를 통해 양성된 글로벌 행정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 수업 중인 학생들 |

외국인 유학생 3,500명 시대 여는 국제대학 설립

현재 대구대학교는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함께 학습하며 정주하는 '국제대학(International College)'을 설립하였다. 국제대학은 글로벌 한국학부와 국제학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글로벌한국학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체계를 갖추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국제학부는 한국어교육전공과 한국어통번역학전공 등을 포함하여 융합형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 한국어교육센터의 경험과 GKS 연수 운영 성과를 학위 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구조로,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500명 유치 목표의 마중물이자 교육·생활·취업을 연계하는 정주형 유학 시스템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0년 전 척박한 땅에서 시작된 국제교류의 꿈은 이제 국제대학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완성돼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

제3절

글로벌 허브 넘어 상호 성장의 플랫폼으로 도약

지난 10년 간 대구대학교의 국제교류는 외부 기관 및 학과 전공과 긴밀히 연계된 입체적인 네트워크로 거듭나면서 첨단 기술과 복지 모델을 세계와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지식 공유의 허브'로 우뚝 서기 시작하였다.

대구대학교는 2026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IT·AI 분야 운영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전국 5개 기관만이 수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구대학교는 개발도상국의 우수 인재들을 초청해 전자전기공학과 중심의 'AI-임베디드 시스템 융합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2030년까지 매년 약 12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그램은 산업체 인턴십(3개월)까지 포함하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설계되었다. 개도국 인재들이 한국의 첨단 기술을 익혀 자국으로 돌아가 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게 도움으로써 대구대학교의 국제교류가 '일방적 수혜'에서 '상호 성장'의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상징한다.



| 사회복지학과-호세이대학교 현대복지학부 교육교류회(2026.1.6.)

단과대학 차원의 전공 특화 교류도 활발하다. 2026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일본 호세이대학교 현대복지학과와 교육교류회를 개최하며 양국의 복지 실천 모델을 공유하였다. 이번 교류회는 교수 및 학생의 상호 방문을 정례화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교류회를 통해 일본 방문단은 지역 복지기관을 참관하며 한국의 정책 운영 사례를 확인하는 등 현장 기반의 국제 학술 교류를 실천하였다.

또한,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양국 대학생 간의 유대도 깊어지고 있다. 2024년 대구대학교는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의 학부 단기과정을 운영하였다. 메이지대학, 도쿄외국어대학, 오비린대학, 이바라키기독교대학 등 일본 우수 대학에서 온 22명의 학생은 대구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탐구하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제4절

국제화의 질적 신뢰도 상승과 포용적 기회 제공

대구대학교의 국제교류는 교육의 질적 내실과 신뢰도 확보까지 갖춰나갔다. 2025년 대구대학교는 교육부가 실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서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며 그 신뢰도를 국가적으로 공인받았다. 유학생 선발의 공정성부터 학사 운영, 상담 및 인권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는 국제처를 중심으로 구축한 유학생 지원 시스템, 비자와 체류 관리, 심리 상담, 지역 산업체 연계 취업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유기적으로 작동시켜 나간 결과이다.

이처럼 대구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매우 중요한 캠퍼스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다. 매년 12월 열리는 '외국인 유학생의 날'은 이러한 철학이 투영되었다. 2025년 벌써 제20회를 맞이한 행사에서 유학생들은 솟품 콘테스트를 통해 자국의 문화를 공유하고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K-POP 공연을 통해 대학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다졌다. 여기에 독도사랑 한마당과



| 2011년 일본 유학생과 총장과의 간담회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 사업이 더해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사회에 정착해 기여할 수 있는 정주형 글로벌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대구대학교의 국제화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두를 향해 열려 있다. 2018년부터 연속 선정된 교육부의 '파란사다리 사업'은 그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 경험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로의 연수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학생들은 영국에서 현지 문화 이해와 진로 특강을 통한 글로벌 시야를 확장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 기업 방문 및 실무 중심 영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필리핀에서는 1:1 집중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실천적 교류를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파란사다리 사업을 통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꿈을 꿀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며 대구대학교가 추구하는 국제교류의 진정한 모습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제 국제교류는 선택이 아닌 대학 운영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 쌓아온 이러한 국제화 성과는 향후 대구대학교를 지탱할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이며, 모든 이에게 공평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따뜻한 빛이 될 것이다.



| 외국인 유학생 설 맞이 떡국나눔행사(2026.2.13.)



| 2025년 파란사다리 사업-필리핀 파견

제5장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70년 동행

제1절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역과 호흡하는 평생교육의 터전

제도 교육 밖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배움의 시작

대구대학교의 평생교육은 대학이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며 대학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구현해온 독보적인 대외협력 모델이다. 제도 교육에 소외된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62년 설립된 '장애인교육센터'는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첫 출발점이다.

1975년 9월 1일 대구대학교는 전국 최초로 '노인복지대학'을 설립하며 61명의 노인들이 학사모를 쓰고 입학식을 치렀다. 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이전, 노년을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지역 노인들에게 학문의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이 시기부터 대구대학교는 평생교육의 가능성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평생교육 기능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능적인 확장을 시도하였다. 1993년 미술교육원, 1998년 생활체육교육부와 산업교육부를 잇달아 설치하며 주민들이 기대하는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학점은행제 시범기관 지정으로



노인복지대학 1기 졸업(1976)

성인학습자들이 정규 학위 체계 안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국가가 인정한 완성형 평생교육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

2000년대 들어 '평생교육원'으로 조직을 재편한 이후 민주시민 교육, NGO 실무자 교육, 고령자를 위한 e-Korean 교육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 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노력은 2008년 평생학습중심대학에 선정되는 계기가 되었고, 2011년 다문화가정 평생학습대학이 설치돼 평생교육원과 지역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2017년 노인교육 우수사례로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수상에 이어, 2019년 전국 대학 최초로 교육기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것은 대구대학교의 지속적인 지식 나눔이 크게 인정받은 쾌거였다.

2016년 대구·경북 최초로 '평생교육단과대학'에 선정된 이후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학사 운영과 유연한 교육과정 설계가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2023년 교육부의 2주기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에 선정되어 30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와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를 대상

으로 한 평생학습 학사 구조를 확립하였다.

최근에는 경상북도와 손잡고 ‘도민행복대학’을 운영하며 경주 연동마을의 ‘연동야장’ 프로젝트와 같은 실천형 교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 성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3년 비정규 교육과정인 ‘K-PACE센터’부터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채로운 생활 강좌와 지역·대학이 함께 설계한 ‘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도민박사과정’까지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이 지역의 소중한 배움터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경산 캠퍼스 평생교육관의 골프연습장과 각종 생활체육시설, 피트니스 공간 등도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유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의 역사는 대학과 지역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미래를 설계해온 따뜻한 협력의 서사로 완성되고 있다.



|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지역사회 연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 주요 프로그램

연도별	프로그램명	연계 성격	주요 내용
2017	직업연계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업	대학-지역 연계 평생·직무교육	RC항공과 드론교육지도사양성과정, 정리수납전문가양성과정
2019	사회지도자 (노인대학) 운영	대학-지역 연계 평생학습	각 주제별 교수 또는 전문가 초청 강의, 가곡부, 가요부, 라이프댄스부, 서예사군자부, 탁구부, 파크골프부 동아리 활동, 각종 행사 및 자치회 활동
2020	경상북도 평생교육공모사업	대학-지자체 연계 평생학습	약용식물을 활용한 건강 증진 교육 등 생활 밀착형 콘텐츠
2021	경상북도 평생교육공모사업	대학-지역 연계 평생학습	홈카페·홈텐딩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평생학습의 새로운 방향 모색
2022	지역 여성대학 운영	대학-지역 연계 평생교육	여성리더십 훈련, 전문교양과정, 자격증취득과정, 모교방문행사 등
2024	경산시 시민 상생 캠퍼스	대학-지역 상생 평생·직무교육	커피바리스타 2급 및 핸드드립 자격과정과 교양강좌를 병행하여 학습 성과의 실질적 활용 도모
2025	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도민박사과정	대학-지역 연계 평생학습	각 프로젝트팀별 교수 또는 전문가 초청 강의, 학생회, 현장실습, 워크숍 등 자체행사 활동



| 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도민박사과정 수료

제2절

지역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동력, 산학협력

연구와 기술이전, 사업화로 이어지는 산학협력 생태계 완성

대구대학교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지역 경제의 위기 속에서 지역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왔다. 이는 '사랑·빛·자유'의 건학이념이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 현장으로 스며든 실천의 결과이다.

1997년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경영난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18개 기업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을 결성했던 것은 대학이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1998년 '산·학·연 협력원' 설립과 2004년 특수법인 '산학협력단'의 공식 출범을 거치며, 대구대학교는 대학의 연구성과와 응용기술을 기업과 공유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기틀을 완성하였다. 이후 '금형특성화사업단' 운영과 해외 현장실습 확대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의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끊임없는 혁신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사업 선정이라는 값진 열매로 이어졌다. 2014년 교육부의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LINC+, 그리고 2022년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3.0)에 이르기까지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6년간 약 240억 원의 국고를 확보,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강력한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회사 제도를 통한 기업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학과 기업이 기술적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가는 체계가 정착되어 나갔다.

한편, 2019년 열린 '산학협력 EXPO'에서 대구대학교는 산학협력과 학생 창업 지원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하였다.

현재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IT, 재활공학, 자동차 생산 시스템 등 첨단 분야에서 29개의 산하 기구를 운영하며 연구와 인력 양성,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술사업화센터'는 대학의 지식재산권 이전과 사업화를 담당하고, '특성화개발촉진센터'는 정보통신 및 자동차 생산 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시제품 제작과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대구대학교 산학협력관

창업에서 사회적경제까지, 산학협력 미래의 확장

창업 지원 역시 산학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1999년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창업 보육센터' 설립 이후 예비 창업자를 지원해온 대구대학교는 2016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돼 '창업지원단'을 개소하였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대구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 창업지원단은 창업전략기획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센터 등을 두고 창업 지원 기능을 통합하였고 예비창업 단계부터 창업 7년 미만 기업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구대학교는 2017년과 2018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비·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3년 연속 선정되었다.



| 2023학년도 가족회사의 날 행사

2025~2026년에는 '경북-대구권 선순환 기술창업 벨트 구축'이라는 더 큰 비전을 실현하고자 경북RISE 창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협력 기관과 함께 약 100억 원 규모의 '경북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연구소기업 설립과 투자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대구대학교의 산학협력은 사회적 가치 창출 면에서도 독보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으로 11년 연속 선정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2017년에도 경상북도와 협력해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기업 인큐베이팅부터 판로 지원까지 밀착 지원하며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후에도 관련 육성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정책 연구와 기업 지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역 기업의 위기 대응에서 출발해 첨단 산업의 리더이자 사회적경제의 동반자로 성장한 대구대학교의 산학협력은 대학이 지역 산업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핵심적인 협력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지역과 함께 문화를 빚어내는 중앙박물관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은 1980년 5월 1일 대명동 캠퍼스 전문대관 2층에서 첫발을 댄 이래 대학의 학문적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문화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다.

1981년 문교부로부터 대학박물관 인가를 받은 이후 1993년 경산 캠퍼스 성산홀로 이전하며 시설을 대폭 확충한 박물관은 현재 3,673㎡ 규모의 현대적 공간에서 전시와 수장, 교육이라는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역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05년 3월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으로 명칭이 정식으로 변경되고 2007년 11월에는 '대학역사전시관'이 개관하였다. 또한, 대구대학교의 설립정신과 특성화된 교육적 성과를 입체적으로 담아내고자 2010년 5월 국내 대학 최초로 특수교육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특수교육역사



| 2025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최우수대학 선정



| 중앙박물관

관'을 개관하였고 2011년 5월에는 '현대목칠공예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이처럼 중앙박물관의 다양한 변신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3년 각종 학술 조사와 전시 기획 역량을 인정받아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대학박물관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6년 1월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우수 박물관 선정, 2019년 박물관 지원사업 4개 부문 선정 등 잇따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중앙박물관은 최근까지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각종 국고지원사업

에 연속 선정되었다.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2020~2024, 2026), 사립 및 사립대학 박물관 전문인력(학예·교육) 지원사업(2013~2026), 예비 학예인력 지원사업(2021~2026),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2017, 2018, 2020~2022),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2014~2016, 2018~2023) 등은 박물관의 기획력과 행정 역량을 공인받은 것이다.

전시 진흥지원 사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었다. 2022년,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전시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21년, 2025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

었다. 이는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의 전시기획 완성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 지역 연계 활동의 확장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였다. 이와 함께 2023년 사립 및 사립대학 박물관 예비 학예인력 지원사업에서도 우수상을 거머쥐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인정받고 있다.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은 지역사회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거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소외 지역까지 아우르며 역사와 문화를 생활 속 경험으로 확장하고 있다.

안정적인 사업 수행 역량과 고도화된 전시 체계, 그리고 지역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강력한 위상을 갖춘 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지역 문화의 자양분으로서 세상과 소통하는 따뜻하고 열린 문화 공간이 될 것이다.

중앙박물관 주요 프로그램

연도별	프로그램명	연계 성격	주요 내용
2019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나도 큐레이터〉	대학-지역 연계 진로교육	초·중·고 학생 대상 큐레이터 진로체험, 전시·수장고·유물관리 실습 운영
2021	〈열려라 영주 순흥 벽화고분, 펼쳐라 역사나라〉	지역문화자원 활용·문제해결형	중학생 자유학기제 연계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2023	달 특별전 연계 교육〈미래 작가들과 함께하는 ‘달 달 무슨 달’〉	대학생 참여형 전시 및 창작교육	대학 교육과 박물관의 실천적 결합
2024	중·고등학교 진로체험 〈나도 고고학자〉	대학-지역 연계 진로교육	입학처 연계 프로그램으로 수장고 견학, 유물 마킹·포장 체험 제공
	점자 특별전 연계 유아교육 〈시각장애인의 글자, 점자〉	전시 연계 사회적 가치 교육	지역 유아교육기관 연계로 점자 학습지 활동, 네임텍 만들기를 통해 장애 인식 개선
	여름방학 박물관 문화체험교실	지역아동센터 연계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역 문화서비스 실천
2025	‘놀다×있다’ 특별전 연계 〈전통놀이 한마당〉	지역사회 혁신, 공공참여	지역민·재학생 공동 참여형 전통놀이 행사로 공동체 회복 및 지역 문화 활성화
	숙명여자대학교 ‘섬유의 시간’ 순회전 연계 교육 〈지구를 살리는 착한 챌린지〉	지역문제 해결· ESG 교육	대학 간 연계형 공공교육으로 업사이클링 섬유 체험을 통한 환경·지속가능성 교육
	박물관 미술관 주간 연계 체험 〈전통 자개 소반 만들기〉	지역 연계, 전통 문화 확산	지역사회 다양한 문화 참여 기회로 국민 문화 향유권 확산



|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나도 큐레이터>



| ‘한국특수교육 130주년 기념 특별전’ 연계 유아교육 프로그램 <시각장애인의 글자, 점자>

제6장

지역에서 세계로 뻗어나간 70년의 발자취

대구대학교의 지난 70년은 '사랑·빛·자유'라는 건학이념을 나침반 삼아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해온 거대한 협력의 역사이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대학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했던 초창기에 대구대학교를 지탱한 것은 이름 없는 국내외 독지가들의 기부와 국경을 넘은 구호의 손길이였다. 이처럼 대구대학교에 있어 교류와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대학의 탄생을 가능케 한 운명적 사건이었으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고결한 초심은 오늘날 대구대학교 대외협력의 지닌 가장 단단하고 깊은 뿌리가 되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수동적인 봉사에서 출발했던 지역사회와의 연대는 시대의 변화와 산업의 고도화에 발맞춰 산학협력, 평생교육, 사회적경제 지원 등 정교하고 실질적인 구조로 진화해 왔다. 대학은 이제 지식을 전수하는 상아탑을 넘어 지역 산업의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혁신 주체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장의 궤적은 국제교류 분야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났다. 우선 정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과 GKS(정부초청장학생) 과정 운영 등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2024년부터는 AI 실시간 통번역 시스템을 활용한 '이중언어 수업'을 도입하여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글로벌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중국어 자막과 음성으로 제공되는 100여 개의 과목을 비롯해 전문 통역원 32명이 참여해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 이해도와 참여

도를 높이고 있다. 향후 영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으로 범위를 넓혀 명실상부한 글로벌 다언어 교육 체계의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지금 전국의 사립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소멸, 초고령 사회라는 유례없는 시대적 파고 앞에 서 있다. 하지만 대구대학교는 이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지역사회와 운명을 함께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공동체적 책임'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대구대학교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잃지 않고 위기를 타개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낼 것이다. 지난 70년이 나눔의 씨앗을 정성껏 뿌리고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인고의 시간이었다면 다가올 100년은 그동안 축적해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교육혁신의 결실을 인류 전체와 나누는 찬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지역에서 시작해 세계의 중심을 향하는 대구대학교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온도를 1도 더 높이는 정직하고 따뜻한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 2025 한중문화예술교육교류협회 국제학술회의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서비스디자인전공 박사과정 당루(좌측), 왕난디(우측) 학생

제3편

자유가 춤추다

3

- 제1장 대학자치의 닻 올린 대학 민주화와 학생 운동
- 제2장 대립과 갈등 극복한 영광학원 정상화의 기록
- 제3장 대구대학교의 이름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들

연대와 투쟁으로 빚어낸 학내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역사

시대를 가로지르는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대구대학교의 심장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광장에 모여 서로의 손을 맞잡았던 그 온기는 역사의 험난한 파도를 넘는 가장 단단한 닻이 되어주었다. 투쟁으로 쟁취한 직선제의 금지와 연대로 일궈낸 정상화의 기록은, 자유를 향한 대구대학교 구성원들의 뜨거운 자부심이며, 대한민국 사회 역사 속에서 찬란한 빛으로 남아 있다.

서언(序言)

자치의 힘으로 일군 교육정의의 역사,
그리고 푸르른 자유의 물결

강의실의 창을 넘어 불어온 바람은 언제나 뜨거웠다. 때로는 서슬 퍼런 시대의 압제 앞에서, 때로는 안개 자욱한 법인의 파행 앞에서도 대구대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함께 투쟁한 역사는 가장 눈부시고 장엄한 승리의 기록으로 남았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갈망으로 피어난 교수협의회와 직원 노동조합, 1994년 한국 사학사에 유례없는 발자취를 남긴 '총장 직선제'의 도입은 대구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인인 '자치 공동체'로 진화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 특히, 임시이사와 정이사 체제가 교차하는 험난한 풍랑 속에서도 직선제를 사수하고 법인 정상화를 이룩하려 했던 교수·직원·학생의 강력한 연대는 학원 민주화의 살아있는 모범이 되었다.

대구대학교 학생운동의 역사 또한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분수령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언제나 시대의 양심을 향해 있었다. 또한, 1985년 쟁취한 총학생회 부활은 학내 자치의 소중한 불씨를 다시 살렸고, 90년대 이후에는 학생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행보로 그 외연을 넓혔다. 이념의 격동기를 지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위기를 함께 넘어온 학생자치는 이제 학생들의 권익과 일상을 세밀하게 살피는 '생활 밀착형 민주주의'로 더욱 단단하게 진화하고 있다.

오랜 세월 짓눌렸던 해묵은 갈등의 먼지를 털어내고 대구대학교는 지역과 사회를 위한 건강한 교육 공동체로 비상하고 있다. 고난의 계절을 견디고 마침내 찾아온 이 땅의 봄날, 대구대학교 전 구성원이 함께 일궈낸 숭고한 민주주의의 마당 위에서 이제 자유가 춤을 춘다.

제1장

대학자치의 닻 올린 대학 민주화와 학생 운동

제1절

구성원이 주인 되는 총장 직선제 도입과 학내 민주화

자치공동체의 초석을 놓은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의 탄생

1981년은 대구대학교 역사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된 해였다. 문교부로부터 종합대학교 승격을 인가받은 '한사대학교'가 10여 일 후 '대구대학교'로의 교명 변경을 승인받은 것이다.

1982년 초대 총장으로 부임한 설립자 이영식 목사의 장남 창파 이태영 박사의 지휘 아래 대구대학교는 제도와 체제, 연구 활동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꾀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한국 사회를 휩쓴 정치적 격동과 민주화의 열망은 캠퍼스 안으로도 거세게 불어왔다. 이 무렵 이태영 총장이 과로와 병환으로 도미(渡美)하면서 발생한 장기적인 공백은 대학 구성원들이 스스로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자율적인 자치 활동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인 민주화 요구와 맞물려 학내에서도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의 바람이 일었다. 그 중심에는 교수 사회의 '교수협의회'와 직원 중심의 '노동조합'이 있었다. 1988년 결성된 교수협의회는 학사 운영과 인사, 예산 등 대학 경영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학내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교수협의회 의장단 명단(1988~1993)

학년도	의장	부의장	
1988(1대)	권재선(국어국문학과)	김연기(행정학과)	김병하(특수교육과)
1989(2대)	이해두(일반사회교육과)	금영철(경영학과)	신영남(물리학과)
1990(3대)	조기섭(국어교육과)	김형태(영어영문학과)	김헌무(법학과)
1991(4대)	이강언(국어교육과)	김덕진(식품공학과)	정동국(중어중문학과)
1992(5대)	신영남(물리학과)	정수철(불어불문학과)	김정현(행정학과)
1993(6대)	김형태(영어영문학과) 박성배(물리학과)	김문봉(일어일문학과)	이용두(전자공학과)

1988년 2월 13일에는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대학 발전을 목적으로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 수도회관에서 창립되었다. 이승팔 초대 위원장을 필두로 결성된 조합은 ‘대구대학교 직원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조합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아울러 조합이 속해 있는 대구대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력한 의지를 규약에 담았다. 조합은 이러한 목적을 토대로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생존권과 노동 3권 확립, 실질 임금의 향상과 합리적 배분, 대학 경영의 합리화 추진과 촉구’ 등의 9개 항을 확정하였다. 조합원은 과장급 이상과 임시직·일용직을 제외한 재직 직원으로 하였다.

조합은 발족 직후 2월 16일 전국노동조합연맹 가맹과 신고필증 교부를 마침으로써 법적·제도적 위상을 확보하였다. 1989년부터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대학 경영의 합리화를 촉구하는 등 대구대학교가 투명하고 건강한 교육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1988~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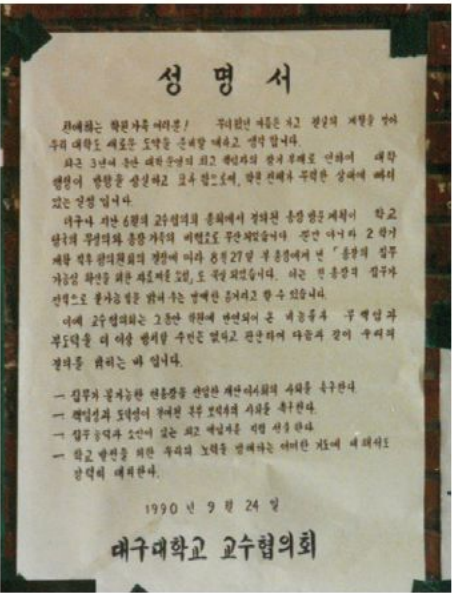
일시	주요 내용
1988. 02. 13.	노동조합 결성대회 및 초대 임원 선출 위원장(이승팔), 부위원장(안인구·홍의용·이화순), 사무국장(이성우·배영배), 회계감사(이상목·손명섭), 상임운영위원(이승재·박희태·이성우·이선우·이화순·권오현·남희록·강대호)
1988. 02. 14.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가입
1988. 02. 24.	대구시 남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 교부
1988. 04. 09.	제1차 정기총회

일시	주요 내용
1988. 12. 12.	단체협약 체결
1989. 04. 07.	임금협약 체결
1989. 04. 15.	제2차 정기총회
1990. 02. 20.	제2대 임원 선출 위원장(이양우), 부위원장(이성우·김상천·이영식), 사무국장(신성진)
1990. 03. 21.	단체협약 체결
1990. 05. 04.	제3차 정기총회
1991. 05. 11.	노동쟁의 발생 신고
1991. 05. 31.	제4차 정기총회
1991. 07. 18.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1992. 03. 20.	제3대 임원 선출 위원장(이영식), 부위원장(신성진), 사무국장(신효식)
1992. 04. 24.	제5차 정기총회
1992. 06. 30.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1993. 04. 07.	임금협약 체결
1993. 08. 18.	제4대 임원 선출 위원장(이양우), 부위원장(박원형), 사무국장(금용주)
1993. 09. 16.	제6차 정기총회
1994. 04. 16.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1994. 04. 22.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제17차 중앙위원회 개최
1994. 09. 15.	제7차 정기총회

시련 속에 피어난 자치의 꽃, ‘총장 직선제’ 쟁취

1988년 이태영 총장의 부재 이후 대구대학교는 원영조 기획관리실장, 이상춘 부총장의 총장대행 체제를 거치며 격변의 시기를 지나왔다. 특히 이상춘 총장대행 시기(1990.3.1~1993.4.7.)에는 학내 민주주의를 향한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미 결성된 교수협의회와 조합을 중심으로 ‘우리 대학의 수장은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총장 직선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는 대학의 주인 정신을 회복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1993년 구성원들의 뜻과는 다르게 재단에 의해 제4대 신상준 총장(1993.4.8.~1994.2.28.)이 임명되면서 대학은 유례없는 내홍에 휩싸였다. 불투명한 인사와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은 곧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교수협의회를 필두로 한 총장 퇴진 운동에는 일부 직원과 학생들까지 가세하였고 언론 보도와 외부 압력 속에서 신 총장의 학내 신뢰는 건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결국 신 총장은 취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사임했고 이 뼈아픈 갈등은 ‘더 이상



총장 부재로 인한 대학 행정의 표류를 규탄하는 교수협의회 성명서(1990)

임명제 총장으로는 대학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며 직선제 도입의 결정적 기폭제가 되었다.

이에 대구대학교 구성원들은 신속하게 직선제 실행에 돌입하였다. 마침내 1993년 5월 26일, 자연과학대학 강당에 266명의 교수가 한 자리에 모였다. 대구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내 손으로 직접 총장을 선출하는 투표를 시작한 것이다. 이날 투표는 대학 운영의 주도권을 구성원 스스로 되찾아온 학내 민주주의 정착의 계기가 됐으며 이후 대구대학교의 핵심적인 제도적 전통으로 뿌리내렸다.

직선제 선출 역대 총장

직선제 역대 총장	임기
제5대 조기섭 총장 (박정옥 부총장의 총장대행)	1994.03.12~1995.08.31. 1995.09.01~1996.02.16.
제6대 박윤흔 총장	1996.02.17~2000.02.16.
제7대 윤덕홍 총장 (이강언 부총장의 총장대행)	2000.02.17~2003.03.06. 2003.03.08~2003.06.30.
제8대 이재규 총장 (박용 총장대행)	2003.07.01~2005.08.15. 2005.08.16~2005.10.31.
제9대 이용두 총장	2005.11.01~2009.10.31.
제10대 홍덕률 총장 (김덕진 부총장의 총장대행)	2009.11.01~2013.10.31. 2013.11.01~2014.07.22.
제11대 홍덕률 총장	2014.07.23~2018.03.27.
제12대 김상호 총장 (이원돈 부총장의 총장대행)	2018.06.01~2022.01.20. 2021.04.01~2021.04.30.
(서민교 총장 직무대행)	2021.05.01~2021.05.31.
(박상규 총장 직무대행)	2022.01.21~2022.06.30.
제13대 박순진 총장	2022.07.01~2026.06.30.



| 교수협의회가 주관하는 총장 직선 선거(1993.5.26.)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두 총장 후보(좌측 박정옥·우측 조기섭 후보)

제도적 산통을 극복하고 직선 총장 시대 개막



| 첫 직선 총장인 제5대 조기섭 총장

1993년, 대구대학교 구성원들의 직접 선거로 제5대 조기섭 총장이 선출되었다. 비록 당시 법적 체계상 총장 임명권이 이사회에 귀속되어 있어 공식 인준까지 험난한 과정이 이어졌으나 조 총장은 실질적인 학내 리더십을 발휘하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와의 갈등과 법적 정당성 논란이라는 안팎의 거센 풍랑을 마주해야 했지만 이는 오히려 구성원이 뽑은 총장이라는 상징성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조기섭 총장 체제 출범 직후 교육부 감사에 따른 교수 5명의 재임용 탈락 사태는 대학을 또 다른 위기로 몰아넣었다. 학내 구성원들은 이를 직선 총장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교수회와 총학생회가 연대하여 강력히 저항하였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1994년 2월 22일 교육부는 대학의 갈등과 비정상적 운영을 이유로



첫 임시이사회(1994.2.26.) 직후 김기동 이사장이 재단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과 교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총장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

‘관선이사’를 파견하기에 이른다. 재단의 권한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학내 구성원들은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였지만, 관선이사들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 직선 총장의 뜻을 존중했고 임시관리체제 하에서 마침내 조기섭 총장은 공식 임명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년으로 조기섭 총장이 1995년 8월 짧은 임기로 퇴임하면서 박정옥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정옥 부총장은 대학의 현 상황을 고려해 안정과 화합의 행정을 펼쳤다. 그는 과도기적 혼란을 수습하며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화했고 직선 총장제가 대구대학교의 깨지지 않는 전통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갈등의 시대를 벗어나 질서 회복과 진정한 민주 교육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내실을 다져나간 시기였다.

6~9대 총장 거치며 직선제의 안정적 계승과 교육혁신 추진

제6대 박윤흔 총장은 구성원들의 손으로 선출된 두 번째 직선 총장으로서 학내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구조조정과 재정 건전화, 교육 개혁 등 실질적인 변화를 과감히 추진하였으며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대구대학교 총장 직선제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증명하였다.



| 제6대 박윤흔 총장



| 제7대 윤덕홍 총장



| 제8대 이재규 총장

뒤이어 취임한 제7대 윤덕홍 총장은 교육 전문가다운 혜안으로 교육의 질적 혁신에 집중하였다. 산학협력과 지역사회 봉사 등 대외 활동의 폭을 넓히며 대구대학교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고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는 2003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재임 중 자리를 옮겼으며 이후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장(2004~2007)과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며 대구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였다. 윤덕홍 총장의 공백을 메운 이강언 총장 직무대행은 전환기적 리더십으로 대내외 신뢰를 유지하며 차기 직선제 준비를 완수하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제8대 이재규 총장은 재정구조 개선과 등록금 동결, 취업 지원시스템 구축 등 대학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실질적 개혁에 매진하였다. 비록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문제, 인사 및 노사 갈등으로 임기 도중 하차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대학 운영에 있어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직무대행을 맡은 박용 교수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며 직선제의 전통을 잇는 파수꾼 역할을 다하였다.

이후 제9대 이용두 총장이 취임하며 대학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이 총장은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대구대학교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학내 자율과 참여를 조화롭게 이끌어 낸 그의 리더십 덕분에 대학 내 신뢰 기반은 더욱 공고해졌



| 제9대 이용두 총장

다. 퇴임 후 한국국학진흥원장(7~8대)으로서 고문서 및 옛 자료 등 기록 문화의 디지털화에 매진하였다.

소통의 리더십으로 물꼬 튼 대학의 새로운 미래로



| 제10·11대 홍덕률 총장

제10대 홍덕률 총장은 개방과 소통을 화두로 교육과 행정, 캠퍼스 환경의 전방위적인 개선을 이끌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교육 역량을 강화했으나 2011년 정이사 체제 전환기에 정이사 3인의 이사회 불참 등 이사회의 파행 운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대구대학교 구성원들은 범대위를 결성해 이사회와의 갈등 속에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 제11대 총장으로 재선된 홍 총장은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질과 복지, 사회공헌 영역에서 눈부신 개혁을 완수하였다. 특히 이사회의 기능 마비로 1년간 이어진 김덕진 부총장의 직무대행 체제를 극복하고 취임한 그는 지역사회 연계와 캠퍼스 재정비를 통해 대구대학교의 내실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제12대 김상호 총장은 탈권위주의와 공정한 인사를 약속하였고, 학과 통폐합과 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의 미래 비전으로 ‘DU캠퍼스 시티 프로젝트’, ‘글로벌 대구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부진 책임과 이사회와의 갈등이 맞물리며 김 총장이 해임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이원돈 부총장·서민교 교수의 대행 체제를 거쳐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3개월 만에 총장직에 복귀하였지만 8개월 후 2022년 1월,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총장직에서 끝내 물러나게 되었다. 이사회는 박상규 교수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차기 총장 선출까지 학교 운영을 맡겼다.



| 제12대 김상호 총장

2022년 7월, ‘Back to the Basic’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취임한 제13대 박순진 총장은 대학의 근간인 학과 교육여건 개선에 사활을 걸었다. 그는 신입생 모집과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당면 과제를 정면 돌파하며 경산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유치 등 굵직한 국책 사업을 성공시켰다. 2023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에서 2개 영역(교육혁신전략, 자체성과관리)이 대구·경북·강원권 유일의 전 영역 ‘A등급’을 획득하였고 2025년 8년간 20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는 SW(소프트웨어)중심대학에 선정되었다. 또한 총 9개 단위과제에서 매년 83억 원(5년 400억 원) 지원규모의 RISE 사업 선정,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최우수 A등급 달성 등 대구대학교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위기 앞에 굴하지 않고 기본으로 돌아가 혁신을 일궈낸 박순진 총장의 리더십은 대구대학교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비상하는 든든한 날개가 되고 있다.



| 제13대 박순진 총장

교수협의회 탄생 이후 학칙기구인 ‘교수회’로의 진화

1988년 4월 13일 민주화를 향한 열망 속에서 닳을 올린 대구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대학 자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온 핵심 조직이다. 출범 이후 대학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며 임시이사 체제를 성립시켰고 총장 및 단과대학장 직선제 실시, 대학평의위원회의 교원 평의원 선출 등 대학 운영의 민주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왔다.

교수협의회는 학칙(제95~98조)에 명시된 공식 기구인 ‘대구대학교 교수회’로 한층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다. 이제 교수회는 임용과 동시에 가입되는 정년트랙 교수 전원을 회원으로 하며 의장단과 사무국, 사무국장과 간사 등 다수의 운영진 및 단대 교수회(회장 등)가 참여하는 평의원회를 통해 자율성을 학칙으로 보장받는 명실상부한 자치 기구로 자리 잡았다.

1994년 이후 교수협의회 및 교수회 역대 의장단 명단

학년도	의장	부의장		비고
1994	박용	김신환	최영준	제7대 교수협의회
1995	정동국	전영평	최병두	제8대 교수협의회
1996	황규탁	김남선	박진태	제9대 교수협의회

학년도	의장	부의장		비고
1997	김형태	김연보	박천익	제10대 교수협의회
1998	신도길	고인숙	윤용화	제11대 교수협의회
1999	김춘일	이경호	홍덕률	제12대 교수협의회
2000	하영선	유병재	윤택석	제13대 교수협의회
2001	최영준	최영선	김남선	제14대 교수협의회
2002	이재석	김인숙	배종림	제15대 교수협의회
2003	김인숙	민병준	홍승용	제16대 교수협의회
2004	강영길	김재훈	정종배	제17대 교수협의회
2005	강영길	김용원	정종배	제18대 교수협의회
2006	최병두	전영란	장병관	제19대 교수협의회
2007	전형수	조순제	오세창	제20대 교수협의회
2008	안태환	이경호	김선경	제1대 교수회
2010	전형수	김성애	나인호	제2대 교수회
2012	김진상	박상규	권옥동	제3대 교수회
2013	박상규	권옥동	-	
2013	김재훈	김성애	강태원	제4대 교수회
2015	김재훈	김성애	송록영	제5대 교수회
2017	소영진	이대식	이정복	제6대 교수회
2019	이정복	홍원기	함요상	제7대 교수회
2021	양진오	이가연	차정호	제8대 교수회
2023	우창현	윤재운	정소희	제9대 교수회
2025	이희정	이소영	김준우	제10대 교수회

교수회는 대학 본부와 원만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침해되는 순간에는 단호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특히 2003년 이재규 총장 취임 이후 독단적인 경영과 노조 전임자 대우 취소, 구성원 모독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교수회는 조합과 연대하여 강력한 총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청회와 임시총회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구성원의 뜻을 결집한 끝에 2005년 8월 총장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냈으며 4년 후인 2009년 11월 홍덕률 총장의 취임을 거치면서 본부에 대한 일정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해 왔다.

2009년 교수회는 정부의 학원 정상화 방침에 따라 구성된 ‘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정추위)’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정추위가 다수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정이사 후보를 추천했으나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사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범대위)’를 결성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그러나 사분위는 2011년 7월 종전 이사

(과거 1993년 당시 이사) 추천 3인, 구성원 추천 2인, 교육부 추천 1인과 임시이사 1인으로 구성된 정이사 체제를 결정했고, 11월 정식 출범하였다.

법인 파행의 시련 뚫고 총장 직선제 사수와 거버넌스 확립

2011년 야심차게 출범한 정이사 체제는 기대와 달리 깊은 수렁에 빠졌다. 가까스로 이상희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후에도 9~17개월간 함귀용, 박영선, 양승두 등 3인의 거듭된 이사회 불참과 참석 시 동원된 괴청년의 학생 폭력,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 후보 인준 거부,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부재 방임, 3개 특수학교 교장 임명 거부 등으로 학원 정상화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였다.

교수회를 필두로 한 범대위는 법인의 독단을 묵과하지 않았다. 이들은 교육부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고, 마침내 2013년 4월 교육부가 사망 혹은 활동이 법정 소송에 의해 부정된 임시이사를 제외한 정이사 5인의 승인을 취소하고 다시 임시이사를 재파견하면서 오히려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2015년 이후 대구대학교 교수회는 대학의 민주적 운영, 총장 선출 방식 개선, 그리고 대학 경영진과의 갈등 조율 등 학내 의사결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특히 학내 분규나 구조조정 시기에 교권 수호를 위한 교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고 대학 민주화의 상징인 총장 직선제를 수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제12대 김상호 총장과 제13대 박



|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사분위)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 시위(2014.3.13.)

순진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교수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치밀한 후보자 검증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적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파수꾼 역할을 완수하였다.

비록 2021년 김상호 총장의 해임과 징계를 둘러싼 법인의 압박 속에서 중재의 한계를 실감하는 아픔도 겪었으나 교수회는 대학 본부와 재단의 경영 갈등 사이에서 법인의 독단을 견제하고 끊임없이 성명을 발표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맞섰다.

또한, 교수회는 급변하는 대학 환경 속에서 단행된 대학 구조 개혁과 학사 구조 개편 과정에서 교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 본부의 일방적인 학과 통폐합이나 정원 조정 시도에 대해 교수들의 중지를 모아 전달하고 교원의 신분 보장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처럼 교수회는 대학 운영의 실질적인 파트너이자 엄격한 비판자로 기능해오며 대구대학교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치의 성지로 남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대학 민주화의 견고한 보루, 직원 노동조합

1988년 결성된 대구대학교 직원 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대구대학교지부)은 지난 30여년간 직원의 권익 보호와 대학 민주화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매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통해 복지후생을 확대하고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감시해 왔다. 1994년 이후 조합은 학내 민주화와 학교 발전을 위한 구성원의 한 축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오고 있다.

직원 노동조합 역대 임원 명단(1995~2025)

학년도	위원장	부위원장	비고
1995	이승팔	박원형, 강희복	제5대 직원노동조합
1997	이상목	박현구	제6대 직원노동조합
1999	이선우	이재영	제7대 직원노동조합
2001	이선우	오창룡	제8대 직원노동조합
2003	김현수	김의규	제9대 직원노동조합
2005	김현수	김의규	제10대 직원노동조합
2007	이기동	전재경	제11대 직원노동조합
2009	양춘호	윤미숙	제12대 직원노동조합

학년도	위원장	부위원장	비고
2011	양춘호	김중호	제13대 직원노동조합
2013	최문덕	김상곤	제14대 직원노동조합
	이준희(보궐)	곽성희	
2015	이준희	곽성희	제15대 직원노동조합
2017	이준희	곽성희	제16대 직원노동조합
2019	이철환	이승희	제17대 직원노동조합
2021	이철환	이승희	제18대 직원노동조합
2023	이철환	이정엽	제19대 직원노동조합
2025	손동우	김호엽	제20대 직원노동조합

특히 2015년 이후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역할은 더욱 빛을 발하였다. 법인 이사회의 파행이나 독단적인 경영 시도,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 혹은 재단 내 분규가 발생할 때마다 조합은 ‘학교의 주인은 구성원’임을 천명하며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교수회, 학생회와 어깨를 맞대고 총장 직선제를 수호하는 한편, 총장 선거에 참여하는 직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활동을 벌이는 등 실질적인 참여형 민주주의를 실현해 내었다.

조합은 대학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임금 동결 시도에도 맞서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이는 대학 경영의 합리화를 촉구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대구대학교라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다.

2020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이 법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대구대학교에도 교수 노동조합이 결성되며 자치 체계는 더욱 다각화되었다. 기존의 교수회가 학내 의사결정과 학문적 자율성을 지키는 기구였다면, 교수노조는 교원의 임금과 근로 조건 등을 현안으로 대학 본부와 직접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법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대구대학교는 직원 노동조합과 교수 노동조합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법적 권의 단체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대학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하고 대학 운영 전반에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더욱 촘촘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대학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조합은 구성원들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되어 위기 극복의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길게만 느껴졌던 어둠은 1979년 10·26 사태를 거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독재 체제의 균열과 함께 학내에도 민주화의 봄바람이 불어왔고, 1980년 3월 17일 대구대학교는 총학생장 선출을 위한 선거방법 및 114명의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자치권 회복에 나섰다.

1980년 3월 20일 실시된 선거에서 학도호국단 총학생장에 이홍섭(지역사회개발 3학년), 부학생장에 남정섭(경제 3학년)이 당선되며 학생들의 선택에 의한 대표성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해 9월 16일 치러진 총·부학생장 선거에서는 최상갑(복지행정 3학년)과 이용익(산업복지 3학년)이 뒤를 이으며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학생자치의 명맥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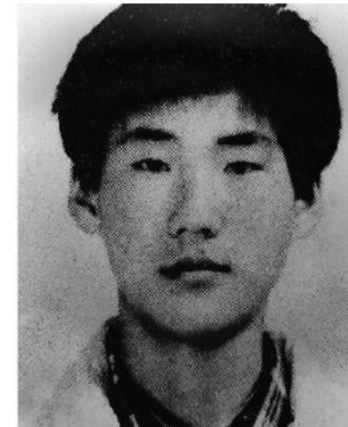
민주화 운동의 격랑과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

1980년대 한국 현대사의 가장 뜨거웠던 시기에 대구대학교 학생들은 역사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았다. 유신 반대와 직선제 개헌 지지,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을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캠퍼스를 넘어 거리로 퍼져 나갔다. 비록 그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연행되거나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는 아픔을 겪었으나 이러한 시련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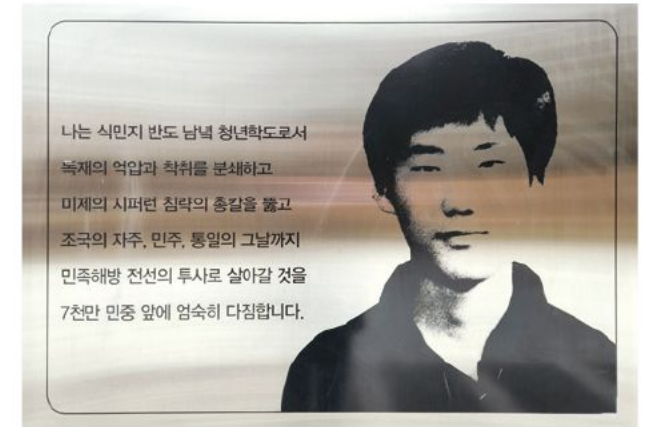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 그리고 1992년 문민정부의 출범은 학생 운동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독재 타도'를 외치던 학생 운동의 전통은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학생 운동의 두 축이었던 NL(민족 해방)과 PD(민중 민주) 노선은 독재 정권이라는 거대한 적이 사라지면서 점차 그 동력을 잃어갔고 대구대학교 학생 운동 역시 이념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되었다.

교내 민주광장에는 1956년부터 이어온 대구대학교 민주화의 발자취를 기리고 조국과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동문들을 추념하는 기념비가 우뚝 서 있다. 이곳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름들이 아로새겨져 있다. 1985년 학도호국단의 벽을 깨고 부활한 총학생회의 초대 수장이었던 손진철(역사교육 82) 동문, 학원 민주화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다 과로로 쓰러진 조용필(회계 89) 동문, 그리고 노동 운동의 현장을 문학으로 기록한 서분숙 동문(지리교육 86)의 이름은 대구대학교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특히 1991년 8월 18일 밤 11시 40분 대명동 캠퍼스에서 '미제축출, 조국통일, 민족해방'을 부르짖으며 자신을 사른 손석용 열사의 숭고한 희생은 대구대학교 민주화 역사의 가장 가슴 아픈 장면으로 남아 있다. 2001년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은 그의 뜻은 오늘날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를 통한 장학 사업으로 이어지며 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다.



| 손석용 열사



| 교내 민주광장 기념탑에 세워진 열사의 유서 내용



| 손석용 열사 30주기 및 장학사업위원회 장학기금 전달식(2021.8.21.)

역사의 고비마다 뜨겁게 타오른 행동하는 양심

2000년대 대구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 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며 한총련 등과의 연대를 이어가는 한편,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주체적인 시도를 병행하였다. 대표적으로 2004년 3월 ‘민주주의가 정치·외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마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 초청 강연회였다. 신입생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강연은 총학생회가 직접 주한 미 대사로부터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을 경청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세계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2004년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대구대학교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시하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학생들은 단과대학별 시위와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했으며 탄핵 반대 배지 부착과 스티커 설문 조사를 통해 학내 여론을 결집하였다. 3월 24일에는 대구 시내 민주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도 참석해 탄핵 반대 시위에 앞장섰다.

이후 20여 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계엄 시도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대구대학교 학생들의 청년 정신은 다시금 뜨겁게 타올랐다. 과거의 조직화된 운동 방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2030 세대 젊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주를 이루었다. 학생들은 거창한 구호 대신 저마다의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평화적이고도 단호한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내었다. 국회에서의 탄핵 표결과 헌법재판소의 인용 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국에 대한 열정을 뜨겁게 표출하였다.

1980년대 초반 학과별 학회의 부활과 다양한 학술활동

1980년대 초반 엄혹한 대외적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학생 활동의 보폭이 좁아졌던 시기에는 학생들이 캠퍼스 내부로 시선을 돌려 학문의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하였다. 1982년 신학기, 전공 학문을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부활한 ‘학과별 학회’는 이러한 움직임의 핵심이었다. 학회는 전공 연구 외에도 학과 내 구성원 간의 유대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신입생 환영회부터 학과 특색을 담은 행사까지 마련해 경색된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1982년을 기점으로 각 단과대학은 학술 행사를 제정하며 캠퍼스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범

대학은 ‘제1회 사대 문학상’을, 인문대학은 ‘인문대 학술상’을 각각 제정하며 학생들의 창작 의욕과 탐구 정신을 고취하였다.

각 단과대학별 공통적으로 진행한 명사 초청강연이 외에도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되었다. 인문대학의 창작문예작품발표회, 사범대학의 예술제 및 사대연극제, 경상대학의 모의 주주총회, 사회과학대학의 학술논문 발표대회와 학술세미나, 이공대학의 사진 콘테스트 및 음악회에 이르기까지 대구대학교의 전 교정을 학문적 열기로 가득 채웠다.

당시 총 학도호국단이 주관하는 축제로 체육대회와 더불어 명사 초청강연회, 서화전, 백일장, 학과별 세미나, 교양강좌 등 학구적인 프로그램과 남녀 고교생 웅변대회 같은 외부 연계 행사는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대학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1985년 학도호국단의 종언과 민주적 총학생회의 부활

1984년 가을,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 하에서 대구대학교에는 새로운 변화의 기류가 감돌았다. 9월 27일 대명동 캠퍼스에서 영어영문학과 2학년 학생 50여 명이 교수 총원과 외국인 강사 채용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는 곧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민주화 요구로 확산되었다. 10월 13일 진행된 총장 면담에서 학생들은 학생자치기구 인정, 학내 언론의 자율성 보장, 자유벽 설치 등을 요구했고 총장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 약속을 받아내었다.

이어 11월 1일과 8일 경산과 대명동 양 캠퍼스에서 개최된 ‘학원민주화와 대학 자율화 실현을 위한 공청회’는 학생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400여 명이 운집한 경산 캠퍼스 공청회에서는 학도호국단의 비리 시정, 내실 없는 확장 금지, 행정 서비스 개선, 교수 부족 문제 등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적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학생들은 ‘학원민주화 추진위원회’를 공식 추진하며 조직적인 자치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위원장에 김보준(독문 3학년)을 비롯해 부위원장에 김규준(무역 3학년), 총무에 육칠유(사회 2학년) 학생이 선임돼 학도호국단을 대신할 진정한 학생자치 조직을 향한 열망이 엿보여졌다.

1985년 신학기, 문교부의 학생자치기구 부활에 관한 문교부령을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학생들은 더욱 구체적인 실천에 나섰다. 학생들은 정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학생 대표 후보 자격 요건(B학점 이상인 자, 징계 및 유급된 사실이 없는 자, 4학년이 아닌 자)의 완화와 학생회 간부

선출 직선제 쟁취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도위원회 구성도 평교수협의회나 자문위원회 정도로 현실성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침내 1985년 5월 23일 대구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는 민주새터에서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①대학 자율 보장 ②경산 캠퍼스 마스터 플랜 공개 ③실험실 습비 내용 공개와 서점 직영화 ④학내 진입도로 포장과 인도 보장 ⑤상림동에서 학교 입구까지 인도 포장 ⑥경산 캠퍼스 입구에 게시판 설치 ⑦기숙사 시설 확충과 교내 식당 직영제 ⑧스쿨버스 학생 이용 ⑨기초 전공 및 전공분야 외래강사를 전강 이상으로 확충 ⑩회칙 인준 등 대학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10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오랜 토론 끝에 마침내 학생회 회칙이 인준됨으로써 학도호국단 체제는 종언을 고하였고 직접 선거로 선출된 총학생회가 부활하게 되었다.

역대 총학생회 회장단(1985~1993)

학년도	대	회장	부회장
1985	1	손진철(특수교육과)	강진철(경제학과)
1986	2	임재수(경제학과)	박원식(행정학과)
1987	3	정영화(산업공학과)	김진구(화학교육과)
1988	4	강성호(사회학과)	장시종(생물공학과)
1989	5	정용섭(물리교육과)	박용구(국어국문학과)
1990	6	하상규(법학과)	엄창보(경영학과)
1991	7	남재현(생물공학과)	이재희(국어국문학과)
1992	8	최종훈(환경공학과)	백육진(행정학과)
1993	9	이영윤(사회학과)	김해환(축산학과)

민주의 함성 터진 1987년, 캠퍼스에 넘치는 변혁의 물결

1987년 봄, 대한민국은 전두환 정권의 간선제 유지 시도에 맞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열기로 가득 찼다. 이러한 전국적인 시국 상황과 맞물려 대구대학교 캠퍼스 내부에서도 그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들이 폭발하였다.

3월 13일 2,300여 명의 야간강좌 학생들은 학번 이중코드 철폐를 요구하며 서명 운동 실시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4월 28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도서관 4층을 점거하

며 무능 교수 퇴진, 외국인 교수 초빙 등 교육권 수호를 위해 농성을 벌였고 30일 지리교육과도 교내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5월 15일에는 4·19 27주년 기념 강연회를 마친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나아가 시위를 전개하며 학내외 민주화 의지를 드러내었다.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각 대학에서 정상 수업을 거부하고 그동안 누적된 학내 문제들을 이슈로 시위에 돌입하였다. 6월 2일에는 학생 100여 명이 철야농성을 벌이던 효성여대 본관으로 몰려가 ‘효대 투쟁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학 당국의 폭력 사태에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였다.

1987년 6·29 선언으로 국가적 차원의 민주화 물꼬가 트이자 학내 민주화 요구는 더욱 구체적으로 확산되었다. 같은 해 9월 중순부터 법학과, 지역사회개발학과, 중어중문학과, 경상대학 등 소속 학생들은 무능 교수 퇴진, 전임 강사 채용, 전용 강의실 확보, 교수협의회 구성 등 학내 제반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와 철야 농성을 전개하였다.

9월 28일 경산 캠퍼스 민주새터에서 열린 학생총회는 총학생회 퇴진과 비상 총학생회의 구성을 의결하며 자치기구의 인적 쇄신을 단행하였다. 학생들은 평교수협의회 구성, 소비조합 결성, 식당 직영제 및 전일제 수업 실시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다.

10월 13일 중앙도서관에서는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이 학과장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 철야농성을, 산업도안과 2학년 학생들은 무능 강사 퇴진, 전임강사 충원을 요구하며 중간고사 거부와 시위를 각각 벌였고 농과대학 학생들은 실습관 시설 보안, 농대 진입로 포장, 전임교수 충원 등을 요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1988년 교육권 회복과 학원 민주화를 향한 힘찬 전진

1988년 봄, 대구대학교는 행정의 투명성과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3월 24일, 단대연합회는 장학금 지급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11개 단과대학이 참여하는 농성을 벌이고 총장 면담 후 자진 해산하였다. 이어 3월 30일에는 식품공학과, 지역사회개발학과, 법학과(야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학과 및 학내 제반 문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였고 식품공학과 학생들은 외래강사 채용과 실험실습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장 비서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4월 7일과 11일 두 차례의 비상총학생회를 통해 각 학과(지역사회개발·특수교육·불문·생



| 학원 자주화와 민주·통일·노동·농민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전개했던 시기에 열렸던 학생축제 모습(1988.5. 비호 대동제)

물·관광)의 현안을 수렴한 학생들은 4월 13일 2,000여 명의 학생이 민주새터에 운집한 가운데 ‘학원민주화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전면 수업 거부와 가두시위로 이어진 학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대학 본부 처실장들이 16일 일괄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학내 사태로 연기되었던 중간고사는 교수들의 재량에 따라 실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4월 19일 민주새터는 다시 한번 함성으로 가득 찼다. ‘4·19 28주년 기념 학원민주화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한 2,000여 명의 학생은 전 민통련 의장인 문익환 목사의 강연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겼으며 하양읍 사무소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학원 민주화의 정당성을 알렸다.

학생들의 요구는 2학기에도 계속되어 9월 13일 학생총회에서 기획관리실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자들의 퇴진 투쟁을 결의했고 200여 명의 학생들은 중앙도서관장실과 국제실장실에 시위를 이어갔다. 10월 25일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학생들도 대명동 캠퍼스 행정실을 점거하며 실험실습비 폐지 및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989년 등록금 투쟁으로 불붙은 학생 주권 향한 열망

1989년 봄, 대구대학교 교정은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학자투)’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다. 당시 투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등록금 문제였다. 대학 당국은 신입생 수업료의 환불 안을 내놓았으나 학생들은 입학금을 포함한 전면적인 현찰 환불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고위 보직교수의 퇴진과 총장 직선제 도입이라는 학내 민주화 과제를 전면내 내세웠으며 나아가 노태우 정권 퇴진과 구속 학우 석방을 외치며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하였다.

4월 18일 총학생회는 ‘학원자주화투쟁 제2차 결의대회’를 열고 배수의 진을 쳤다. 학생들은 총장 직선제가 실현되는 순간까지 총장실 점거 농성을 이어가기로 결의하였다. 대회 직후 학생들은 가정대학, 인문대학, 경상대학 등 캠퍼스 곳곳을 돌며 동참을 호소했고 각 단대학생회는 행정본부를 점거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하였다. 대명동 캠퍼스에서도 70여 명의 학생이 ‘학원자주 만세’라는 글귀를 혈서로 새기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고 본관 앞에서 민중가를 제창하며 학원 자주의 당위성을 알렸다.

5월에 접어들며 학생들의 분노는 전면 수업 거부와 총파업으로 확산되었다. 학교 당국은 물

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부분적 공제 방식을 제안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학생들은 입학금 전체의 즉각적인 현찰 환불이라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특히 대학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결산 전면 공개 요구에 대해 학교 측은 학보에 요약본을 게재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나 학생들은 각 항목별 산출 근거까지 포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하였다.

1990년 등록금 8.2% 인상 근거 요구와 예결산 공개 투쟁

1990년대 대구대학교는 이태영 총장의 장기 와병에 따른 행정 공백과 민주화 이행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이 시기 학내 갈등의 핵심도 단연 등록금 인상 문제였다. 1990년 3월 3일 대학 측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예정되었던 입학식을 취소하고 단과대학별 분산 거행을 결정하였다. 이에 총학생회는 대운동장에서 독자적인 입학식을 강행하며 맞섰다. 영광합창단의 교가 제창과 총학생회장의 인사말로 이어진 약 15분간의 식을 거행하였으나 일부 단과대학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등 혼란스러운 양상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1990년은 학생자치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학생회비가 등록금 합산 고지 방식에서 ‘자율 납부’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그 결과 전체 등록 인원의 약 87%가 자발적으로 학생회비를 납부하며 학생회를 향한 지지를 증명해 보였다.

기세를 올린 12개 단과대학 학생회는 하계 방학 전, 대학 당국이 제시한 8.2%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학생들은 정확한 인상 근거 자료 제시, 예결산 전면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직접 ‘등록금 책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단과대학 학생회 명의로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의문을 채택해 대학 측에 전달하였다.

부당 등록금 납부 거부를 위한 서명 운동에는 3,600여 명의 학생이 동참하며 인상안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방학 중 대부분의 학생이 등록을 마치면서 납입 거부 투쟁의 원칙을 끝까지 유지할 수는 없었다.

이념의 파고를 넘어 실질적 학생 복지 시대로 선회

이 시기 대구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일상과 밀착된 정기 행사들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구축하였다. 신입생들의 적응을 돕는 예비대학과 환영회부터 4·19 기념제, 광주민중항쟁계승제, 6·10 민중항쟁계승제, 농어촌 봉사활동, 하계캠프, 자주 학교 등을 개최해 학생들의 역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5월과 9월에 각각 일주일 간 열린 ‘비호 대동제’는 학생들의 축제의 장이었다. 단과대학 별 체육대회, 초청강연, 사물놀이, 대동놀이, 가요제, 교내순환 마라톤 대회 등 학생들의 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1985년 부활 이후 사회 전반의 민주화에 주력했던 총학생회는 1990년대에 들어서며 근본적인 변화를 맞는다. 거대 담론이나 이념적 투쟁보다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권익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비운동권 후보들이 다수 당선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사가 정치적 활동에서 학습권 보장, 시설 개선, 등록금 문제 등 구체적인 생활 행정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하였다.

역대 총학생회 회장단(1994~2026)

학년도	대	회장	부회장
1994	10	정세용(생물공학과)	김탁성(경제학과)
1995	11	김태종(영어영문학과)	마진락(경영학과)
1996	12	김달성(경제학과)	석상현(지리교육과)
1997	13	오영석(영어영문학과)	이도희(전자공학과)
1998	14	남정휘(사회학과)	김정연(경제학과)
1999	15	최후재(산업시스템공학과)	하형우(행정학과)
2000	16	문누리(식량자원학과)	장우석(정보통신학과)
2001	17	오현민(영어영문학과)	송현석(토목공학과)
2002	18	최은식(생명공학과)	최장수(국제관계학과)
2003	19	한대영(생명공학과)	송종홍(화학교육과)
2004	20	이경하(화학교육과)	류참식(건축공학과)
2005	21	서범린(건축공학과)	이창준(체육레저학과)
2006	22	김석봉(경영학과)	이상열(산업시스템공학과)
2007	23 [Dynamic]	이호(무역학과)	신일현(수학교육과)
2008	24 [신바람]	이광주(산업시스템공학과)	도필용(경제학과)
2009	25 [Running Mate]	현광호(보험금융학과)	권세민(자동차공학전공)
2010	26 [소통시대]	하석수(일반사회교육과)	윤경우(경제학과)
2011	27 [wifi]	전환용(재활공학과)	배정혜(유아특수교육과)

학년도	대	회장	부회장
2012	28 [돌보기]	권석제(임베디드시스템공학전공)	심재민(호텔관광학과)
2013	29 [청춘을 부탁해]	최보규(회계학과)	박민영(국어교육과)
2014	30 [HIT]	이승혁(재활공학과)	김순기(환경교육과)
2015	31[힘이 될게]	구준범(도시지역계획학과)	안수호(토목공학과)
2016	32 [위하여]	박기덕(스포츠레저학과)	민경석(신문방송학과)
2017	33 [너의 곁에]	김선휘(스포츠레저학과)	신준우(도시지역계획학과)
2018	34 [한뿔]	조재형(물리치료학과)	구근희(기계공학부)
2019	35 [미소]	구근희(기계공학부)	이인재(영어영문학과)
2020	36 [하나(HANA)]	김경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주현오(산업경영공학과)
2021	37 [바람]	정현승(산림자원학과)	박권혁(기계공학과)
2022	38 [H.I.T]	이인환(원예학과)	정건우(도시계획공학과)
2023	39 [Switch]	김동재(법학과)	김준혁(부동산학과)
2024	40	당선 무효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수근(식품공학과)] 체제로 운영	
2025	41 [온(ON)]	김민재(경영학부)	조하람(사회복지학과)
2026	42 [서담]	안진영(법학부)	이도경(조경정원디자인학과)

이 시기에도 학생들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등록금이었다. 1997년 대학 본부가 정부 권고안(5% 이내)을 상회하는 6.8% 인상을 결정하자 제13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조절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에 나섰다. 대학 측과의 수차례의 협상 결렬 끝에 학생 대표들은 1997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기획처장실 점거 농성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며 학교 당국을 압박하였다.

그 결과 위원회는 대학 본부로부터 학생 의견의 적극적 수렴과 복지 요구안에 대한 성실한 검토를 약속하는 4개 항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즉 ①본부는 학원의 3주체의 하나인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약속한다 ②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를 통하여 언제든지 본부와 모임을 갖도록 약속한다 ③총학생회가 제시한 학생복지 요구안을 성실히 검토하여 1997년 2월 21일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한다 ④차후 각 단과대학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학생들과 계속 협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이 합의가 원칙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학생들은 1992년 등록금 17.7% 인상을 비롯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2자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교육 환경을 지적하며 학생 대표가 배제된 일방적인 인상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90년대 후반 생활 밀착형 자치로 빚어낸 캠퍼스의 변화

이처럼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대구대학교 총학생회의 활동은 거대 담론보다는 학우들의 일상과 직결된 ‘복지’와 ‘교육 환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1997년 제14대 총학생회는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총학생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총대위원회의 심의 감사기 구화, 학생 복지 관련 수강신청 문제 해결, 통학버스 문제 개선, 공대·사대 이전 및 야간강좌 공간 확보 등 구체적인 교육 현안을 대학 본부에 요구하였다.

1999년 3월 26일 제15대 총학생회는 복지 관련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학 본부와의 간담회를 요구하며 사무처장실 폐쇄 및 총장실, 홍보비설실, 홍보과, 시설 관리과 점거 농성 등 단호한 행동을 통해 학교 측의 협조를 이끌어내었다. 이에 따라 본부 측과의 협의 통해 27일부로 점거했던 공간을 전면 해제하였다.

농성과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은 학우들의 일상을 즉각적으로 개선하였다. 스쿨버스 증차 및 교직원 업무버스 학생 이용 허용(4월 1일부터 오후 2시, 4시 30분), 학내 셔틀버스 운행 등 통학 여건이 대폭 개선되었다. 시설 측면에서도 제1·2학생회관 내 승강기 및 리프트 설치, 장애인 책상 증식, 종합 강의동 건설, 운동장 시설 확충, 강의실 설비 개선, 각 단과대학 샤워실 설치, 공대 식당 신축 및 자연과학대 식당 개선 등 캠퍼스 환경이 한층 편리해졌다. 특히, 불친절한 행정 처리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경고를 부여하는 ‘온라인 민원센터’ 설치는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 성과였다.

이 시기 총학생회는 학원 정상화와 등록금 문제, 학부제 도입과 취업 지원 등 학생으로서 겪는 다각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새천년을 앞두고 활발했던 학생자치 활동은 200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급격한 침체기를 맞이한다. 사회적 양극화 등 대학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모순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은 장기적인 동면에 들어 가게 되었다.

갈등 딛고 대학 민주주의의 모범이 된 상생의 결실

2000학년도 제16대 총학생회의 출발은 등록금 인상 저지라는 약속과 함께 시작되었다. 대학 본부가 신입생 9.8%, 재학생 9.19~9.29%라는 인상안을 담은 고지서를 일방적으로 발송하자 총학생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장우석(정보통신 3학년) 부총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등록금 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13개 단과대학 학생회와 연대하여 본부의 인상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2월 4일 위원회 소속 학생 13명과 본부 측 관계자 8명이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협을 보지 못하였고 이후 박운흔 총장까지 참석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박 총장은 IMF 충격 이후 경제적 여건과 타 대학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인상이 불가피함을 피력하며 타 대학의 인상률보다 최소한 1%라도 낮게 책정하겠다고 하며 이해를 구하였으나 학생들은 동결을 요구하며 본관 점거 농성으로 맞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2000년 2월 17일 취임한 윤덕홍 총장 체제가 안착하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2001학년도 등록금 협상이 전국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분규 없이 마무리되며 대학가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성공적인 합의의 핵심 열쇠는 ‘투명성’이었다. 2000년 11월부터 등록금 조절위원회와 시작된 7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등록금을 7.9%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 본부는 과거 등록금 사용 내역, 향후 재정 운영 계획, 대학 발전 방향을 낱알이 공개한 것이 주효하였다.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학생들의 신뢰를 이끌어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5% 이상 인상 대학에게는 재정 지원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력한 제재 방침 속에서도 대학과 학생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인상안에 합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양측의 소모적인 갈등이 아닌 대학이 먼저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합리적인 협의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었을 때 비로소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2003년 치열했던 11번의 등록금 협상과 재합의

2002년 3월 27일 제18대 총학생회는 본관 앞 잔디광장에서 ‘등록금 인상 철회와 환불을 위한 18,000 결의대회’를 열어 강력한 투쟁의 서막을 올렸다. 학생들은 등록금 조절위원회의 6개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본관 점거를 불사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총학생회는 4월 12일부터 본관 농성에 들어갔으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연한 결단을 내렸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동결이라는 절대적인 목표를 고수하기보다 현실적인 타협안인 ‘종합복지 요구안’을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표결을 실시한 것이다. 투표 결과 요구안을 받아들여자는 쪽이 우세한 17대 8이 나와 4월 29일부로 등록금 동결 투쟁을 철회하고 2002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7.5%로 합의하였다. 당시 학생들이 수용한 종합복지 요구안의 골자는 학사 운영 전

반을 논의하는 대학 본부·학생·교수·직원 대표로 구성된 '대학발전협의회' 구성과 특별장학금 3억 원 조성, 적립금 일부로 기숙사 2개동을 신축한다는 내용이었다.

2003년 7월 1일 이재규 총장 취임 이후 2004학년도 등록금 협상은 더욱 복잡하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쟁점은 총장의 '대구·경북 지역 타 대학 대비 1% 인하'에 대한 약속 이행 여부였다. 이는 대학 간 비교 기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 등)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대구대학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복잡한 쟁점이 얹힌 싸움이었다.

2004년 1월 8일 총장의 위임권자인 기획처장의 불참으로 1차 협의가 결렬되었고 14일 열린 2차 협의에서 대학 본부는 대학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4% 내외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등록금 조절위원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4년제 대학을 모두 포함한 '1% 인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19일에는 대구대학교에 대구·경북 지역 19개 대학 대표자들이 모여 등록금 인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줄다리기를 끝에 1월 27일 기획처장과의 3차 협상에서 총장의 인하 약속을 토대로 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 대비 0.25%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대구가톨릭대의 등록금 동결 발표로 합의가 번복되고 본관 점거 사태가 재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2월 9일 각 학과 학회장을 비롯해 기숙사와 도서관 학생들까지 결집하며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고, 마침내 2월 19일 11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당초 안인 4.7% 인상에서 0.75%를 인하한 3.95% 인상이라는 최종 합의안에 도달하였다.

매년 끈질긴 등록금 투쟁, 그리고 2009년 전국적 등록금 동결

2005년 2월 제21대 총학생회 중심으로 구성된 등록금 조절위원회는 대학 본부의 6.2% 인상안에 맞서 '등록금 납부 연기 투쟁'을 선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 가정에 호소문을 발송하였다. 대학 등록금은 학기가 시작된 후 수업 일수가 학기의 총 수업 일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동안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다. 등록금 납부 연기 투쟁은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이 투쟁은 결국 대학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었다. 몇 차례의 논의 끝에 당초 제시된 높은 인상을 3.2%라는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4월 23일부터 이미 납

부된 차액을 환불받는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6년 대학 측이 11%라는 두 자릿수의 이례적인 고율 인상안을 제시하며 갈등은 다시 증폭되었다. 제22대 총학생회는 즉각 동결을 요구하였고 이후 2008년까지 등록금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투쟁의 중심이었다.

특히 2008년 24대 총학생회가 입학식장에서 벌인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는 그 정점에 달하였다. 등록금 5.9% 인상에 반대하며 60여 개의 현수막이 교내에 게시된 가운데 3월 3일 신입생 입학식장에서 '총장님, 우리 등록금 돌려주세요'라는 피켓을 든 학생들이 무대 앞으로 나아갔다. 당시 취임 3년차였던 이용두 총장의 신입생 환영사가 끝나자 재학생과 신입생은 구호를 외쳤고 입학식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등록금 문제는 2009년 대한민국 대학 사회 전체에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등록금 인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적 교육 정책의 핵심 의제



제23대 'Dynamic' 총학생회 출범식(2007.4.) |

로 떠오른 것이었다. 정부는 대학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앞세워 적극 개입하였다. 이에 전국의 대학은 줄줄이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대구대학교 역시 2009년 초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끈질긴 문제 제기를 통해 대학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던 관행을 깨뜨리는 단초가 되었다.

대학 구조조정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민주주의의 햇불로

2015학년도 제31대 총학생회는 ‘가슴 뛰는 지금 이 순간 힘이 될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학생행복증진 5대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대구대·진량 도시철도 연장, 교수평가제도 도입, 종합강당 조기 착공, 스쿨 버스 개선, 동문(東門) 설치 등을 내세웠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청춘을 즐길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대학의 구조조정 및 학과 통폐합 문제를 두고 학생들과 학교 당국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5월 20일 학생들은 본관을 점거하고 홍덕률 총장과 박순진 기획처장을 총장실에 감금하며 28시간에 걸친 긴 농성을 전개하였다. 5월 21에는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자연과학대학의 시위와 연대해 양상은 더욱 격해지기 시작하였다. 본관 농성은 종합복지관으로 이동하였고 이곳에서 학생들은 구체적인 학과 구조조정 기준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총장이 건강상 문제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농성은 일단락되었다. 이후 대학 측은 홈페이지에는 총장의 담화문을 게재하였고 학생들은 22일 오후 6시 노천강당에서 긴급총학생회를 열어 대학 운영 과정에서의 불통을 지적하고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31대 총학생회는 이 외에도 등록금 인하, 교내외 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신호등 및 우선순위 표지판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치기도 하였다.

대구대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이한 2016년, 제32대 총학생회 ‘위하여’는 학생자치 확대와 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가치와 함께 대학이 사회적 공동체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고민하였다. 이들은 ‘소통’을 핵심 가치로 내걸고 학내 구성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2016년은 학내 문제 외에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가 닥친 시기였다. 이에 대구대학교 학생들은 캠퍼스를 벗어나 역사의 현장으로 나섰다. 기존 총학생회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뜻을 함께하는 학우들이 결성한 ‘대구대학교 시국선언 추진단’과 함께하

며 학우들의 직접적인 서명과 목소리를 모아 시국선언을 이끌어내었다. 시국선언에는 선언문 낭독 후 추진단원들의 대표 발언, 학생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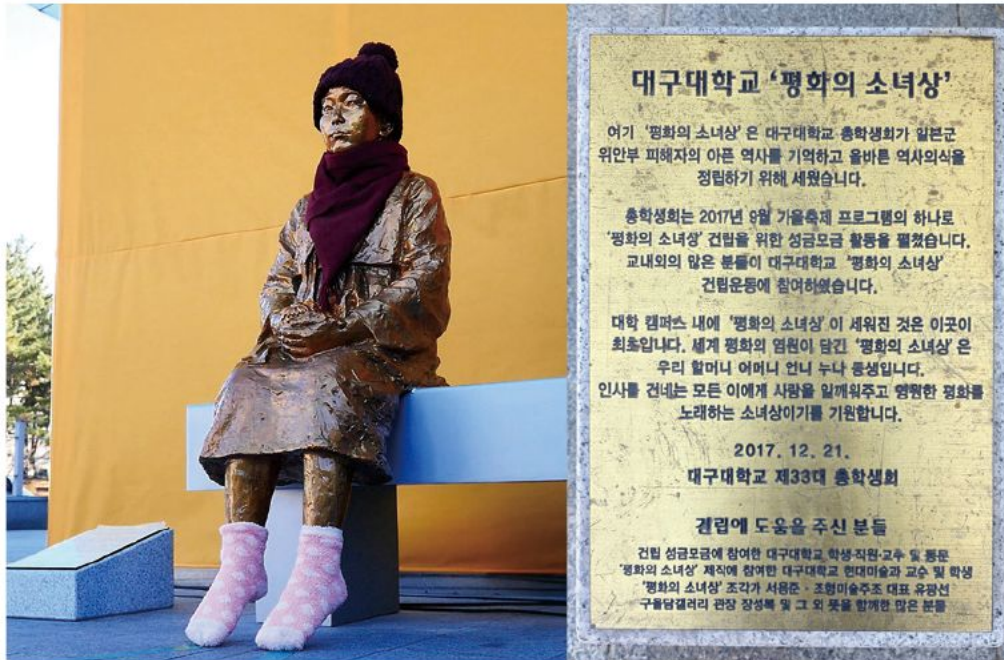
이날 시국선언 추진단 단장인 김상훈(국제관계학 13) 학우는 추진단 결성 계기에 대해 “시국선언을 하고자 하는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추진하게 되었다. 중간에 총학생회가 SNS를 통해 시국선언을 했는데 부족하다고 느꼈고, 학우들의 현 시국에 대한 서명이 더 많은 힘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시대의 부조리에 당당히 맞섰다는 점에서 대구대학교 학생자치 역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2017년 총학생회 전국 대학 최초 ‘평화의 소녀상’ 설치 주도

2017년은 대구대학교 학생자치 역사에서 가장 의미 깊은 변화가 일어난 해 중 하나이다. 당시 제33대 ‘너의 곁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75분 수업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철도 1호선 대구대·진량 연장 촉구, 캠퍼스 내 편의시설 개선(동편 운동장 잔디 및 비호동산 풋살경기장 조명 설치) 등 구성원의 삶과 직결된 현안과 함께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수업 강좌 개설 및 취업강연 및 창업박람회 개최 등 4개 주요 안건을 대학 본부에 전달하였다.

특히, 전국 대학 최초로 교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것은 대구대학교의 정의로운 기상을 빛내는 계기가 되었다. 12월 21일 경산 캠퍼스 학생회관 앞 빗광장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는 9월 가을축제 기간부터 12월까지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을 대상으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모금 활동을 벌였다. 이렇게 학생과 구성원들의 정성이 모아져 약 1,500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이에 서용준 작가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고 유광선 조형미술주조 대표가 후원에 참여하였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총학생회가 교내 설치를 건의하고 홍덕률 총장이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평화의 소녀상은 가로 50cm, 세로 60cm, 높이 132cm 크기의 청동 재질로 제작되었다. 기존의 결상 위에 앉아 있는 소녀상의 형태가 아니라 벤치 위에 앉아 있는 형태로 누구나 옆에 앉아 애기하고 따스한 온기를 전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 경산 캠퍼스 웅지관(학생회관) 앞 '평화의 소녀상'



| 이용수 할머니와 총학생회 학생들

더욱이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해였던 만큼,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인하는 성숙한 의식이 캠퍼스 전반에 흐르던 시기였다.

일상의 활력 불어넣은 대학문화 조성 and 학생자치의 성찰

2018학년도 제34대 '한뫼'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와 문화 콘텐츠에 집중하였다. 이들의 행보는 기존의 관행을 깨는 신선한 변화였다. 총학생회는 6가지 핵심 공약을 내세웠는데, 블루캠퍼스 장학제도, 취업출석확인서 공식화, 소통과 복지, 사랑 나눔, 문화, 취업과 봉사 등이다. 특히 술 없는 축제의 시행으로 건전한 대학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e-스포츠 대회 개최, 풋살경기장 조명 설치, 학우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품 대여, 행사나 취업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학생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받았다.

2019학년도 제35대 '미소' 총학생회는 셔틀버스 운행 개선, 시내버스 증설, 장학금 확대, 소통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학생자치기구가 큰 도전에 직면한 때였다. 여러 사유로 학과 학생회장의 탄핵 사태 등 자치기구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학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신뢰에 대한 회고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자치기구에 대한 학생들의 회의감과 무관심을 떨쳐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더 나은 대학사회를 만든다는 진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자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성찰하게 되었다.

SNS 통한 실시간 소통 and 실무형 학생 복지 시대 활짝

2020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는 대구대학교에 들이닥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캠퍼스의 일상이 멈췄던 시기였다. 대학 본부는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비대면이라는 한계로 학생들은 큰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총학생회는 고립된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적 과급력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특히 대구·경북권 6개 대학(대구대·경일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의한대·영남대) 총학생회가 연대하여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학생 권익을 위한 지역 대학 간 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2023년 제39대 'Switch' 총학생회는 교내 와이파이(wifi) 인프라 확충과 통학버스 운행 개선 등 학우들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에 집중하며 출범하였다. 하반기 명절 귀향버스 운영 등에서 일부 시행착오가 있어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으나 이는 학생자치기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2024년은 대구대학교 총학생회가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한 해였다. 당선 무효와 재선거 불발 등으로 총학생회가 부재한 상황이었으나 식품공학과 박수근 학생이 위원장을 맡아 비상대책 위원회 체제로 빈자리를 채웠다. 비대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을 대동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대학 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였고 대학 편제조정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자치의 명맥을 잇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 대구대학교 축제

2025년 'ON'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체감하는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통학버스 운영 개선, 교내 약국 입점, 대동제 축제 개선 등 학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중 교내 약국 유치 문제는 학교 정문 앞 '새정문 약국'이 개업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2022년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과 함께 대면 축제가 부활하면서 캠퍼스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현재의 학생자치는 SNS를 활용한 실시간 소통 시스템의 일상화, 취업·창업 지원 등 학생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실무형 복지'로 진화하고 있다.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대구대학교의 학생자치는 지난 5년의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지나 이제 더 빠르고 스마트하게 학생들의 일상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제2장

대립과 갈등 극복한 영광학원 정상화의 기록

제1절

파란만장 했던 법인 분규와 정상화 과정

임시이사·정이사 체제 지나 다시 멈춘 정상화의 시계

영광학원의 지난 30년은 그야말로 흔들리는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기나긴 시간이었다. 대학의 근간인 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은 눈물겨웠고 그 과정은 부침과 위기의 연속이었다. 본격적인 정상화의 서막은 1994년 2월 22일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며 시작되었다.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자 내려진 교육지책이었으나 이 결정은 영광학원의 기약 없는 표류로 이어져 무려 17년 동안 대학 운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채 멈춰 선 시간 속에 갇히게 된다. 2006년 4월 12일 마침내 교육부가 법인 정상화를 요구하자 오랜 침묵을 깨고 학교 내부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었으니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이사회는 재단 정상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였다. 2009년 6월 4일 교수회를 중심으로 법인 산하 8개 학교 구성원과 설립자 유족 대표까지 참여한 ‘영광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정추위)’가 닳을 올렸고 다수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정이사 후보를 추천하였다.

영광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 명단(2009.6. 출범)

참여 기관		1차(2009년)	2차(2010년)
재단		김성팔 이사	김성팔 이사
대구대학교	총장	이재돈 부총장	이재돈 부총장
	교수회	김인숙(회화과)	전형수(경제학과)
		박상규(생명환경학부)	김성애(유아특수교육과)
		조순제(도시행정학과)	김진상(물리치료학과)
		김경무(전산통계학과)	오세창(산림자원학과)
	총학생회	현광호 회장	하석수 회장
	직원	이양우 총무팀장	이양우 총무팀장
		양춘호 노동조합 위원장	양춘호 노동조합 위원장
총동창회	정판규 부회장	정판규 부회장	
대구사이버대학교		박희태 사무처장	정진호 사무처장
6개 특수학교 교장협의회		장병윤 포항명도학교 교장	최미지 대구덕희학교 교장
설립자 유족	며느리 고은애	불참	불참
	장손 이근용	장익현 대구지방법변호사회장	장익현 대구지방법변호사회장

그러나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사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교수회는 대구대학교 본부, 노동조합, 총학생회, 대구사이버대학교의 교수회와 노동조합, 특수학교 학부모회까지 합세한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범대위)’를 결성해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이 반영되는 법인 정상화 활동에 나섰다. 사분위는 2011년 7월, 종전 이사(과거 1993년 당시 이사) 추천 3인, 구성원 추천 2인, 교육부 추천 1인과 임시이사 1인으로 구성된 정이사 체제를 11월에 정식 출범하였다.

영광학원 정이사 명단(2011.7.14. 사분위 임명 ~ 11.1. 임기 시작)

이름	주요 경력	교육부 분류
이상희	전 대구시장 / 전 임시이사장	학교 구성원 추천 정이사
이근용	대구대 교수 / 설립자 장손	
박영선	전 대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종전 재단 추천 정이사
양승두	전 연세대 법학과 교수	
함귀용	변호사	
황수관	전 연세대 의대 외래교수	교육부 추천 정이사
김홍원	전 교육부 국장	교육부 추천 임시이사

정이사 체제의 출범은 학원 정상화의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법인 이사회는 대학의 미래를 설계하기보다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였다. 2012년부터 이사회는 1여 년간 파행을 거듭하였다. 가까스로 이상희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후에도 9~17개월 간 함귀용, 박영선, 양승두 등 3인의 거듭된 이사회 불참으로 이사회 의결 기능을 마비시켰고 홍덕률 총장후보 인준 거부,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부재 방임, 3개 특수학교 교장 임명 거부 등 학원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하였다. 2012년 5월 25일 남은 4명의 이사는 이상희 이사장을 다시 선출하였다. 그러나 2012년 12월 30일 황수관 이사의 별세로 이사회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었다.

2013년 9월 12일 대구대학교 교수회는 홍덕률 총장을 재선시키며 변화의 동력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이사회 기능 마비와 구 재단 추천 이사 3인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대구대학교는 11월 1일부터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뼈아픈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법정 공방 매듭짓고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안정 돌입

영광학원의 이사회 파행이 탈출구가 보이지 않자 결국 교육부가 중재에 나섰다. 2013년 11월 25일 교육부는 이사 간담회를 소집하며 학교장 미임명 사태 등 해결을 시도했지만 이사회 의 갈등은 이미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급기야 2013년 12월 30일 교육부는 이사회에 2014년 1월 20일까지 파행을 해소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종전 재단 측 추천 이사들은 이마저 거부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 2월 18일 이사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한 뒤 3월 14일 임원 간의 분규와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사들을 해임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해임 처분을 받은 종전 재단 측 이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2014년 3월 19일 이들은 교육부의 임원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7월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을 시작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냉정하였다. 2014년 4월 4일 서울행정법원(1심)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고 같은 달 30일 서울고등법원(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대법원마저 7월 20일 가처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싸움은 종전 재단 측의 완패로 일단락되었다.



| 사분위가 열리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시위(2013.12.9.)

이에 따라 영광학원은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교수회를 비롯한 범대위는 학원 안정을 위해 교육부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교육부는 정이사 체제 출범 2년 만인 2013년 4월 사망 혹은 활동이 법정 소송에 의해 부정된 임시이사를 제외한 정이사 5인 전원에 대해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였다. 사분위는 2014년 4월 28일 임시이사 7명 선임을 의결하였고 5월 28일 교육부는 권혁재, 박윤훈, 이창기, 정원기, 박명호, 정일용, 김철호 등 7명의 임시이사를 임명하였다.

2014년 7월 21일 마침내 대구대학교 제11대 총장으로 홍덕률 교수가 정식 임명되면서 9개월간 공석으로 방치되었던 총장 자리가 임시이사 파견 2개월 만에 채워지게 되었다. 이로써 대학은 비로소 멈춰 있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임시이사 체제에서 학원은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 구 재단 측 이사 3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열리는 서울행정법원 앞 시위(2014.4.2.)

정이사 체제로의 귀환과 대법원 판결로 30년 갈등 종지부

임시이사 체제가 2년 지난 후인 2015년 6월 29일 사분위는 영광학원에 6개월 시한부 임시 이사로 전원 교체 결정을 내렸다.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였다. 사분위는 학원 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던 고(故) 이태영 총장의 유족인 이근용(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이근민(대구대학교 의료재활학과 교수)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임시이사 파견 사유 해소 여부와 6개월 이내 정상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러나 해법은 요원하였다. 두 사람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은 정상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9월 21일 이근민, 이예숙의 대리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모친인 종전 이사 고은에 여사의 청문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미국 체류로 인한 청문회 불출석까지 겹치며 정상화의 길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대학은 다시금 멈춰 서는 듯 보였다.

같은 해 10월 16일 법원 판결이 전해지며 상황은 격랑에 휩싸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임원승인이 취소된 함귀용, 양승두, 박영선 3인의 전 이사가 청구한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10월 26일에는 박영선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한 이사 승인 취소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되었다.

그러나 2011년 시작된 이들의 임기는 2015년 10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고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맞대응하였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구대학교 구성원들은 다시 뭉쳤다. 교수회를 비롯해 대구사이버대학교의 직원노동조합, 학생회 등과 함께 임시이사 파견 이후 흩어졌던 범대위를 재결성하였다. 이들은 성금 모금 운동에 돌입하며 지루하게 이어질 법정 다툼에 맞서 끝까지 학교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부침과 격동의 시간은 서서히 정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18년 홍덕률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이임한 뒤 2019년 4월 14일 영광학원은 다시 정이사 체제를 구축하였다. 교육부는 박운흔 이사장을 포함한 7명의 이사를 새롭게 임명하였고 이 과정에 구 재단은 불참하였다. 그리고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구 재단 측이 제기한 정이사 선임 취소 소송을 최종 기각하였다. 1심과 2심에 이은 확정 판결이었다.

1994년 임시이사 파견 이후 30년 가까이 이어진 영광학원의 분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길었던 법적 논란은 종결되었고 대구대학교는 구성원들의 손에 의해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하게 되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흔들리던 배는 마침내 거친 파도를 뒤로하고 민주적 자치라는 이름의 항구에 안전하게 닻을 내렸다.

제2절 대학 민주화의 대장정을 함께한 구성원들의 노력

정상화를 향한 끈질긴 발걸음과 그 속에 피어난 내실

1994년 초 대구대학교는 위기에 빠져 있었다. 설립자 가족 간의 운영권 다툼, 재단 측의 부당한 학사 개입 의혹은 대학을 견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교수와 직원, 학생들은 힘을 모아 재단의 비민주적인 운영에 반발하며 관선이사 파견과 학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교육의 현장이어야 할 캠퍼스는 수업 거부와 본관 점거 농성으로 이어졌고 총장 인준 거부와 보직 교수 사퇴 등이 반복되면서 행정 시스템에 잦은 공백이 생기기도 하였다.

1994년 2월 22일 결국 교육부는 재단 이사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7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대구대학교가 대학 민주주의로의 험난한 항해를 시작함을



| 교육부의 관선(임시)이사 파견 결정에 환호하는 교수들(1994.2.22)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후 임시이사 체제는 단기간 내에 학원 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단 복귀를 노리는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구성원 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은 무려 17년 동안 미뤄졌다.

하지만 기나긴 임시이사 체제는 대구대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못하였다. 임시이사 체제라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대구대학교는 특수교육과 사회복지 분야라는 확실한 특성화를 통해 성장을 거듭하였다. 최종적인 법인 정상화는 2019년 정이사 체제 구축과 2021년 대법원 최종 승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1994년의 임시이사 체제라는 사태는 사립대학의 투명한 운영과 민주적 거버넌스가 왜 필수적인지를 웅변하는 사건이었다. 공공의 영역(교육부)이 대학 운영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고비였지만 그 투쟁의 끝에서 대구대학교는 '재단의 학교'가 아닌 '구성원의 학교'로 다시 태어났다. 거친 파도를 넘어 마침내 민주적인 항구에 닻을 내린 대구대학교의 역사는 앞으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비추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되고 있다.

되살아난 기득권의 그림자와 사회적 이슈가 된 범대위의 투쟁

본격적인 재단 정상화의 시작은 2006년 4월부터였다. 이 시기 교육부는 대구대학교를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재단 정상화 촉구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 대학 구성원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던져주었다. 또한 임시이사 파견 대학들의 재단 정상화를 다룰 사분위(사학분쟁 조정위원회)도 이듬해인 2007년 12월 출범시켰다.

재단 정상화 당시의 영광학원 임시이사진(2008.8.6.~2011.10.31.)

성명	임기	약력
조해녕 이사장	2008.08.06.~2011.10.31.	전 대구시장, 전 내무부장관
정지창 이사	2008.08.06.~2011.10.31.	영남대 교수
이선우 이사	2008.08.06.~2011.10.31.	변호사, 전 부장판사
정종섭 이사	2008.08.06.~2011.10.31.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로스쿨 원장
임승빈 이사	2008.08.06.~2011.10.31.	경상북도 부교육감
서용규 이사	2008.08.06.~2011.10.31.	가야대 교수, 동문
김성팔 이사	2008.08.06.~2011.10.31.	전 대구은행 지점장, 동문

2009년 6월, 영광학원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재단 정상화를 위해 정추위(영광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일간신문에 정이사 후보를 공개 모집하였다. 이에 30여 명이 응모하였고 이중 7인의 정이사 후보로 설립자 유족을 대표하는 이근용 교수, 이 교수가 추천한 차홍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허명 변호사, 윤점룡 한국 재활복지대학 학장과 함께 대학 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이상희 전 임시이사장(전 대구시장)과 이노수 TBC대구방송 사장, 그리고 직선 총장인 홍덕률 총장이 정이사 후보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상화의 과정은 여전히 순탄치 않았다. 1기 사분위와 달리 2010년 2월 출범한 2기 사분위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인 것이다. 보수적 성향이 강해진 2기 위원들은 과거 재단 기득권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였다. 구 재단 측은 구성원들의 합의된 후보 명단과 달리 별도의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였고 사분위가 이를 용인하면서 학내 분규는 다시 격렬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대구대학교 구성원들은 공분하기에 충분하였다. 2010년 7월 5일 영광학원 산하 8개 학교 구성원들은 범대위(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연대의 깃발을 올렸다.

2011년 들어 범대위(범대구대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활동 반경을 넓혀 나갔다. 교수회, 노조, 학생회가 연대해 매주 서울을 오가며 교육부와 사분위 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와 상경 투쟁을 전개하였다. 학원 정상화와 투명한 재단 운영을 요구하는 대구대학교 구성원들의 절실한 목소리는 대한민국 사학 정상화의 올바른 방향을 묻는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었다.

법인 정상화 달성과 위기 속에서도 끝내 지켜낸 대학자치

2011년 7월, 사분위가 확정한 종전 재단 추천 3인, 재단 산하 학교 구성원 추천 2인, 교육부 추천 2인이라는 정이사 7인의 명단 발표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오랜 내홍을 겪던 이사회의 대립은 2014년 3월 14일 정이사 전원이 해임되고 5월 28일 임시이사 7인이 확정 발표돼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사분위는 2018년 6월 대구대학교 재단 정상화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2019년 4월 14일 드디어 새로운 정이사진 명단을 발표하였다. 1994년부터 시작된 임시이사 체제가 완전히 마무리 되고 정이사 체제의 출범으로 법인 정상화의 마침표를 찍었다.

법인의 구성이 흔들릴 때마다 대구대학교를 지탱했던 것은 구성원들의 강력한 자치 의지, 그 중에서도 ‘총장 직선제’였다. 2014년과 2018년 등 총장 선출 시기마다 법인은 임명제를 시도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려 할 때마다 교수회와 학생회는 결연히 맞섰다.

이들은 대학 운영의 주인은 법인이 아닌 구성원임을 선언하며 투표를 강행하거나 강력한 항의 방문을 통해 우리가 직접 뽑은 총장이 캠퍼스를 이끌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켜내었다. 이러한 직선제 수호 투쟁은 대학 운영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의 민주화가 완성되어 가던 시기, 대학 사회를 덮친 거대한 파도는 2021년의 대규모 입학생 미달이었다. 대구대학교 구성원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교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가 힘을 모아 자구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인과 총장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총장이 해임되는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하며 내부적인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구대학교는 공동체의 탄탄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정원 미달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강도 높은 대학 구조 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갔다.

제3장

대구대학교의 이름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들

제1절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를 쓰고 있는 동문들의 활약

펜싱 명가 일군 고낙춘 감독의 리더십과 자랑스러운 동문 선수들

대구대학교의 동문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모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중 스포츠 분야 동문 선수들의 활약은 대학의 큰 자산이 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펜싱은 대구대학교 출신 선수들이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대학교가 대한민국 펜싱, 특히 '플뢰레(Foil)' 종목의 독보적인 강자로 자리 잡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플뢰레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하며 2관왕에 올랐던 '플뢰레의 전설' 고낙춘 감독의 존재다. 고낙춘 감독은 선수 시절 체득한 노하우와 특유의 엄격하고도 정교한 훈련 방식을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전수하였다. 그 결과 대구대학교 펜싱부는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춘 검객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플뢰레의 산실이 되었다. 고 감독은 선수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승리에 대한 열망과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며 대구대학교가 세계적인 수준의 펜싱 명문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체육관

고낙춘 감독의 지도로 배출된 대구대학교 출신 선수들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대한민국 펜싱의 위상을 드높였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건 오하나(체육학 03) 선수는 대구대학교 펜싱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대구대학교 출신 남자 선수로 허준(체육학 07), 김효곤(체육학 09), 김민규(체육학 09) 선수, 여자 선수로 김미나(스포츠레저학 06), 홍효진(체육학 13) 선수 등이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하였다.

고낙춘 감독은 “국제무대에서 선수들의 선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출신 학교인 대구대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모습은 장차 한국 펜싱계를 이끌어 나갈 후배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또 한 명의 국가대표, 평창의 기적 '팀 킴' 이끈 김은정 선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한민국을 컬링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팀 킴(Team Kim)'의 중심에는 대구대학교 출신 김은정 선수(스포츠레저학 09)가 있었다. 팀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주

장(스킵, Skip)으로서 대한민국 컬링 사상 최초의 은메달 획득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김은정 선수는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이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다져온 탄탄한 기본기와 끈기 있는 훈련 과정은 김은정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시켰다. 2026년 현재 강릉시청 소속으로 카리스마와 친근함을 동시에 갖춘 리더십은 컬링이라는 종목을 대중 스포츠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김은정 선수를 상징하는 단어는 단연 '안정선배'와 '영미'다. 경기 중 동료에게 “영미! 기다려!”, “영미! 가야 돼!”를 외치는 그녀의 존재감 넘치는 지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민적인 유행어가 되기도 하였다.

베트남 돌풍부터 K리그 심장까지 맹활약하는 축구부 동문

1987년 1월 대구대학교 축구부가 첫발을 내디딘 이후, 훗날 대한민국 축구계를 이끄는 명장과 선수들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지난 40여 년 동안 대구대학교는 김상식, 박태하, 이태홍, 이영진 등 걸출한 스타플레이어를 배출했고, 황석호(울산 현대)와 김강산(대구FC) 같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꾸준히 길러내며 ‘대학 축구의 요람’이라는 수식어를 당당히 쟁취하였다.

대구대학교 축구부의 저력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향했다. 체육학과 95학번인 김상식 감독은 전북 현대 감독 시절 K리그 우승과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4강 진출이라는 굵직한 업적을 남기며 명장 반열에 올랐다.

이제 그는 베트남 국가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고 전임자 박항서 감독을 이어받아 베트남 축구의 새로운 돌풍을 주도하고 있다. 모교에서 다져온 강인한 정신력과 전략적 사고는 이제 베트남 축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포항 스틸러스의 현 사령탑인 체육학과 87학번 박태하 감독은 1991년 프로 데뷔부터 은퇴까지, 상무 시절을 제외하면 오직 포항에서만 헌신했던 ‘원클럽맨’의 신화를 이끌고 있다. 선수 시절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플레이는 감독이 된 지금, 포항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영진 감독(체육학 90) 또한 대구대 축구부의 긍지이다. 성남FC 코치와 수석코치, 감독대행을 거치며 쌓아온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K3리그의 창원FC를 이끌며 세미프로 무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현재 모교인 대구대학교 축구부를 이끌고 있는 이태홍 감독(체육학 88)은 대학 축구 1부 리그인 U리그1에서 선수 육성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 감독은 “대구대 축구부 출신 감독들의 활약은 후배 선수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자극제”라며 “선배들의 명성에 걸맞은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대구대학교 축구부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 1987년 시작된 이들의 열정이 대학리그와 프로리그는 물론 국가대표팀과 세계 곳곳에서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제3운동장 |

제2절

군사·문화예술·AI 혁신 분야 대학의 위상 드높인 동문들

국가 수호의 사명 다한 대구대학교가 낳은 국방의 별들

대한민국 육군을 이끄는 강인한 리더십, 대구대학교 학군장교(ROTC)와 학사장교의 자부심으로 국가 안보의 중추가 된 동문들의 활약상도 빛나고 있다. 대구대학교 출신 군인 동문 중 가장 눈부신 이정표를 세운 인물은 단연 박신원 장군(화학교육 82, ROTC 24기)이다. 그는 대구대학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육군 소장에 진급하며 대학의 위상을 드높였다.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인 박신원 장군은 대학 졸업 후 학군사관 기갑소위로 임관해 제20기계화보병사단, 제60기계화보병여단에서 소령과 중령을 지냈고 제11기동사단 제9기계화보병여단장으로 대령을 지냈다. 준장으로 제102기갑여단장과 제2작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소장의

로 제37보병사단장,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제병지휘관을 맡아 모교의 많은 후배들에게 자부심을 남겼다. 이후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기계화학교장을 지냈고 '기계화 부대의 최고 전문가'로 이름을 남기며 2020년 12월 학교장직을 끝으로 전역하였다.

또한, 경영학과 90학번 이수득 장군(학사 23기)은 경상북도 구미시 출신으로 대구대학교 역사상 두 번째로 배출된 육군 소장이다. 1994년 7월 육군 보병 장교로 임관하여 차근차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는 현재 제8기동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지휘하며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시설본부 소속 조경학과 86학번 현대중 준장(ROTC 28기)은 임관 후 30여 년간 다양한 보직을 수행해 오다 2020년 장성으로 승진하였다. 제6공병여단장을 거쳐 제2작전사령부 공병처장에 최종 재직하며 대한민국 국방 공병 전력의 토대를 다져온 그는 2023년 전역하였다.

이 외에도 제75보병사단장을 지낸 김섭(ROTC 26기) 준장, 현 지상작전사령부 군수참모부장을 맡고 있는 권한석(ROTC 32기) 준장,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참모장을 지낸 이환철(ROTC 27기) 준장 등이 육군의 핵심 보직을 맡아 국가 방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였다.

대구대학교가 배출한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거장들

대구대학교 출신으로 스크린과 문단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한 문화예술 분야의 동문들도 있다.

축산학도에서 대한민국 영화계를 이끌어가는 영화감독 중 한 사람인 추창민 감독(축산학 85)은 대학 졸업 후 영화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그는 1997년 여균동 감독의 <죽이는 이야기>의 연출부 생활을 시작해 김성수 감독의 <태양은 없다>의 스크립터 활동을 거치며 현장에서 기본기를 탄탄히 다졌다.

2000년 단편영화인 <사월의 끝>으로 데뷔한 이후, 2005년 상업영화 데뷔작인 <마파도>를 통해 파격적인 설정과 캐스팅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2007년 <사랑을 놓치다>, 2010년 강풀의 웹툰 원작인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거치며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영화에 담아냈고, 2012년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대한민국 영화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이 작품으로 그는 제49회 대중상 시상식과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석권하며



| 학군단

명실상부한 거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정유정 소설가의 베스트셀러인 <7년의 밤> 등 새로운 장르적 도전도 멈추지 않았고 2025년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탁류>를 통해 플랫폼을 넘나드는 연출 행보를 이어가며 대한민국 문화계의 중심에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또한, 대구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 깊이를 더한 문무학 작가는 시조라는 한국의 전통 문학 형식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계승하고 확장해 온 우리 시대의 진정한 문인이다. 1949년 경상북도 고령군 출신인 문무학 작가는 한국방송대통신대에서 학사를 마쳤다. 1982년 『월간문학』 신인상 당선을 통해 데뷔한 이래 그는 시조시인이자 평론가로서 한국 문학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데 평생을 헌신해 왔다.

그는 문학 활동뿐만 아니라 대구문화재단 대표, 대구문인협회 회장, 대구시조시인협회 회장, 영남일보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가을거문고』, 『설사 슬픔이거나 절망이더라도』, 『눈물은 일어선다』, 『달과 늪』, 『풀을 읽다』, 『날말』, 『병어리뼈꾸기(선집)』, 『흙』, 『누구나 누구나 그림다』 등 수많은 시집을 발표해 독자들에게 문학적 울림을 주었다. 최근에는 한글 자모를 주제로 한 시조집 『세종의 처방전』을 발표하며 훈민정음의 정신을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등 언어와 소통에 대한 성찰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윤동주 문학상(제25회), 이호우 시조문학상(제19회), 대구광역시 문화상(문학 부문), 대구시조문학상(제6회) 등 다수의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며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은 그는 지금도 쉬 없이 펜을 들어 한국 문학의 미래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 AI 혁신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김성훈 동문

70년 역사의 변곡점마다 혁신을 멈추지 않았던 대구대학교는 AI 시대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혁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DNA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바로 그 중심에 대구대학교 김성훈 동문(전자공학 91)이 우뚝 서 있다.

김성훈 동문은 대학 졸업 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컴퓨터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9년부터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입지를 굳혀나갔다. 이미 대학 재학시절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검색엔진인 '까치네'와 '깨비메일'을 개발해 시대를 앞서나가는 감각을 지닌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았다.

김성훈 동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이버 클로버 AI 책임리더로 활동하며 국내 AI 산

업의 기반을 닦았고 마침내 2020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를 창업하며 제2의 도약을 시작하였다. 업스테이지는 2026년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 평가결과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IT 기업들을 제치고 LG AI연구원, SK텔레콤과 함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제 업스테이지는 한국어 특화 모델을 기반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다. 아마존(AWS)과 AMD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업스테이지의 잠재력을 믿고 직접 투자를 단행하며 세계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다. 업스테이지는 현재 상장을 앞두고 예상 시가 총액이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명실상부한 '글로벌 유니콘'으로 인정받고 있다.

제2의 엔비디아를 꿈꾸는 김성훈 동문의 도전은 개교 70주년을 맞은 대구대학교에 깊은 의미가 되고 있다. 대학 재학 시절 그가 보여주었던 실험 정신이 오늘날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로 결실을 맺은 것처럼, 앞으로도 대구대학교는 또 다른 김성훈을 길러내며 시대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 공과대학 6호관

제3절 역경 딛고 사회복지의 새로운 역사를 쓴 동문들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랑·빛·자유 정신 실천해온 강영신 동문

대한민국 사회복지 인재양성의 산실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자리매김한 대구대학교는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971년 대구대학교의 전신인 한국사회사업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아시아복지재단 강영신 이사장은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사회복지의 최전선에서 대구대학교의 건학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다.

강영신 이사장은 대학 졸업 후 곧바로 복지 현장으로 뛰어 들었다. ‘자유원’의 생활지도 교사로 첫발을 내디딘 강 이사장은 이후 47년간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활을 돕는 일을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였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였다. 1979년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인 ‘자유재활원’을 설립한 이후 1982년 지적장애인 특수학교인 ‘선명학교’를, 1994년에는 장애인보호 작업장인 ‘만승근로복지관(현 만승자립원)’을 차례로 설립하였다.

또한, 1995년 ‘동촌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해 지역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삼성전자와 삼성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구조체계인 ‘복지안심전화’를 개발해 운영하는 등 지역 및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대구드림텍’은 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이라는 복지의 최종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강영신 이사장의 이러한 헌신은 대한민국 사회복지계의 큰 귀감이 되었다. 1987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과 1991년 국민훈장 목련장에 이어 1997년 제1회 자랑스런 사회복지사상, 1999년 자랑스런 대구시민상, 2004년 한국YMCA 90주년 공로상 등을 수상하였다. 2017년에는 대구대학교의 사랑·빛·자유 정신을 실천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사랑·빛·자유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강영신 이사장이 평생을 거쳐 일구어 온 이웃 사랑의 실천은 오늘날 대구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곳곳으로 나아갈 후배들에게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있다.

한계를 넘어선 위대한 도전, 장애 딛고 세상의 빛이 된 동문들

대구대학교는 소외받는 이들에게 특수교육과 재활복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세워진 ‘사랑·빛·자유’의 요람이다. 이러한 건학 정신을 가장 치열하고 뜨겁게 실천하며, 장애라는 신체적 한계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없는 도전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낸 동문들도 있다.

회화과 02학번 박정 동문은 전신장애라는 절망적인 운명을 예술이라는 희망으로 바꾼 ‘구필(口筆) 화가’이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축구선수였던 그는 불의의 다이빙 사고로 머리를 다쳐 전신장애를 입게 되었으나 좌절 대신 붓을 입에 물었다. 사고 후 3년이라는 고독한 재활의 시간을 거쳐 1994년 붓을 잡은 그는 독학으로 그림을 익히며 세상과 다시 소통하기 시작하였다. 이화여대, 인하대 등에 다니는 미대생들로부터 무료로 그림을 배웠고 구필 화가의 꿈을 키운 지 7년만인 2000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상하며 화가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2002년 대구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한 박정 화가는 월드컵 경기 때 관람객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해인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1세기를 이끄는 우수인재상’을 수상한 그는 다수의 개인전과 아트페어를 열었고 ART SEOUL 특별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대한민국 장애인미술대전 대상 등을 잇따라 수상하였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진솔한 강의와 작품 전시회를 열며 희망을 전하고 있는 박정 화가는 “환경과 여건을 불평하며 사는 이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초등특수교육과 06학번 오성훈 동문은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나눔의 전도사이다. 학창 시절 카누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 카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장애에 대한 세상의 편견에 맞섰던 그는 고등학교 이후부터 급격한 시력 손실로 체육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대구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오성훈 동문은 입학 후 교육자의 꿈을 키우며 본인보다 더 힘든 중증장애 학우들을 보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그는 대학 시절 베트남 탕화(Thanh hoa) 지역의 고아원과 직업



| 특수교육기념관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지도와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가하였다. 또한 요추 장애 및 과체중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안마, 마사지 봉사를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4학년 때인 2009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시력 손실이라는 역경을 교육과 봉사의 동력으로 승화시킨 오성훈 동문은 특수교육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대구대학교에 깊이 새겨주고 있다.

특수교육학과 92학번인 전영미 동문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세상의 편견을 학문적인 성취로 정면 돌파한 연구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맹학교 교사를 꿈꾸던 전영미 동문은 침·뜸 등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직업교육기관인 일본 후쿠오카 맹학교에서 침·뜸을 배우고 쓰쿠바대를 거쳐 도쿄대 박사과정에 진학해 시각장애인의 침 시

술이 전문적인 의학 행위로서 문제없음을 학문적으로 증명해내었다. 일본에 유학한 지 9년 만에 시각장애인의 침 시술을 주제로 4년 동안 일본 시각장애인 침구사들의 시술 행동을 분석해 작성한 박사논문은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일본 사회와 학계의 인식을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세 사람은 대구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으로서 장애라는 단어가 불가능의 동의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다.

국경을 넘어 세계로, 대구대학교 70년이 빚어낸 위대한 동행

사랑과 빛, 자유의 정신은 국경을 넘어서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시각장애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특수교육 전문가라는 더 큰 꿈을 꿈꾸며 몽골에서 2010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입학한 수흐발트 난딩토야(Sukhbalt Nandintuya) 동문은 가까운 사람의 형체만을 겨우 인식할 수 있는 시력을 가졌지만 그보다 훨씬 더 밝은 내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특수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의 선진 학습 모델인 대구대학교의 문을 두드린 그녀는 한국어를 익히며 전맹(全盲)인 한국인 친구의 학습과 생활을 돕는 등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 졸업 당시 총장 모범상을 수상하였다.

학부 졸업 후 대학원 재활과학과를 수료하고 개교 70주년을 맞은 현재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다시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몽골의 장애 학생들을 향해 있다. 수흐발트 동문은 앞으로 몽골의 특수교육과 사회복지 체계를 발전시켜 배움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대구대인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지난 70년 동안 대구대학교가 배출한 동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대구대학교의 건학정신을 실현하며 사회의 등불이 되어왔다. 한계에 도전하며 정상에 우뚝 선 스포츠 영웅들은 불굴의 의지를 알려주었고, 인간의 내면과 영혼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문화예술계의 거장들은 우리 삶에 깊은 위로와 통찰을 선물하였다. 또한,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굳건히 지키는 군사 분야의 리더들은 책임이라는 가치를 몸소 증명해냈으며, IT 분야 혁신가와 사회복지·특수교육 분야의 개척자들은 우리 사회를 더 진보하고 따뜻한 곳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들이 보여준 도전과 헌신, 그리고 사랑의 기록은 대구대학교 역사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우리는 이 빛나는 유산을 이어받아 다가올 더 큰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제4편

큰 뜻으로
나아가다

4

- 제1장 위기를 넘어 혁신의 시대로
- 제2장 미래를 견인하는 대구대학교의 도전
- 제3장 학생의 꿈을 응원하는 대구대학교의 약속

포스트 코로나 시대 넘어 대학교육과
지역상생의 100년 청사진

대구대학교는 척박한 땅 위에 '사랑·빛·자유'의 씨앗을 뿌렸던 70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수많은 계절을 지나며 코로나19의 차가운 바람과 급변하는 AI시대의 숨 가쁜 속도 속에서도 대구대학교가 품은 온기만은 식지 않았다. 이제 대구대학교는 70년의 기억을 가슴에 안고, 100년이라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려 한다. 앞서간 선배들의 발자취가 오늘의 길이 되었듯, 우리가 오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큰 뜻이라는 이름의 미래를 향한 큰 지도가 될 것이다.

서언(序言)

큰 뜻으로 일구어온 70년,
그리고 100년을 향한 뜨거운 약속

1956년,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랑·빛·자유’의 정신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그날 이후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난 70년 세월은 대구대학교가 품어온 ‘큰 뜻’의 가치를 하나하나 현실로 채워가기 위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거점으로 씬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그러나 대구대학교가 걸어온 길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의 일상을 뒤흔들며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였다. 예기치 못한 위기 앞에서 대구대학교 구성원들은 오히려 그 시간을 통과하며 내면에 깊게 뿌리 내린 ‘큰 뜻’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70년 전 세운 숭고한 뜻은 이제 대구와 경북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향하고 있다. 학생들이 세계와 호흡하며 성장하고 세계 곳곳의 학생들이 배움을 찾아 대구대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대학의 풍경이 달라질지라도 사람을 향한 교육의 본질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지난 70년의 역사는 위기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대구대학교의 저력이 고스란히 녹아있고, 다가올 100년을 향한 뜨거운 약속을 되돌아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대구대학교를 나서는 모든 이들이 이 세상의 빛나는 인재가 되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내일을 향한 우리의 ‘큰 뜻’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제1장

위기를 넘어
혁신의 시대로

제1절

팬데믹 극복 위한 대구대학교의 치열한 노력

체계적 대응과 비대면 수업의 질적 고도화로 위기 돌파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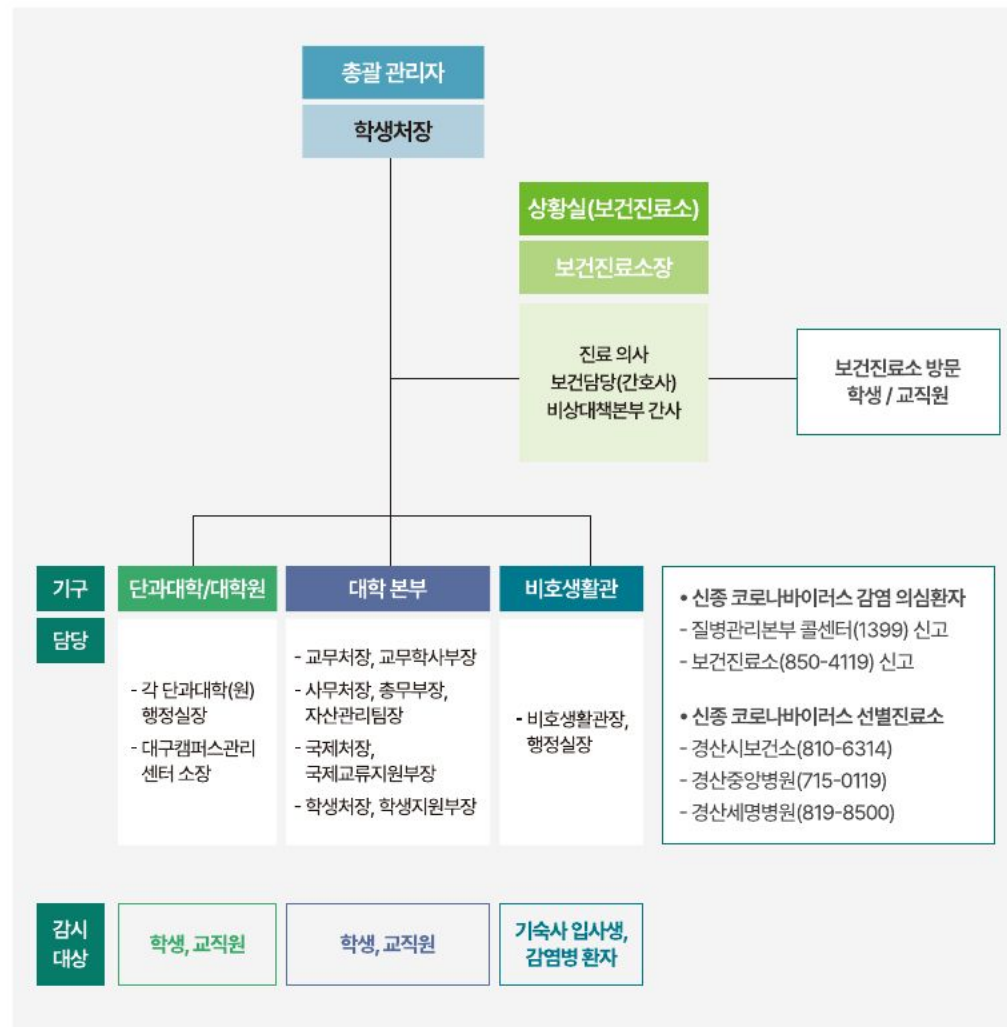
2019년 12월,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던 불길한 바이러스의 소식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대구대학교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활기 넘치던 캠퍼스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교수와 학생이 마주 보며 지식을 나누던 강의실은 텅 비게 되었다.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팬데믹’이라는 생소한 공포 속에서 일상을 멈추고 혼란에 빠졌을 때 대구대학교는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움직였다.

대구대학교는 감염병 확산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감염병의 실체조차 불분명했던 초기의 두려움 속에서 대학이 선택한 첫 번째 전략은 명확하고 투명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었다. 대학은 ‘코로나19 대구대학교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제작·배포하였고 명확한 역할분담과 단계적 대응체계를 정립하여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대응의 이면에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다. 코로나19 총괄담당자와 실무담당자를 지정

하고 비상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감염 예방과 상황 관리가 일상적인 업무로 정착될 때까지 구성원들은 머리를 맞대었다. 대학 본부와 단과대학, 대학원, 그리고 대학보건실이 긴밀하게 연결된 연락망과 보고 체계는 위기 앞에서 대학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켰다. 이러한 유기적인 소통 구조는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기제가 되었으며 이는 훗날 대구대학교의 장기적인 위기관리에 있어 튼튼한 밑거름이 되었다.

대구대학교 코로나19 비상 대응 체제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의 과제는 교육의 질 유지라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옮겨갔다. 2020년 6월 대구대학교는 이러한 시대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교수, 직원,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급박하게 도입된 원격수업의 한계를 가감 없이 진단하고 교과목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수업 모델을 찾기 위한 대학 공동체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대학교는 비대면 수업 설계와 운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며 교육 현장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갔다. 나아가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우수 수업 공모전을 개최하고 각기 다른 학문의 특성이 반영된 실제 원격수업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제작·공유함으로써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상호작용적 디지털 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나갔다.

코로나19는 대학의 일상을 뒤흔든 거대한 시련이었지만 대구대학교는 이러한 위기를 거치며 디지털 교육 환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교육 현장의 회복 탄력성을 증명하였고 급변하는 미래 교육 환경을 선도하는 강력한 자산을 얻을 수 있었다.

DU-MOOC, 하이플렉스 강의실, LMS 등 디지털 교육혁신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교육의 전환은 대구대학교가 그동안 차근차근 쌓아온 디지털 교육 역량이 본격적으로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다. 대구대학교의 성공적인 대응 뒤에는 수년 전부터 미래 교육을 향해 준비해 온 탄탄한 인프라와 선제적인 투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대구대학교의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15년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서비스 도입에 발맞추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



| 대구대학교 선별적 대면수업 준수사항(2020.5.8.)

시작하였고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K-MOOC 사업 참여대학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학만의 독자적인 온라인 플랫폼인 'DU-MOOC' 구축으로 이어졌고 매년 질 높은 온라인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토대가 되었다. 2019년 이후 개발된 36개의 DU-MOOC 교과목은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원격강좌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물리적 기반 조성에도 아낌없는 투자가 이어졌다. 대구대학교는 교수학습지원관, 진로취업관, 주요 센터 및 단과대학 곳곳에 1인 영상 제작이 가능한 21개의 스마트 스튜디오와 촬영 장비를 설치하였다. 각 스튜디오에는 강의 제작과 운영을 지원하는 원격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교수들이 수업 제작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온·오프라인 동시 수업이 가능한 35개의 하이플렉스(Hyflex) 강의실을 마련하고 교수학습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과 연동되는 화상 강의 자동 녹화 시스템을 확충하였다. 이는 대면과 비대면 수업의 경계를 허물고 학



| 스튜디오 수업 영상 촬영 모습

생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최적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려는 대학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교육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았다. 수업 방식의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고도화하는 데에 집중해 원격수업이 일상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원활한 원격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과 장비, 전산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하였다. 실시간 강의를 지원하기 위한 화상회의 앱인 줌(ZOOM)과 연동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LMS에 실시간 강의 개설 알림과 자동 출석 체크 기능 개발 등 학생과 교수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원격수업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비대면 수업 중 발생하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를 도입하고, 영상 압축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화질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방역을 위한 물품 구입은 물론 급증한 온라인 수업을 감당하기 위한 서버 증설과 장비 구입 등 예기치 않은 재정적 지출은 대학을 압박하였다. 그럼에도 대구대학교는 재정적 부담보다 교육의 연속성과 학생의 안전을 우선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러한 헌신적인 선택은 위기 속에서도 대구대학교의 교육 열정이 꺾이지 않도록 지켜낸 원동력이 되었다.

방역과 학습권 지켜낸 유연한 학사 운영과 특별장학금 지급

2020학년도 2학기, 대구대학교는 대면 수업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세밀한 원칙을 세웠다. 수강 인원 30명 이하의 강의에 한해 대면 수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즉시 비대면 수업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다.

2020년 2학기 수업운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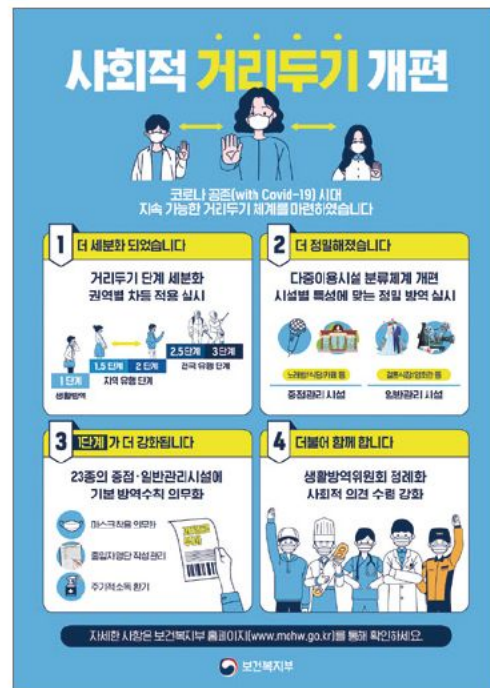
구분	수강 인원	
	30명 이하	30명 초과
이론	대면 수업	순차적 대면 수업(대규모 강좌의 경우 비대면 수업 가능)
이론 및 실습	대면 수업	혼합 수업
실험 실습	대면 수업	순차적 대면 수업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내 확진자 발생이라는 상황은 피할 수 없었다. 대구대학교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구성원에게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시 자가격리와 등교 중지를 조치하였고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현장을 소독하며 추가 확산을 차단하였다. 일부 시기 동안에는 캠퍼스 전체의 한시적 비대면 수업 체제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특히, 확진 학생에게는 유고결석을 허용하고 원격 매체를 통한 수업 참여 보장과 과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배려하는 ‘학생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팬데믹의 장기화는 학생들에게 학업보다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커지게 하였다. 학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대구대학교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2020년 4월 6일을 전후해 총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학생 1만 7,000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대학의 진심 어린 응원이자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이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한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외부 자원을 적극 유치하여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포스터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포스터

그러나 대학이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다. 방역과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예기치 않은 지출이 봇물 터지듯 늘어난 반면 수입원은 고갈되었다. 등록률 하락과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포기는 대학 재정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각종 대학 강좌 수입의 감소와 부속 시설인 비호생활관, 대구대학교 재활의원, 영덕연수원 등의 운영 수익도 급감하였다. 또 캠퍼스 내 상주하던 임대 매장들이 줄지어 철수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재정적 위기는 심각한 국면에 이르렀다.

코로나 블루 치유와 하이브리드 방식의 취업 지원 행사 마련

2020년, 대학 캠퍼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였다.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한 신입생들은 동기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대면이라는 낯선 세상과 마주해야 했다. 대면 강의가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고 이전의 활기 넘치던 캠퍼스는 ‘코로나 블루’라는 사회적 우울감과 불안, 무기력 앞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그러나 대구대학교는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구성원들의 마음을 보듬고 학생들이 대학 생활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다.

대구대학교는 구성원들의 코로나 블루 케어를 위한 다양한 상담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학과와 행정 부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침체된 캠퍼스 분위기를 환기하고 학생들이 대학 생활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주로 온라인 행사와 함께 비교적 제약이 적은 하이브리드 방식의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었다.

대표적으로 ‘톡(Talk)! 톡(Talk)! 취업 온라인 토크쇼’와 현직자 직무아카데미, 반도체기업 취업 연계 직무아카데미 등 다양한 온라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정보의 접근성을 넓혀 나가고자 하였다.

특히 취업지원부가 주관한 ‘진로·취업박람회’는 큰 성황을 이루었다. 2주간의 온라인 행사와 3일간의 단과대학별 오프라인 박람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안전과 소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학생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현직자의 특강과 상담, 인·적성 검사, AI 가상 면접과 자기소개서 평가 솔루션 등 첨단 채용 서비스를 경험하였다. 동시에 단과대학 단위로 열린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다수의 기업 부스와 퍼스널 컬러 진단, 지문 적성 검사, 이미지 메이킹 등 오감을 활용한 체험형 이벤트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운영 결과, 2019년과 비교해 참여 인원이 200%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물리적 제약을 극복한 스마트 LMS와 줌(ZOOM) 솔루션을 활용한 온라인 취업 지원 콘텐츠는 변화하는 채용 시장의 환경에 학생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되었다. 이처럼 대구대학교는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단절의 시기에도 디지털 교육 환경을 앞당기고 더욱 촘촘한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의 꿈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캠퍼스에 피어난 희망의 선들과 든든한 심리·학업 안전망

코로나19는 대학 생활에서 만남과 교류라는 소중한 가치를 앗아갔다. 텅 빈 캠퍼스, 그리고 마스크 너머로 대화해야 했던 시간들 속에서 학생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이에 대구대학교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비호생활관에서 진행한 'The Wing 콘서트'는 지친 학생들에게 일상 속 작은 위로를 건네며 정서적 안정을 북돋워주기 위한 문화 행사였다. 함신의 지휘자가 이끄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버스킹 프로젝트인 '윙(WING)'은 5톤 트럭을 개조한 이동식 클래식 무대로, 대구·경북 지역 최초로 시도돼 지역 내에서 많은 화제를 모았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된 The Wing 콘서트는 현장 관객뿐 아니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시험 기간의 불안을 잊게 해준 최고의 힐링이었다며 감동적인 후기를 남겼고 <영남일보>와 <대구일보> 등 8개 언론에 집중 조명되며 코로나 시대 성공적인 문화 공연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학기 개강과 함께 문화진흥팀이 마련한 'DU 봄업 특강'도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세계적인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씨를 초청해 진행된 토크쇼 겸 매직 퍼포먼스로, 학생들과 인문학적 소양과 꿈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깊이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 행사는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돼 현장에서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하였다.

문화적 치유와 더불어 비대면 맞춤형 상담 역시 교내 취업·학사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학생생활상담센터는 학업적응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대학 본부와 단과대학, 지도교수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상담 체계



| 비호생활관에서 진행한 'The Wing 콘서트'

를 운영해 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학업 상담과 연계되도록 하였다. 2020년 기준 학업적응검사 참여 인원은 전년 대비 무려 18배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우울과 스트레스 대응을 위한 특강 등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SNS와 이메일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상시로 살폈다. 아카데미코칭센터는 비대면 학사 상담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수강 신청자와 전과 합격자 상담 등으로 밀착 관리하며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학생들이 끝까지 학업을 완주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대구대학교는 학생 중심이라는 대구대학교의 교육 철학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구성원들과 함께 상처를 지혜롭게 치유해 나갔다.

제2절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구조조정

예견된 혼란과 위기,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시련이 남긴 상처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을 닫는다.”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서늘한 경고는 더 이상 웃어넘길 수 없는 오늘날 대학가의 서글픈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 되었다. 코로나19가 대학의 학사 운영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면, 학령인구의 급감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대학의 존립 근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각 대학들은 입학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는 현행 대학교육 체제를 유지하는 중대한 위협이었다.

특히 2036년이면 대학 신입생 총원율이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과 맞물려 비수도권 대학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대구대학교 역시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 있다.

이러한 위기는 제도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하였다. 1995년 정부는 대학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5·31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 대학과 전문대학의 난립을 가져왔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다.

대학은 많아지는데 학생은 줄어드는 인구 구조의 모순이 대학 교육 시스템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대구대학교는 B등급이라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는 별개로 구조조정의 파도는 어김없이 밀려왔다. 대구대학교는 생존을 위해 편제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과 통폐합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반발해 구조조정 대상 학과 학생 100여 명이 본부를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총장과 기획처장이 28시간 동안 감금되었다가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은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대학 구성원들에게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현실로 다가온 구조조정은 캠퍼스를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한편에서는 맹목적인 안주가 아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불공정하고 졸속적인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2015년 5월 22일 공과대학 교수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그러한 혼란과 위기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공과대학 구성원 모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과 통폐합 및 학과 폐지가 향후 예견되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대학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사심 없이, 그리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면 고통을 감내하며 따를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대학의 구조조정은 그러하지 못하다. 총장은 보이지 않고, 구성원의 동의와 사전 예고 없이 특정인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조합한 통폐합 기준으로 추진된 구조조정에 우리 공과대학 구성원들은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다. 아울러 현재의 불공정하고 졸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는 향후 대구대학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바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공정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사용된 지표들을 살펴보면 (가) 최신 데이터가 이용 가능함에도 미사용 (나) 특정 시기의 데이터만을 사용 (다) 2010년 이전의 데이터에 근거한 컨설팅 결과를 2015년의 구조조정 근거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등 편향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된 지표로서 불공정하므로 이에 근거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라) 형식적인 공청회 개최 (마) 폐과대상 학과의 당연한 권리인 교원 및 학생들의 데이터 공개 요청 거부 (바) 기획처에서 약속한 학생들과의 공청회 무산 (사) 편제조정위원회의 비민주적인 서면 투표 등으로 부적절하므로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총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목표와 효과에 대하여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히고, 폐지 대상 학과가 선정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총장은 그동안 수시로 조변석개한 중요한 정책의 변경들이 총장의 의지를 반영한 정책 변경인지 밝히고, 보직자가 후배 교수와 선배 교수를 포탈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교권을 침해하고, 무리한 회의를 소집한 후 불참 교수를 교무통할권을 내세워 문책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부적절한 보직자의 언행에 침묵하는 이유를 밝혀라.

그 동안 목적과 효과도 불분명한 채로 공정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구성원의 화합을 깨고 반목을 조장하여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온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계획을 세워, 총장이 앞장서서 구성원을 설득하고, 보직자부터 솔선수범하며, 구성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구조개혁이라면 우리 공과대학 구성원은 대구대학교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서 참여할 것을 천명한다.

2015년 5월 22일
대구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위기가 현실로, 최악의 2021년 입시 결과와 총장 사퇴

공과대학 교수들의 성명서 발표 4일 후인 5월 26일, 총장 명의의 담화문도 발표되었다. 당시 담화문은 대학 본부가 처한 고충과 함께 대학의 생존을 위한 학과 구조조정의 불가피함, 향후 계획과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존경하는 교수님, 친애하는 직원 선생님,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저와 본부는 대학의 미래 생존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그날까지 학과 구조조정을 포함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피해 갈 수 없는 필수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학의 학과 구조조정은 저와 본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대구대학교를 사랑하고 대구대학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오로지 대학 가족 여러분의 애교심과 그에 기반을 둔 헌신으로 키워온 자랑스러운 우리 대구대학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이 가시밭길에 동참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먼저 감당해야 할 학생들과 교수님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가장 상심이 클 해당 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학과와 경우에도 2020년까지는 학과를 존속시키면서 기존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지금의 학과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과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제한되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최대한의 폭으로 전과를 허용할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과 취업 지원을 비롯해 본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즉각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구조조정 대상 학과 교수님들께서 신분상의 불안 없이 연구와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즉시 가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접 학과 교수님들께도 ‘동료애’와 ‘사랑과 배려로 함께하는 대구대학교의 건학정신’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릴 것입니다. 대학 가족 모두가 불안 없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하다면 총장과 본부에게 주어진 행정력도 강력하게 발동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본부와 학생들 사이의 정보 교류와 소통을 가로막는 의도적인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에 학생들이 현혹되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통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논의하고, 추진해 온 구조조정 작업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려는 시도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구대학교에서 학과 구조조정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통념을 악용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인신을 구속·감금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와 정상적인 학사 진행을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일탈도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주, 대학구성원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대학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모두가 함께 미래 생존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총장 홍덕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대학은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삶을 함께 지켜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깊은 고민과 부담을 안고 있었다. 특히 대학 민주화를 거치며 굳건히 다져진 대구대학교의 자부심과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무너진 것은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대학의 준엄한 책임감을 다시금 돌이켜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대구대학교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2021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876명의 추가 모집 인원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모집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신입생 최종 등록률은 80.8%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 99.95%와 비교해 약 20%가 급감한 수치였다.

대구대학교가 처음으로 마주한 입시 절벽의 후폭풍은 큰 아픔을 안겨주었다. 당시 김상호 총장은 2월 말 개강 인사 글을 통해 현안을 마무리한 뒤 1학기 종료 이전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김 총장은 임기 만료일인 2022년 5월 31일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학령인구 급감이 가져온 입시 위기는 대구대학교가 겪어야 하는 시련이자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맹목적인 믿음만으로는 대학이 생존할 수 없으며 구조적인 인구 절벽의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대학 공동체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체감한 시간이었다.

학과 통폐합 등 흔들린 대학 세우기 위한 뼈를 깎는 결단

2022년 7월 1일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한 박순진 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앞선 위기로 인해 흔들린 대학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학과 구조개혁은 이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되어 있었다. 박 총장은 취임 직후 향후 2년간 16개 학과(전공)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뼈아픈 결정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총장 취임 이후에는 대학의 비전과 슬로건을 정비하며 일정한 적응 기간을 거치지만 당시 박순진 총장에게는 여유가 없었다. 박 총장은 과거 기획처장 재직 시절 학과 구조개혁을 추진했던 경험과 축적된 학과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방식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연도별로 순차적인 신입생 모집 중단이 이어졌다.

2022학년도 유럽문화학과의 신입생 모집 중단을 시작으로, 2023학년도 국제관계학과와 신

소재에너지시스템공학부, 2024학년도 통계학과, 화장품바이오학부, 환경기술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공학과, 융합예술학부(아트앤디자인전공), 보건행정학과가 신입생 선발을 중지하였다. 이어 2025학년도에는 사회학과, 산림자원학과, AI학과, 주얼리디자인학과가 각각 신입생 모집 중단의 결단을 내렸다.

최근 10년간 대구대학교 편제 조정 현황

2016학년도		
통합	•국어국문학과, 국제한국어교육과→한국어문학·문화학과	
명칭 변경	•법과대학 법학부(공법학전공, 사법학전공, 공공안전법학전공)→법과대학(공법학전공, 사법학전공, 공공안전법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공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전공) •회화과→현대미술과
모집 중지	•독어독문학과 •골프산업학과 •물리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기타	•소속 이동: 건강증진학과(인문대학→재활과학대학)	

2017학년도		
신설	•평생교육대학	
명칭 변경	•한국어문학·문화학과→한국어문학과 •신문방송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토목공학과→건설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부(기계설계전공→기계설계공학전공)	•컴퓨터·IT공학부(전산공학전공→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IT공학부(정보공학전공→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2018학년도		
신설	•도시조경학부(도시계획공학전공) •신소재에너지공학과	
통합	•법과대학(사법학전공, 공공안전법학전공)→DU인재법학부(공직법학전공)	•자연과학대학, 생명환경대학→과학생명융합대학
명칭 변경	•법과대학(공법학전공)→DU인재법학부(법학전공) •수학과→수리빅데이터학부(수학전공) •전산통계학과→수리빅데이터학부(통계·빅데이터전공) •조경학과→도시·조경학부(조경학전공)	•현대미술과,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과, 생활조형디자인학과→융합예술학부(현대미술전공,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전공, 생활조형디자인학전공) •건강증진학과→재활건강증진학과 •평생교육대학→미래융합대학 •인문대학→인문교양대학(S-LAC)
모집 중지	•러시아어러시아학과 •도시·지역계획학과	

2019학년도		
모집 중지	•ICT융복합학과	

2020학년도		
명칭 변경	•인문교양대학(S-LAC)→인문대학 •인문교양대학(S-LAC) 창조융합학부→성산교양대학(S-LAC) 자유전공학부 •불어불문학과→유럽문화학과	•부동산학과→부동산·지적학과 •정보통신공학부(통신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임베디드시스템공학전공)→ICT융합학부(정보통신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인공지능전공)

2021학년도		
신설	•융합산업공학과 •신소재에너지시스템공학부(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컴퓨터정보공학부(정보보호전공)	
명칭 변경	•한국어문학과→한국어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국제한국어교육전공, 한국어통번역학전공) •수리빅데이터학부(수학전공→수학·산업수학전공) •화학·응용화학과→화학과	•신소재에너지공학과→신소재에너지시스템공학부(신소재에너지공학전공) •전자전기공학부(전자제어공학전공→전기·지능로봇공학전공)
모집 중지	•특수재활교육학과	

2022학년도		
신설	•문화예술학부 •군사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	•기계공학부(기계자동차공학전공) •시각디자인융합학부(서비스디자인전공)
통합	•무역학과, 경영학과→경영학부(경영학전공) •수리빅데이터학부(수학·산업수학전공, 통계·빅데이터전공)→빅데이터학과 •경제학과, 금융보험학과→경제금융학부(경제금융전공, 금융보험전공) •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호텔관광경영학부(관광경영전공, 호텔관광전공)	•화학과, 생명과학과→화학생명과학부(나노화학전공, 생명과학전공) •건축공학과, 도시·조경학부(도시계획학전공)→건축공학과 •기계공학부, 융합산업공학과→기계공학부 •ICT융합학부(멀티미디어공학전공, 인공지능전공)→AI학부(AI소프트웨어전공, AI엔터테인먼트전공)
명칭 변경	•한국어문학부→한국어교육학부 •영어영문학과, 일본어일본학과, 중국어중국학과→글로벌언어문화학부(영어영문학전공, 일본어일본학전공, 중국어중국학전공) •행정대학→법·행정대학 •DU인재학부→법학부 •경찰행정학과→경찰학부(경찰행정학전공)	•도시행정학과→경찰학부(자치경찰학전공) •회계학과→경영학부(회계학전공) •산업복지학과→청소년상담복지학과 •가정복지학과→아동가정복지학과 •환경공학과→환경기술공학과 •도시·조경학부(조경학전공)→조경학과

2022학년도		
명칭 변경	•전자전기공학부(전기·지능로봇공학전공→전기공학전공) •ICT융합학부(정보통신공학전공)→전자전기공학부(정보통신공학전공)	
모집 중지	•유럽문화학과 •스마트시스템공학과	
기타	•소속 이동: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행정대학→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 승격: 간호보건학부→간호대학	

2023학년도		
신설	•패션학부(뷰티스타일링전공) •특수상의융합학과	
통합	•글로벌언어문화학부(중국어중국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국제어문학과 •생명환경학부(원예학전공, 바이오산업학전공)→원예학과	
명칭 변경	•글로벌언어문화학부 일본어일본학전공→일본어일본학과 •문화예술학부(디지털문예창작전공→미디어문예창작전공) •법학부(공직법학전공→공공안전법학전공) •신소재에너지시스템공학부(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에너지시스템공학과	
모집 중지	•빅데이터학과→통계학과 •화학생명과학부(나노화학전공, 생명과학전공)→화장품바이오학부(화장품제약전공, 바이오메디컬전공) •패션디자인학과→패션학부(패션디자인전공)	

2024학년도		
신설	•보건의료정보학과 •소방안전방재학과 •응급구조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광고PR전공) •웹툰영상애니메이션학부(웹툰전공) •게임학과 •글로벌융합학부(웰라이프·헬스케어학전공)	
통합	•AI학부(AI소프트웨어전공, AI엔터테인먼트전공)→AI학과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전공)→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공학전공, 미래자동차공학전공)	
명칭 변경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영상콘텐츠전공) •조경학과→조경·정원디자인학과 •융합예술학부(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전공)→웹툰영상애니메이션학부(영상애니메이션전공) •융합예술학부(생활조형디자인학전공)→주얼리디자인학과 •패션학부(패션디자인전공)→패션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융합학부(서비스디자인전공→서비스마케팅디자인전공) •직업재활학과→재활상담학과 •재활공학과→의료재활학과	
모집 중지	•통계학과 •화장품바이오학부(화장품제약전공, 바이오메디컬전공) •건설시스템공학과 •환경기술공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공학과 •융합예술학부(아트앤디자인전공) •보건행정학과 •기계융복합공학과	

2024학년도	
기타	•단과대학 승격: 미래융합학부→글로벌라이프대학 •정원의 외국인전담학과 운영: 한국어교육학부, 국제어문학과

2025학년도		
신설	•공공안전학부(공직법무전공) •스포츠헬스케어학과	
통합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IT·공과대학	•한국어교육학부, 국제어문학과→국제학부
명칭 변경	•법·행정대학→공공인재대학 •경영대학→글로벌경영대학 •과학생명융합대학→보건바이오대학 •조형예술대학→디자인예술대학 •행정학과→공공안전학부 소방·행정학전공 •군사학과→국방군사학과 •호텔관광경영학부(관광경영전공, 호텔관광전공→관광항공경영전공, 호텔관광외식서비스전공)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평생교육실버복지학과 •원예학과→스마트원예학과 •식품공학과→식품가공외식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과→에너지배터리학과 •전자전기공학부(전자공학전공→반도체전자공학전공) •컴퓨터정보공학부(정보보호전공→사이버보안전공) •문화예술학부(미디어문예창작전공→웹미디어문예창작전공)	
모집 중지	•법학부(법학전공, 공공안전법학전공) •사회학과 •전자전기공학부(정보통신공학전공) •AI학과 •주얼리디자인학과	
기타	•단과대학 폐지: 인문대학, 성산교양대학(S-LAC) •소속 이동: 식품가공외식학과, 응급구조학과(공과대학→보건바이오대학)	

2026학년도		
신설	•난임의료산업학과 •국제대학(*외국인 전담대학)	
통합	•문화예술학부(웹미디어문예창작전공, 문화콘텐츠전공, 공연예술전공)→문화콘텐츠학부	•재활상담학과, 재활심리학과→재활상담심리치료학과
명칭 변경	•조경·정원디자인학과→조경산림정원학과 •에너지배터리학과→친환경에너지학과	•식품가공외식학과→식품가공학과 •보건의료정보학과→보건의료학과
기타	•전공 분리: 뷰티스타일학과→뷰티학부(헤어디자인전공, 메이크업·피부전공)	

한편, 이러한 구조조정의 흐름 속에서 2024년 11월 7일,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누리마당 앞에서는 ‘대구대학교 사회학과’의 폐과를 추모하는 장례식이 열렸다. 1979년 문을 열었던 대구대학교 사회학과가 45년 만에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게 된 현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사회학과 추모행사 메모리얼 파티(2024.11.7.)

추모 행사는 지역 대학의 위기나 폐과 위기에 몰린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희생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대학교육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되묻는 자리였다. 특히 사회학과 출신인 총장이 재임 중인 기간에 해당 학과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대학교육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고통을 감내한 구조 개편, 충원을 100%라는 결실

대학의 뼈대를 이루는 학과 체제를 바꾸는 일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대구대학교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 앞에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정면 돌파를 선택하였다. 대학 본부 주도의 구조 개편은 구성원들의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왔지만,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대학 공동체는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22학년도 91.7%였던 신입생 등록률은 2023학년도 96.3%, 2024학년도 96.7%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고, 마침내 2025학년도에는 100% 충원이라는 값진 결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와 끊임없는 입시 전략 개선이 맞물려 일궈낸 쾌거였다.

박순진 총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전체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도 구조 개편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수도권 주요 대학들조차 추가 모집에 나서는 현실에서 100% 충원은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하였다. 박 총장은

무엇보다 “대학의 본질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다”며 “디지털 전환과 급변하는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학과를 신설하고, 기존 학과를 조정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방향 설정을 통해 대구대학교는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과 사회 인식 변화에 발맞춰 반려동물산업학과를 신설하였고 고급 뷰티 산업의 확장 흐름을 반영해 뷰티스타일학과를 만들었다. 반면 첨단 산업 분야임에도 연구 환경이나 장기적인 투자 여건상 한계가 분명했던 전자전기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이나 AI학과 등은 모집을 중단하였다. 생명공학과, 화학공학과와 같은 전통적인 공학 계열 학과들 역시 학생 선호도가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박순진 총장은 “한때 주변부에 머물렀던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분야가 이제는 분명한 직업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학과 개편은 결국 사회 변화와 학생들의 선택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학령인구 급감의 파도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6년부터 대학의 충원율은 80.8%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2037년에는 73.8%, 2043년에는 53.8%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이는 모든 학령인구가 대학에 진학한다는 가정하의 수치일 뿐이다. 최근 대학 평균 진학률인 73.2%를 적용하면 2043년의 실제 충원율은 39.4%에 불과해 대학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수준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대구대학교는 변화된 현실에 맞는 대학의 역할을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구조 개편과 교육혁신을 지속하고 학생과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으로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대학 교육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거듭나는 길이 될 것이다.

제3절

명암 엇갈린 글로벌대학30 사업과 RISE 사업

글로벌대학30, 대구대학교의 혁신을 위한 도전과 좌절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로 보내라는 말처럼 수도권으로 사람이 모이는 현상은 오늘날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경제 성장의 관성이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는 이러한 균형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신자유주의의 파고 속에서 지역의 삶과 문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던 대학들은 생존의 위협을 마주하게 되었다.

지방 소멸과 지역 대학의 위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두가 된 시점에 대학들은 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에 도달하였다. 이에 2021년 5월 31일 대구·경북 지역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각 대학 총장들은 경상북도와 대학 간 협력을 위한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단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웠다. 지역에 사람과 자원을 모으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의 대학이 키워낸 인재를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위기는 늘 대학의 턱밑까지 차오르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정부는 2025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겠다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을 발표하였다. 대학과 지역사회, 산업계의 벽을 허물어 협력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5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 대형 프로젝트인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을 위해 대구대학교는 물론 전국의 대학들이 사활을 걸었다. 대구대학교는 2023년 경일대, 대구가톨릭대와 연합하여 사업에 도전하였으나 선정에 실패하였고, 2024년 10월 7일 독자적인 '글로벌대학30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재도전을 준비하였다. 추진단은 대학의 전통적 강점인 재할, 특수교육, 사회복지 분야에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결합하는 '메타케어(Meta Care)' 구상으로 대구대학교가 지역 산업과 함께 미래 산업을 이끌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에



| 대구대학교 글로벌대학30 추진단 헌판 제막(2024.10.7.)

도 해당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끝내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대구대학교는 글로벌대학 30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했지만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사립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고배를 마셨다. 이 사업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과감한 비전과 분명한 실행 계획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업 준비 과정에서 지역 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 정도, 그리고 경쟁 대학과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실행 계획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그럼에도 이 과정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내부의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자산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 도전을 통해 대구대학교는 더욱 단단해진 내실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다.

경쟁에서 상생으로, RISE 사업과 메가버시티가 그리는 미래

지방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학을 지역 발전의 핵심 기지로 삼으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쥐고 있던 대학 지원의 주도권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공동

의 목표 아래 지역이 필요한 인재를 기르고, 대학과 함께 책임지는 동반 성장 구조를 지향한다.

RISE 사업을 통해 대학은 지역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넘는 엔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구대학교는 영천시와는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하고, 성주군과는 미래차 산업을 중심으로 손을 잡았다. 김천시와는 튜닝카 디자인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공동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그동안 대학이 교육과정에서 고민해 온 실무 인재 양성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즉각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킨 결과이다. 지역이 키우고자 하는 산업에 대학이 응답하고 그 응답이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로 돌봄과 난임 헬스케어 같은 복지·기술 융합 산업도 주목받고 있다. 2024년 12월 대구대학교는 경상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지역 유관 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로봇,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산업 연구와 서비스 모델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역사회의 삶을 지키는 필수 산업인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도로, 대학의 연구 역량이 지역사회의 시급한 문제 해결에 투입되는 이상적인 산·학·관 협력 모델로 자리 잡았다.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구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전담하는 ‘국제대학’을 신설하였다. 유학생 수요가 높은 학과를 중심으로 단과대학을 구성하고 이들이 겪는 학업적 어려움과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전용 공간과 시설 확충, 관리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등 생활과 학업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나아가 대학 간 벽을 허무는 혁신도 진행 중이다. 권역별 대학 연합 모델인 ‘메가버시티(MEGAversity)’ 구상이 대표적이다. 대구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가 참여하는 이 연합 모델은 역할을 나누어 각 대학의 강점 분야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구대학교는 미래 에너지 분야를, 대구가톨릭대는 소프트웨어를, 영남대는 하드웨어 분야를 각각 맡아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파트너로 거듭난다. 이러한 노력은 위기 속에서도 지역 대학이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나아가야 할 상생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RISE 사업 선정으로 지역혁신의 탄탄한 발판 마련

오랜 준비 끝에 대구대학교는 2025년 5월 경상북도가 주관한 RISE 사업에 최종 선정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번 사업으로 5년간 총 400억 원(매년 83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총 9개의 과제가 채택된 대구대학교 RISE 사업의 핵심 비전은 ‘경북을 이끄는 사람과 미래 기술의 조화(DU-RISE)’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삶의 기반 마련 △현장 중심 교육 체계 구축 △지역을 이끄는 기술 개발 △지역 공동체의 가치 회복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세부 과제들의 구체적 실행에 돌입하고 있다.

대구대학교 RISE 사업 신청표

연번	프로젝트	단위과제명	사업명
1	K-U시티	도시형	영천시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인재 양성
2	K-IDEA Valley	아이디어 창업밸리	경북 창업밸리도시 조성
3		로컬 맞춤형 R&D	경북형 산학연 밸류체인 생태계 구축
4		현장실무형 고급인재 양성	경북 정주형 실무인재 양성 아카데미
5	K-IVY	MEGAversity 연합대학	경북형 모빌리티혁신대학
6		특성화대학	경상북도 치유·돌봄 특성화캠퍼스
7		부처협업형(REGO)	AI기반 난임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8	K-LEARNing	대학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K-SHIFT4050
9		해외인재 유치	경북 글로벌 인재양성 및 정착 프로젝트
10		로컬이슈 해결	DU-늘봄대학

(하늘색: 공모형 단위과제, 그 외: 지정형 단위과제)

채택된 9개 과제는 지정형 과제와 공모형 과제로 나뉘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정형 과제는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세 가지가 선정되었다. 먼저 ‘도시형 사업’으로 영천시와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부처 협업형 사업(REGO)’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난임 헬스케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끝으로 ‘로컬 이슈 해결 사업’으로 ‘DU 늘봄대학’이 선정되었다. 공모형 과제는 6개 분야가 선정되었으나, 기존 LiFE 2.0 사업을 바탕으로 도전한 ‘대학 평생·직업 교육 체계 구축(K-SHIFT4050)’ 과제가 높은 경쟁률로 인해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하

였다. 이러한 과제들은 대구대학교가 앞서 설정한 네 가지 목표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묶어 경상북도가 제시한 구체적인 8개 핵심 사업으로 실행에 옮겨진다. 이는 다음과 같다.

- ① 도심형 K-U City: 영천시와 협력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정규 수업과 현장 실무 교육을 연계하고 비교과 실무 교육을 병행한다. 기업과 밀착된 훈련 체계를 구축해 모두 30개 기업을 지원하며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 ② 경북 창업밸리도시 조성: 도시와 대학 내 창업 단계와 분야에 맞춘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 문화를 조성한다. 도시 안에서는 청년 창업 교육을, 대학 안에서는 학생과 교원 대상 창업 교육을 강화한다. 신규 창업 기업 100건(교내 창업 89건 포함)을 목표로 활기찬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 ③ 경북형 산학연 가치 사슬 구축: 기존 LINC 사업의 성과를 계승해 경북의 주력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대학, 기업, 연구 기관이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협력 구조를 공고히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이 가진 연구 역량을 지역 산업에 연결한다.
- ④ 현장 실무형 고급 인재 양성(K-IDEA Valley): 학생들의 지역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과제이다. 지자체·지역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표준 현장 실습 및 실전형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졸업 후 즉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른다.
- ⑤ 미래 모빌리티 전문 인력 양성: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마련을 위한 전략으로, 혁신 아카데미, 루키·리부트 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 협업체 기술 문제 해결과 지식 재산 확보를 지원한다. 이 과제는 경북형 대학 혁신 모델을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⑥ 경상북도 치유·돌봄 특성화 캠퍼스: 대구대학교의 건학이념과 특성화 역량을 발휘하는 분야이다. 느린 학습자 지원, 장애와 다문화 환경을 고려한 접근성 평가, 포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고 치유 농업 기반 마련 및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 ⑦ 인공지능 기반 난임 헬스케어 인력 양성: 부처 협업형 과제로, 난임 의료 산업 학과 신설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교육과 연구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내었다.

- ⑧ 경상북도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정착 사업: 외국인 유학생 전담 국제대학·대학원을 설립하여 생활과 학업 정착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3,5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경북을 세계와 연결하는 관문으로 키워낸다는 목표이다.

RISE 사업은 대구대학교가 지역의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과제 수행을 통해 매년 1,000명이 넘는 지역 내 취·창업 인재가 배출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경북 안에서 자라나 지역사회의 미래를 빛어내는 희망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제4절 --- 학생이 중심이 되는 대구대학교의 교육혁신

‘학생이 행복한 대학’ 선포와 재정지원사업 통한 교육의 질 확보

대구대학교의 70년 역사는 더 진보한 교육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과거 정부의 대학평가나 대형 재정지원사업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대학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전략과 준비가 다소 부족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은 대학의 새로운 선택이 불가피하도록 만들었다. 대학을 둘러싼 외부 조건이 변하면서 내부 혁신과 외부 재정지원 확보를 동시에 이뤄내지 못하면 대학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 인식 속에서 2010년 개교 54주년을 맞이한 대구대학교는 새로운 비전을 내놓았다. 바로 ‘학생이 행복한 대학’이라는 선언이었다. 이는 대학 교육의 중심을 취업률이나 외형적 지표에서 학생의 성장과 삶의 만족으로 온전히 되돌리겠다는 의지였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대구대학교 교육혁신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대구대학교는 교육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수업과 학사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며 학생들의 배움과 생활 전반을 깊이 있게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또한 교육혁신을 뒷받침할 재정



| 대구대학교 개교 54주년 기념식 및 '학생이 행복한 대학' 선포식(2010.5.3.)

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인 첫걸음이었다.

당시 홍덕률 총장은 “지금까지 교수와 행정 중심이던 대학 운영 방식을 학생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학생이 찾아오는 대학, 학생을 위한 대학으로 나아가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발언은 대학 운영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분명한 방향 제시로서, 곧 대학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정부 재정지원사업 유치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러한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2010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은 대구대학교

가 처음으로 대규모 정부 재정지원을 받은 사례로, 이후 이어질 교육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8월에는 교원 양성 기관 평가에서 사범대학이 A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는 비수도권 사립대학 가운데 유일한 성과로, 대구대학교가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2013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으로 더욱 탄력을 받았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된 대구대학교는 교육 지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수업과 학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이는 과거 관행적인 대학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끊임없이 개선하는 혁신 주도형 대학으로 거듭났음을 의미한다.

‘사랑·빛·자유’를 현대적 언어로 풀어낸 인재상 ‘DU-HEART’

이처럼 대구대학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세우고, 학생 중심의 체계를 다져나가는 디딤돌로 활용하였다. 2014년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 특성화 사업인 ‘CK 사업’에 4개 사업단이 선정되며 5년간 8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큰 동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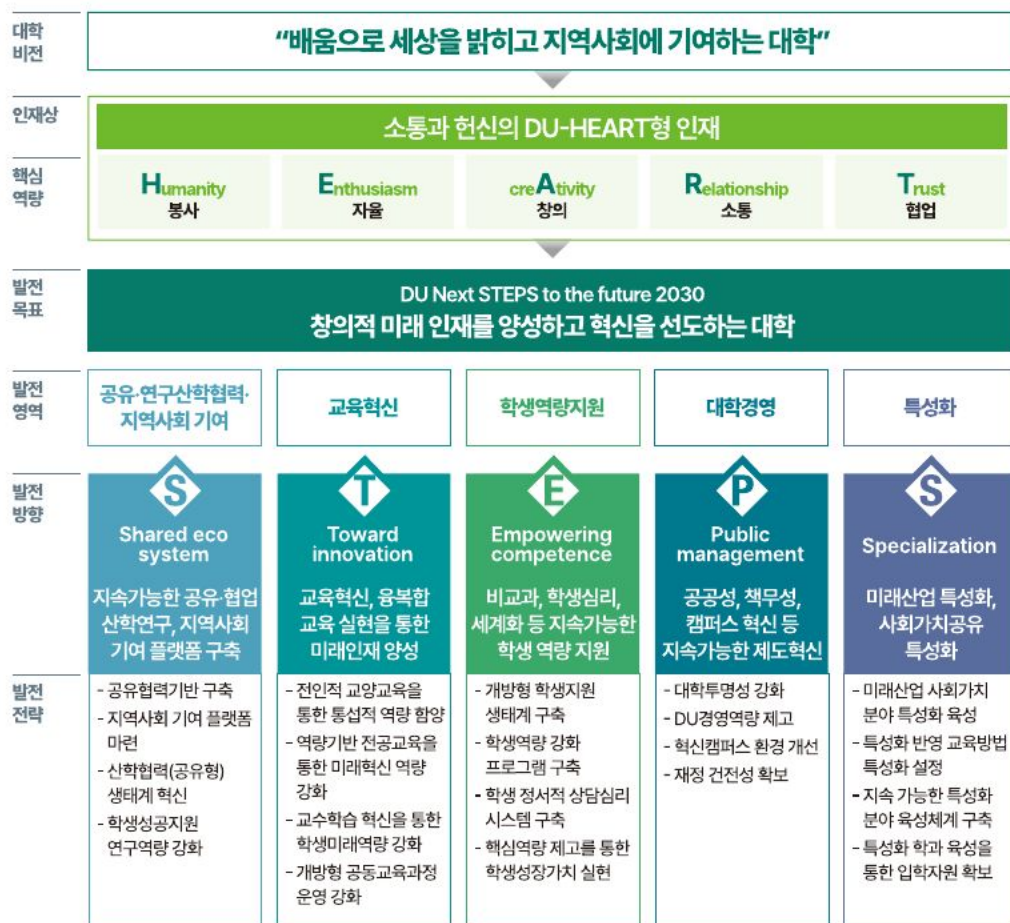
이 시기 대구대학교는 ‘나눔과 헌신을 실천하는 DU-HEART형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세웠다. DU-HEART는 봉사, 자율, 창의, 소통, 협업을 뜻하는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집약한 개념으로, 사회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었다. 이는 ‘사랑·빛·자유’라는 건학정신을 오늘의 교육 언어로 다시 풀어낸 시도였다.

CK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교육 모델은 대학의 유전자로 남아 DU-HEART 인재상을 더 넓은 미래를 향해 확장시켜 나갔다. 대구대학교는 학생의 성장 경로를 단계별로 설계하고 교육과 진로, 삶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DU Next STEPS to the Future 2030’이라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는 교육혁신의 흐름이 특정 시기의 사업에 매몰되지 않고 대학의 장기적인 운영 철학으로 뿌리내리도록 하였다. 현재 박순진 총장 체제에서도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대원칙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대 변화에 맞춰 내용과 방식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의 과정에서 대학은 교육 목표를 재정리하였다. 유능한 전문 직업인, 복지 현장

DU Next STEPS to the future 2030 발전전략 체계도



을 이끄는 인재, 민주 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을 길러내겠다는 세 가지 목표는 대학의 정체성을 오늘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결과이다. 이제 대구대학교 교육의 방향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대구대학교는 ‘소통과 헌신의 DU-HEART 인재’라는 인재상을 새롭게 세웠다.

DU-HEART 인재는 학칙에 명시된 공식적인 인재상으로, 헌신과 소통, 여기에 창의성을 더해 타인과 신뢰를 쌓고 세상을 이롭게 엮어낼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재상은 대학의 교육 전반을 관통하는 기준이자 교육혁신의 시발점이 되었다. 수업과 비교과 활동, 진로 교

육과 학생 지원 체계는 모두 이 인재상을 중심에 두고 다시 설계되었다.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겠다는 대구대학교의 약속은 인재상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었고 이후 이어질 다양한 교육혁신 정책과 제도의 토대가 되었다. 이는 지난 70년 동안 쌓아온 경험 위에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택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DU-HEART 인재 핵심역량 정의

핵심역량	핵심가치	정의	건학이념
봉사	Humanity	타인과 공동체의 어려움에 공감, 효과적 방법으로 진정성 있는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LOVE
자율	Enthusiasm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동기를 명확히 하고, 목표 설정 및 계획의 수립, 실천, 보안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Liberty
창의	creActivity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 분석하고, 창의적, 융복합적 사고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능력	
소통	Relationship	집단/개인의 개별적 특수성을 존중하여 타인 및 타문화에 대해 열린 자세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합의를 도출하는 능력	Light
협업	Trust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공동 목표의 달성을 이루기 위한 정서적, 행위적 능력	

인재상을 구체화하는 전공역량 모델, ‘DU-BASIC’

대학의 인재상 구현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공 교육과정 안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인재상이 교육혁신을 이끄는 기준이라면 전공역량은 그 기준을 수업과 학습으로 실현하는 실천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대구대학교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대학 인재상인 DU-HEART에 부합하는 전공 역량을 체계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대학 차원의 인재상을 각 학과의 교육과정으로 도입하기 위해 학과(부)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나섰다. 각 학과는 먼저 고유의 교육 목표를 재점검하고 해당 학과 단위의 인재상을 정립하였다. 이후 대학 전체의 DU-HEART 핵심역량 체계를 토대로 전공 교육에서 길러야 할 역량을 구체화한 ‘DU-BASIC’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 모델은 학생들이 전공 지식 습득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회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천적 역량까지 갖추도록 체계화하였다. DU-BASIC 모델이 담고 있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 B(Basic): 학문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기초 역량
- A(Adaptation):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변화 적응력
- S(Synergy): 경계를 넘어 서로 협력하고 가치를 융합하는 협력·융합 능력
- I(Issue): 사회적 문제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 인식하는 문제 인식력
- C(Creativity):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의적 사고력

이러한 전공역량 설정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재설계로 이어졌다. 각 교과목은 어떤 전공역량을 기르는지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정비하고 학습 목표 또한 학생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의 성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다.

제5절 대구대학교 캐릭터 ‘두두’가 그리는 대학 브랜드의 내일

‘알리는 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의 홍보 전략 전환

캐릭터는 조직이나 상품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고유한 서사를 통해 정체성과 가치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하는 강력한 매개체이다. 친근함과 신선함을 동시에 갖춘 캐릭터는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가장 전략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대구대학교 역시 캐릭터 ‘두두(DODU)’를 통해 대학 홍보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의 홍보는 정보 전달이라는 기능적 측면에 머물러 있었다. 대구대학교 역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왔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대학 홍보 전략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대구대학교는 ‘우리를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하였다. 홍보를 단순한 광고의 수단이 아닌 대학의 정체성과 이야기(Story)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대학 홍보의 변화를 모색한 첫 시도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2010년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에 폴사인 광고를 진행하고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역 대합실에 캠퍼스를 축소한 디오라마를 설치하였다. 특히 서울역에 설치된 입체 홍보 조형물은 주요 도로나 공공장소에 대형 화면을 설치하던 기존 대학 홍보 방식과는 궤를 달리하는 접근이었다. 캠퍼스의 물리적인 형태를 축소해 옮겨놓음으로써 대중이 대학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 실험적인 시도였다. 이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학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홍보 활동은 지방에 위치한 대학이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수도권 중심의 홍보 경쟁 속에서 눈에 띄기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대학의 존재를 대중의 뇌리에 각인시키고자 했던 도전은 대학의 이야기를 전하는 새로운 홍보 전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 상징인 ‘비호’와 대학 심벌의 변화

서울역에 설치되었던 대구대학교의 디오라마는 약 2년 만에 철수되었으나 이 기간 동안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큰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7년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지방 사립대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홍보는 개별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단발성 활동이 많았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일관되게 추진하기에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두두’라는 대구대학교의 체계적인 캐릭터 마케팅의 탄생은 이러한 실험과 도전 속에서 이루어졌다. 대학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매개체인 캐릭터는 학생과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대학과 이어지는 접점이 되고 있다. 이는 달라진 홍보 방식 속에서 대학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브랜드를 새롭게 찾기 위한 시도였다. 오늘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두두는 바로 대구대학교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목소리로 인식되고 있다.

2019년 대학 홍보를 담당하기 위해 탄생한 두두는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대학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홍보의 중심이 일방적인 전달에서 공감과 소통으로 옮겨 가는 전환점이었다.

대구대학교의 브랜드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현재의 두두가 탄생하기 전 대학의 상징 동물

은 ‘비호(飛虎)’였다. 비호는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된 대학 심볼 속의 호랑이의 모습으로, ‘포효하며 질주하는 호랑이’라는 이름대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대학의 강인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2007년 이후 대구대학교의 심벌은 꿈과 이상을 품고 펼쳐이는 깃발의 형상을 모티브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미래로 확장해 나아가는 대학의 지향점을 상징하였다. 특히 인간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부드러운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사용하고 세 단계로 펼쳐지는 색의 흐름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시각화하였다. 이는 권위와 강인함을 상징하던 과거의 비호에서 점차 열린 소통과 미래 비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브랜드 정체성이 진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대학교 심벌의 변천과정



대학의 얼굴 바꾼 브랜드 혁명, 두두(DODU)의 탄생과 활약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심벌은 점차 새로워졌지만 기존 캐릭터는 변화된 대학 이미지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이에 2019년 시각디자인전공 교수진과 학생들(홍계련·정혜전·전예진·정다휘)의 협업으로 탄생한 두두는 대학의 상징 동물이었던 비호의 2세대 캐릭터였다. ‘두두(DODU)’는 ‘Do the DU(Daegu University)’에서 유래했는데, ‘대구대학교답게’, ‘대구대생답게’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두두는 비호의 정신을 계승하되 훨씬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대학과 학생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좁혔다. 이제 두두는 대학을 상징하는 친근한 마스코트이자 대학의 정책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소통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두두는 1세대 캐릭터와 달리 학생들의 대학 생활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2021년부터 학생중에 두두 캐릭터가 적용되었으며 성탄절과 신년카드 등 일상적인 소통 창구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한 캐릭터 인형, 마스크, 스티커, 문구류, 달력, 열쇠고리 등 다양한 굿즈(Goods)는 물론, 스마트워치 화면까지 제작되어 무료로 배포되었다. 특히 신입생에게 제공되는 ‘신입생 환영 키트’는 두두를 통해 대학에 대한 애착을 높이는 훌륭한 매개체가 되었다. 나아가 각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학과별 두두 캐릭터를 개발하여 전공의 색깔을 담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두두는 구성원들이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는 대학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두두의 영향력은 캠퍼스 밖으로도 확장되었다. 2021년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참여는 많은 관심을 모았다. 당시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열린 세계 최초의 비대면 마라톤 행사 참여를 통해 두두는 도달쭉(대구광역시)을 비롯해 빅토와 리카(대구FC), 단디·뚝디·우디(대구은행), 달딩이(소통파이버), 살비(대구육상경기대회), 블레오페밀리(삼성 라이온즈) 등 지역과 기관을 대표하는 캐릭터들과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며 친근한 대학 이미지를



| 대구대학교 2세대 캐릭터 두두(DODU)



| 두두 굿즈



|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두두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2025년부터 대구대학교는 심벌과 캐릭터를 중심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된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먼저 대구대학교 삼거리에 두두 캐릭터를 결합한 지주형 안내탑을 설치해 대학 방문객에게 친근하고 인상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교내 안내 표지판을 대학 상징색인 녹색으로 통일하여 캠퍼스 전반의 조화를 이뤄내었다. 이는 대학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2026년부터는 대구대학교의 홍보 전략이 정보 전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공감과 이야기를 앞세운 감성 홍보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SNS를 통한 통합 홍보를 강화하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통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두두는 이제 대구대학교의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자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언어로 자리 잡으며 70년의 역사 위에서 새롭게 써 내려가는 대구대학교의 브랜드라는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제2장

미래를 견인하는 대구대학교의 도전

제1절

언어와 시간의 장벽 허문 AI 교육 혁명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은 인류에게 거대한 파동을 남겼다.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믿었던 바둑에서 인공지능(AI)이 승리한 사건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였다. 대구대학교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에서 찾았다. 대구대학교는 AI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나섰다.

2024학년도부터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입된 'AI 적응형 학습 플랫폼'은 교육 현장의 문법을 바꾸었다. 수학과 과학, 국어와 영어부터 의학, 소프트웨어, 경영과 회계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모든 전공 영역에서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AI가 실시간으로 제시하는 문제와 해설을 통해 기초부터 심화 개념까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적응형 과정'을 통해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 학습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2025년 9월부터는 생성형 AI 기술이 탑재된 'AI 도우미' 챗봇이 학사, 입시, 유학 상담을 주 말을 포함해 24시간 도맡기 시작하였다. 교내 규정과 공지는 물론, 이미지와 영상 자료까지 학



| 대구대학교 삼거리에 설치된 안내탑

습하여 복잡한 질문에도 정확하게 응답한다. 가장 큰 변화는 언어의 문턱을 없앴다는 점이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다국어 기능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교수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여기에 입학 예정자와 학부모까지 포괄한 상담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대학의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쉽 없는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

2026년부터 캠퍼스는 AI와 인간이 협업하는 학습 공동체로 진화한다.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된 'AI 조교'가 강의 자료와 수업 내용을 학습해 학생들의 질문에 즉각 답하고 수업 전후의 피드백과 토론을 지원한다. 이는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참여 중심의 AI 학습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구대학교는 챗지피티(ChatGPT), 클로드(Claude), 제미니(Gemini),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최신 생성형 AI 플랫폼을 전 구성원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AI와 함께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하는 미래 인재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대구대학교의 이러한 노력은 미래 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이며 대학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한 또 하나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대학의 체질을 개선한 LINC와 ACE 사업

2012년, 대구대학교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을 통해 대학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핵심 비전은 'NEO(New Ecosystem for the Other 90%)'로, '나머지 90 퍼센트를 위한 새로운 생태계'를 의미한다. 이는 대기업과 이공계 중심의 산학협력이라는 기존의 공식을 과감히 탈피해 중소기업은 물론 인문사회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며 대학과 지역 산업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전국 대학가의 시선이 쏠린 파격적인 시도였다.

2017년 LINC+ 사업 선정은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켰다. 대학은 'NEO 집중학기제'를 도입하고 'NEO 교육이수체계'와 'NEO 기술·지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교수들의 지역

사회와 산업체 지원 활동이 확대되었고 학생들은 수업과 현장을 오가며 실무 경험을 체득하는 현장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산학협력의 핵심은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에 있다. 대구대학교는 이를 위해 창의 설계에서 출발해 디자인 사고, 캡스톤 디자인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세스를 교육과정에 옮겨 놓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고방식과 협업 능력을 체득함으로써 학생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학습자로 거듭나고 있다.

2017년에는 LINC+와 더불어 대학 교육혁신의 또 다른 축인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도 선정되었다. ACE+ 사업은 전공과 교양을 아우르는 학부 교육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다. 대구대학교는 '교육 클러스터 중심의 융합교육 플랫폼'을 전면내 세웠다. 전통적인 학사구조의 벽을 허물고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열린 융합 전공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경직된 조직 구조를 완화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기반을 마련해 교육 내용과 방식을 다각화하며 대학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2022년 선정된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은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성과를 확산하고 완성하는 단계였다. 전국 규모의 학술제와 공모전에 참여하여 대학의 교육 역량을 입증하고 공유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 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제3절 SW산업 인재 양성의 거점,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

교수도, 교재도, 학비도 없는 '에콜42'의 교육혁신

정부는 미래 대학교육에 대비해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교육 과정 혁신과 산업 수요 연계를 중심으로 SW중심대학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에 2023년 11월 13일

대구대학교에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 인재 양성의 새로운 거점이 들어섰다.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 에콜(Ecole)42 경산'이 그 주인공이다.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과거 대학 도서관 자유열람관으로 쓰이던 자리에 들어섰다. 대구대학교는 미래 산업 수요를 대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이라는 장기적 비전 실현을 위해 기존 자유열람관 기능을 창과도서관 5층으로 이전하였다. 일부 재학생들의 열람 공간 축소에 대한 우려와 반발도 제기되었지만 대학 본부는 공간 전환을 통해 이곳을 미래 기술을 창조하는 디지털 전초기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였다.

현재 이곳은 420대의 고성능 PC가 설치된 교육 공간과 휴게실, 회의실을 갖춘 지상 3층 규모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소로 거듭나 매년 200명의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현장이 되었다.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교육 방식은 교수도, 교재도, 학비도 없는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인 '3무(無)' 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프랑스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 모델인 에콜42를 도입한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수행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2년간 진행되는 비학위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동료와 협업하며 실무 역량을 극대화한다.

지역 산업의 든든한 엔진이 될 실무 역량 갖춘 SW인재 양성

2024년 3월 14일에는 대학과 (재)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통합하는 플랫폼으로 발돋움하였다. 양 기관은 취업과 창업 특강, 박람회, 기업 설명회 등을 공동 운영하고 대학의 창업 지원단과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해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 공간과 시설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을 중심으로 세미나와 경진대회, 해커톤, 특강을 비롯해 채용 박람회와 기업 연계 행사 등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실무 중심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 교육생들이 대학 내 주거와 보건, 체육 시설 등 모든 인프라를 이용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학습과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는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녹아들고 산업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탄탄한 징검다리를 놓고 있는 셈이다.



|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 개소(2023.11.13.)



| (재)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와 업무협약 체결(2024.3.14.)



| 경산이노베이션 DAY(2024.10.4)

지역 대학들과의 소통도 활성화하였다. 2024년 10월 4일 열린 '경산이노베이션 DAY'에는 대구대,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등 4개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앞서 4월부터 7월 까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와 알고리즘 설계 등을 교육하는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 보조 강좌를 수료한 학생들과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인재 17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이러한 행보는 대학의 공간과 자원을 소프트웨어 중심 산업과 실무 교육으로 연결하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산업 현장의 빠른 변화,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대구대학교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제4절

AI·SW 융합 교육의 심장 깨운 SW중심대학 사업

대학의 교육구조를 AI로 재설계한 새로운 교육 생태계

정부는 미래 대학교육에 대비해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지원해 왔다. 이에 미래 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2025 SW중심대학' 사업에 대구대학교가 최종 이름을 올렸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교육혁신이라는 국가 정책에 대구대학교가 부응한 성과였다.

대구대학교는 2024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최대 8년간 약 19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를 발판 삼아 대학은 전공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학문 분야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SW 융합 교육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를 위해 대구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 학생까지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W중심대학 사업은 대학 교육의 중심을 소프트웨어로 옮기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길러 산업 현장에 연결하는 국가 핵심 사업이다. 대구대학교는 '기업이 설계하고 학생이 완성하는 AI 융합 교육 중심 New Eco-system 선도대학'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산·학 수요자의 심장을 춤추게 하는 AI-Bilingual SW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대구대학교는 △전 계열을 아우르는 AI·SW 융합 교육 확산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설계 △학생 맞춤형 전공 설계를 세 축으로 교육 생태계를 재편한다. 기업과 지역사회,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 현장과 실무 현장의 간극을 좁혀나가고자 하였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학사 구조부터 과감히 다듬어 나갔다. SW융합대학 내에 'SW자율전공학부'와 'AI+NX학부'를 신설하여 신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각 단과대학에는 'X+AI 융합심화전공'을 도입해 인문, 사회, 예술 등 전 분야의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AI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기업이 교육 내용을 직접 설계하는 '산업체 SW 자기설계전공'을 운영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역량에 맞춰 전공을 설계하고 기업은 인재 양성 단계부터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 SW중심대학사업단 개소(2025.9.12)

핵심적인 교육혁신 모델로 'DANCE with DU' 플랫폼을 제시해 기초 교육부터 전공 교육, 융합 교육, 가치 확산까지 이어지는 4단계 구조를 갖추었다. 이를 통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AI·SW 기초 교육을 의무화하고 다학제 융합 캡스톤디자인을 확대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도도 함께 운영해 전공과 학문 전반에 AI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목할 계획이다.

SW중심대학 사업은 대구대학교의 70년 교육역량을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방향을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이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가 일상이 된 시대에 대학이 어떤 인재를 길러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되고 있다.

SW중심대학사업단 출범과 네이버클라우드(주)와의 협력

2025년 9월 12일 대구대학교 경산 캠퍼스 IT·공과대학에서 'SW중심대학사업단'이 문을 열었다. 사업단 개소는 사업 선정 이후 추진해 온 AI·SW 융합 교육 구상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였다.

SW중심대학사업단은 '기업이 설계하고 학생이 완성하는 AI 융합 교육 중심의 새로운 교육 생태계'라는 비전 아래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과정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갔다. 이를 위해 엔피에스, 오션라이트AI, 클레오오디언스, 네오스텍, 스마트솔루션, 허브멤,

하이보, 미디어코드씨앤씨, 더씨앗, 넥사 등 10개 기업과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기업은 교육 과정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고 학생들은 기업이 던진 실제 산업 과제를 해결하며 학습한다. 강의실의 이론이 산업 현장의 실무로 곧장 연결되는 교육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2025년 10월 29일에는 국내 대표 클라우드 기업인 네이버클라우드(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클라우드와 AI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클라우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산학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클라우드 인프라와 기술 지원, MSP 기반의 실무형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구대학교는 네이버클라우드(주)와 AI 엔지니어, 개발자, 연구원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화 트랙을 운영하고 산업 흐름을 반영한 맞춤형 실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최신 기술 환경 속에서 학습하고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클라우드(주)의 첨단 기술과 교육 인프라를 학습과정에 공유하게 된다. 네이버클라우드(주)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GPU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프리미엄 MSP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생들이 실제 기업 환경에 가까운 조건에서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구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이처럼 혁신적이고 견고한 교육 생태계 위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SW중심대학사업단 혁신 성과

Hecto-Kilo Innovation		Deca Innovation	
AI-Bilingual SW인재 양성 2,500명	지역 AI-SW 교육수혜 2,000명	산업체 SW자기설계전공 신설 20개	신기술교과목 (산업체 요구 포함) 개발 50건
대학 AI-SW 기초교육 수강 30,000명	DU-NEXUS 플랫폼 탑재 502건	인턴십 연계 취업률 50%	SW 전공생 취창업률 75%

제5절 현장 중심 반도체 분야 인재의 산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COSS, 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의 핵심은 대학 간, 학과 간 장벽을 허물고 전공에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첨단 분야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구대학교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에 참여해 반도체 분야의 주역이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체계적인 성장 사다리를 놓았다.

교육과정은 소자·공정, 회로·시스템, 시스템·소프트웨어라는 세 갈래 핵심 영역을 축으로 심화전공과 함께 기초부터 전문 단계까지 이어지는 4단계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특히 초급 단계는 일반 과정과 기초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이공계 학생은 물론 비이공계 학생들도 자신의 수준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정규 교과 외에도 인턴십, 기업 탐방, 현장 특강 등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개념도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병행하여 반도체 설계와 개발, 생산뿐 아니라 회로·시스템·소프트웨어 설계까지 아우르는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대학교는 차세대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거점도 마련하였다. 2025년 2월 5일 대구시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에 ‘차세대반도체 교육연구센터’를 개소해 본격적인 현장 중심 교육의 막을 올렸다. 약 822㎡ 규모의 센터는 반도체 설계와 프로그래밍 전용 강의실은 물론, 실제 공정 과정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XR(확장현실) 실습실과 프로젝트 지원 공간을 갖추었다. 이곳은 학생을 위한 집중 교육과 기업 재직자의 기술 역량 강화, 타 대학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한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 반도체 지식 공유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수성알파시티는 제2의 판교를 꿈꾸며 300여 개의 ICT 기업이 집적된 도심형 첨단산업단지, 디지털 산업 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교육과 연구가 산업 현장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센터 개소에 앞서 2024년 9월 박순진 총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와 수성알파시티에 교육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25년 4월 11일 홍준표 시장이 대선 출마를 이유로 시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수성알파시티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구시는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5,510억 원 규모의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 비전에 발맞춰 대구대학교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대학의 AI 관련 학과와 반도체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인력 공급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대구대학교는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X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미래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제3장

학생의 꿈을 응원하는
대구대학교의 약속

제1절

학생 주거 안정 완성한 행복기숙사 라이트하우스

대구대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와 교육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학생 편의를 위한 기숙사 시설부터 정비하였다.

2021년 3월 정문 인근 인문대학 1호관 남측 부지에 재학생 약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 '라이트하우스(Lighthouse)'가 완공되었다. 라이트하우스는 2019년 8월 착공해 지하 1층, 지상 11층, 연면적 약 1만 3,440㎡의 규모로 문을 열었다. 이로써 학생들은 통학 부담을 덜고 캠퍼스 생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학 역시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육 환경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었다.

라이트하우스의 탄생은 대학의 고질적인 기숙사 수용 여건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지리적 특성상 비통학권 학생 비율은 높은 반면 기존 기숙사 수용률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해 상당수 학생이 학교 인근 원룸에 거주해야 하였다. 더욱이 대학이 글로벌 캠퍼스로 성장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거처 마련도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대구대학교는 기숙사 증축을 결정하게 되었다.



대구대학교 행복기숙사 라이트하우스 |

기숙사 증축 사업은 재정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모델이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대학 교비를 함께 활용해 추진되었으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법인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관리를 맡고 있다.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원리금을 재단에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라이트하우스는 기숙사동과 편의시설동으로 이루어졌다. 기숙사동은 지하 1층 설비공간, 지상 1층부터 11층까지 사생실과 편의 공간으로 각각 배치되었다. 사생실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2인실(총 307실) 중심으로 구성되어 독립성과 유대감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편의시설은 지상1~2층에 배치되어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이 열리는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입주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제2절

캠퍼스 낭만과 학생 복지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정비

학내 편의시설 재정비로 ‘학생이 행복한 캠퍼스’ 실현 노력

어느 대학이나 학생들의 추억이 서린 교내 식당이나 음식이 있기 마련이다. 대구대학교에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조금 더 특별한 곳이 있다. 대구의 대표 외식 브랜드이자 영남권은 물론 세종과 인천,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각지로 뻗어 나간 ‘미즈 컨테이너’의 본점이 캠퍼스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 공간은 지역 문화와 산업이 태동하는 가능성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대구대학교는 미즈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다양한 시설을 통해 캠퍼스 라이프의 질을 높여왔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에 들이닥친 어려움과 고통이 교내 개인사업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2021년 1학기 이후 옹지관 학생식당의 영업 중



| 대구대학교에 자리한 미즈 컨테이너 본점

단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였고 해당 공간과 연계된 주변 상권들도 타격을 입었다. 캠퍼스 내 편의시설의 축소는 학생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구대학교는 이러한 상황을 일시적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캠퍼스 환경을 설계할 기회로 삼았다. 이후 대학은 학생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신규 매장을 유치하고 시설을 단계적으로 복원하며 학생 생활권의 활력을 되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편의시설의 변화와 회복 과정은 대학이 교육공간인 동시에 학생들의 생활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대구대학교의 편의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으며 앞으로도 캠퍼스 환경 변화의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구대학교는 캠퍼스 규모가 큰 만큼 단과대학별로 편의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캠퍼스 내 편의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내 편의시설(2025년 11월 기준)

위치 구역	시설명
학교 정문	스타벅스, 다이소, 이마트24, 푸드코트 스텔라(소담정, 한식 최선생, 홍대함 바그, 경양식당, DU COFFEE), 김밥과 함께라면, 체력단련장
옹지관	카페테리아(학생식당), 미즈, 201카페, 학생백화점, 대구대 안경원, 대구타운(대학비기념품), 옹지관복사실, 비호사진관
복지관(동편)	학생식당, 버거킹, 이마트24, 그라찌에(카페), 교직원 식당
후생관	CU, 더브릿지(카페), 비호생활관 학생식당 다올, 체력단련장
학교 서문(제1운동장)	녹색향기(꽃집)
과학생명융합대학 3호관	파리바게트, 서브웨이, DU BOOK store
진로취업관	카페이음, 보건진료소
평생교육관	MONEDE(카페)
사회과학 3호관	사회과대학대 매점
IT·공과대학 본부동	DG마트
성산홀 본관	카페ING, 대구은행
향토생활관	세븐일레븐
기숙사 8호관	비호세탁소
교수학습지원관	우편취급국(우체국)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상권 침체는 대학 주변 환경에도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동성로를 비롯한 대구의 주요 상권조차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학가 상권 역시 유동 인구 감소라는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나 대학 주변과 교내 편의시설은 재학생의 캠퍼스 만족도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는 학생들이 대학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 대구대학교는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트렌디한 매장 유치와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캠퍼스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학생 복지를 든든히 채운 천원의 행복 '천원의 아침밥'

고물가로 인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 복지를 위한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대구대학교는 2023년부터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학습과 휴식, 소통이 어우러진 라운지 확대와 두두광장 조성

2026년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다시 오프라인으로'다. 팬데믹이 남긴 비대면의 일상화 속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실제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소유보다 경험을, 온라인의 편리함보다 오프라인이 주는 감각적 만족과 즉각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반영된 결과다. 이러한 흐름은 대학 캠퍼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캠퍼스는 머물고 경험하며 관계를 맺는 생활 공간이다. 대구대학교는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진정성 있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오프라인 공간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체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공간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대학교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머물고 싶은 공간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2011년 글로벌 라운지를 시작으로 대학의 공간이 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진화를 거듭해 왔다. 글로벌 라운지는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내·외국인 학생 간 교류를 돕기 위해 조형예술대학 5호관 1층에 개소하였다.

2017년 ACE+ 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8년 인문대학에 ACE 라운지를 조성하여 학습과 소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2019년 이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계기로



| 사과그루 라운지

각 단과대학 특성과 학생 수요를 반영한 단과대학별 라운지가 순차적으로 조성돼 학생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캠퍼스에 머물며 학습과 휴식,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대구대학교의 라운지 확충은 변화하는 학생 문화에 대응한 공간 혁신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단과대학별 라운지

오픈 연도	위치	라운지명
2011	조형예술대학 5호관	DU글로벌라운지
2017	조형예술대학 5호관	DU Intercultural 라운지(아프리카 라운지)
2018	인문대학	ACE 라운지
2019	도서관	창의융합프라자
	성산홀 15층 DU인권위원회	힐링 라운지
2020	사회과학대학 종합강의동 1층	사과그루 라운지, 글로벌 라운지
	과학생명융합대학 5호관	내추럴 라운지
	공과대학	E-라운지
2021	사회과학대학 2호관 2층	북 카페
	과학생명융합대학 1호관	Light study 라운지
	사범대학 1호관	C-LIFE 라운지
	법·행정대학 1호관	학생휴게공간 라운지
	대명 캠퍼스 간호보건학부	나이팅게일 라운지
	정보통신대학	IT창의융합 라운지
	재활과학대학 1호관 1층	재활과학대학 라운지
	재활과학대학	Re-Happy 라운지, Re-Thera 라운지
	경영대학	BIZ 라운지
2024	도서관	대구대 반도체 오픈 라운지 (DU-Semiconductor Open Lounge)
2025	디자인예술대학	웹툰영상애니메이션학부 라운지
	외국인 기숙사 1층	Global Nexus Lounge

한편, 개교 70주년을 맞아 캠퍼스 공간 정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대구대학교는 2025년 9월 1일 학생 친화적 공간으로 사범대학 3학관 앞에 ‘두두광장’을 개소하였다. 대학의 캐릭터 ‘두두’의 이름을 딴 이 광장은 약 600평 규모의 공간으로, 학생 문화생활 공간 창

출, 안전한 보행자 전용공간 확보,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문화광장,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연계 강화를 위해 조성되었다.

대구대학교의 공간 개선 노력은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누리는 모든 감각과 경험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 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돼 대구대학교 캠퍼스 환경을 설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2025년 새롭게 조성한 두두광장 |

제3절

대구대학교의 지하철 유치에 위한 노력과 유산

시민·구성원 함께한 지하철 1,2호선 연결 위한 이어달리기 대회

대구대학교는 지역의 타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캠퍼스 인근에 지하철역이 없는 여건은 신입생 모집은 물론 재학생의 소속감과 정주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박한 문제였다. 대구대학교에 있어 지하철 유치는 대학의 미래와 생존을 건 숙원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대구대학교 구성원들의 지하철 유치 의지는 길 위에서 뜨겁게 표출되었다. 대학이 주최하고 총학생회가 주관한 ‘지하철 1,2호선 연결을 위한 이어달리기 대회’는 캠퍼스 접근성이 곧 대학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 속에서 마련된 행사였다.

2007년 처음 시작한 이어달리기 대회는 시민과 대학 구성원 2,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규모를 늘려 각각 4,000여 명이 참가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였다. 이어달리기 대회는 지하철 1호선 안심역과 2호선 영남대역에서 동시에 출발했다. 각기 다른 노선에서 출발해 약 13km에 이르는 구간을 5~6개 코스로 나누어 달리며 대형 깃발을 바통처럼 이어받은 참가자들이 대구대학교 경산 캠퍼스 잔디광장에서 하나로 합류해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단절된 노선이 대구대학교를 향해 연결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드러내는 퍼포먼스였다.

2012년 10월 11일에는 가을 축제의 열기 속에서 다시 한번 지하철 1호선 대구대·진량 연장을 촉구하는 이어달리기가 펼쳐졌다. 이날 40명의 학생 주자들은 안심역을 출발해 청천역, 하양 시내, 대구대 삼거리를 지나 경산 캠퍼스 노천극장에 이르기까지 총 13.9km의 구간을 나누어 달렸다. 2014년 4월 3일에는 1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경산 하양읍에서 출발해 경산 캠퍼스까지 4.3km를 함께 걸으며 대구대·진량 연장의 당위성을 알리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오랜 시간 이어온 지하철 유치 활동은 대구대학교 구성원들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해 왔는지를 보여주었다. 발로 뛰며 알린 지하철 연장의 필요성은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 2009년 열린 대구지하철 1,2호선 연결을 위한 이어달리기 대회

지하철역 유치를 향한 대구대학교의 집념과 해법

2013년, 대구대학교는 지하철 유치를 대학의 최우선 숙원 과제로 공식 선언하였다. 안심역에서 경산시 하양읍까지 이어지는 1호선 연장 사업에 더해, 노선을 경산 캠퍼스와 문천산업단지까지 확장할 경우 산학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하철 연장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6년 대구대·진량 지하철 연장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9년 대학 본부 차원에서 신설된 ‘지하철 유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 제1안(기지 이전): 안심 차량기지를 캠퍼스 내 부지로 이전하여 지하철 역사 유치
- 제2안(노선 조정): 하양역에서 대구대학교를 거쳐 경산산업단지까지 노선 조정·연장
- 제3안(영천 연장): 하양~금호~영천 노선 중 하양역 동서리 일대에 대구대역 신설

2024년 12월 21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이 개통되었다. 안심역에서 대구한의대병원역, 부호역을 거쳐 하양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확정되면서 인근 대학들 사이에서는 역명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최종적으로 대구대학교의 명칭은 역명에 반영되지 못했고 인근 역들은 '부호(호산대·경일대)', '하양(대구가톨릭대)'으로 명칭이 정해졌다. 비록 대구대역이라는 이름을 포함시키지는 못하였지만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대구대학교는 즉각 학생들의 실질적인 통학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하양역 인근에 대학 홍보 시설과 순환버스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학버스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였다. 그 결과 등교 집중 시간대에는 하양역에서 5분 간격으로 통학버스가 운행되었고 경산 시내버스 818번, 818-1번, 989번 노선이 하양역 앞에서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지하철 연장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학생들의 통학 여건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

캠퍼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온 대구대학교는 다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바로 영남대역을 종점으로 하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을 경

산산업단지와 대구대학교까지 연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비록 지하철역 유치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며 학생 중심의 가치를 실현해 온 대구대학교의 미래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제4절

학생 취·창업 지원을 위한 탁월한 역량

단계별 원스톱 취업 지원체계 구축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구대학교는 2022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운영대학으로 선정돼 탁월한 취업 지원 역량을 인정받았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목적은 대학 내에 분산되어 있던 진로 지도와 취업 지원 기능을 하나로 묶어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지역 청년에게까지 원스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거점형 운영대학은 재학생 7,000명 이상 대학 가운데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지원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대구대학교는 2016년부터 이어온 탄탄한 사업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2년과 2024년 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25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에서도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총 3회의 우수 평가를 달성한 대구대학교는 사업 1년 연장 인센티브와 함께 약 20억 원 규모의 추가 국고사업비를 확보하며 지역 청년 고용을 선도하는 안정적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대구대학교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창의력과 실무 능력을 갖춘 HEART형 전문직업인 양성'을 비전으로 삼고 진로·직업 탐색, 진로 선택, 취업 역량 강화, 일 경험 및 취업 연계로 이어지는 단계별(STEP) 원스톱 진로·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학생들이 진로 탐색부터 실제 취업까지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회관 인근에 진로취업관을 설치하였다. 이곳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필두로 취·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단, 학생생활상담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장 상담소 등이



| 2025학년도 하양역 개통 축하 및 개강맞이 학생 환영 행사(2025.3.4.)



| 지역우수기업 초청 취업 페스타(2024.9.24.)

자리해 학생들이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All in Care 경력개발시스템과 비교과 통합 시스템, DU-ISC 통합 상담 시스템을 연계해 원스톱 지원 구조를 완성하고 시공간의 경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현직자 멘토링과 온라인 취업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올인원 취업 지원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대구대학교는 거점형 대학의 이점을 살려 반도체 직무 아카데미와 기업 특화 박람회, 기업 탐방, 현직자 특강 등의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첨단 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대학 교육의 성과를 학생의 실질적인 사회 진출로 연결하는 대구대학교의 핵심 기반이다.

딱딱한 취업 상담실을 벗어나 학생들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이색적인 시도도 눈길을 끈다. 2024년 가을 축제 기간에는 캠핑장 콘셉트의 기업 부스와 이벤트 부스를 운영하며 현장 취업 상담을 진행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영천, 성주, 고령 등 지역의 우수 기업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현직자 멘토링을 받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대구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자체 및 지역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경북 유일 창업중심대학 사업, 선순환 기술창업 벨트 구축

대구대학교가 2025년 2월 '창업중심대학' 중기 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지역 창업 생태계를 이끄는 거점 대학으로서의 독보적인 역량을 증명하며 향후 2년간 사업을 이어가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의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권역별로 창업 지원 역량이 검증된 9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구대학교는 2022년 대구·경북권에서 유일하게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총장 직속 기구로 창업지원단을 설치하고 산하에 창업전략기획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센터 등을 두었다. 이를 통해 창업 지원 조직을 하나로 묶고 산학협력과 연계한 지원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유망 창업자를 효율적으로 돕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예탁결제원, 엔젤클럽, 대경벤처창업성장재단 등 유관기관과 다양한 벤처캐피탈(VC) 등 풍부한 외부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기업 가치 제고부터 전문컨설팅, 투자 연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을 돕는 지원 체계를 완성하였다.

지역과의 밀착을 통한 로컬 창업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구대학교는 2024년 영천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3년간 영천 지역 청년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창업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2년 연속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 창업 특화 교육 사업을 수행하며 80여 명의 장애인 교육생을 배출하는 포용적 창업 지원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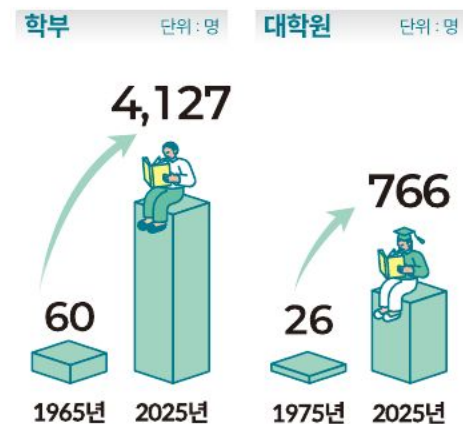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기업 가치 1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한 창업 기업을 배출하는 등 창업 기업의 매출과 고용 성과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투자 유치와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구대학교는 2025년부터 2년간 경북·대구권 선순환 기술창업 벨트 구축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북 RISE 창업 사업과 연계해 지자체, 협력 대학, 혁신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0억 원 규모의 경북 펀드를 조성하고 대학의 원천 기술이 사업화로 직결되는 연구소 기업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부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 기술 개발·창업·재투자가 물 흐르듯 일어나는 지역 기술 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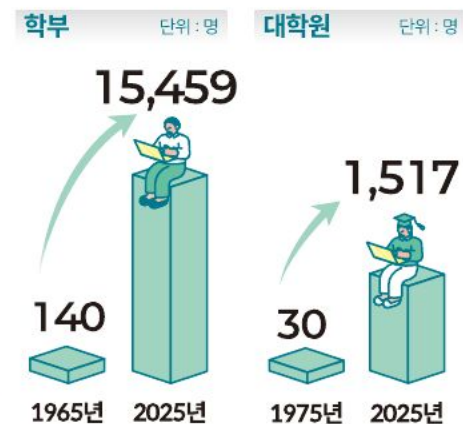
부록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대구대학교의 오늘

입학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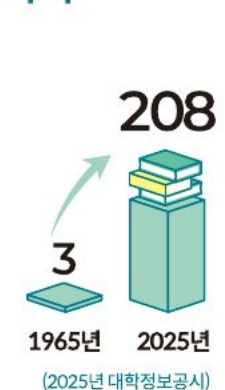
재학생 추이



전임교원 추이



학과 수 추이



기숙사 현황

15개동 비호생활관
1개동 행복기숙사
4,200명 입사 가능 인원

2,180,880m²

교지 보유 면적
(2025학년도 대학자세평가)

395,729m²

교사 보유면적
(2025학년도 대학자세평가)

1,660명

외국인 유학생 수
(2025.4.1 대학정보공시)

2,283억원

대학 재정 규모 교비회계 예산
(2026 기준)

설립자 연보



설립자
성산(淸山)
이영식 목사
(1894~1981)

1894.12.	경상남도 진주에서 출생
1909.09.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화동 옥화교회 부설 영명학교 입학
1912.	경상북도 김천군 유성학교 전학, 김천군 대덕학교 전학 및 졸업
1913.04.	대구계성학교 입학
1919.~1922.	항일독립운동으로 복역(서대문형무소 6개월, 대구형무소 1년 6개월)
1923.04.	일본 코베신학교 입학
1927.03.	대구서문교회 전도사 취임, 목사 안수
1929.01.	대구중앙교회 목사 취임, 계성학교 교목 겸직
1929.09.	대구애락원 교회 목사 취임
1937.	경상북도 의성교회 목사 취임
1938.01.	함경북도 성진중앙교회 목사 취임
1941.09.	만주국 간도성 명월구 제일교회 목사 취임
1943.02.	일본 요코하마 한인교회 목사 취임
1945.09.	대구애생원 한센인교회 설립, 목사 취임
1946.04.	대구맹아학원 및 영광교회 설립, 목사 취임, 대구형무소 교무과장 겸임
1950.09.	성주군 가천지서에 체포구류, 사형집행 직전 대연설, 무죄 석방
1953.05.	대구시 대명동 공동묘지 약 1만평 사용권 취득
1954.	대구광명학교, 대구영화학교 분리 설립
1955.	특수교육연구연합회 회장
1956.05.	한국이공학원 설립
1957.03.	한국사회사업학교 설립 인가, 초대 학장 취임
1958.02.	학교법인 대구맹아학원 설립 인가,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 취임
1961.02.	한국사회사업대학(4년제)으로 승격, 초대 학장 취임

1961.08.	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 초대 회장
1963.08.	문화훈장 국민장(교육부문) 수훈
1964.	경상북도 사회사업연합회장
1965.~1966.	AA 심신장애아 작품전시회 아세아/아프리카(한국/일본 개최)
1965.	범태평양 특수교육 국제회의(장애인 재활회의) 한국 대표
1966.11.	문화훈장 국민장(교육부문) 수훈
1967.	세계인명사전(Who's Who in the World) 등재
1968.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
1969.05.	5·16 민족상 본상(교육부문) 수상
1970.	건국 25주년 기념 국민훈장 모란장/건국훈장 애족장 수훈
1971.01.	광복회 경상북도 지부장
1973.09.	광복회 경상북도 지회장
1975.	광 국제복지문화센터(IWCC) 설립
1976.	영국 캠브리지 세계인명사전(IBC, Cambridge, England) 등재
1977.02.	학교법인 영광학원 학원장
1977.~1981.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지역 희생자 영령 봉환 추진위원회 결성, 5,000여 위의 영령 봉환(망향의동산 안장), 한국인 무명전몰자 위령탑 건립
1980.09.	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 추진위원장 조직회장
1981.12.	광도에서 87세를 일기로 서거
1990.12.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2006.11.	대한민국 청각장애교육대상(추서) [한국청각장애교육 100주년 기념사업회]

초대 총장 연보



초대 총장
창파(滄波)
이 태 영 박사
(1929~1995)

1929.04.	대신동 소재 대구계성학교 교목 사택에서 이영식(李永植) 목사와 박두순(朴斗淳) 여사의 장남으로 출생
1938.	함경북도 성진옥정소학교(城津旭町小學校) 입학
1941.	만주 간도성 연길현 명월구(明月溝)로 이주
1943.	일본 메이지(明治)학원 중학부 편입
1945.	경북중학 편입학
1948.	경북중학 졸업(6년제)
1948.	일본 교토(京都)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수학과 진학
1949.	일본 도쿄공학원대학(東京工学院大学) 공업화학과 입학
1952.10.	일본 고베(神戸) 보육전문학교를 졸업한 고은애(高恩愛) 여사와 결혼
1953.	일본 도쿄공학원대학 공업화학과 졸업
1955.	제1회 아시아맹인복지대회 한국 대표로 참석
1956.	일본에서 귀국, 대구맹아학교 교감으로 부임
1956.	사회복지법인 대구라이트하우스원 원장
1956.	한국이공학원 학감
1957.	한국사회사업학교 학감
1959.	대구광명학교, 대구영화학교 교장
1961.	한국사회사업대학 특수교육과 설치
1961.	한국사회사업대학 학장 취임
1962.	한국사회사업초급대학 학장 취임
1963.12.	어머니 박두순 여사 소천
1964.	한국사회사업대학 학장 재취임
1965.	제3회 범태평양 리해비리테이션 (Rehabilitation) 회의 한국대표
1965.	대한교련산하 특수교육협회 상임이사
1966.	정신지체아특수학교 대구보명학교와 지체부자유아특수학교 대구보건학교 설립

1966.	한국 B.B.S. 경북연맹회장 (중앙연맹 부회장 4년)
1968.	한국정신박약자애호협회 이사
1969.	한국신체장애자재활협회 상임이사
1971.	미국 매나해스신학대학 명예문학박사
1971.	제1회 범태평양지역 특수교육자회의 (하와이) 한국대표
1972.	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장 취임
1973.	한사대학 대학원장 겸임
1974.	한사대학병설전문대학장 겸임
1975.	한국사회사업대학 부설노인복지대학 설립
1977.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지역 한국인 희생자 위령사업회 결성
1977.	평화기원 사이판·티니언위령탑건립회 부회장
1980.	중화민국 태평양문화기금 주최 국제특수교육자회의 한국대표
1980.	보사부 세계장애자의해 한국사업추진위원회 위원
1981.	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특수교육분과 위원장
1981.	국민훈장 동백장(제1823호)
1981.	대구직할시 문화상(교육부문)
1981.12.	부친 성산 이영식 목사 소천
1982.	정신장애아특수학교 대구덕희학교 설립
1982.	대구대학교 초대 총장 취임
1982.	대구광역시 B.B.S. 연맹 회장
1982.	1982년도 세계박애주의자상 (미국 오클라호마주 카운슬러위원회)
1982.	미국 캘리포니아신학대학 명예교육학박사
1983.	영해 3·1독립만세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1983.	학교법인 애광학원 이사장(경북실업전문대학)

1983.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자문위원
1983.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대구·경북지역 고문
1983.	학교법인 영광학원 및 정신지체와 청각장애 특수학교 경북영광학교 설립
1984.	'88 패럴림픽 조직위원
1984.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대구지부 이사장
1984.	광복회 대구·경북지부 고문
1985.	사단법인 국민정신계발원 이사장
1985.	사단법인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이사
1985.	세계생명복지협회 명예회장
1985.	세계평화교육상(국제청년제전 총재)
1986.	대한독립유공자 유족회 고문
1986.	홍의장군 광재우장군기념사업회 고문
1986.	제20회 국제평화제 자문위원
1986.	대구·경북지구 광복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
1986.	매헌 윤봉길 의사 의거 55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
1987.	한국정신박약자애호협회장
1987.	정신지체와 청각장애 특수학교 포항명도학교 설립
1988.	병환으로 치료 요양차 도미
1995.11.	미국에서 숙환으로 소천
1996.08.	국민훈장 무궁화장(제555호) 추서

역대 총장



초대~3대 총장
이태영
1982.03.01. ~ 1993.04.07.



제4대 총장
신상준
1993.04.08. ~ 1994.02.08.



제5대 총장
조기섭
1994.03.01. ~ 1995.08.31.



제9대 총장
이용두
2005.11.01. ~ 2009.10.31.



제10~11대 총장
홍덕률
2009.11.01. ~ 2013.10.31.
2014.07.22. ~ 2018.03.27.



제12대 총장
김상호
2018.06.01. ~ 2022.01.20.



제6대 총장
박윤훈
1996.02.28. ~ 2000.02.16.



제7대 총장
윤덕홍
2000.02.17. ~ 2003.03.06.



제8대 총장
이재규
2003.07.01. ~ 2005.08.15.



제13대 총장
박순진
2022.07.01. ~ 현재

법인 연혁 및 현재 임직원, 산하 학교 현황

•법인 연혁

1946.04.19. 대구맹아학원 설립(원장 이영식 목사 취임)
1953.04.15. 제2대 이사장 박순석 취임
1956.05.01. 한국이공학원 설립
1957.02.01. 제3대 이사장 박순석 취임
1957.03.29. 한국사회사업학교 설립인가
1958.02.04. 재단법인 대구맹아학원 설립인가
1959.03.09. 대구광명학교·대구영화학교 설립인가
1961.02.04. 한국사회사업학교를 한국사회사업대학으로 승격인가
1961.09.02. 제4대 황숙영 이사장 취임
1964.01.18. 학교법인 조직 변경인가(재단법인 대구맹아학원 → 학교법인 영광학원)
1964.10.26. 제5대 이영식 이사장 취임
1964.12.29. 대구광명학교 고등부·대구영화학교 고등부 설치인가
1966.12.26. 대구보명학교·대구보건학교 설립인가
1973.01.09. 한국사회사업대학 대학원 설치인가
1973.02.19. 대구보명학교 및 대구보건학교 중학부 설치인가
1973.12.19. 한국사회사업대학 병설전문학교 설립인가
1977.03.05. 제6대 황중동 이사장 취임
1978.12.28. 전문대학 개편인가(한국사회사업대학 병설 전문학교 → 한국사회사업대학 병설전문대학)
1979.01.19. 한국사회사업대학 부설유치원 설립인가
1979.03.17. 한국사회사업대학 위치 변경인가(경북 경산군 진량면 내리동 산 23)
1979.12.13. 교명 변경인가(한국사회사업대학 → 한사대학)
1980.01.09. 교명 변경인가(한국사회사업대학 병설전문대학 → 한사실업전문대학)
1980.07.10. 대구보명학교 및 대구보건학교 고등부 설치인가
1981.07.31. 종합대학 승격인가(한사대학 → 한사대학교)
1981.10.20. 교명 변경인가(한사대학교 → 대구대학교)
1981.12.26. 전문대학 폐지인가
1982.03.01. 대구대학교 이태영 초대 총장 취임
1982.11.20. 대구덕희학교 설립인가
1986.03.01. 대구대학교 제2대 이태영 총장 취임

1987.12.18. 대구대학교 부설영광유치원 설립인가
1988.01.11. 특수학교 유치부 설치인가
1988.08.27. 대구덕희학교 중학부 설치인가
1988.11.18. 포항명도학교 설립인가
1990.03.01. 대구대학교 제3대 이태영 총장 취임
1991.08.05. 대구덕희학교 고등부 설치인가
1993.04.08. 대구대학교 제4대 신상준 총장 취임
1994.02.22. 재적 임원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
1994.03.11. 제7대 김기동 이사장 취임
1994.03.12. 대구대학교 제5대 조기섭 총장 취임
1994.11.21. 2개 유치원명 변경인가(대구대학교 부설 유치원 및 부설 영광유치원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및 부속 영광유치원)
1995.02.15. 포항명도학교 중학부 설치인가
1995.09.20. 제8대 노명식 이사장 취임
1996.01.16. 제9대 이성대 이사장 취임
1996.02.17. 대구대학교 제6대 박윤흔 총장 취임
1997.05.16. 포항명도학교 고등부 설치인가
1997.07.22. 대구광명학교 유치부 설치인가
2000.02.14. 제10대 이상희 이사장 취임
2000.02.17. 대구대학교 제7대 윤덕홍 총장 취임
2001.11.10. 새길디지털대학교 설치인가
2002.03.01. 새길디지털대학교 이영세 초대 총장 취임
2002.07.09. 교명변경 인가(새길디지털대학교 → 대구사이버대학교)
2003.07.01. 대구대학교 제8대 이재규 총장 취임
2003.12.31. 임원일부 개임
2004.01.27. 제11대 류창우 이사장 취임
2005.11.01. 대구대학교 제9대 이용두 총장 취임
2005.12.27. 대구사이버대학교 이영세 총장 연임
2008.08.06. 제12대 조해녕 이사장 취임
2008.10.31. 대구사이버대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환 인가
2009.03.01. 대구사이버대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환일(개교)
2009.11.01. 대구대학교 제10대 홍덕률 총장 취임

2010.03.01. 대구사이버대학교 이영세 총장 연임
2011.11.01. 교육과학기술부 정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이상희, 양승두, 황수관, 박영선, 함귀용, 이근용, 김홍원)
2012.05.25. 제13대 이상희 이사장 취임
2014.03.14. 재적이사 전원 임원취임 승인 취소
2014.05.28. 임시이사 선임
2014.06.13. 제14대 권혁재 이사장 선출
2014.07.22. 대구대학교 제11대 홍덕률 총장 중임
2014.10.16. 대구사이버대학교 제4대 홍덕률 총장 취임 (대구대학교 총장 겸임)
2015.08.17. 제15대 한부환 이사장 선출

2018.02.14. 제16대 이정우 이사장 취임
2018.06.01. 대구대학교 제12대, 대구사이버대학교 제5대 김상호 총장 취임
2019.04.25. 정이사 선임 및 법인 정상화(송해익, 정대영, 김효신, 박윤흔, 장익현, 김준호, 장길화)
2019.04.25. 제17대 박윤흔 이사장 취임
2019.06.20. 대구사이버대학교 제6대 이근용 총장 취임
2021.03.29. 대구대학교 김상호 총장 해임
2021.06.29. 제18대 장익현 이사장 취임
2022.07.01. 대구대학교 제13대 박순진 총장 취임
2023.05.30. 제19대 김동건 이사장 취임
2023.06.20. 대구사이버대학교 제7대 이근용 총장 중임

•법인 임원 현황

구분	성명	임기	주요 경력
이사장	김동건	2023.04.25.~2027.04.24.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사	장익현	2023.05.25.~2027.05.24.	현) 학교법인 배영학숙 이사
이사	이원복	2023.06.13.~2027.06.12.	현)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이근용	2025.12.07.~2029.12.06.	현)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이사	서용희	2023.10.01.~2027.09.30.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사	남인길	2023.04.25.~2027.04.24.	전) 대구대학교 부총장
이사	정대영	2023.05.25.~2027.05.24.	현) 창원대학교 명예교수
감사	고진국	2023.12.01.~2026.11.30.	현) 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사	이재돈	2023.12.01.~2026.11.30.	전) 대구대학교 부총장

(2026.04.기준)

•법인 산하 설치 및 경영 학교

구분	학교명	설치년도	비고
대학	대구대학교	1956	
	대구사이버대학교	2002	
특수학교	대구광명학교	1946	시각장애
	대구영화학교	1946	청각장애
	대구보명학교	1966	지적장애
	대구보건학교	1966	지체장애
	대구덕희학교	1982	정서장애
	포항명도학교	1988	지적장애
유치원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광유치원	1987	

학교법인 영광학원 역대 이사 및 감사

•이사

구분	성명	재임 기간	비고
정이사(이사장)	박순석	1958.02.04.~1960.09.15.	1958.02.04.~1960.09.15. 이사장 임기
정이사	정태성	1958.02.04.~1962.02.03.	
정이사	최종철	1958.02.04.~1962.02.03.	
정이사	감부열	1958.02.04.~1962.02.03.	
정이사	손인식	1958.02.04.~1960.02.03.	
정이사	임문석	1958.02.04.~1960.02.03.	
정이사	김정오	1958.02.04.~1960.02.03.	
정이사(이사장)	이영식	1958.02.04.~1966.02.12. 1966.06.20~1977.02.08.	1964.10.26.~1977.02.08. 이사장 임기
정이사	임종용	1960.08.02.~1964.08.01. 1964.09.11.~1968.09.10. 1968.12.26~1972.12.25.	
정이사	이태영	1960.08.02.~1964.08.01. 1964.09.11.~1968.09.10. 1968.12.26~1972.12.25. 1973.02.16~1994.02.22.	1994.02.22. 취임 승인 취소
정이사(이사장)	황속영	1960.08.02.~1964.08.01. 1964.09.01.~1968.09.10.	1961.09.02.~1964.08.01. 이사장 임기
정이사	이시분 / 이영현	1962.02.13.~1966.02.12. 1966.06.20~1978.06.17.	개명
정이사	김양순	1962.02.13.~1966.02.12. 1966.06.20.~1974.06.17. 1978.06.18~1994.02.22.	1994.02.22. 취임 승인 취소
정이사(이사장)	황종동	1968.12.26~1972.12.25. 1973.02.16.~1977.02.15. 1977.03.05.~1994.02.22. 1977.03.05.~1994.02.22.	1994.02.22. 취임 승인 취소 1977.03.05.~1994.02.22. 이사장 임기
정이사	박정인	1973.07.26.~1977.07.25. 1977.07.30.~1994.02.22.	1994.02.22. 취임 승인 취소
정이사	손영식	1974.07.10.~1978.07.09.	

구분	성명	재임 기간	비고
정이사	고은애	1977.03.14.~1978.06.17. 1978.06.18~1980.08.04. 1988.04.21~1992.04.20. 1992.04.22~1994.02.22.	1978.06.18~1980.08.04.(사임) 1994.02.22. 취임 승인 취소
정이사	이상곤	1980.06.18~1982.02.17.	
정이사	김태순	1980.10.10.~1990.06.17.	
정이사	문세광	1982.03.27.~1988.04.20.	
정이사	부광식	1989.01.19.~1994.02.22.	1994.02.22. 취임 승인 취소
정이사	이세준	1991.05.16.~1994.02.22.	1994.02.22. 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이사장)	김기동	1994.02.22.~1995.08.22.	1994.03.01.~1995.08.22. 이사장 임기
임시이사	김영하	1994.02.22.~1995.08.22.	
임시이사(이사장)	노명식	1994.02.22.~1995.11.08.	1995.09.20.~1995.11.08. 이사장 임기
임시이사	이명석	1994.02.22.~1995.08.22.	
임시이사	서정제	1994.02.22.~1995.08.22.	
임시이사	김태진	1994.02.22.~1995.08.22.	
임시이사	김규형	1994.02.22.~1995.07.26.	
임시이사	김철수	1995.08.23.~1999.12.31.	
임시이사	박영춘	1995.08.23.~1999.12.31.	
임시이사(이사장)	이성대	1995.08.23.~1999.12.31.	1996.01.16.~1999.12.31. 이사장 임기
임시이사	서영훈	1995.08.23.~1999.12.31.	
임시이사	유종택	1995.08.23.~1999.12.31. 2000.01.01.~2001.12.31.	
임시이사	서석구	1995.08.23.~1999.12.31. 2000.01.01.~2000.09.29.	
임시이사	박일재	1995.11.09.~1999.12.31.	
임시이사(이사장)	이상희	2000.01.01.~2001.12.31. 2002.01.01.~2003.12.31.	2000.02.14.~2001.12.31. / 2002.01.16.~2003.12.31. 이사장 임기
임시이사	도승희	2000.01.01.~2000.09.28.	
임시이사	최달곤	2000.01.01.~2001.12.31. 2002.01.01.~2003.12.31.	
임시이사	박찬석	2000.01.01.~2001.12.31. 2002.01.01.~2003.12.31.	
임시이사	김상태	2000.01.01.~2001.12.31. 2002.01.01.~2003.12.31.	
임시이사	이병렬	2000.09.28.~2002.09.27.	
임시이사	여춘동	2001.03.14.~2003.03.13. 2003.03.21.~2005.03.20.	

구분	성명	재임 기간	비고
임시이사	윤덕홍	2002.01.01~2003.03.06.	
임시이사	김상연	2002.09.28~2004.09.27. 2004.10.03~2006.10.02.	
임시이사	장주호	2003.03.21~2005.03.20. 2005.03.21~2007.03.20. 2007.04.05~2008.06.30.	
임시이사(이사장)	류창우	2004.01.01~2005.12.31. 2006.01.03~2008.01.02. 2008.01.07~2008.06.30.	2004.01.27~2005.12.31. / 2006.01.03~2008.01.02. / 2008.01.07~2008.06.30. 이사장 임기
임시이사	이효태	2004.01.01~2005.12.31.	
임시이사	주보돈	2004.01.01~2005.12.31. 2006.01.03~2008.01.02. 2008.01.07~2008.06.30.	
임시이사	황인보	2004.01.01~2005.12.31. 2006.01.03~2008.01.02. 2008.01.07~2008.06.30.	
임시이사	서정석	2005.03.21~2007.03.20. 2007.04.05~2008.06.30.	
임시이사	이강언	2006.01.03~2008.01.02. 2008.01.07~2008.06.30.	
임시이사	이용두	2006.12.14~2008.06.30.	대구대학교 총장 재임 시(총장 임기만료일: 2008.12.13.) 이사 재임
임시이사(이사장)	조해녕	2008.08.06~2010.08.05.	2008.08.08~2010.08.05. 이사장 임기
임시이사	김성팔	2008.08.06~2010.08.05.	
임시이사	이선우	2008.08.06~2010.08.05.	
임시이사	임승빈	2008.08.06~2010.08.05.	
임시이사	정종섭	2008.08.06~2010.08.05.	
임시이사	정지창	2008.08.06~2010.08.05.	
임시이사	서용규	2008.08.26~2010.08.25.	
정이사(이사장)	이상희	2011.11.01~2014.03.14.	2014.03.14. 취임 승인 취소 2012.05.25~2014.03.14. 이사장 임기
정이사	양승두	2011.11.01~2014.03.14.	2014.03.14. 취임 승인 취소 2015.10.31. 소송으로 지위 회복 2018.02.12.자 사망
정이사	함귀용	2011.11.01~2014.03.14.	2014.03.14. 취임 승인 취소 2015.10.31. 소송으로 지위 회복
정이사	박영선	2011.11.01~2014.03.14.	2014.03.14. 취임 승인 취소 2015.10.31. 소송으로 지위 회복

구분	성명	재임 기간	비고
정이사	이근용	2011.11.01~2014.03.14.	2014.03.14. 취임 승인 취소
정이사	황수관	2011.11.01~2012.12.31.	2012.12.31. 임기 중 사망
임시이사	김홍원	2011.11.01~2012.10.31.	정이사 체제하 임시이사
임시이사	편호범	2012.11.27~2013.07.05.	정이사 체제하 임시이사 2013.07.05. 집행정지
임시이사(이사장)	권혁재	2014.05.28~2015.05.27.	2014.06.13~2015.05.27. 이사장 임기
임시이사	김철호	2014.05.28~2015.05.27.	
임시이사	박명호	2014.05.28~2015.05.27.	
임시이사	박윤흔	2014.05.28~2015.05.27.	
임시이사	이창기	2014.05.28~2015.05.27.	
임시이사	정원기	2014.05.28~2015.05.27.	
임시이사	정일용	2014.05.28~2015.05.27.	
임시이사(이사장)	한부환	2015.07.31~2016.01.30. 2016.01.31~2017.01.30. 2017.01.31~2018.01.30.	2015.08.17~2016.01.30. / 2016.02.25~2017.01.30. / 2017.02.21~2018.01.30. 이사장 임기
임시이사	이춘수	2015.07.31~2016.01.30. 2016.01.31~2016.08.11.	2016.08.11. 사임
임시이사	김유환	2015.07.31~2016.01.30. 2016.01.31~2016.03.17.	2016.03.17. 사임
임시이사	김규원	2015.07.31~2016.01.30. 2016.01.31~2017.01.30. 2017.01.31~2018.01.30.	
임시이사	김사철	2015.07.31~2016.01.30. 2016.01.31~2017.01.30.	
임시이사	김명훈	2015.07.31~2016.01.30. 2016.01.31~2017.01.30.	
임시이사	류승우	2015.07.31~2016.01.30. 2016.01.31~2017.01.30. 2017.01.31~2018.01.30.	
임시이사	권대우	2016.05.18~2017.01.30. 2017.01.31~2018.01.30.	
임시이사	이난영	2017.01.31~2017.07.31	2017.07.31. 사임
임시이사	김조용	2017.02.01~2018.01.30.	
임시이사	안승섭	2017.02.01~2018.01.30.	
임시이사(이사장)	이정우	2018.02.14~2019.02.02.	2018.03.08~2019.02.02. 이사장 임기
임시이사	김영화	2018.02.14~2019.02.02. 2019.02.02~2019.04.24.	

구분	성명	재임 기간	비고
임시이사	김종서	2018.02.14~2019.02.02.	
임시이사	이재동	2018.02.14~2019.02.02. 2019.02.02~2019.04.24.	
임시이사	이승도	2018.02.14~2019.02.02.	
임시이사	조흥식	2018.02.14~2018.03.28.	2018.03.28. 사임
임시이사	황성환	2018.02.14~2019.02.02.	
정이사(이사장)	박윤흔	2019.04.25~2021.11.02.	2019.04.25~2021.06.28. 이사장 임기
정이사	김준호	2019.04.25~2023.04.24.	개방이사
정이사	김효신	2019.04.25~2023.03.21.	2023.03.21. 사임
정이사	송해익	2019.04.25~2023.03.21.	2023.03.21. 사임
정이사	장길화	2019.04.25~2023.04.24.	개방이사
정이사(이사장)	장익현	2019.04.25~2023.04.24. 2023.05.25~2027.05.24.	2021.06.29~2023.04.24. 이사장 임기
정이사	정대영	2019.04.25~2023.04.24. 2023.05.25~2027.05.24.	교육이사
정이사	이근용	2021.12.07~2025.12.06.	박윤흔 이사 후임 / 교육이사
정이사(이사장)	김동건	2023.04.25~2027.04.24.	김준호 이사 후임 / 개방이사 2023.05.30~2027.04.24. 이사장 임기
정이사	남인길	2023.04.25~2027.04.24.	장길화 이사 후임 / 개방이사 / 교육이사
정이사	이원복	2023.06.13~2027.06.12.	김효신 이사 후임 / 교육이사
정이사	서용희	2023.10.01~2027.09.30.	송해익 이사 후임

• 감사

성명	재임 기간	비고
정해원	1958.02.04~1960.02.03. 1960.08.02~1962.08.01.	
이질성	1958.02.04~1960.02.03. 1960.08.02~1962.08.01.	
박정인	1963.07.23~1965.07.22.	
김정식	1963.07.23~1965.07.22.	
박수현	1965.11.22~1967.11.21. 1968.06.20~1972.06.17. 1972.08.09~1979.03.10.	

성명	재임 기간	비고
심익순	1965.11.22~1967.11.21. 1968.06.20~1972.06.17. 1972.08.09~1974.08.08.	
이덕진	1974.08.29~1994.02.22.	1994.02.22. 취임 승인 취소
김태순	1979.04.14~1980.10.10.	
윤근호	1980.11.20~1988.02.07.	
김상창	1988.03.15~1994.02.22.	1994.02.22. 취임 승인 취소
이규복	1994.03.30~1994.10.28. 1994.10.29~1996.10.28. 1996.10.29~1998.10.28. 1998.10.29~2000.10.28. 2000.10.29~2002.10.28. 2002.10.29~2004.10.28. 2004.10.29~2006.10.28.	
이병렬	2003.01.15~2005.01.14. 2005.01.15~2007.01.14. 2007.03.20~2010.03.19. 2010.03.19~2013.03.18.	
주진혁	2007.03.20~2010.03.19. 2010.03.19~2013.03.18.	개방감사
성무용	2014.12.01~2017.11.30.	
안진수	2014.12.01~2017.11.30. 2017.12.01~2020.11.30.	개방감사 2020.11.30 연임, 임기만료
조유제	2017.12.01~2020.11.30.	
이재호	2020.12.01~2023.11.30.	개방감사 / 공인회계사
김덕진	2020.12.01~2023.11.30.	
고진국	2023.12.01~2026.11.30.	개방감사 / 공인회계사
이재돈	2023.12.01~2026.11.30.	

역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

성명	국적	학위수여일	학위명
박현섭	대한민국	1975.06.05.	명예문학박사
사쿠라우찌요시요	일본	1975.06.05.	명예문학박사
다후라이따루	일본	1977.02.12.	명예문학박사
올린피오	미국	1977.03.12.	명예문학박사
이방자	대한민국	1978.02.25.	명예문학박사
이마니시다까오	일본	1980.02.23.	명예문학박사
다가하시 세미기	일본	1981.02.21.	명예문학박사
소지사브리	일본	1982.03.04.	명예문학박사
윌리엄.S	미국	1982.08.31.	명예행정학박사
이동호	대한민국	1983.02.26.	명예행정학박사
세키네분 노스케	일본	1983.02.26.	명예철학박사
조항록	대한민국	1983.10.08.	명예철학박사
장동환	대한민국	1985.02.16.	명예철학박사
니시무라 호쇼	일본	1986.08.30.	명예철학박사
서경보	대한민국	1987.08.29.	명예철학박사
안준생	대한민국	1988.02.27.	명예행정학박사
무라이겐지	일본	1988.08.27.	명예문학박사
송기복	일본	1989.02.25.	명예문학박사
김상연	대한민국	1997.02.21.	명예경영학박사
김중위	대한민국	1997.08.22.	명예행정학박사
조일목	대한민국	1998.02.20.	명예이학박사
김용준	대한민국	1998.02.20.	명예법학박사
마이클 알.드랜드	미국	1998.07.01.	명예문학박사
배연창	대한민국	1998.07.21.	명예문학박사
박용관	대한민국	1998.07.21.	명예경영학박사
최송화	대한민국	1998.07.21.	명예법학박사
하마나토시아끼	일본	1999.02.19.	명예법학박사
사카에데라카토	일본	1999.02.19.	명예법학박사
김정수	대한민국	1999.02.19.	명예법학박사
곽예순	대한민국	1999.02.19.	명예철학박사
에구사 야스히코	일본	1999.08.20.	명예철학박사
이상규	대한민국	1999.08.20.	명예법학박사
신낙균	대한민국	1999.08.20.	명예문학박사
박세직	대한민국	2000.02.16.	명예법학박사
이승환	대한민국	2000.02.16.	명예법학박사
손경호	대한민국	2002.01.24.	명예행정학박사
오웅진	대한민국	2002.01.24.	명예철학박사

성명	국적	학위수여일	학위명
오세경	대한민국	2003.02.21.	명예법학박사
후지토 타쓰노부	일본	2003.08.22.	명예교육학박사
후루가와가즈오	일본	2005.02.18.	명예공학박사
나가이께에이기찌	일본	2005.02.18.	명예교육학박사
진우석	대한민국	2005.02.18.	명예경영학박사
차현직	대한민국	2006.02.17.	명예교육학박사
이의근	대한민국	2006.04.04.	명예철학박사
강영신	대한민국	2007.02.23.	명예철학박사
이철우	대한민국	2007.08.17.	명예경영학박사
이재하	대한민국	2008.02.22.	명예경영학박사
미야타료헤이	일본	2009.02.20.	명예조형예술학박사
정해걸	대한민국	2009.02.20.	명예행정학박사
정태용	대한민국	2009.08.21.	명예법학박사
정하균	대한민국	2010.08.20.	명예법학박사
김영석	대한민국	2011.02.18.	명예행정학박사
박위근	대한민국	2011.08.19.	명예철학박사
윤성식	대한민국	2011.08.19.	명예경영학박사
여운재	대한민국	2012.02.17.	명예철학박사
이상효	대한민국	2012.02.17.	명예행정학박사
박홍수	대한민국	2012.02.17.	명예관광경영학박사
이용택	대한민국	2013.05.06.	명예행정학박사
조성철	대한민국	2013.05.06.	명예철학박사
김석주	미국	2015.02.27.	명예경영학박사
오야가즈아끼	일본	2015.02.27.	명예공학박사
시나 이치로	일본	2016.02.19.	명예경제학박사
진영환	대한민국	2017.08.25.	명예경영학박사
정영만	대한민국	2017.08.25.	명예농학박사
안 칼슨	덴마크	2017.10.27.	명예교육학박사
이용수	대한민국	2018.05.30.	명예철학박사
우상현	대한민국	2019.02.22.	명예이학박사
최계희	대한민국	2019.02.22.	명예경영학박사
이명호	대한민국	2019.08.23.	명예이학박사
김은호	대한민국	2019.08.23.	명예경영학박사
이옥비	대한민국	2020.02.21.	명예문학박사
최미화	대한민국	2020.08.21.	명예철학박사
진덕수	대한민국	2021.02.19.	명예경영학박사
김태오	대한민국	2021.08.20.	명예철학박사
하봉수	대한민국	2021.08.20.	명예경영학박사
최기문	대한민국	2021.12.22.	명예철학박사
우대일	대한민국	2024.02.23.	명예경영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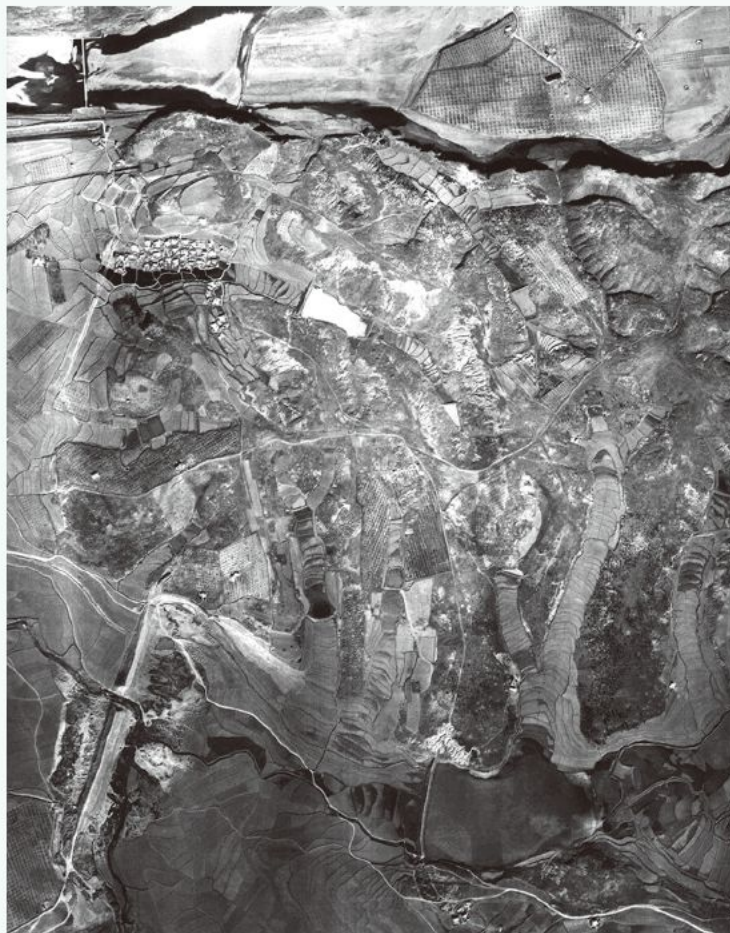
하늘에서 본 대구대학교 캠퍼스의 변화

경산 캠퍼스

1954년

한국전쟁 직후 논밭만이 자리한 드넓은 진량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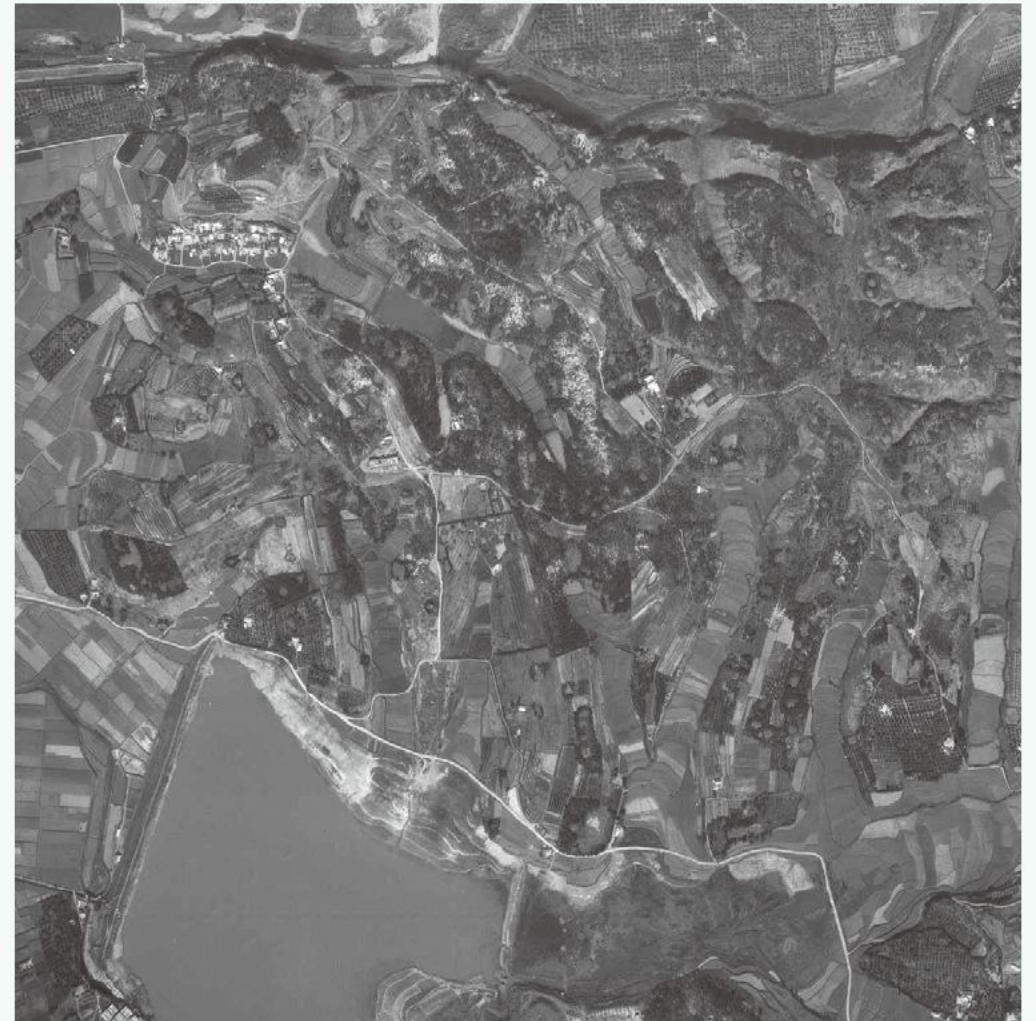
1971년 경산 캠퍼스 부지를 매입하기 이전인 한국전쟁 직후의 황량한 진량벌과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문천지에는 드넓은 논밭만이 자리하고 있다. 북쪽에서 유유히 흐르는 금호강 줄기만이 이곳이 미래의 경산 캠퍼스 부지임을 알려 주고 있다.



1978년

모습을 드러낸 문천지와 경산 캠퍼스 1호관 준공

제방공사를 마친 문천지가 보이지만 여전히 농촌의 목가적인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다. 마침내 1978년 10월 10일 경산 캠퍼스 1호관(현 법·행정대학관)이 준공된다. 이듬해인 1979년 3월에는 대학 위치 변경 인가(경북 경산군 진량면 내리 산23번지)를 받게 되고, 1980년 2호관 준공부터 차츰 대학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1982년

문천관 준공으로 본격적인 경산 캠퍼스 시대 개막

경산 캠퍼스 2호관(미술대학관)과 함께 가장 시급한 기숙사 및 문천관(교직원 아파트 및 여학생 기숙사), 입지관(기숙사, 구 내식당)이 1980년 건축되었다. 1981년에는 점자도서관이 개관되었고, 3호관(현 사회과학대학관)이 준공되었다. 격동의 시기임에도 대운동장을 마련하고 문천지 56만평의 수면사용권을 획득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갔다.



1987년

각 단과대학이 세워지고 구성원 위한 학내 시설 점차 완비

1983년 웅장한 중앙도서관 개관을 비롯해 1984년 경상대학(에비슨 기념관) 준공 등 주요 단과대학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학군단, 체육관, 종교교육관, 웅지관(학생회관)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캠퍼스가 조금씩 정비되어가는 모습이다.



1996년

개교 40주년 맞아 종합대학의 면모 확립한 경산 캠퍼스

1996년 개교 40주년을 맞이한 경산 캠퍼스는 비호생활관을 비롯한 다양한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종합대학으로서의 기틀이 다져진 모습이다. 1993년 5월 완공된 본관(성산홀) 앞에는 넓은 광장과 대로가 조성되었고, 학생들이 젊음의 열정을 발산할 제2운동장도 정비되었다.



2009년

2000년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캠퍼스의 큰 변화

새로운 밀레니엄을 지나면서 대학 정문이 개통되었고, 기숙사가 대대적으로 증축되었다. 1999년 공과대학 개관 이후 사범 2관, 사회과학 3관, 미대공예관, 기숙사 8호관이 속속 들어섰다. 또한 헌혈의집, 인조잔디 구장, 비호동산, 중앙도서관 자유열람관, 학생지원센터, 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경북테크노파크 대구대학교 R&BD센터를 개관하였다.



2024년

‘학생이 행복한 대학’에 걸맞은 시설과 미래를 선도하는 인프라 확충

학생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신 기숙사인 향토생활관, 다양한 편의시설이 자리한 복지관 등을 마련하고 10년 만에 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를 잇달아 개관하였다. 정문 앞에는 글로벌6차산업창업문화센터가 등장하였고 북문으로 가는 길에는 드론 교육장, 스마트팜 온실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대명 캠퍼스

1954년

대명동 공동묘지 부지에 삼과 호미로 지어진 대구맹아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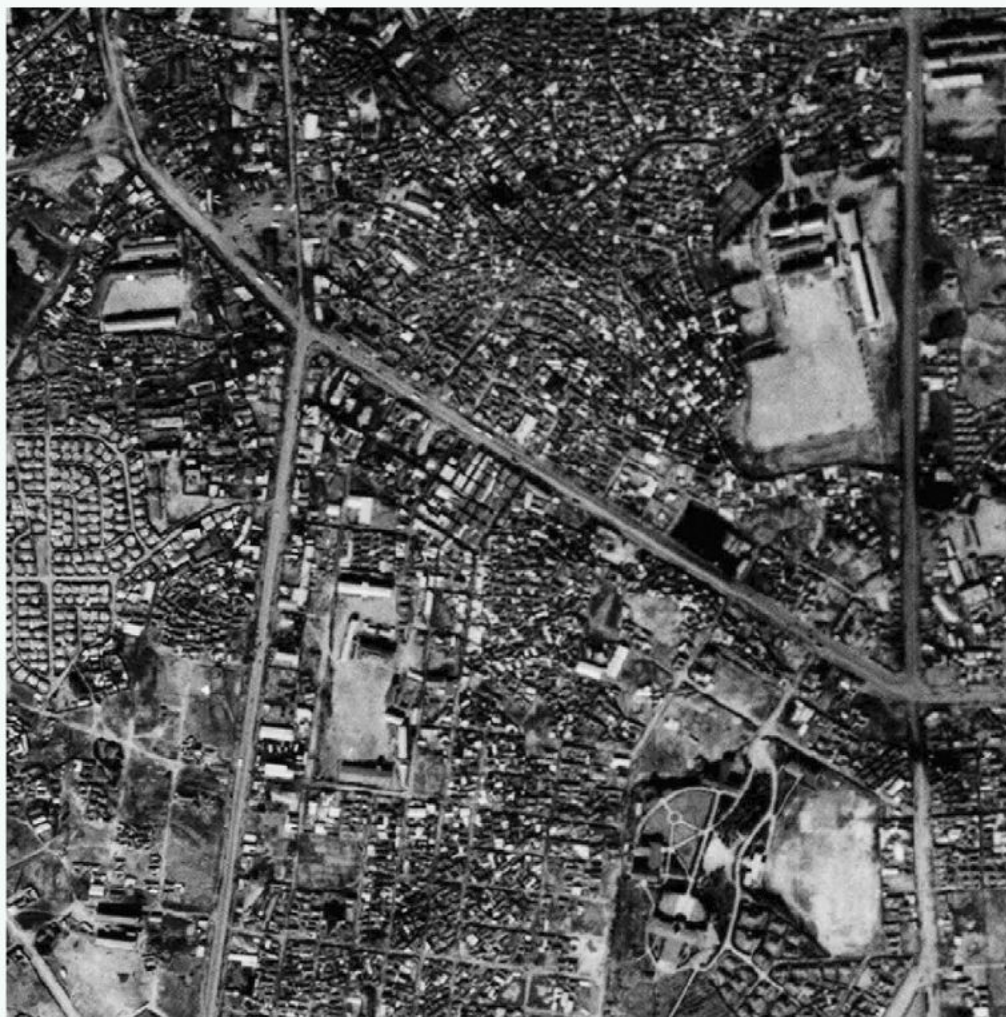
한국전쟁 직후 대구 대명동 일대는 지금과 비교하면 어디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황량해 보인다. 대구시로부터 증여 받은 공동묘지 부지에 세워진 대구대학교 전신인 대구맹아학원의 모습과 저 멀리 민가를 지나면 이전하기 전 영남고등학교 교정이 어렵게 보인다.



1969년

협소한 공간 속에서도 특수교육과 사회복지학의 근간이 된 한국사회사업대학

대명동 일대는 불과 15년 만에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당시 한국사회사업대학은 1962년부터 1964년까지 본관과 강당, 전국 맹농아기술교육센터 등 총 538평 규모의 교사를 완공하였다. 좌측에 교사와 운동장 하나를 두고 도심 속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듯한 캠퍼스의 모습이 보인다.



2008년

대구대학교의 초기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오늘날의 대명 캠퍼스

대구영화학교, 대구광명학교, 대구덕희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보건학교와 함께 학생회관, 도서관, 기숙사, 평생교육원, 재활관, 강당 등이 빼곡하게 들어선 오늘날의 대명 캠퍼스는 대구대학교 초기 성장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대학 연혁



1956~1961 창학기

- 1956.05.01. 한국이공학원 설립(대구시 남구 대명동)
- 1957.03.29. 한국사회사업학교 설립 인가
- 1958.02.04. 재단법인 대구맹아학원 설립
- 1960.03.25. 한국사회사업대학교 제1회 졸업(19명)
- 1960.07.25. 한국사회사업대학교 설립 신청서 제출
- 1961.02.04. 한국사회사업대학교(4년제)으로 승격
- 1961.04.01. 한국사회사업대학교 제2회 졸업(41명)
- 1961.11.25. 제2대 학장 이태영 박사 취임



1962~1971 극복기

- 1962.02.27. 한국사회사업초급대학(2년제)으로 격하
- 1962.02.28. 부설 전국장애인 기술교육센터 설치
- 1963.03.01. 특수교육연구소와 사회복지연구소 설치
- 1964.01.05. <사회사업대학보> 개간
- 1964.01.18. 대구맹아학원을 학교법인 영광학원으로 변경
- 1964.01.21. 한국사회사업대학교(4년제)으로 재설립 인가
- 1964.02.28. 한국사회사업초급대학 제1회 졸업(113명)
- 1965.02.12. 한국사회사업대학교 정규 제1회 졸업(83명)
- 1965.04.01. 일본 청각장애자 교육복지협의회와 자매결연
- 1966.12.26. 대구보명학교(지적장애학생 특수교육기관) 개교
- 1967.04.29. 대구보건학교(지체장애학생 특수교육기관) 개교
- 1967.04.29. 한국사회사업대학교 부속 병원 개원
- 1967.10.06. 학생지도연구소 설치
- 1968.04.29. 부설 임시특수학교교원 단기강습소 설치
- 1970.12.31. 부설 임시초중등교원 양성소 설치
- 1971.12.31. 경산군 진량면에 캠퍼스 부지 매입(약 6만 평)

1972~1981 성장기

- 1973.01.09.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설치 인가
- 1973.06.28. ROTC 설치 인가
- 1973.07.27. 대학출판사 등록
- 1975.01.21.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설치 인가
- 1975.08.06. 대구캠퍼스 사범대 3호관 준공
- 1975.09.01. 부설 노인복지대학 설치
- 1976.01.10. 펜싱부 창단
- 1977.07.08. 새마을운동연구소·노인복지연구소 설치
- 1978.03.04. 한국사회사업대학 부설 노인복지대학원 설치
- 1978.03.28. 대구 캠퍼스 재활관 준공
- 1978.10.10. 경산 캠퍼스 1호관(현 법·행정대학관) 준공
- 1979.03.01. 대학 위치 변경 인가(경북 경산군 진량면 내리리 산 23번지)
- 1979.06.25. 라이트하우스원 및 교육연구원 준공
- 1979.12.13. 한사대학으로 교명 변경
- 1980.04.08. 제145 학생군사교육단 창단
- 1980.06.10. 경산 캠퍼스(미술대학과) 2호관 및 입지관(기숙사) 준공
- 1981.01.23. 경산 캠퍼스 3호관(현 사회과학대학관) 준공
- 1981.02.27. 검도부 창단
- 1981.04.17. 문천지 56만 평 수면사용권 취득
- 1981.06.01. 점자도서관 개관
- 1981.07.31. 한사대학교로 승격 인가
- 1981.10.20. 대구대학교로 교명 변경(6개 단과대학 신설: 인문대·법정대·경상대·사회과학대·이공대·사범대)
- 1981.12.16. 한사실업전문대학 통폐합

1982~1987 도약기

- 1982.01.05. 경산 캠퍼스 일부 이전(법정대학, 경상대학, 이공대학, 사회과학대학)
- 1982.02.27. 육상부 창단
- 1982.03.01. 초대 총장 이태영 박사 취임
- 1982.03.05. <한사대학보>를 <대구대신문>으로 변경
- 1982.07.21. 조정부 창단
- 1982.08.15. 대구대캠퍼스 본관(김덕희 여사 기념관) 준공
- 1983.02.16. 대구캠퍼스 대강당 개관
- 1983.03.18. 대구덕희학교 개교(정서장애학생 특수교육기관)
- 1983.09.08. 농과대학 신설
- 1983.10.29.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설치인가
- 1983.12.05. 경산 캠퍼스 중앙도서관 개관
- 1984.02.27. 씨름부 창단
- 1984.03.01. 미술대학 경산 캠퍼스로 이전
- 1984.08.24. 경산 캠퍼스 응지관(학생회관) 개관
- 1985.02.03. 부설 예천군여성대학 설치(이후 1992년까지 경북 16개 시군 여성대학 설치)
- 1986.03.01. 제2대 총장 이태영 박사 취임
- 1986.03.24. 부설 대구가정복지대학, 산업복지대학 설치
- 1987.02.17. 축구부 및 카누부 창단
- 1987.05.28. 영광교회 헌당 및 이전 감사예배

1988~1995 개혁기

- 1988.02.13. 직원노동조합 결성
- 1988.03.01. 가정대학 경산 캠퍼스로 이전
- 1988.04.13. 교수협의회 창립
- 1989.03.01. 비호생활관 개관(후생관 및 입지학사 1호관)
- 1989.03.10. 포항영도학원 개교(지적장애학생 특수교육기관)
- 1989.10.28. 대구대학교 주소 변경(경북 경산군 진량면 내리리 15번지)
- 1990.03.01. 제3대 총장 이태영 박사 취임
- 1990.11.08.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설치 인가
- 1991.03.01. 자연과학대학관,비호생활관 신애학사 (여학생기숙사) 1호관 신축이전 및 개관, 인문대학 2호관, 미술대학 소성실 2호관 개관
- 1991.11.15.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설치 인가
- 1992.03.01. 농과대학 신관 개관
- 1993.04.08. 제4대 총장 신상준 박사 취임
- 1993.05.01. 성산홀(이명식 목사 기념관) 개관
- 1993.09.01. 경산대학 강당,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동 및 제2학생회관 개관
- 1994.03.01. 비호생활관 입지학사 2호관 (남학생기숙사) 개관
- 1994.03.12. 제5대 총장 조기섭 박사 취임
- 1995.06.14. 사범대학부설 중등교원연수원 개설



1996~2009 응비기

- 1996.02.17. 제6대 총장 박윤흔 박사 취임
- 1996.02.27. 경영·무역·회계, 우수계열 학과로 인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1996.03.01. 야간강좌 경산 캠퍼스 이전
- 1996.11.20. 중앙기기센터 설치
- 1997.06.05. 대구대학교 ATM 초고속 정보통신망 (TGUNet) 개통
- 1997.09.25. 대구대학교 재활의원 개원
- 1997.11.01.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설치 인가
- 1998.02.11. 가상대학 프로그램 실험 운영대학 선정 (교육부)
- 1998.03.01. 비호생활관 입지학사 3호관 및 신애학사 2호관 개관
- 1998.04.20. 청마관(장애인기숙사) 준공
- 1998.05.25. 정보통신관 개관
- 1998.06.13. 영덕연수원 개원
- 1998.10.31. 김도관 개관
- 1999.03.17. 교육부 주관 전국 사범대학 종합평가 최우수대학 인정
- 1999.03.24. 비호생활관 입지학사 5호관 및 신애학사 3호관 신축 개관
- 1999.10.05. 공과대학관 개관
- 1999.12.08. 두뇌한국(BK)21사업 인문사회분야 (특수교육 교육·연구단) 사업단 선정
- 1999.12.08. 사회복지학과 복지모형연구팀 선정
- 2000.02.02. 1999년도 대학종합평가 학부·대학원 종합 우수대학 선정(전체 7개 영역 중 6개 영역 우수평가)
- 2000.02.17. 제7대 총장 윤덕홍 박사 취임
- 2000.11.14. 한국가상캠퍼스 운영위원회 선정
- 2001.01.08. 최초 전자도서관 개발
- 2001.03.30. 대학 연혁자료실 개관
- 2001.09.01. 사범대학 경산 캠퍼스로 이전
- 2001.10.06. BK21사업 2차년도 연차 평가 결과 특수교육 교육·연구단 1위 선정
- 2001.11.02. 최초 보이스북 개발
- 2001.12.10. 2001 장애인 먼저 우수실천단체 대상 수상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 2002.03.02. 대구사이버대학교 개교

- 2002.06.24. 종합연구·강의동 완공
- 2003.02.08. 교원임용시험 최다합격 전국 3위 (교육인적자원부)
- 2003.02.08.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지원총액 전국 14위(교육인적자원부)
- 2003.07.01. 제8대 총장 이재규 박사 취임
- 2004.01.26. 2주기 대학종합평가 학부·대학원 평가인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
- 2004.02.10.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최우수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 2004.04.10. 산학협력단 독립법인화
- 2004.04.20. 점자·음성안내 수목원 개원
- 2004.06.16.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NURI) 5개 사업단 선정(교육인적자원부)
- 2005.07.27. 대구대학교 헌혈의 집 준공 및 개소
- 2005.11.01. 제9대 총장 이용두 박사 취임
- 2006.02.03.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최우수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 2006.02.04. 중등교원 임용시험 207명 합격(지역 최다, 전국 최상위권)
- 2006.02.13.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연관소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중소기업청, 대구광역시청)
- 2006.03.13. 대구대학교 개교 50주년 선포식
- 2006.05.01. 대구대학교 개교 50주년
- 2006.05.12. 국내 최초 현대목칠공예 전시관 개관



- 2006.05.16. 세계대학총장포럼 개최(20여 개 대학 및 150여 명 해외 교류대학 관계자 참석)
- 2006.06.22. 제1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 준공
- 2006.09.22. 중앙도서관 자유열람관 개관
- 2006.10.13. 경북테크노파크 대구대학교 R&DB 센터 개관
- 2006.11.03. 국내 최초 점자출판 박물관 개관
- 2006.11.27. 차세대 통합 정보 통신망 개통
- 2007.01.02. 대구대학교 UI(University Identity) 선포식
- 2007.02.27. 전국 대학 최초 장애학생 위한 초저상버스 도입
- 2007.03.30. 재활과학대학관 경산 캠퍼스 이전 기공식
- 2007.05.21. IT특화연구소, 경북유비쿼터스신기술 연구센터 개소
- 2007.11.21. 대학역사전시관 개관
- 2008.03.01. 비호생활관 9호관 준공 및 신애학사 5호관으로 명칭 변경
- 2008.03.01. 영덕연수원 증축 개원 명칭 변경
- 2008.04.11. 국제장애인실내조정대회 개최 명칭 변경
- 2009.04.08. 재활과학대학 경산 캠퍼스 이전 개관
- 2009.11.01. 제10대 총장 홍덕률 박사 취임
- 2009.11.04. 전국 대학 최초 동문기업 채용 박람회 개최
- 2009.11.15. 국내 대학 최초 장애인운전재활센터 개소



2010~2014 전환기

2010.04.18.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설치	2013.03.08.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0.05.03.	개교 제54주년 기념식 및 ‘학생이 행복한 대학’ 비전선포식	2013.05.05.	산학융합 연구미울 지원사업 선정 (중소기업청)
2010.05.03.	특수교육역사관 개관	2013.05.10.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1차년도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2010.06.10.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2013.05.31.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2010.06.10.	산학연 연계 코디네이션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한국연구재단)	2013.08.15.	BK21플러스 사업 선정(4개 사업단, 교육부)
2010.08.09.	간호학과 30명 증원 및 작업치료학과 신설 승인(교육과학기술부)	2013.10.10.	전국 대학 최초 올해의 대학박물관상 수상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10.08.27.	전국 사범대학 평가 A(최우수)등급 획득 (교육과학기술부)	2013.12.27.	2013학년도 대학기관평가 인증 획득
2010.09.16.	학생행복센터 개소	2014.05.08.	2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LINC사업) 참여대학 선정
2010.12.14.	경산 캠퍼스 종합복지관 개관	2014.06.30.	대학 특성화 사업(CK사업) 선정 (4개 사업단, 16억 원)
2011.03.15.	K-PACE대학(국내 최초 자립형 발달장애인 고등교육기관) 개교	2014.07.22.	제11대 총장 홍덕률 박사 취임
2011.04.28.	향토생활관 개관	2014.08.13.	지식나눔 우수대학 선정(한국장학재단)
2011.04.29.	‘대학의 유산, 한국의 미래다’ 13개 유산 중 ‘대구대 특수교육’ 유산 선정(교수신문)	2014.09.25.	일학습 병행 듀얼 공동훈련센터 개소
2011.06.10.	교원양성 선도 사범대학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2014.09.25.	학생행복 선언식(홍덕률 총장 취임식) 개최
2011.10.10.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14.12.17.	간호교육 인증기관 획득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1.11.01.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이사(7명) 취임 (교육과학기술부)		
2011.12.30.	일자리 창출 유공자 단체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2012.01.20.	그린힐 모범기관 선정(환경부)		
2012.03.06.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평가 최우수대학 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12.03.28.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사업) 지원대학 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12.04.03.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05.09.	대학 공공자전거 구축사업 선정 (행정안전부)		
2012.06.11.	창업보육센터 2호관 확장 개소		
2013.01.22.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평가 우수대학 선정(고용노동부)		



2015~2019 확장기

2015.01.12.	자전거 이용 우수기관(그린힐 모범기관) 선정(환경부)	2016.10.13.	개교 60주년 기념 아시아 대학 총장 포럼 개최(7개국 10개교 총장 참석)
2015.03.18.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평가 5회 연속 최우수대학 선정(국립특수교육원)	2017.02.17.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학사 3,855명, 석사 251명, 박사 31명 등 총 4,137명)
2015.04.01.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 대학 선정 (고용노동부)	2017.02.21.	2017~2019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선정(교육부)
2015.06.08.	인성교육 30 지원사업 선정(교육부)	2017.02.23.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교육 부문 우수상(교육부 장관상) 수상
2015.06.24.	제2회 한국 기금·자산운용 대상 대학기금부문 우수상(교육부 장관상) 수상	2017.04.18.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 5년간 225억 원)
2015.08.28.	IPP 일학습병행제 사업 출범식	2017.05.02.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사업(ACE+사업) 선정(교육부, 약 20억 원)
2015.12.29.	일학습병행제 활성화 공로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2017.05.17.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경상북도)
2016.01.07.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4년 연속 선정 (고용노동부, 9억 7,000만 원)	2017.05.30.	2017년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S등급 획득(중소기업청)
2016.01.25.	2016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중소기업청, 3년간 매년 최대 18억 원)	2017.08.25.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학사 729명, 석사 236명, 박사 33명, 명예박사 3명 등 총 1,001명)
2016.01.28.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대학 선정 (고용노동부, 5년간 최대 25억 원)	2017.12.14.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년 연속)
2016.02.11.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 꿈앳Green 도시 프로젝트 사업 선정(경산시·영천시· 청도군, 3년간 37.5억 원)	2018.02.13.	2018~2020 파란사다리 사업 대구·경북권역 주관대학 선정(교육부)
2016.03.01.	정신건강상담센터,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최우수기관(A등급) 선정(보건복지부)	2018.02.23.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학사 3,546명, 석사 276명, 박사 36명 등 총 3,858명)
2016.03.07.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우수대학 선정(한국장학재단, 4억 7,000만 원)	2018.04.04.	2017년도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대학 성과평가 A등급 획득(한국산업인력공단, 2년 연속)
2016.05.01.	대구대학교 개교 60주년	2018.04.11.	2017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국립특수교육원, 6회 연속)
2016.05.02.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참여대학 선정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04.17.	2017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성과평가 우수등급 획득(중소벤처기업부)
2016.05.05.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선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0억 원)	2018.06.01.	제12대 총장 김상호 박사 취임
2016.05.19.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2.6억 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08.06.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2차년도 수형(교육부, 24.14억 원)
2016.05.31.	대학특성화 사업(CK사업) 4개 사업단 계속지원대상 선정(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8.08.24.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학사 661명, 석사 224명, 박사 31명)
2016.08.19.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학사 757명, 석사 243명, 박사 54명 등 총 1,054명)		
2016.09.18.	대구·경북지역 유일 HACCP 교육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선정(고용노동부)		

2015~2019 확장기	2020~ 지속기	
2018.09.12. 2018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최대 6년간 12억 원)	2020.02.09.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7회 연속 최우수대학 선정 (교육부)	2021.12.31. 2021년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수상
2018.11.02. 한국경제신문사 주관 제5회 한국기금· 자산운용대상 대학부문 우수상 수상	2020.02.12. 2020~202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선정(교육부)	2022.01.04. 202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선정(10년 연속)
2018.11.12. 2019 장애대학생 진로취업지원 거점대학 선정	2020.03.18. 2019년도 재직자 일학습병행 운영대학 성과평가 A등급 2년 연속 획득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02.13. 2022년 창업중심대학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2019.01.17. 2018년도 재직자 일학습병행 운영대학 성과평가 A등급 획득(한국산업인력공단)	2020.07.01.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운영 기관상 수상(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02.23. 2022년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선정(고용노동부, 최대 6년간 45억 원)
2019.01.31. 2017~2019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재인증(교육부)	2020.07.01.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비대면분야 주관기관 협약체결(중소벤처기업부, 6.15억 원)	2022.03.01. 대학혁신지원사업 2주기 사업 수행(3년간, 2022학년도 41.17억 원)
2019.03.01.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5년 연속 선정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7억 원)	2020.08.06. 2020년 실험실특화형창업선도 대학사업 주관연구기관 협약(한국연구재단, 6.48억 원)	2022.04.29. 산학협력단,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 선정(수요맞춤형)
2019.03.01.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행 협약(56.64억 원)	2020.08.14. 201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22.05.23. 2022년 창업중심대학 예비(25억 원), 초기 (29억 원) 창업패키지 주관기관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2019.03.28. LINC+ 2단계사업 선정	2021.02.10. 2020~202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재인증(교육부)	2022.07.01. 제13대 총장 박순진 박사 취임
2019.04.03. 2019년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창업전영역 지원사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2021.02.10.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5년차 평가 우수등급 획득, 우수 3회로 인센티브 1년 추가 수행 (고용노동부, 사업비 6억 원)	2022.12.27.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선정(11년 연속, 11.8억 원)
2019.05.20. 2019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주관기관 선정(5년간 최대 15억 원)	2021.03.01. 대학혁신지원사업 3차년도(2021) 협약 (67.73억 원)	2023.01.25.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1년차 평가 우수등급 획득(고용노동부)
2019.07.22. 2018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성과평가 우수등급 획득(중소벤처기업부)	2021.03.01. 2021년 실험실특화형창업선도 대학사업 주관연구기관 2년 연속 협약(한국연구재단, 11.51억 원)	2023.03.01. 대학혁신지원사업 2주기 2차년도 협약체결(72.38억 원)
2019.08.23.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학사 614명, 석사 229명, 박사 36명, 명예박사 2명)	2021.03.01. 비호생활관 행복기숙사 개관(600명, 2인1실, 11층 규모)	2023.03.07. 2023년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68.26억 원)
2019.09.01.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한국연구재단, 3년간 6억 원)	2021.04.22. 2021년 예비, 초기, 도약 창업패키지 주관기관 협약(중소벤처기업부)	2023.04.13.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3단계 무크선도대학 개별강좌 참여대학 선정(교육부, 7.9억 원)
2019.09.11. 201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선정 (인문교양교육연구소, 최대 6년간 12억 원)	2021.05.01.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1차년도 협약(교육부, 10.86억 원)	2023.07.31. 2022년 일학습병행 재직자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A등급 획득
2019.09.26.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3차년도 협약(교육부, 12.41억 원)	2021.06.24.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3주기) 최종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2023.09.03. 대학혁신지원사업(1유형) 대경강원권 중 유일 2개 유형 A등급 선정
2019.10.23.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3회 연속) 및 명예의 전당 헌액(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21.12.30. 2021년 대학 기관평가인증(3주기) 인증 획득(2022.1.1~2026.12.31)	2023.12.21. 2023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
		2024.02.20. 2024년 고교·대학재학생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선정(4년간 48억 원)
		2024.04.03.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지역거점형) 주관기관 대경권 유일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2년 5억 원)
		2024.05.24. 일학습병행사업단 통합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A등급 달성(6년 연속)
		2024.06.07. 경산시 글로벌 6차 산업창업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수탁 사업 재지정 (3년 11억 원)
		2024.08.05. 대학혁신지원사업(1유형) 2년 연속 2개 유형 A등급 선정
		2024.12.24. 창업중심대학 중기평가 우수(A) 등급 획득
		2025.01.17.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3년차 평가 우수등급 획득(고용노동부)
		2025.02.20. 2025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 선정(고용노동부, 3년 5.88억 원)
		2025.02.24. 2025~2026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학위과정/어학연수과정) 선정 (교육부)
		2025.03.01. 대학혁신지원사업 3주기 1차년도 협약체결(교육부)
		2025.03.01. 2024년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 연차평가 2년 연속 우수등급 획득
		2025.05.22.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년간 국비 150억 원)
		2025.06.16. 2025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0년 연속 선정(2025년 8.35억 원)
		2025.05.29. 2025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HUSS) 선정(참여대학)
		2025.06.16. 2025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0년 연속 선정(2025년 8.35억 원)
		2025.12.31. 교육기부 선도대학 2025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갱신
		2026.02.03.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우수 A등급 획득
		2026.02.26.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인공지능(AI) 분야 선정(5년간 72.5억 원)
		2026.03.09. K-BIC 컨소시엄 경북형 글로벌대학 선정 (4년간 200억 원)

편찬 후기

『대구대학교 70년사』는 개교 70주년과 학교법인 영광학원 설립 8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되었다. 대학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지난 시간을 성찰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를 지닌다. 60년사 발간 이후 우리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대학 환경의 변화, 디지털 전환, 감염병 시대 등 예기치 않은 시대적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은 구성원들의 애교심을 바탕으로 위기를 이겨내며 개교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70년사는 기존 50년사와 60년사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인 스토리텔링 기반의 서술 방식을 도입했다. 연도별 중심의 편년체 서술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읽히는 대학사’를 목표로 삼았다. 이는 대학사를 친숙하고 생생하게 공유하기 위한 열린 시도이자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대학의 역사는 기록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읽히고 기억될 때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된다.

70년사 편찬은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편찬위원회 구성과 함께 편찬 방향과 서술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대학사의 틀을 넘어서는 시도를 모색했다. 특히 건학이념인 ‘사랑·빛·자유’와 교훈인 ‘큰 뜻을 품어라’를 70년사의 기본 구성 원리로 삼아 우리 대학의 역사를 스토리로 만들고자 했다. 이후 영역별 연구위원과 실무위원들이 참여해 자료 수집, 사진 및 기록물 발굴, 원고 집필을 진행했다.

연구위원으로는 김영선 교수(스마트원예학과), 전용숙 교수(자유전공학부), 이가연 교수(경영학부), 백순철 교수(국어교육과), 박광현 교수(문헌정보학과)가 참여했다. 김영선 교수는 제1편 「사랑이 움트다」를, 전용숙 교수와 이가연 교수는 제2편 「빛이 퍼지다」를, 백순철 교수는 제3편 「자유가 춤추다」를, 박광현 교수는 제4편 「큰 뜻으로 나아가다」를 집필했다. 실무위원으로는 황정숙(박물관), 김형진, 김용규, 정정석, 황정숙(도서관), 정수리치 선생님 등 직원들이 참여해 자료 수집과 기록물 정리, 사진 발굴 등 편찬 전반을 지원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원고 작성과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위원들은 집필과 수정 과정을 반복하며 원고의 완성도를 높였고, 읽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의 70년사를 만들어 나갔다. 특히 2025년 12월부터는 집필 원고에 대한 최종 검토와 윤독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사진 자료의 선별과 보완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후 편집과 디자인 과정을 거쳐 『대구대학교 70년사』는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었다. 부디 『대구대학교 70년사』가 우리 대학의 지난 70년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백 년을 상상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구대학교 70년사
1956-2026

대구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위 원 장	양진오
부위원장	백순철
연구위원	김영선, 박광현, 이가연, 전용숙
실무위원	김용규, 김형진, 정수리치, 정정석, 황정숙(도), 황정숙(박)
간 사	박선미, 신선희

발 행 처	대구대학교
발 행 인	박순진
편 집 인	양진오
발 행 일	2026년 6월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TEL. 053.850.5000 FAX. 053.850.5009
제 작	굳디자인연구소(051.796.6600) www.good-d.co.kr

I S B N 978-89-7794-994-2

비매품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